

향토사료 제34집

# 횡성지역에서의 의병전투와 독립운동

김 동 정



횡성문화원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피해를 많이 입혔는데 황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때는 왜구로 침략이 잦았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황성이 왜군의 통로였기에 지역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때에 어떤 사람은 의병이 되어 저항하기도 하였는데 산, 골짜기, 고개, 바위 등이 그 때와 관련된 지명으로 남아 아픈 옛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징용, 징병, 근로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가,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 이것은 힘없는 나라 백성의 비극이었으며 역사의 교훈인 것이다.

국력이 쇠잔한 구한말에 어김없이 일본의 침략 야욕이 뻗치자 우리 지역에도 의병이 일어나 목숨바쳐 저항하였다.

봉복사가 의병 거점으로 일본군에 항전하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강림면 월현리의 민공호 의병장 전적비, 강림리 의병총, 금대리 의병총 등 흔적들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일본군에 맞서 싸웠는지 증명해 주고 있다.

헤이그밀사 사건과 고종황제의 강제퇴위, 갑오경장과 명성황후 시해사건, 그리고 군대 해산을 전후하여 황성에서는 많은 의병들이 일어나,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행위에 맞서 싸웠다.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일제에 대하여 적개심과 애국심만으로는 일본의 막강한 무력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의병장들은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싸웠다.

향토사료 제29집 ‘황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 제30집 ‘황성지역 전투에 참여한 의병장과 봉복사’, 제31집 ‘황성 3·1운동 주도 인물 재조명’을 발간 하였지만 여기에서 누락된 독립운동가와 그 활동을 더 깊이 있게 조명하기 위하여 향토사료 제34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간 집필에 애써주신 저자 김동정 박사께 깊이 감사드리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정신을 이어받고 역사의 교훈으로 이 향토사료가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8년 12월

황성문화원장 박 순 업

## 격 | 려 | 사



황성문화원의 향토사료 제34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성지역에서의 의병전투와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이번 향토사료집은 황성지역에서 일어난 의병활동과 3.1만세 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황성의 애국지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황성 곳곳에서 벌어진 치열한 의병 전투와 황성 청년회의 독립운동 이야기 등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가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황성지역의 의병전투와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고 소중한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김동정 선생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황성은 나라사랑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애국의 고장입니다. 1919년 황성장터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4·1만세운동은 강원도 전역에 항일운동의 불씨를 지폈으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젊은 목숨들이 황성 전역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숭고한 희생을 맞았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 대해 바로 알고 계승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향토사료 34집 ‘황성지역에서의 의병전투와 독립운동’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자료인지 거듭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료집에 모든 열정을 쏟아주신 김동정 선생과 황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황성 군민 모두에게 널리 애용되는 값진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황성문화원과 향토사학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황성군수 한 규 호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주는 『향토사료 제34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새로운 자료 발굴 등을 통하여 역사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노력해 오신 박순업 횡성문화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횡성지역에서의 의병전투와 독립운동”을 주제로 이번 사료집 집필에 힘써 주신 김동정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전국에서 많은 의병활동이 일어났지만 우리 고장 횡성은 특히 독립운동을 위해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강림면 강림리, 서원면 금대리에는 의병활동을 하다가 순국한 의병들을 기리기 위한 의병총이 있으며 지금도 매년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횡성지역의 활발한 의병전투와 독립운동의 자취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낸 이번 『향토사료 제34집』이 우리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료집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횡성군의회회장 변기섭



애국애향의 고장 황성!

내년 3월이 되면 대한민국 온 누리에서 국민들이 일제에 저항하며 만세운동을 펼친 지도 어느 새 100년이 된다. 을미사변(1895년)으로 촉발된 전기의병의 전투에서부터 국내외에서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던 수많은 선열들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황성지역이 있었고 황성인이 있었다.

이 황성 선열들의 의병전투와 독립을 위한 의혈투쟁은 『황성과 3·1운동』(조동걸, 1972), 『황성민족운동사』(강대덕·박정수·최창희, 2003), 『황성인 최양옥 독립을 위한 몸부림』(김동정, 2016), 『황성3·1운동 주도 인물 재조명』(김동정, 2017), 『황성지역전투에 참여한 의병장과 봉복사』(김동정, 2017) 등의 저서와 「한말 황성지역의 항일의병활동」(강대덕, 2005), 「애국지사 김순이 삶 고찰」(박순업, 2012), 「황성의 의병활동과 봉복사」(심철기, 2012) 등의 옥고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의병전투의 중심지가 황성지역이고 수많은 황성인들이 조국과 고향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그동안 이러한 선열들의 항일자취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아직 황성지역의 중요성과 황성인의 기상이 잘 드러나지 않은 선열들의 활동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면서 황성지역이 갖는 의미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의병활동 및 독립운동 개관으로, 초기의병항전을 류인석·이소응 의병부대와 황성지역 전기의병 활동을 중심으로 후기의병항전과 서울진공작전을 전국연합 의병부대의 서울진공작전과 황성지역의 후기의병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중부지방의 3·1운동과 1920년대 무장·의열투쟁을 개관하고 황성지역의 만세운동과 황성인 최양옥의 공명단 우편자동차 습격탈취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황성지역에서 벌어진 의병 전투를 다루었다. 1896년부터 1910년까지 황성에서 벌어진 모든 의병전투를 1896~1907년 전투, 1908년 전투, 1909~1910년 전투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1920년대의 황성 청년회의 민족운동으로 황성 청년회의 설립과 문화운동, 황성노농동맹의 설립과 노동운동, 황성 청년의 독립운동과 형평운동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황성인의 독립운동으로 3·1만세운동(3월 27일 만세운동·4월 1일 만세운동)과 고려혁명당에서 활약한 이동구를 비롯 고광수 등 황성인으로 대외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을 다루었고 상록회에서 활약한 백흥기 등도 다루었다.

부록으로 황성 역사유적 답사기, 일제강점기 황성출신 징용자 명부, 황성출신 독립유공자 명부 등을 게재하여 의병과 독립운동가 그리고 징용되어 혹독한 고통을 받은 분들의 조국애와 향토애를 느끼도록 하였다.

작업은 끝났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게으름과 무지로 조국과 고향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 친 선열들과 유가족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미비하고 미숙한 부분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조국과 고향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황성지역에서의 의병전투와 독립운동에 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순업 문화원장님과 민준식 사무국장님 등 문화원 관계자들과 황성군청·황성군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원활한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강원도민일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8년 12월

애막골에서 필자 단샘(甘泉) 김 동 정

제장 의병활동 및 독립운동 개관 / 13

1. 초기 의병 항전 / 13

- 1) 초기 의병(1895년) 항전과 유생 의병장들 / 13
- 2) 일본정부의 비밀 지령을 받은 미우라 고로 / 15
- 3) 류인석 의병부대 / 20
- 4) 이소응 의병부대 / 23
- 5) 기타 의병부대 / 24
- 6) 황성지역의 전기의병 활동 / 31

2. 후기의병과 서울 진공작전 / 34

- 1) 군대해산과 대일항전 / 34
- 2) 전국연합의병부대의 서울진공작전 / 39
- 3) 황성지역의 후기의병 활동 / 48

3. 중부지방 3·1운동 / 49

- 1) 중부지방 3·1운동의 배경 / 49
- 2) 중부지방 3·1운동의 성격 / 60
- 3) 강원도의 3·1운동 / 74

4. 1920년대의 무장·의열투쟁 / 77

- 1) 1920년대의 무장·의열투쟁 개관 / 77
- 2) 공명단 우편자동차 습격탈취사건 / 82



## 제2장 황성지역에서 벌어진 의병 전투 / 87

1. 1896~1907년 전투 / 87
2. 1908년 전투 / 102
3. 1909~1910년 전투 / 110

## 제3장 1920년대 강원도 황성지역 청년의 민족운동 / 115

1. 황성청년회의 설립과 문화운동의 전개 / 116
2. 황성노동동맹의 설립과 노동운동의 전개 / 124
3. 독립운동과 형평운동의 전개 / 132

## 제4장 황성인의 독립운동 / 143

1. 3·1만세운동 / 143
  - 1) 황성의 3월 27일 만세운동 / 143
  - 2) 황성 4월 1일 만세운동 / 145

## 차 례

### 2. 철원애국단과 탁영재 / 150

- 1) 철원애국단 / 150
- 2) 탁영재 / 155

### 3. 고려혁명당과 황성인 / 156

- 1) 고려혁명당 / 156
- 2) 이동구 / 158
- 3) 고광수 / 172

### 4. 상록회와 백흥기 / 175

- 1) 상록회 / 175
- 2) 백흥기 / 180

## 부 록 / 201

부록1 황성 문화유적 탐방 / 203

부록2 일제강점기 황성출신 징용자 명부 / 225

부록3 황성출신 독립유공자 명부 / 319

## 제1장

# 의병활동 및 독립운동 개관

1. 초기 의병 항전
2. 후기의병과 서울 진공작전
3. 중부지방 3·1운동
4. 1920년대의 무장·의열투쟁







## 제1장 의병활동 및 독립운동 개관

### 1. 초기 의병 항전

#### 1) 초기 의병(1895년) 항전과 유생 의병장들

전후 20년간(1895~1914)에 걸친 한말의 의병항전은 항일 민족운동사상에서 중요한 의의와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항전에서의 유생 의병장들 발자취 또한 실로 컸다. 그러나 자칫하면 유생 의병장들의 전통적인 봉건적 신분성과 그로 인한 사상적 한계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그들이 남겨 놓은 민족 독립운동사상의 공적을 가볍게 평가할 우려도 없지 않다.

한말이라는 시대는 봉건적 조선 양반사회가 전반적으로 해체과정에 들어간 때였고, 또한 이때의 유생 의병장들은 대부분이 민중들과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재야의 애국 유생들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집권 봉건층과 대립되는 측면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재야에서 민중들의 신망도 얻고 있었다. 애국 민중들이 이들의 항일 독립으로의 부르짖음에 호응하여 봉기한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의병운동에 대한 보다 밀도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개항 이래 일제의 침략이 가중되어 가는 가운데 일제와 우리 민족과의 기본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대립의

같은 측면에 서있는 우리 민족 내부의 상대적 모순이 어떻게 지양되어 일제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항일 민족전선으로 성장해 갔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말 항일 의병항전의 각 단계에 있어서 유생 의진(義陣)의 활약과 그 성격 변화를 민족항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유생 의진이 차지하는 한말 의병항전의 위치와 아울러 독립운동사에 차지하는 의의와 한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의병이 봉기하는 1895년은 개항 이래 격심해진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일제에 대한 민족적 모순이 첨예화되는 단계였다. 즉 청일전쟁에서 청국군이 패퇴하던 1894년 말, 동학 농민군은 일본군과 싸워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동학 농민군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체포되어 처형당하였다. 지도자들을 잃고 항일 의식에 불타고 있던 동학 농민군은 산간벽지로 들어가 항전을 벌이면서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으며, 이 동안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격변해 갔다.

청일전쟁 후 일본이 손에 넣은 요동반도를 3국(러시아·독일·프랑스)이 간섭하여 청나라에 반환하게 되자, 민씨일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정부내에는 인아거왜(引俄拒倭)의 기운이 짙어 가고, 민중들의 높아가는 항일의식으로 일본의 침략정책은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국수주의자이며 장주(長州)의 군벌인 육군 중장 미우라 고로(三浦梧樓<sup>1)</sup>)를 주한공사로 임명하였다.

---

1) 미우라 고로(三浦梧樓)는 주한공사로 부임함에 앞서 일본정부에 대하여 “조선을 독립시킬 것인가, 병탄 할 것인가, 일(日)·러(露)가 공동으로 지배할 것인가? 이 3책 가운데 정부의 의도는 어디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 가운데 병탄하겠다는 회답을 비밀리에 받은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관수장군회고록(觀樹將軍回顧錄)』, 동경(東京), 정교사(政教社), 1925, 319쪽 참조).

## 2) 일본정부의 비밀 지령을 받은 미우라 고로

미우라 고로(三浦梧樓)는 서울에 부임하여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를 시해하였으며, 이어 김홍집 친일내각에 의해 11월 15일에 단발령이 공포되었다. 이 두 사건은 누적되어 온 반일감정에 불을 붙여, 1895년 말부터 항일 의병항전은 폭발되어 갔다. 이때 민중들을 항일 의병전선으로 쫓아내려는 주도적 역할을 한 지도층이 재야의 유생 의병장들이었으며, 이들의 호소에 의해 항전이 대중적인 넓은 범위로 확산되어 갔다. 즉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난 후 충청도 보은 지방의 유생 문석봉(文錫鳳)이 곧 “의병을 일으켜 적을 치자!”고 호소하며 제일 먼저



명성황후의 모습

기병하였고<sup>2)</sup> 이러한 항일 의병항전이 광범위한 지방으로 불붙게 되는 것은 단발령 공포 이후였다.

1895년 10월 명성황후 시해 후 성립된 김홍집 친일내각에서는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 사실을 은폐하여 애국 민중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데다가 11월 15일에 다시 단발령을 반포 강행함에 따라, 애국 유생들과 민중들의 반일 감정은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황현(黃玹)은 그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이때의 사실을 “이로부터(단발령 후) 온 나라가 물끓듯하여 사망에서 의병이 일어났다.”<sup>3)</sup>고 기록해 놓고 있

2) 『매천야록』권2, 고종 32년(1895) 을미조.

3) 『매천야록』권2, 고종 32년 을미조.



황현 초상화

다. 단발령 강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인심의 격동은 당시의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여러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차례로 단발을 시행하게 되니 소리내어 울어 차마 끊을 수가 없었다. …… 서울에 머물고 있는 지방 사람들이 단발 소문을 듣고 뿔뿔이 지방으로 달아났다.”<sup>4)</sup>고 하였고, 또 “서울에 머물던 객인이 밖에 나갔다가 잡혀 문득 머리를 깎이니, 머리털을 모두 주워 호주머니에 넣고 통곡을 하면서 성문을 나섰다.”<sup>5)</sup>고 하고, 또한 “이때 신사(紳士)가 소민(小民)과 더불어

단발을 거절하여, 혹은 두문사객(杜門謝客)하고 또한 많이 향읍으로 달아났다.”<sup>6)</sup>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단발령이 민중들에게 미친 영향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에는 당시 팽창되어 있던 조선 민중들의 반일 감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다.

위는 국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상하 관민은 모두 배일열에 끓어 국수(國讐)로 봄으로써, 내지 행상지는 각지에서 폭도(凶徒 : 필자주)들에게 살상되고, 항시(港市)에 있는 자 또한 항상 박해를 받아 일본 정부 인민의 언동은 모두 시기와 불쾌로 받아들임으로써, 권리의 확장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세력 범위의 유지에 겨를이 없는 상태이다.<sup>7)</sup>

4) 김윤식, 『속음청사』권7, 고종 32년 을미 11월조.

5) 『매천야록』권2, 고종 32년 을미조.

6) 정교, 『대한계년사』권2, 고종 32년 을미조.



단발령을 계기로 팽창 폭발한 을미(乙未)의병은,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고”[身體髮膚, 受之父母],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吾頭可斷, 髮不可斷]라는 전통적인 주자학 윤리관에 입각하여 기병하였거니와, 일반 민중들은 단발=김홍집 친일내각=개화(일본화)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의병의 공격 대상이 일본군과 일인 거류민뿐만 아니라 단발을 강요하는 왜관찰사(倭觀察使)·왜군수(倭郡守)였고, 또한 김홍집 내각이 무너질 때 각료들이 모두 참변을 당하게 되는 사실은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정부의 개화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은 개화정책의 이면에 깔려 있는 일본의 침략성을 뚜렷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을 계기로 봉기한 초기 의병 즉 을미의병의 조직과 구성을 보면, 그 지도층은 “인근 읍의 유생이 모두 망건과 도포를 입고 나아갔다”<sup>8)</sup>라고 했듯이 모두가 유생 의병장들이었다. 이들은 학통성(學統性)·향토성(鄉土性)이 짙고, 척사위정의 전통적 보수사상을 가지면서도<sup>9)</sup> 구국항전의 기치를 높이 들어 항일 민족운동으로서의 첫 출발의 길을 닦아 놓게 되었다.

이들 항일 의병 대열의 기본 세력은, “농민이 천·백의 무리를 이루고 모두 의병이라 일컬으며, 심지어는 살아남은 동학 농민군이 얼굴을 바꾸어 따르는 자가 반이나 되



도포 입은 의병장(전해산)의 모습  
(전남 영광·나주 지역 통솔)

7) 『일본외교문서』 제31권 제2책, 449쪽.

8) 『매천야록』권2, 고종 32년 을미조.

9) 조동걸, 「의병운동의 한국민족주의상의 위치」, 『한국 민족운동사 연구』1(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편, 지식산업사, 1986), 16~17쪽.

었다”<sup>10)</sup>라고 한 그대로 일반 농민과 동학농민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국 일반 민중들과 동학농민군은 가중되어 가는 일제의 침략 아래 반외세라는 일제에 대한 민족 모순의 같은 측면에서, 재야의 애국 유생들의 토왜(討倭)의 부르짖음에 호응하여 쫓기하게 되었다.

이처럼 유생 의병장들의 주도 아래 봉기한 초기 의병(1895~1896)의 봉기 상황을 정리해 보면 <표 1> 과 같다.

<표-1> 초기 의병(1895~1896) 봉기 상황표

도별 봉기장소		의병장 이름
충청도	보은	문석봉(文錫鳳)
	제천	류인석(柳麟錫) · 서상렬(徐相烈) · 홍사구(洪思九) · 안승우(安承禹) · 이범직(李範稷)등
	홍천	이설(李悳) · 김복한(金福漢) · 이세영(李世永) · 안병찬(安柄瓚) · 이근주(李根周)
	충주	류인석(柳麟錫) · 주용규(朱庸奎) · 홍사구(洪思九)
	가흥	나시운(羅時雲)
	장호원 북방 이남정~황주~황강	안승우(安承禹) · 홍사구(洪思九)
	안보	이춘영(李春永)
	단양	나시운(羅時雲)
	단양~장회	서상렬(徐相烈)
경상도	문경	이강년(李康季) · 김상태(金尙台)
	금산	허위(許蔦) · 이은찬(李殷瓚) · 조동호(趙東鎬) · 이기하(李起夏)
	안동	김도화(金道和) · 권대일(權玳一) · 권세연(權世淵)
	예안	이만옹(李晩鷹) · 금봉렬(琴鳳烈) · 이만윤(李晩胤) · 이만효(李晩孝) · 김수종(金壽鍾) · 이중두(李中斗) · 이중봉(李中風)
	상주	서상렬(徐相烈)
	함창	이강렬(李康烈)
	진주	노응규(盧應奎) · 정한용(鄭漢鎔)

10) 『매천야록』권2, 건양(建陽) 원년 병신조.

도별 봉기장소		의병장 이름
강원도	춘천	이소응(李昭應) · 류중락(柳重洛)
	횡성	권대형(權大亨)
	원주 안창	안승우(安承禹) · 이춘영(李春永)
	철원	유진규(俞鎭圭)
	강릉~양양	민용호(閔龍鎬)
경기도	여주	이인영(李麟榮) · 심상희(沈相禧)
	지평	이춘영(李春永) · 안승우(安承禹) · 맹영재(孟英宰)
	가평	맹영재(孟英宰) · 김경달(金慶達)
	남한산성	박주영(朴周榮)
평안도	의주	조상학(趙尙學)

자료 : 『매천야록』 · 『일본공사관기록』 · 『한국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간) · 『한국통사(韓國痛史)』 · 『독립운동자공적조서』 · 『한국독립운동지혈사』 · 『허위전집』에 의해 작성.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 의병항전을 주도한 의병장들은 재야에서 신망을 얻고 있던 저명한 유생들로 특히 류인석(柳麟錫) · 이소응(李昭應) · 기우만(奇宇萬) · 허위(許蔭) 등은 당시 유림의 중진들이었다.

또한 초기 유생 의병장 가운데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가장 완강한 척사위 정사상을 부르짖고 있던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계의 문도(門徒)들이었다. 류인석은 이항로의 문인인 류중교(柳重敎)의 종질이며, 이소응은 이항로의 문인인 김평묵(金平默)의 제자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생들이 초기 의병항전의 주류를 이루었다. 또 기우만은 이항로에 필적할 만한 호남의 명유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손자이며, 허위는 영남의 명유인 그의 만형 방산(舫山) 허동훈(許董薰)에게 수학하여 영남에서 그 명망이 높았다.

이들 초기 의병항전의 유생 의병장들은 학문의 연원 계보, 즉 학통을 중심으로 결합하여 항전을 전개하였으나, 전통적 사상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항전을 제약하는 모순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었다. 여기서는 유생 의병장들의 주도 아래 일어난 초기 의병항전 가운데 두드러진 활약을 한 유생

의병장이 거느리는 의병부대의 활약을 개괄하며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두드러진 향전을 전개한 유생 의병장이 거느리는 의병부대로는 충청도 제천을 중심으로 활약한 류인석 의병부대와 춘천을 중심으로 활약한 이소응 의병부대를 들 수 있고, 다음으로는 전라도의 기우만 의병 부대, 그리고 경상도 금산의 허위 의병부대와 기타 민용호·조상학 의병부대의 활약을 들 수 있다.

### 3) 류인석 의병부대

류인석(1842~1915) 의병부대의 활약의 시초는 경기도 지평의 유생 이춘영·안승우의 기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들은 1895년 말 강원도 원주에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모두 성재 류중교의 문하생이었으므로 같은 문하생인 유생 서상렬·주용규·신지수 또한 여기에 호응하여 봉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류인석 의병장 초상

원주에서 충주를 거쳐 제천으로 진출한 이들 의병부대는 안승우의 제의에 따라 유생 가운데 이름이 높은 류인석을 총대장으로 추대하여 의병부대 상호간의 결속과 이를 토대로 한 향전의 새로운 발전을 기도하였다. 당시 류인석의 문하생은 590여 명에 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때 평민 출신의 용장인 김백선(金伯先)이 400여 명의 산포수들을 거느리고 류인석 의병부대로 합류하게 되어, 류인석 의병부대의 전투력은 강화되

게 되었다. 김백선 의병부대가 합류해 올 때 이춘영·안승우가 “장군(김백선)이 이르렀으니 일은 이제 염려할 것 없다”고 기뻐한 것을 보면, 김백선이 거느리고 온 산포수 의병부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던가를 잘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 문경에서 기병한 이강년이 의병들을 거느리고 류인석 부대에 합류하여 유격장(遊擊將)이 되고, 또한 안동의 유생 의병장 권세연도 이들과 손을 잡고 경상도 북부 일대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류인석 의병부대의 활약 무대는 충청도 제천을 중심으로, 충청북도·경상북도·강원도 3도의 경계가 되는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여러 군, 즉 충주·단양·원주·영월·안동·문경을 연결하는 일대였다. 이곳에서 친일 관찰사·친일 군수를 처단하고 조세를 거두어 군량으로 하는 등 이곳 일대를 완전히 지배하는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문경의 조령(鳥嶺)은 천



영남제삼관이라 불리는 문경 새재(鳥嶺)

험의 요지로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내륙 교통의 최요지에 해당되는 곳이었다.

류인석 의병부대의 중군 이춘영과 유격장 이강년 부대는 이 곳 조령을 제압하여 문경의 일본군 주둔소를 공격하여 위력을 떨쳤으나, 영북(嶺北) 안보(安保) 싸움에서 이춘영이 전사함에 따라 안승우가 대신 중군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어서 전개된 충주성 싸움에서는 유생 의병장이 지휘하는 의병부대의 내부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의병부대는 패주하고 만다.

즉, 충주성에 웅거한 일본군 수비대 공격을 담당할 사람은 용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평민 의병장 김백선이었다. 그는 300명의 산포수를 거느리고 충주성을 공



의병장 김백선 묘

격하였다. 김백선은 성문을 뛰어 넘어 문을 열고 부하 산포수 의병들을 성내로 끌어들여 충주성을 점령하고 충청관찰사를 처단하였다. 이어서 북문으로 패주하는 일본군을 추격하여 용전하였으나 의병 수가 부족하였기에, 김백선은 중군장

안승우에게 원병을 요청하였지만 안승우는 원병을 보내지 않았다. 결국 김백선은 수일간의 작전 끝에 중과부적으로 부득이 제천으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격분을 이기지 못한 김백선이 안승우를 목 베려 하자 의병 대장 류인석은 군법으로 김백선을 처단하였다. 평민이 양반을 범했다는 죄목이었다. 이는 당시의 유생 의병장들의 사상적 한계성을 알려주는 사실이며, 동시에 유생을 의병장으로 하는 의병부대의 내부적 모순과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실이라 하겠다. 『기려수필(騎驢隨筆)』의 저자 송상도(宋相燾, 1871~1946)는

대의를 가지고 복수하고자 하는 자가 적을 치지 않고 먼저 장수를 죽여 그 간성을 버리니 제천의 패전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 류인석이 백선을 죽인 것은 나라 사람이 모두 원망하는 것이 되고 있으니 그 허물이 어디 있는 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유생 의병장들의 항전 목표는 반외세인 토왜(討倭)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반외세에 반봉건을 결부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후 류인석 의병부대는 장기럼이 거느리는 관군과의 제천 싸움에서 중군장인 안승우와 종사(從事)인 홍사구를 잃고, 부득이 새로운 의병의 근원지인 평안도·황해도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후 다시 중국 동북부의 요동지방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sup>11)</sup>

#### 4) 이소응 의병부대

다음은 화서 계열인 김평묵의 문인 이소응(1852~1930) 의병부대의 활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896년 1월 춘천 유생 이소응은 수천에 달하는 애국 인사들의 추대를 받아 의병 대장에 올라 춘천에 의병소를 설치하고, 먼저 머리를 깎고 부임하는 춘천부관찰사 조인승(曹寅承)을 처단하여 기세를 올리고, 1월 31일에는 각처로 격문을 발하여 “왜로(倭虜)와 적신이 국모를 역살하고 군부(君父)를 늑체(勒剗)했으니 이를 토벌하기 위해 꺾기자!”고 호소하니, 이에 호응하여 각처에서 꺾기하였다. 그 결과 춘천 의병에 호응한 자가 만 명에 달하였다고 하니, 민중들의 항일의 기세가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다.



이소응 의병장 초상

11) 류인석 의병부대의 활약 참고문헌 : ① 『국역 의암집』 ② 『기려수필』 ③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1(독립유공자 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0) ④ 강재언, 『조선근대사연구』(동경 : 일본평론사, 1970) ⑤ 김의환, 『의병운동사』(박영사, 1976) ⑥ 김의환, 「의병운동의 사상적 측면」, 『한국사상』 제8집.

이들이 가평·양평으로 진출하여 서울을 위협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이겸제(李謙濟)로 하여금 친위대 3개 중대를 이곳으로 파견하였다. 친위대는 청평·가평 등지에서 고전하다가 춘천으로 들어가 의병을 해산시키고 귀경하였다.

그러나 춘천 의병들은 재집결하였다. 이소응은 이들을 거느리고 다시 서울 공략을 시도하여 양근(지금의 양평)을 거쳐 2월 17일에는 광주로 나아가 그곳 부윤(府尹)을 처단하고 포수들로 구성된 안성 의병 수백 명과 합세하여 남한산성으로 입성하여 웅거하였다. 그러나 이겸제가 거느리는 관군과의 수일간에 걸친 격렬한 격전 끝에 아깝게도 패하고 말았다. 춘천 의병부대의 기세는 대단하여 그들의 격문은 함경남도 일대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 곳 일대의 의병 봉기를 가져오게 하였다.<sup>12)</sup>

## 5) 기타 의병부대

위의 의병부대 이외에도 서상렬·노응규·김도화·권세연·허위·기우만·민용호 의병부대도 활동을 하였다.

서상렬은 류중교·김평묵에 사사한 이항로 계열의 유생으로,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단양·장회(長淮) 등지에서 봉기하여 많은 일본군을 죽이고 경북 예천에서 영남 각 읍(안동·예안·풍기·영주·봉화·문경)의 의병장들과 굳은 맹약을 맺고 연합 의병부대를 편성하여,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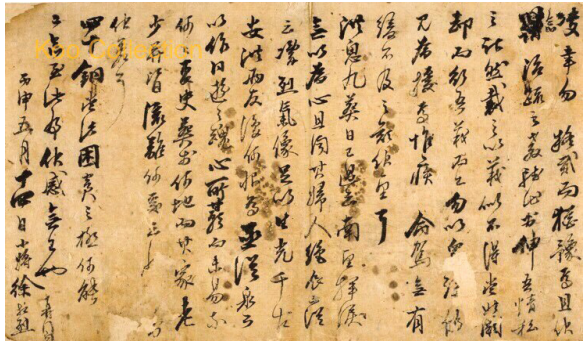
서상렬 의병장 초상

12) 이소응 의병부대의 활약 참고문헌 : ① 『매천야록』 ② 『속음청사』권8 ③ 『구한국외교문서』3 ④ 『구한국관보』, 건양 원년 2월 19·21·22일조 ⑤ 『고종실록』, 건양 원년 2월 11일조 ⑥ 강재언, 앞 책, 215~216쪽 ⑦ 김의환, 앞 책, 38~39쪽 ⑧ 『독립운동사』1(의병 항쟁사).



29일에 상주 태봉(胎峯)에서 9시간에 걸쳐 일본군을 공격하고 풍기로 후퇴하였다. 그 후 류인석 의병부대의 중장군으로 활약하다가 6월에 낭천(狼川, 지금의 화천)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sup>13)</sup>

그는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3,000명을 거느렸던 의병장이다. 치열한 전투를 치르다가 자신을 따르던 안승우와 홍사구가 전사하자 무척 슬퍼하며 따라죽고 싶다고 절규하였다. 결국 한 달도 안 된 6월 12일 그도 강원도 화천전투에서 새벽까지 싸우다 전사한다. 그의 시신은 길가에 매장됐다가 세 달이 지난 후 제천으로 이장했다. 그가 화천에서 남긴 마지막 편지는 의병의 기상과 부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명문장이다.



서상렬 의병장의 마지막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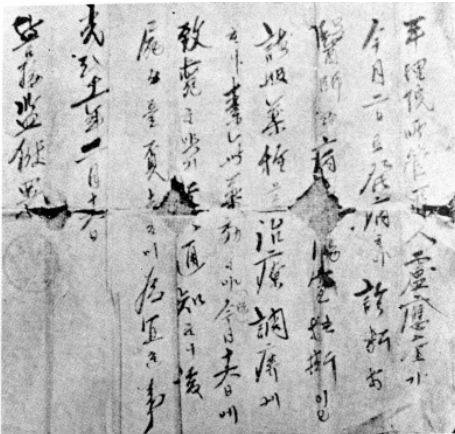
…… 바라건대 의심을 하여 유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엇드려 생각하여 보니 상소문을 올리라고 하신 말씀은 저의 사적인 사정을 꺾어 해명하라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의리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마땅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니 그대로 그치고 저의 의리만 행하는데 있을 뿐이옵니다. 중론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빨리 말을 타고 출발하시어 늦어서 제때에 이르지 못하는 한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홍사구의 장례일은 지나갔다고 하니 남쪽을 향하여 눈물만 흘리고 마음을

13) 『일본공사관기록』(국사편찬위원회 소장), 「1896年 本邦人被害ニ關スル件」; 『기려수필』, 서상렬조; 김의환, 「일제의 침략과 초기의병투쟁」, 『동국사학』제9·10합집.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또 들으니 그의 부인이 음식을 끊고 따라 죽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니 그 열렬한 기상이 천고에 빛날 것입니다. 안승우, 홍시구 두 친구가 다시 무슨 한이 있었습니까? 저도 빨리 따라 죽어서 그 혼들과 함께 노니는 것을 마음 속에 원하지만 쉽게 되지 않으니 어찌하리오. 어느 땅에 다 장사를 지낸답니까? 그리고 그 집의 노인과 아이들은 일정한 집과 직업이 없이 이곳저곳으로 어떻게 떠돌아다니는답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돈 사십 동은 이처럼 곤궁한 것이 심한 때에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습니까. 엎드려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병신 오월 십사일 소장 서상렬 재배



신암 노응규(慎庵 盧應奎) 의병장의 사망 통지서

노응규는 이항로 계열인 최익현의 문도이며 경남 안의(安義)의 유생으로 진주의 유생인 정한용(鄭漢鎔)과 손을 잡고 1896년 1월 8일 진주 군기고의 무기를 거두어 진주에서 봉기하였다. 봉기와 동시에 인접 각 고을에 격문과 통문을 돌려 쫓기를 호소하고, 또 별도로 정부에 상소를 올렸다. 2월 25일에는 의병 진압을 위해 파견된

관군을 격파하여 개가를 올리니, 응모자가 운집하여 의병은 약 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어 일본 침략의 교두보인 부산항을 공략하기 위해 김해로 진출하여 4월 11·12일에는 김해평야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큰 전과를 올렸다.<sup>14)</sup>

한편 유생 김도화·권세연 등은 수백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1896년 1월 20일 안동에서 봉기하였고, 유생 이만응(李晩鷹)·금봉렬(琴鳳烈)·이만윤(李晩胤)·이만효(李晩孝)·이중두(李中斗)·이중봉(李中鳳) 등을 중심으로 하는 220여 명은 1월 29일 예안에서 봉기하였다. 이들 의병부대는 원주·충주 등지의 류인석 의병부대와 손을 잡고 일어났다.

1896년 봄과 여름 사이 영남의 수재(守宰)가 된 자는 40여 명에 달하였는데, 이들이 부임하고 또 재직하기 위해서는 의병들과 상통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sup>15)</sup>

이상은 대체로 화서 이항로의 계보에 속하거나 또는 그들과 관련이 깊은 유생 의병장들의 항전을 들었으나, 이와는 별개인 유생 의병장들의 항전으로는 허위·기우만·민용호 등의 항전을 들 수 있다.

선산의 명유 허위(許蔦)는 유생 이은찬(李殷瓚)·양재안(梁在安)·조동호(趙東鎬)·이기하(李起夏) 등과 손을 잡고 1896년 3월 금산에서 봉기하여 항전하다가 의병을 거느리고 북상 중 충북 진천에서 의병을 해산하라는 왕의 조칙을 받고, 왕명에 순종하여 의병을 일단 해산하고 만다. 여기서도 우리는 또한 유생 의병장들의 사상적인 한계성을 엿볼 수가 있다.<sup>16)</sup>

전라도 장성의 유생 기우만은 1896년 전남 광주를 중심으로 봉기하였다.<sup>17)</sup> 참봉벼슬을 하였으므로 기참봉으로 불렸다. 호남에서 이름에 높았던 참관 기정진(奇正鎭)의 손자로서 학업을 이어받아 일찍이 문유(文儒)로 추앙받았다.

1894년(고종 31) 동학운동 당시에 유생들이 동학에 가담한 사실을 유생의

14) 『일본공사관기록』, 「1896年 本邦人被害ニ關スル件」·「倡義將 愼菴 盧應奎先生抗日闘爭略傳」(동서관본 허선도 저); 『독립운동사』(의병 항쟁사); 김의환, 「일제의 침략과 초기의병투쟁고」.

15) 『기려수필』; 『운강선생창의일록』; 신석호, 「의병운동의 개황」, 『사충』1, 『매천야록』권2; 김의환, 앞 글.

16) 『국역 허위전집』(아세아문화사, 1985); 김의환, 앞 글.

17) 『매천야록』권2, 건양 원년 정월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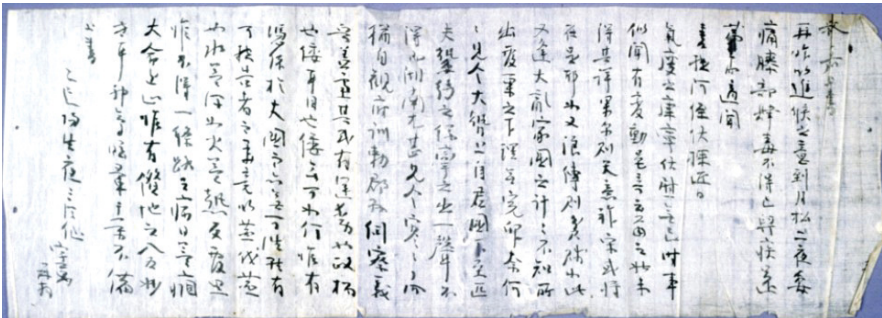


허위 의병장 초상화

수치로 여겼으며, 1895년(고종 32) 나주에 세워진 동학당 토평비의 비문을 짓는 등 동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이어 단발령이 내려지자 머리를 깎는 욕은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라며, 머리를 깎고 사느니 차라리 머리를 안 깎고 죽는 편이 낫다는 통분의 상소를 하였다.

1896년(고종 33) 2월 제천의진의 창의대장 류인석(柳麟錫)의 격문이 호남지방에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의병 봉기의 기운이 짙어져 갔다. 3월 광주향교(光州鄕校)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모아 규칙을 정하고 전략을 의논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다.



기우만 서한

그 동안 이러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어 의병의 형세가 커지자 관리들은 자기들 신변에 위협을 느껴 모두 도피하였다. 이때, 장성의 기삼연이 장정과 군사 300명을 이끌고 와 합세하게 되자 그 기세는 더욱 높아졌다. 이로써 사실상의 호남창의 총수가 되었다.

각 고을에 통문을 보내어 모든 의진을 일제히 광주로 모이도록 하고 광주의 광산관(光山館)을 본영으로 삼았다. 그러나 고종으로부터 의병을 해산시키라는 명으로 파견된 선유사 신기선(申箕善)의 설득으로 해산하고 말았다. 5월에 장성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켰으나 10월 16일 왜군에게 붙잡혀 옥고를 치르고 1897년(고종 34) 4월에 석방되었다.



의병장 민용호

유생 민용호는 강릉에서 봉기하여 3월 19일을 기하여 원산 일본 거류지를 공략할 계획이었으나, 일본 수비대의 선제공격으로 실패하고 말았다.<sup>18)</sup> 민용호(閔龍鎬)는 1869년(고종 6)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출생하였다. 1895년(고종 32)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경기도 여주에서 거병하였다. 병력을 이끌고 원주·평창·진부를 거쳐 1896년(고종 33) 1월 강릉에 진출한 민용호는 영동일대 의진과 연합하고 포수를 모집하여 강릉부 관할 9개 군을 총괄하는 강릉9군도창의소(江陵九郡都倡義所)를 강릉향교(江陵鄉校)에 설치하였다. 이어 강릉 관찰부 경무관 고준식(高俊植)을 처단하고, 의병장 이병채



민용호 의진이 승전기원 출정식을 한 화부산사

18) 『복제집』, 『한국독립운동사』1(국사편찬위원회), 19~20쪽 ; 『일본공사관기록』, 「1896年 本邦人被害ニ關スル件」; 김의환, 앞 글.

(李秉採)·최중봉(崔重峰)·김원섭(金元燮) 등과 협력하여 개항장인 원산을 공격하여 주둔하던 일본 수비대를 공격하여 격멸할 계획을 주도하였다.

그해 3월 민용호 의진은 원산 출정에 앞서 강릉 지방에서 김유신(金分信)을 모신 화부산사에 모여 승전을 기원하는 출정식을 가졌다. 이후 관동 의병 전군이 해변을 따라 북진하여 함경남도 안변의 선평(仙坪)에 포진하였다. 개항장에 주둔한 일본 수비대를 공략하려 하였으나 불순한 일기와 기밀이 누설되어 실패하였다.

전투 중 전세가 불리해지자 민용호 의진은 후퇴를 거듭하여 삼척으로 퇴진하였다. 이곳에서 전력을 정비하여 그해 6월 양양·고성 등지를 점령하고 군수를 처형하였다. 8월 초 민용호는 500여 명의 군진을 이끌고 회양·금성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고, 9월에 함경남도 함흥부를 점령하였다. 이후 조정에서 의병 해산 칙령(義兵解散勅令)을 내리자 만주로 들어갔다. 1922년 사망하였다.

이 당시 민용호 의병장과 함께 황성출신의 권대형(權大亨, 大衡) 의병장 활동도 있었다. 강릉에서 창의한 민용호(閔龍鎬) 휘하에서 활동하였는데 그가 의병에 가담한 시기에 있어서 민용호가 1896년 1월 강릉에서 관동9군도창의소(關東九郡都倡義所)를 설치하였을 당시 황성에서 의병을 모아 가담하였는지, 혹은 민용호의 의병진이 원산(元山)공격을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강릉으로 돌아와 전열을 수습할 당시에 참여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896년 6월 고성(高城)·양양(襄陽) 등지를 점령하고 군수를 처형하기도 하였으며, 관군의 공세가 점차 심화되어 탄환·화약·양곡 등 군용물자가 부족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자 양곡운반의 임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8월초에는 민용호의 지휘 아래 민동식·성익현·차윤옥 등과 함께 의병을 거느리고 회양(淮陽)·금성(金城) 방면으로 나와 일대 소탕전을 전개하고 산협을 따라 황해도 곡산(谷山)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민용호 의병진은 양덕·맹산을 거쳐 함흥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만주로 들어갔는데 그의 행적은 알 수 없다.

이의 평안도 의주에서는 유생 조상학이 거느리는 의병부대가 봉기하였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sup>19)</sup>

현상윤의 『조선유학사』에서 “조선 말년에 척사위정을 부르짖으며 창의 호국의 운동을 제창한 이들은, 거의 화서 연원(淵源)을 받은 유자(儒者)로 독점의 감이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sup>20)</sup>라고 말한 그대로 초기 의병인 을미의병은 화서 이항로 계열의 학통에 속하는 유생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초기 의병항전의 2대 진원지는 충청도의 제천과 강원도의 춘천으로, 충청도·경상도는 류인석의 제천 기병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고, 강원도·경기도·함경도는 이소응의 춘천 기병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전라도는 독자성을 띤 것이었으나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들이 처단한 친일 관료의 수는 1895년 겨울부터 1896년 1월에 걸쳐 관보에 발표된 자만을 들어도 관찰사 6명, 군수 10명, 부윤 1명, 경무관 3명, 주사 2명, 충순 2명, 참서관 2명, 세무시찰 1명에 이르고, 1896년 5월까지 국내를 여행하다가 피살된 일본인도 43명에 달하였다.<sup>21)</sup>

## 6) 황성지역의 전기의병 활동

황성지역 전기의병(1894.6~1896.6)<sup>22)</sup>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는 황성출신도 참여하지만 황성에서의 전투도 많이 전개되었다. 전기의병은 1894년 6월 일본 최초의 군사적 침략인 갑오변란과 1895년 8월 명성황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으로

19) 『매천야록』권2, 고종 32년 을미 12월조.

20) 현상윤, 『조선유학사』(민중서관, 1946), 394쪽.

21) 『매천야록』권2, 고종 32년 을미 12월조.

22) 상세한 내용은 『황성지역 전투에 참여한 의병장과 봉복사』(김동정, 2017) 참조.

촉발된 의병으로, 춘추정신의 존화양이란 대일통론을 갖고 있는 유교적 입장의 화이관에서 변복령과 단발령, 궤복궤형, 태양력 사용, 주군제도 개편,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사건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을미의병은 국적토벌(國적토벌), 국모보수(國母報酬), 단발불복(斷髮不服), 배양배외(排洋排外) 등의 가치를 내들고 개화파와 일본을 불공대천의 원수로 간주하고 복수설치(復讐雪恥)의 의(義)로서 의병을 기도하였다.

횡성지역을 비롯한 강원전역 전기의병 봉기의 직접적인 기운은 변복령이 내려진 직후인 1895년 초부터 비롯되고 있으며,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횡성지역 전기의병에 영향을 미쳤던 의암 류인석의 ‘처변삼사(處變三事)’가 기본적인 행동강령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을미사변이라는 국가변란과 단발령 시행과 같은 개혁정책으로 인한 문화단절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던 사람들이 처신하는 방비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횡성 주변의 전기의병의 봉기는 춘천, 원주, 강릉 등지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때 횡성지역은 이들 지역 의병들의 가교 및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

횡성지역은 을미의병이 봉기하는 초기단계에 거의(擧義) 분위기가 가장 왕성한 곳이었으며, 횡성 아래 인접한 원주는 지평에서 시작한 이춘영·안승우·김백선 등을 모태로 형성한 이필희 의진이 편성되기 이전에 군사를 소모하였던 중요한 지역이다. 횡성은 원주와 함께 화서학과의 주요 본거지 중의 한 지역으로 남한강 수계이며, 충주와 제천 등으로 연결되는 활동근거지였다. 횡성의 북부와 서부에 위치한 춘천과 가평은 북한강 유역으로 이항로·김평목·류중교 문인들이 활동한 근거지이다.

그러므로 횡성지역은 독자적인 활동형태보다는 류인석 의진(제천)과 민용호 의진(강릉) 그리고 이소응 의진(춘천)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고 활동권역을 형성하여 춘천·강릉·제천 세 의진과 상호 연합하여 의병



활동을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황성 지역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은 황성군 청일면 신대리에 있는 봉북사이다. 봉북사는 한말 의병봉기 직후 주요 의병부대의 주둔지였으며 산악지형이면서 군수



의병들의 주둔지 봉북사 옛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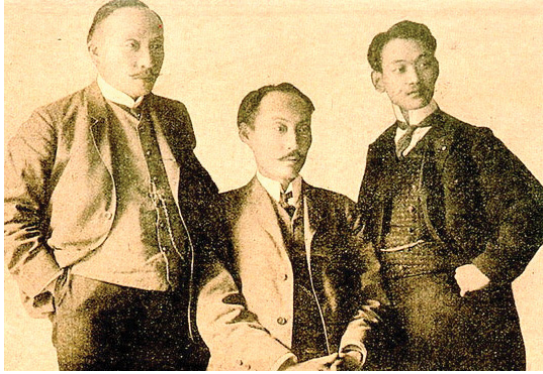
물자 지원이 용이하고 의병부대 상호간 연락이 가능한 조건을 가져 그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봉북사는 당시 원주진위대 특무정교인 민공호의 의병부대를 비롯하여 이강년 의진 등 많은 의병장들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이곳을 근거지로 주요 의병장들이 연합하여 의병활동이 강원도 영서·영동지역 뿐만 아니라 제천, 충주 등 충청도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등 국내 의병운동이 의병전쟁으로 발전하는 발판을 제공했다. 당시 일본군도 봉북사의 전술상 중요성을 인지하고 타지역 의병 주둔지와는 다르게 특별부대를 편성, 기관총까지 동원해 진압에 나섰으며 결국 이들의 공격으로 봉북사가 소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전기의병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 황성출신 의병과 황성에서 활동한 의병들은 권대형을 비롯하여 김상태, 박성묵, 박정수, 배진환, 서용서, 신돌석, 심상희, 오영환, 원용팔, 이명로, 이인영, 이준영, 조병인, 정원팔, 정환화, 최천유, 홍재구 등이 있었다.

## 2. 후기의병과 서울 진공작전

### 1) 군대해산과 대일항전<sup>23)</sup>

1907년이 되면서 일본의 조선 병합정책은 노골화 해갔다. 이해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자 고종은 3인의 밀사(이준·이상설·이위중)를 파견하여 일본의 침략을 폭로하고 조선의 국권 회복을 열망에 호



이준·이상설·이위중 열사

소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당했다. 이들은 현지 언론의 협조를 얻어 신문지상을 통해 일본의 한국 침략을 폭로하였다.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식민지화를 위한 한국 병합을 촉진하기 위해 먼저 반일적인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통감으로 하여금 한국 병합을 용이하게 추진토록 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고종을 협박하고 친일 내각(이완용·송병준 등)을 앞세워 드디어 7월 20일에는 양위식을 거행하고 말았다. 양위 반대의 애국민자들은 곳곳에서 일본 군경들과 충돌하여 서울 시내의 반일 기운은 온통 물 끓듯이 하였다. 이어 7월

23) 『한민족독립운동사』1권, II. 국권수호를 위한 군사활동·5. 유생의진의 대일항전·3) 서울 진공작전과 유생 의병장 내용 참조.

24일에는 일본군이 왕궁을 점령하고 시내 요소에 군대를 배치하여 탄압 체제를 완비한 후 친일 내각과 '정미7조약'(한일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감의 획일적인 한국 지배체제가 확립되게 되었다. 또한 '정미7조약'과 함께 체결된 비밀각서에 의해 8월 1일에는 서울의 시위대가, 이어 8월 3일에서 9월 3일에 걸쳐 서는 지방 8도의 진위대가 해산되었다.

서울의 시위대는 해산 당일 전체 인원 3,441명 가운데 약 반 수(47.3%)인 1,629명이 해산 직전에 봉기하여 일본군과 격전을 벌인 후, 지방으로 옮겨 단독으로 의병부대를 조직하거나 또는 기존 의병부대와 합류하였다. 또한 지방 진위대 가운데 원주 진위대, 강화·홍주·안동 진위분견대의 한국군도 강제해산 전에 봉기하여 항전을 전개하고 항일 전선으로 합류해 나갔다.

이에 대하여는 일본군측 기록에도 “해산한 군인의 대부분은 지방으로 빠져 달아나 폭도(의병)의 무리에 가담하여 길이 화란(禍亂)의 기운을 종식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매천야록』에도 밖으로 달아난 자(의병)는 모두가 다 의병과 합류하였다”<sup>24)</sup>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해산 군인들이 의병 전선에 합류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는 해산 군인만으로 단독 의병을 형성하여 항전한 경우이고, 둘째는 기존 의병부대와 합류한 경우이다.

지금까지 의병을 탄압하던 한국 군인이 해산을 계기로 민족 항일전선인 의병 대열에 서게 됨으로써, 의병 항일전선에는 전술·지휘관·무기·탄약 공급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유생 의병장들의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신분 관념에도 변화를 가져 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군대해산 후의 항일 의병항전은 이제 새로운 발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유생 의병장들이 거느리는 의병부대에 해산군인들이 어떻게 합류하여 항전을 전개해 갔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24) 조선주차군사령부, 『조선폭도토벌지』, 35쪽; 『매천야록』권5, 윤희 원년 정미조 참조.

자 한다.

군대해산 전후에 있어서도 저명한 유생 의병장이 거느리는 의병부대의 세력이 압도적이었고, 또한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때 경상북도 동대산(東大山)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에서는 정환직(鄭煥直) 의병부대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와 의 접경지대인 문경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에서는 이강년 의병부대가 항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들 두 의병부대에는 안동 진위분건대의 해산병들이 합류하였다. 특히 이 곳 진위대 부위(副尉, 오늘날의 중위(中尉)였던 백남규(白南奎)는 이강년 의병부대로 합류하여 의병부대의 유력한 지휘관으로 활약하였다.<sup>25)</sup>



이강년 의병장 영정

8월 5일에는 유생 노병대(盧炳大)가 김운로(金雲老)·송창헌(宋昌憲)·임용덕(林容德) 등과 같이 보은 속리산에서 봉기하였다. 이때 응모자는 2백여 명이었는데, 여기에 해산군인 수백 명이 합류하여 1천여 명의 대혼성 의병부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보은·상주·청주·성주·거창 등 주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넓은 지역에서 활약하였다.<sup>26)</sup>

강원도 원주지방에서는 명유(名儒) 이인영(李麟榮)이 총대장이 되어 이영재(李永載)·이은찬(李殷瓚)·방관일(方觀一)·정대일(鄭大一) 등의 유생 의병장들이 봉기하였으며, 많은 해산군인들이 합류해 왔다. 이후 이들 의병부대는 경기도 양주 방향으로 진격하였다.<sup>27)</sup>

25) 『운강선생창의일록』; 김의환, 「한말의병운동의 분석: 이강년의병부대를 중심으로」, 『한일문화』 2집(부산대 한일문화연구소, 1962) 참조.

26) 『기려수필』, 노병대(盧炳大)조.

27) 『기려수필』, 이인영(李麟榮)조.

또한 경기도 포천에서 기병한 허위(전 의정부 참찬(參贊))는 연기우(延基羽)를 부장으로 하는 강화 진위분견대 봉기군과 합류하여 임진강 유역에서 견고한 활약 기반을 구축하였고 권준(權俊)·왕희종(王會鐘)·김진묵(金溱默) 의병부대도 임진강 유역의 광범한 지역에서 활약하며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서울 북방 양주 일대에서는 박내승(朴來乘) 의병부대가 활약하였는데, 박내승이 전사하자 참모였던 김석하(金錫夏)가 의병부대를 지휘하여 양평·영평 등지에서 맹활약을 하였다. 이때 해산군 장교(餉官)였던 현덕호(玄德鎬)는 해산군만으로 편성된 단독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유생 의병장들의 의병부대와 손을 잡고 개성 일대에서 위세를 떨쳤다.<sup>28)</sup>

황해도에서는 류인석의 문도들이 평방(平方)에서 봉기하여 박정빈(朴正彬)을 의병장으로 의병부대를 편성하였다. 이들은 해산 군인만으로 편성된 지홍윤(池弘允) 의병부대와 서로 손을 잡고 과감한 항전을 전개해 갔다.<sup>29)</sup>

또한 1896년 의병을 해산하고 요동지방으로 이주한 류인석은 황현이 『매천야록』에서 “관서(평안도) 유사(儒士)의 연원은 모두 이항로(李恒老)로부터이나, 또한 류인석의 충의에도 감격하여, 따르는 자 수천인이요 동으로 나아가 산중에 큰 마을을 이룬 것이 수개 처이다”<sup>30)</sup>라고 기록한 것처럼 평안도 지방에도 그의 문도들이 많았다. 그는 때때로 이곳으로 나와 의병 조직에 활약하였다.

전라도에서는 민종식·최익현·양한규(梁漢奎)의 의병항전에 참가하였던 고광순(高光洵)이 동복군(同福郡)으로 잠행하여 의병항전의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군대해산 후 유생인 김동식(金東植)과 손을 잡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위세를 떨쳤으나 1907년 말 지리산에서 전사하였다.<sup>31)</sup>

한편 유생 기삼연은 이해 9월에 장성(長城) 수록산(隨綠山)에 호남창의회맹소

28) 『국역 허위전집』, 「행장(行狀)」; 조선주차군사령부, 앞 책 참조.

29) 강재언, 앞 책, 270쪽.

30) 『매천야록』권5, 율희 원년 정미조.

31) 『매천야록』권5, 광무 11년 정미조.

(湖南倡義會盟所)를 설치하여 창의대장에 오르고 김용구(金容球)는 그 의병부대의 통령(統領)이 되었다. 그들은 격문을 각처에 띄워 민중들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한 사람을 죽이면 백 냥을 상금으로 주겠다고 포고하였다. 이와 같이 기삼연은 장성에서, 이석용(李錫庸)은 임실에서, 김태원(金泰元)·김준(金準)은 함평에서, 문태수(文泰洙)는 무주에서 기병하여 항전의 횃불을 올렸다.

이석용 의병부대는 상술한 고광순·김동식 의병부대와 손을 잡고 경남 거창·안의(安義) 방면으로 진출하여, 경상남도 항일 의병항전의 도화선이 되었다. 한편 민중식 의병부대의 부장으로 활약한 김동신(金東臣) 의병부대는 전라북도과 충청남도의 접경지대인 공주·회덕·연산·진산·금산·무주·용담(龍潭)·진잠(鎭岑) 등지에서 크게 활약하였다<sup>32)</sup>.

한편 함경도에서는 포수·광산 노동자들이 의병 부대를 조직하여 완강한 저항력을 보이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근대해산 이후 항일 의병항전의 성격이 전 민족적 항전으로의 성격을 띠며 양양 발전되어 가는 가운데, 유생 의병장들 사이에는 왜적의 소굴인 서울을 공략하여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여론이 대두하게 되어, 13도연합의병부대의 편성을 서둘러 가게 되었다.

즉, 1907년 9월 강원도 원주방면에서 활약하던 유생 의병장 이은찬(李殷贊)·이구재(李九載; 본명은 채구(求采)) 두 사람이 의병 5백 명(이중 해산군인은 80명)을 거느리고 경상북도 문경에 은퇴하고 있던 이인영을 찾았다. 이인영은 공평 정직한 인품으로 유생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던 재야의 애국 유생이었다. 그는 을미의병 때 봉기했다가, 부친이 와병 중에 있어 문경에 은퇴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은찬·이구재는 이인영에게 구국의 위급함을 논하고 연합 의병부대의 총대

---

32) 조선주차군사령부, 앞 책.

장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인영은 “나도 창의를 뜻을 품은지가 오래되나, 부가 병상에 누워 있어 기거를 타인에게 의지해야 할 형편이므로 차마 가정을 떠나지 못 할 정리라”고 하면서 효를 지켜야 할 의무와 처지를 말하였다. 젊은 유생인 이은찬은 다시 이인영에게 “천붕지복(天崩地覆)하는 오늘의 위급을 당하여는 국가의 일이 급하고 부자의 은혜가 경한 것인데, 어찌하여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뒤에 하리오!”라고 하면서, 구국 항일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이은찬·이구재는 4일 동안 머물면서 간곡하게 출진을 요청하였다. 젊은 유생들의 정열에 넘치는 권유와 요청에 움직여, 이인영은 드디어 이들과 함께 강원도 원주로 출진하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전통적인 주자학 윤리를 고수해 가려는 기성 노유들의 사상과 국가·민족의 위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젊은 유생들의 민족주의 사상과의 차이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 2) 전국연합의병부대의 서울진공작전

원주에서 젊은 유생 의병장들의 추대를 받아 관동창의대장(關東倡義大將)에 오른 이인영은 횡성·지평·춘천 등지를 왕래하면서 의병을 규합한 후 다시 전국의 의병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전국 각지 의병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격문을 전달하였다.

용병의 요결은 고독을 피하고 일치단결 하는데 있으니, 각도의 의병을 통일하여 궤제(潰堤)의 세력으로 경기에 침입한다면



이인영 관동창의대장

은 천하는 우리의 보물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한국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유리할 것이다.<sup>33)</sup>

이에 앞서 또한 이인영은 1907년 9월 원주에서 관동창의대장의 이름으로 부하 김세영(金世榮)을 서울에 잠입시켜, 각국 영사관에 두 종류의 격문을 전달하였다. 그 하나는 각국에 보내는 격문으로 그 내용은 일본의 불법과 한국이 처해 있는 실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병은 순수한 애국 단체이니 열강은 이 단체를 국제 공법상의 전쟁 단체로 인정하여 정의와 인도를 주장하는 여러 나라의 성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호소문이었다. 다른 하나의 격문은 다음과 같은 「해외 동포에게 보내는 격문(Manifesto to all Coreans in all parts of the World)」이었다.<sup>34)</sup>

동포들아! 우리들은 단결하여 우리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우리의 독립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 야만적인 일본인의 심한 부정과 난폭을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교활하고 또 잔인하니 진보와 인도의 적이다. 우리들은 모든 일본인과 그 스파이 부일분자 및 야만의 군대를 참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광무 11년(1907) 9월 25일  
대한 관동 의병장 이인영

33) 『기려수필』, 이인영조 ; 「이인영문답조서」, 『한국독립운동사』1(국사편찬위원회 편, 1965).

34) 『일본외교문서』(제41권 1책 856, p. 819)에 실려 있는 「해외동포에게 보내는 격문(Manifesto to all Coreans in all parts of the World)」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Compatriot, we must unite and to consecrate ourselves to our land and restore our independence. We must appeal to the whole world about grievous wrongs and outrages of barbarous Japanese. They are cunning and cruel and are enemies of progress, and humanity. We must all do our best to kill all Japanese, their spies allies and barbarous soldiers”



위의 격문에서는 의병을 국제 공법상의 전쟁 단체로 인정해 주도록 각국에 호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에게 일본을 진보와 인도의 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유생들의 격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말들로,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젊은 유생들의 개화적인 민족주의 사상으로서의 성장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상술한 이인영이 각도 각지에 보낸 통문에 따라, 1907년 11월(음) 전국 각도의 의병장들은 속속 양주로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의병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집합한 각도의 의병장을 보면, 전라도는 문태수(文泰洙), 충청도는 이강년(李康年), 강원도는 민궁호(閔肯鎬), 경상도는 신돌석(申弼石), 평안도는 방인관(方仁寬), 함경도는 정봉준(鄭鳳俊), 경기도는 허위(許蕤), 황해도는 권중희(權重熙)로, 이 가운데 민궁호(해산 군인)와 신돌석(평민 출신)을 제외한 의병장은 모두 유생 출신이었다. 이곳에 모인 전국연합의병부대의 총병력은 48진 1만여 명(이 가운데 해산 군인은 약 3천 명)에 달하였다.<sup>35)</sup>

13도연합의병부대의 서울 진격상황을 『기려수필(騎驢隨筆)』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다.<sup>36)</sup>

모인 자가 만여 명이라, 이에 서울로 진군 입경하여 통감부를 격파하고 협약을 취소시켜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여 (중략) 군사(軍師)는 그 군려(軍旅)를 정돈하고 진발을 준비하였다. 이에 이인영은 각



서울진공작전 모형도(독립기념관)

35) 『기려수필』, 이인영조; 김정명 편, 『조선독립운동』 I, 38-53쪽.

36) 『기려수필』, 이인영조; 『대한매일신보』 1909년 9월 21일자, 「의병총대장 이인영의 약사」.

도의 의병부대로 하여금 일제히 진군을 재촉하고, 스스로 3백 명을 이끌고 먼저 동대문 30리 밖에 이르렀다. 각 군이 이르지 않았을 때 일본병이 먼저 쳐들어 와 서로 더불어 분전하였으나, 적에게 대적할 수 없어 마침내 퇴군하였다.<sup>37)</sup>

결국 일본군의 선제공격으로 13도연합의병부대의 서울공략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의 신문을 보면 이 기간 동안(1907년 11~12월, 양력 1908년 2월 초순) 서울 시내와 근교에서 의병들의 활발한 항일활동의 기사가 반영된다.<sup>38)</sup>

이는 13도연합의병부대의 서울공략작전을 전후한 의병들의 정찰·공작활동인 것으로, 이 같은 의병들의 담대한 항일활동은 당시의 서울에 머물고 있던 일본인과 친일관료들에게 커다란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것 또한 사실이었다.

서울 공략작전에 실패하고 의병들이 물러 설 무렵, 연합의병부대에는 또 하나의 불행한 소식이 전해져 왔다. 즉 1907년 12월 25일(양력 1908년 1월 28일) 이인영의 부가 사망하였다는 부고였다. 양주에서 부고를 받은 이인영은 뒷일을 군사장 허위에 부탁하고 그날로 문경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부의 장례가 끝나자 각지 의병들은 다시 이인영을 찾아가 구국 항일의 전선으로 돌아 올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라에 불충한 자는 아버지께 불효이요, 아버지께 불효한 자는 나라에 불충이니, 충·효는 그 도가 하나요, 둘이 아니니, 나는 나라 풍속을 지켜 3년상의 효도를 다한 후 재기하여 13도의 창의 군을 일으켜 권토중래(捲土重來)의 세력으로 일본인을 소탕 하겠노라!”<sup>39)</sup>고 하여 전통적인 주자학의 윤리를 고수하려는 입장에서 젊은 유생 의병장들의 간청을 거절하였다.

37) 『기려수필』, 이인영초.

38) 김의환, 『의병운동사』, 157~160쪽.

39) 『기려수필』, 이인영초.

이인영은 그 후 노모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일시 경주 상주군에 머물렀다가 다시 충북 황간군 금계동(金溪洞)으로 옮겨 머물던 중, 1909년 6월 7일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동년 9월 20일(양) 서울에서 처형당하였다.

결국 13도연합의병부대의 지도층인 유생들은 충효사상과 전통적인 주자학적 신분질서를 중요시하고 척사위정사상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한국이 결정적으로 식민지화로 기울어지는 당시 상황에서 일제를 타도하지 않고서는 독립이 달성될 수가 없고, 일제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항전이 요청될 뿐이었다. 철저한 항전을 위해서는 대중적·민족적인 힘의 집결이 요청되었다. ‘을사늑약과 군대해산을 계기로 많은 병사·천민·산포수들이 민족적 과제를 가슴에 안고 쏟아져 나와, 이제 항일 의병항전은 종래와는 달리 그 폭이 넓어지고 다양성을 띠면서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시대적 민족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참다운 힘의 집결은 이러한 폭넓고 다양성을 띤 대중적 기반 위에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양반 유생 의병장들의 신분적인 한계성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지도이념은, 내부적으로 폭넓은 대중적 기반 위에 설 수 없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전 민족적 항전의 성격을 띠고 단행된 13도 연합 의병부대의 서울 공략작전이 일제와 친일 관료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만 것은, 대중적 기반 위에 선 참다운 연합전선이 형성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그 후의 의병 항전과 항일 독립운동에 커다란 교훈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는 서울 공략작전의 실패와 더불어 13도연합의병부대가 해체된 후, 유생 의병장들이 어떻게 활약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허위 의병장이 거느리는 주력 의병부대는 이은찬(李殷瓚)·김수민(金秀敏)·박종한(朴宗漢) 의병부대와 더불어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황해도에 걸쳐 과감한 항전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민중들의 굳은 지지의 기반 위에 서서 활

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세를 떨칠 수가 있었다. 일본군측 기록에도 누차 통고를 발하여 납세 또는 미곡 반출의 정지를 명하고 군자 양식을 징발하며, 한인 순사·헌병 보조원에게 협박장을 보내고 통신 선로의 저해·관공서의 습격 등 조량이 심하였다고 그들의 과감한 활약상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의병장 허위는 1908년 6월에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고 만다. 체포된 후 일본 심문관이 “주창자는 누구이며 대장은 누구냐!”고 묻자 허위는 서슴치 않고, “주창자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이며 대장은 곧 나다”라고 답변하였다. 심문관이 다시 “왜 이토 히로부미를 가리키느냐?”고 묻자, 허위는 “이토가 우리나라를 넘어뜨리지 않았더라면 의병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토가 주창자가 아니고 누구겠는가?”<sup>40)</sup>라고 주장하여 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해 9월 27일 허위는 교수형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 교수형이 집행되기 직전 일본 중이 독경을 하자 충의의 귀신은 스스로 당연히 하늘로 올라 갈 것이다. 혹 지옥으로 간다 하여도 어찌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 복을 얻는단 말인가?”하고 이를 물리쳤다. 그의 꺾을 수 없는 항일 애국의 기골을 알려 주는 일화이다.<sup>41)</sup>

허위가 순국한 후 그의 직속 부대는 권중설(權重堯)이 거느리고 항전을 계속해 갔고 김수민 부대는 장서(長湍)·구화장(九化場)·풍덕(豐德) 일대에서, 이은찬 부대는 양주·포천 일대에서 과감한 항전을 전개하여 일본군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sup>42)</sup>

그러나 이은찬 또한 적의 정세와 내막을 살피기 위해 서울에 잠입하였다가, 1909년 3월에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였다.

일본군측 자료에 의하면,

40) 『국역 허위전집』권2, 「행장(行狀)」.

41) 조동걸, 「서문」, 『국역 허위전집』.

42) 『기려수필』, 이은찬초; 『매천야록』권6, 융희 2년 무신초.

이은찬은 강원도 원주군 부흥사면(富興寺面)의 유생으로 천성이 영리하고 재기가 있어, 항상 정의를 표방하고 교고하게 민심을 수렴하였다. (중략) 또 양식 군자금과 같은 것은 직접 세민으로부터 요구하지



이은찬 의병장 추모비

않고, 각 면 동장들에게 통고하여 일반으로부터 징수하게 하고, 구입품에 대한 대금 지불같은 것은 일찍이 그 기일을 어긴 바가 없고, 또는 군표 유사한 증표를 발행하여 이것을 몰자와 바꾸어 후일 반드시 통화와 바꾸어 주는 등 힘써 민심을 수렴(收攬)하는데 부심하였기 때문에, 완쾌한 지방민은 이들을 환영하고 토벌대에 대하여는 그들의 행동을 비밀로 할 뿐 아니라, 그들의 보초가 되어 폭도(의병 : 필자) 소재의 주위를 경계하고 혹은 밀정이 되어 관헌의 행동을 통고 해 주는 등 음으로 다대한 편의를 주고 있다.<sup>43)</sup>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군의 발악적인 토벌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병부대가 항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민중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은찬이 사형당한 후 경기도 서북부 황해도 토산(兔山) 지방에서는 해산군인과 평민 의병부대인 연기우(延基羽)·강기동(姜基東)·지홍윤(池弘允)·김수민(金秀敏) 의병부대가 과감한 항전을 계속해 갔다. 이와 함께 황해도에서는 류인석의 문도인 박정빈을 대신하여 젊은 유생 이진룡(李鎭龍)이 한정만(韓貞萬)·조맹선(趙孟善)·신준빈(申俊彬)·신정희(申貞熙) 등과 더불어 평산 지방을 중

43) 『기려수필』, 이은찬조: 애국동지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43쪽; 조선주차군사령부, 앞 책, 151~153쪽.

심으로 각지에 출몰하여 항전하였다.

또 이강년 의병부대는 13도연합의병부대가 해체된 후 3월 12일 강원도 인제

백담사 전투에서 적 500여 명을 무찔렀고 1908년 5월 경에는 충북·경북·강원도의 접경지대인 소백산·일월산 일대로 내려와 일본군과 완강한 항전을 계속하고, 변학기(邊鶴基)·백남규(白南奎)·성익현(成益顯)·김상태(金尙台)·정경태(鄭敬泰)·정운철(鄭運哲) 등의 여러 부대가 일본군에 군세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소백산·일월산 일대에서 맹활약을 하여 일본군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큰 전과를 거두어 오던 이강년은 마침내 청풍(淸風) 작성(鵲城)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1908년 7월 2일 일본군 수비대에 체포되고 말았다. 13년에 걸친 항일의 거성은 또 하나 떨어지고 말았다.<sup>44)</sup> 또한 같은 경북 일대에서 용맹을 날리던 신돌석도 1908년 11월 18일(음) 일본 헌병에 매수된 역적의 손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강년 부대가 항전하였던 인제 백담사  
(1950년대말~1960년 초, 이기섭 박사님의 유품 사진)

민국호 의병부대는 강원도 영월·홍천·원주·횡성·울진 일대에서 격렬한 항전을 전개해 가다가, 1908년 2월 29일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등자치(燈子峙)에서 일본군에 체포되었다.<sup>45)</sup>

한편 전라도에서는 지리산에서 김동식(金東植) 의병부대가, 함평·담양 일대

44) 김의환, 「의병운동의 분석 : 이강년 의병부대를 중심으로」, 『한일연구』 제2집.

45) 김의환, 『항일의병장열전』, 민국호전.

에서는 기삼연(奇三衍) 의병부대가 활약하였다. 이곳에서는 일본군의 치열한 공격 가운데 1908년 1월 1일(음) 기삼연이 흥복산(興福山)에서 체포되어, 1월 2일(음)에 광주 서천교 밑 백사장에서 총살되고, 그 후 통령 김용구도 전사하였다. 이들이 전사한 후 잔존 의병부대는 박도경(朴道京)이 인솔하여 항전하였으나, 1908년 4월에는 선봉장 김태원(金泰元) 및 조정환(曹京煥)이 또한 전사하였다. 또 이석용(李錫庸)은 항전하다가 은거 중 체포되어 처형되었다.<sup>46)</sup>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라도에서는 전해산(全海山)·심남일(沈南一)·강무경(姜武景)·안규홍(安圭洪)·임창모(林昌模)·권택[權澤, 또는 권영희(權寧會)]·양운숙(楊允淑)·김공삼(金公三) 등의 젊은 유생 의병장 등이 항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봉기하여, 항전의 기세는 더욱 높아 갔다. 이들 의병부대의 항전은 1909년 9·10월 일제의 소위 ‘남한 대토벌’ 때까지 그 곳 의병항전의 중심 세력을 이루어 항전을 전개해 갔다.<sup>47)</sup>

또한 허위의 문도인 서병희(徐炳熙)는 1909년 전후 경남 양산을 중심으로 활약하다가, 1909년 10월 9일(양) 경찰에 체포되어 순국하였다.<sup>48)</sup>

한편 함경도·평안도에서는 포수로 평민 신분에 속하는 흥범도(興範圖)·차도선(車道善) 등이 활약하고, 두만강 대안 중국령에서는 류인석이, 노령 연추(煙秋) 일대에서는 이범윤(李範允) 의병부대가 활약하였다.

이상은 13도연합의병부대의 서울 공략작전 후의 의병항전을 유생 의병장의 의병부대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다.

46) 김의환, 『항일의병장열전』, 기삼연전; 『독립운동사』(의병항쟁사), 589~624쪽.

47) 「임시한국과전대의 남한토벌실시보고의 건」, 『조선독립운동』 I.

48) 『폭도에 관한 편책』, 1909년 12월 14일, 「경비수(警秘守)」 제279호.

### 3) 횡성지역의 후기의병 활동

횡성지역에서의 후기의병<sup>49)</sup> 활동을 정미의병이라고도 하는데, 고종의 퇴위사건을 계기로 야기되었다. 정미7조약의 체결이나, 군대해산이 의병이 본격적으로 폭발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된 것은 정미7조약의 체결과 군대해산이 강행된 이후부터였다. 고종퇴위와 정미7조약 그리고 한국군대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봉기한 후기의병은 목적을 ‘국권방위(國權防衛)’에 두고 있었다. 후기정미의병은 전기 을미의병이나 중기 을사의병의 의병처럼 명분과 의리를 내세우던 유자들과는 달리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해산병이 합류하면서 그 핵심적 이념이 되고 있었다.

후기의병항쟁은 전투능력이 과거보다 월등하게 높아졌으며, 또 의병의 병수(兵數)로 보거나, 조직에 있어서도 지난 제1기나 제2기보다도 훨씬 규모가 컸던 것이므로, 오묘한 기습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할 수 있었다.

후기의병 당시 횡성지역과 강원도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과 의병부대는 민공호 의병부대, 이강년 의병부대, 이인영 의병부대, 이은찬 의병부대, 허위 의병부대, 왕희중·김주묵 의병부대, 지용기 의병부대, 류홍석 의병부대, 그리고 러시아령 연해주에서 의병활동의 의맥을 이어간 류인석 의병장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격렬하게 항쟁한 민공호, 이강년, 이인영 의병부대가 대표적이다.

그밖에도 횡성출신 의병장으로는 최인순, 한상열, 박성묵, 강도영 등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을 하였다. 횡성 출신은 아니지만 횡성에서 활약한 의병장은 이강년, 민공호, 박장호, 여용서, 심상희, 김상태, 조병인, 한봉수 등이 있다. 횡성에서는 한기석, 한갑복 등도 크게 활약하였으며, 횡성군의 서기(포수계장) 오정묵이 많은 산포수들의 힘을 빌어 사환, 노동자들과 더불어 의병부대를 조직한 후

49) 상세한 내용은 『횡성지역 전투에 참여한 의병장과 봉복사』(김동정, 2017) 참조.



크게 활약하였다. 횡성 출신의 강도영은 청일면 춘당고개에서 일본수비대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한상열은 후에 만주로 들어가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최인순은 강릉에서 전사하였다.

### 3. 중부지방 3·1운동

#### 1) 중부지방 3·1운동의 배경<sup>50)</sup>

3·1운동은 19세기 후반 이래 전개된 민족운동의 계승이며, 일제의 강제 '병합'과 가혹한 압제에 대항한 거족적 운동이었다. 사상적으로는 유교의 왕도사상(王道思想), 천도교적 민족주의(民族主義), 신문화운동과 기독교활동을 통해 성장한 근대적 사상, 그리고 한말 의병투쟁(義兵鬪爭)에서 조성된 항일의식(抗日意識)이 그 배경이 되었다.<sup>51)</sup>

또한 일제의 식민통치, 특히 지방행정과 관리의 횡포, 경제적 착취로 인한 민족산업의 괴멸과 농촌경제의 파탄, 민족차별, 민족문화 말살에 대한 반일감정의 고조 등이 3·1운동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 (1) 지리적 여건

3월 1일 서울 시위를 계기로 각처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각지의 운동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기와 양상이 달랐다. 중부지방은 한반도의 한

50) 『한민족독립운동사』3권 3·1 운동, III. 3·1운동의 확산 / 3. 중부지방의 3·1운동 / 1) 중부지방 3·1운동의 배경 참조.

51) 조동걸, 「3·1운동의 지방사적 성격 : 강원도를 중심으로」, 『역사학보』47집(1970), 450쪽.

가운데에 위치하여 중앙의 모든 면이 쉽게 과급되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충청·강원도는 각기 지리 교통·산업·문화 등에서 상이한 면도 없지 않았다.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는 중심부며 요충이었다. 한강(漢江)의 수운(水運)을 통해 강원·충북지방과 연결되고, 국토의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가 관통하여 교통·통신이 발달했다. 그러므로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쉽게 전파되어 경기도는 항상 모든 분야에서 중심무대가 되었다.

국토의 중·서남에 위치한 충남은 차령맥산(車嶺山脈)이 동북에서 서남으로 가로 질렀으나, 금강(錦江)·삽교천(插橋川) 등을 짓줄로 하는 비옥한 토지가 많았다. 경부선이 도의 동부를 종관하며 서울과 영남으로 이어지고, 대전에서 호남선으로 전라도와 연결되며, 천안(天安)은 도의 서부와 경기 동남부를 조치원(鳥致院)은 충북의 중앙을 연결하는 철도기점이 되어 충남은 교통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충북은 소백산맥(小白山脈)과 차령산맥이 두 갈래로 뻗치고, 남한강과 금강의 상류가 각각 북·남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내륙에 위치한다. 한강의 수운을 통해 서울과 영남을 연결하고, 서쪽으로 경부선이 지나고 충북선이 중심부를 관통하나, 산맥이 중첩되어 교통이 원활치 못하였다.

강원도는 동쪽에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치고, 마식령·광주·차령·소백산맥이 동서로 뻗어 산이 많고 평야가 적다. 그러므로 동부 해안·철원·춘천·원주 등의 부근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거주한다. 태백산맥 동쪽의 영동, 서쪽의 영서지방은 상호 교류가 활발하지 못해 상이한 문화를 지녀왔다. 경원선이 통과하는 북부를 제외하면 교통이 불편하였다.

## (2) 항일독립운동의 계승

19세기 후반에 한국사회가 이질적인 서양문화와 접촉하고 내외적인 변화를 모색할 때, 유교사회의 중추였던 중부지방도 심각한 충격을 받아 다양하게 대응하였다. 그것은 항일의병투쟁, 애국계몽운동, 동학농민전쟁 등으로 전개되었다. 항일의병투쟁은 조선성리학(朝鮮性理學)에서 분출된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에서 비롯된 강렬한 반침략전쟁(反侵略戰爭)이었다.

중부지방은 예학(禮學)을 정립한 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 부자,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윤선거(尹宣舉)·윤중(尹拯) 등 많은 학자를 배출, 조선성리학을 발달시켰고, 이를 계승하여 조선후기를 압도한 서인, 그것이 분화된 노·소론의 근거지였다. 특히 괴산(槐山) 화양동(華陽洞)에 만동묘(萬東廟)가 설립된 후 화이사상(華夷思想)의 중심이 되고, 그것은 경기 양평(楊平)의 이항로(李恒老)에 계승되어 류인석(柳麟錫)·최익현(崔益鉉) 등으로 이어져 위정척사사상으로 나타났다. 위정척사론은 반외세·반개화의 배타적 보수사상의 근거가 되고, 일제 침략이 노골화하자, 반침략·항일의 의병을 일으켜 무력항쟁으로 발전하였다.<sup>52)</sup> 그리고 '병합' 후는 무력독립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의병 투쟁은 1895년 일제 침략이 본격화하자, 8월 문석봉(文錫鳳)이 보은(報恩)에서 기병하고, 11월에 류인석이 「격고팔도열읍(激告八道列邑)」을 작성하여 전 국민의 투쟁을 호소한 뒤, 제천(堤川)에서 이항로 계통의 유학자를 모아 투쟁에 나섬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춘영·안승우는 원주에서, 이강년·이인영·서상렬 등은 호서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소응·이진응(李晉應)은 춘천에서 기병하여 춘천부관찰사 조인승(曹寅承)을 죽였다. 1896년 류인석 의병부대가 충주성을 점령하고 충주관찰사를 처단한 것을 비롯하여 청풍(淸風)·단양(丹陽)·

52) 강재언, 『근대한국사상사연구』(1983), 53~83쪽.

천안(天安)·평창(平昌)·양양(襄陽)·고성(高城)·지평(砥平) 등의 군수, 광주부윤(廣州府尹)을 응징하였다.

1905년 11월 일본이 ‘을사늑약’을 강요, 한국을 사실상 식민지화하자 의병항쟁이 재개되었다. 이때는 고위관직자 뿐만 아니라 농민·노동자·교사 등 새로운 사회계층이 참가하고 규모도 커졌다. 원용팔(元容八)·정운경(鄭雲慶)이 제천·보은에서, 충주에서는 금광 노동자 수백 명이, 강릉에서는 교사의 지도로 청년회원들이 일어났다. 경기도 죽산(竹山)·안성(安城)의 박석여(朴昔汝), 양근(楊根)·여주(驪州)의 이범주(李範疇), 보은의 노병대(盧炳大), 단양의 나시운(羅時雲), 홍주(洪州)의 김복한(金福漢), 그리고 충남 정산(定山)의 민종식(閔宗植) 등이 활약하였다. 민종식 의병부대는 서천(舒川)·보령(保寧)·감포(監浦) 등을 공격, 관리들을 처단하고 홍주를 점령한 뒤 서울 진격을 준비하다가 패퇴하였다. 농민 출신의 김수민(金秀敏)은 서울 주변에서, 이강년은 충청·강원·경상도에서, 허위(許薦)는 임진강 유역에서 활약하였다. 당시 강원·경기·충북·경북의 접경지역은 ‘의병천하’라 할 만하였다.

1907년 7월말 일제가 고종을 퇴위시키고 8월 1일 군대를 해산하자 서울 시위



군대해산 뒤 곧바로 포로가 된 한국군

대가 일군과 시가전을 전개하고, 지방 진위대(鎭衛隊)들이 봉기하였다. 당시 청풍·양근·지평에서 이미 의병이 항쟁하였는데, 5일 원주진위대 병사들이 원주 주민과 합세하여 군

청·경찰서를 공격하여 원주를 점령하였다. 이들은 2대로 나누어 특무정교(特務正校) 민궁호(閔肯鎬)는 충주·제천·죽산·장호원·여주·홍천 방면으로, 대

대장서리(大隊長署理) 김덕재(金德濟)는 평창·강릉·양양·간성·고성·통천·흡곡 방면으로 진출하여 항쟁을 계속함으로써 중부지방은 항쟁의 대열로 메워졌다.

9일에는 수원 진위대대 강화분견대(江華分遣隊) 병사들이 군수와 일인 순사를 사살하고, 통진(通津)·해주(海州) 등지의 의병에 가담하였다. 홍주분견대도 집단 탈영을 시도하고, 수원·청주의 진위대도 의병에 가담하였다. 이후 여주·음죽(陰竹)·장호원·홍천·죽산·평창·진부(珍富)·수원·남양·인제·강릉·이천·양구·화천·파주·이포(梨浦)·광주 등에서 항쟁하였다. 일본 수비대가 청풍·제천을 방화·살육 하였으나 진천(鎭川)·청주·청산·옥천·괴산·연풍·간성(杆城)·고성(高城)으로 확대 투쟁하였다. 강화의 보창중학교장(普昌中學校長) 이동휘(李東輝)가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 회원을 포함한 군민을 지휘 의병 투쟁을 전개했다.

1907년 음력 9월 13도 창의대장(倡義大將) 이인영은 13도 의병장을 총동원, 서울을 탈환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다음해 정월 양주에 집결한 의병 1만 명이 분산하여 동대문 밖에 집결기로 하고, 일부 부대가 출동하였으나 일제의 기습으로 실패하였다.

일제는 보병·헌병·경찰을 증원하고 한인 헌병보조원 4천 명을 모집하여 진압에 앞세우고, 마을마다 자위단(自衛團)을 조직, 의병과 민중의 연계를 차단하였다. 그리하여 의병은 숫적으로 약화되어 유격전화 하였다. 그러나 1909년 9월 하순부터 약 2개월간 ‘남한폭도대토벌(南韓暴徒大討伐)’로 호남의병이 큰 타격을 받았으나, 강원 의병은 여전히 활약을 계속하였다. 1910년 일제의 강제 강점에 괴산의 홍범식(洪範植)이 자결하여 저항하였다. 이후에도 경기·강원·충청도에서는 독립을 쟁취하려는 투쟁이 계속 되었다. 1912·1913년에도 계속되고 3·1 운동 직전에도 소수 병력으로 반일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독립투쟁은 항일투쟁을 계승하여 3·1운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많은

의병들이 새로운 기지를 구축하려고 만주 등지로 옮겨가 독립군으로 활약하였지만, 국내에서는 서당교사·화전민·술장사·머슴살이로 은둔하다가, 3·1운동 때 등장하여 크게 활약했다.<sup>53)</sup>

### (3) 민족독립운동의 기반

중부지방은 서학(西學)에 대한 인식도 일찍 싹트고 실학사상(實學思想)의 중심지였다. 이익(李瀾)·이가환(李家煥)·채제공(蔡濟恭)·이승훈(李承薰)·정약용(丁若鏞)·서유구(徐有榘)·김정희(金正喜) 등 실학자들이 배출되어 활약하였고, 김옥균(金玉均)·유길준(兪吉濬)·신채호(申采浩)·남궁억(南宮億) 등과 같은 개화사상이나 또는 애국계몽운동가들이 이 지방출신이었다. 그러므로 중부지방은 19세기 후반 이래 척사와 개화가 부딪히고, 보수와 혁신이 대립된 지역이었다.

애국계몽운동은 의병투쟁이 고조될 때 추진되었다. 그것은 개화운동을 계승하였으나, 주권을 잃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절박한 위기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구국투쟁의 성격을 띠고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1897년 『독립신문』이 발간되고 독립협회가 조직된 후, 언론과 학회활동을 통하여 민족의식과 근대사상이 보



『독립신문』 제작하는 모습

53) 안병직, 『3·1운동』(한국일보사, 1975), 67~86쪽;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1980), 73~84쪽, 123~191쪽.

급 계몽되었다. 1896년 4월 7일에 서재필(徐載弼)이 창간한 신문으로 한글전용과 띄어쓰기를 단행하여 그 후의 민간신문 제작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신문은 민중계몽과 자주독립사상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주권을 상실하자, 1906년 산업과 교육을 진흥하여 국권을 회복하지는 목적으로 대한자강회가 창설된 후, 많은 학회·단체·학교가 설립되어 교육·언론·출판·역사연구·여권운동·국채보상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민족적 자각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취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봉건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전국에 널리 파급된 신교육구국운동(新教育救國運動)에 의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강렬한 독립사상이 청소년들에게 교육·배양되어 민족의 역량을 성장시켰다. 이는 3·1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1911년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을 공포하여 식민지 교육을 강요함으로써 열화와 같은 교육열은 저지당하였다. 보통학교는 군청소재지나 중요 도시에 설립되었으나, 고등보통학교는 거의 설립되지 않고 실업학교만 있었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

지교육정책이 고등교육을 억제하고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크고 작은 각종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고 3·1운동의 주동자를 배출하였다. 특히 교



강릉지역 서당의 훈장과 어린 학생들

통이 불편한 강원도에 서당이 많은 것은 보수적 전통교육이 강했음을 뜻한다. 신문화에 대한 반발로 유학교육이 강조되었으나, 항일운동이라는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왕도사상이 신문화운동과 결합될 수 있었다.

일제가 한국어·한국사·한국지리 등의 교육을 폐지하고 교과목을 일본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당에 대해서도 취체규칙(取締規則)을 만들어 강력히 규제하므로 각종 학교가 많이 폐쇄되었다. 그러나 술한 악조건을 무릅쓰고 교육은 명맥을 유지하여, 잔학한 무단통치를 겪으면서 독립의 절실함을 체득하고 민족주의를 더욱 고취하였다.<sup>54)</sup>

3·1운동의 지방에로의 확산은 천도교와 기독교의 역할이 컸다. 천도교의 전신인 동학(東學)은 중부지방에서 크게 교세를 떨쳤으며, 19세기말 한국사회가 당면한 반봉건 반침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농민운동을 일으켰다. 1893년 보은에서 대집회를 가진 동학 지도층은 다음해 전봉준(全琫準) 등 남접이 반봉건투쟁에 나섰을 때는 반대했으나 청·일 양국이 침략성을 노골화하자 논산에서 남접과 합세, 대규모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하다가 공주·천안에서 일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때 패퇴한 동학농민군은 1895년부터 의병에 가담, 항일전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1896년 가을 의병이 거의 해산될 때, 의병장으로부터 이탈하여 활빈당(活貧黨)으로 활약하였다.

활빈당은 농민폭동의 새로운 형태로서 충청도 내포(內浦) 지방에서 일어나 강원도에 이르는 일대에서 1904년까지 활동하며, 외국의 농산물 수탈, 광산 및 철도부문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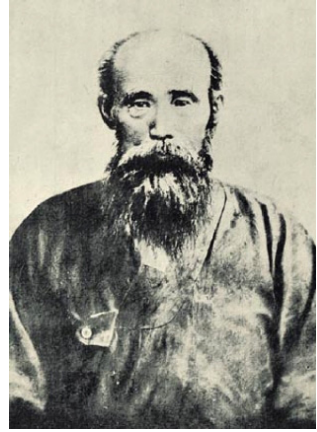
홍길동테마파크 내 복원된 활빈당 산채 모습(2012)

54) 신용하, 「3·1운동의 재평가」,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1980), 224~225쪽.



자본침투 등에 반대하며 각지에서 항쟁하였다.<sup>55)</sup>

강원도의 영서 남부인 횡성·홍천·원주·영월·평창·정선 등은 동학농민운동이 활발했으나, 유교세력이 강했던 영동의 강릉·양양·삼척 등지에서는 반동학군을 조직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그러나 천도교가 춘천·화천·철원·평강·김화·이천(伊川) 등에 전파되어, 독립운동자금을 모으며 거사를 준비하는 등 3·1운동 직전에 그 세력은 대단하였다. 또한 영서 남부지방은 제2세 교주 최시형(崔時亨)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 '민족대표'인 손병희(孫秉熙)는 충북에 많은 추종 세력이 있었다.



제2세 교주 최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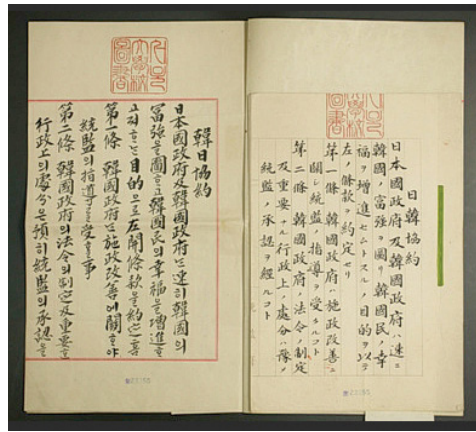
기독교는 중부지방의 거의 모든 군에 전파되었으나 대중화 되지는 못하였으므로 기독교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에 수반하여 들어온 신문화 사조와 교회가 지방청년들의 집단적인 활동을 조장한 것은 3·1운동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불교는 3·1운동과의 연결이 지극히 미약하였다.

#### (4) 반일감정의 격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는 본격적으로 재정·금융·화폐·교통·통신 등을 탈취하여 경제적 지배권을 장악했다.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의 설립과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을 통하여 광범위한 토지를 수탈·지배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내적인 변화에 의하여 붕괴되던 지주제(地主制)를 재창출하고, 자영농

55) 강재언, 앞 책, 135~149쪽.

(自營農)을 무너뜨려 소작농 또는 영세농으로 전락시켰다. 조짐을 보이던 농민적 토지소유 현상은 철저히 저지되고, 대다수 농민은 토지로부터 유리되었다. 총경지면적의 50% 이상이 전농가호수의 3%에 지나지 않던 지주에 집중되고, 77%의 농민이 소작농·영세자작농으로, 다시 화전민·유랑민으로 전락했다.



을사늑약 한일의정서

또한 18세기부터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은 개항 후 일부 민족자본가층의 성장을 가져 왔으나, ‘회사령(會社令)’의 실시로 타격받아 저지되고 말았다. 일제는 삼림·어업·광업 등의 산업자원을 박탈하고 시장경제를 독점하였다. 이식자본주의화가 급진전되면서 광산·항만·운수업 등에서 노동자가 증가하였지만, 열악한 조건 아래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다.<sup>56)</sup>

중부지역은 일제의 경제적 수탈이 비교적 심했다. 경기도는 서울의 관문인 인천을 위시하여 수원·고양·개성·시흥군에 일인 약 2만 명이 거주했다. 인천에는 상업·운수업·공무원·자유업·공업에 종사하는 약 1만 2천명이, 수원군에는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과 동산농장(東山農場)·국무농장(國武農場) 등이 있고 약 3천명의 일인이 거주했다. 김포·과주·진위·용인·시흥군에 대규모 농장을 비롯해서 도내에 농장을 경영하는 일인이 많았다. 양조업·피혁공업·정미업을 경영하는 일인들이 각처에 분포되어 민족자본의 발전을 저해하며 농민을 수탈하였다.

56) 안병직, 앞 책, 51~67쪽.

충남에는 대전(大田)·연기군(燕岐郡)에 1천 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장이 많고, 1백 정보 이상의 농장도 17개 이상이었다. 비옥한 평야와 수운이 발달한 강경(江景)을 중심으로 한 논산군에는 농장을 경영하는 회사·개인 그리고 상인 등 약 3천명이 거주하며 농산물의 반출에 주력하여 반일감정이 높았다. 천안·보령·예산·서산·아산군에 일인 농장이 있고, 동척 이민 270호 이상이 살았다. 교통의 중심지인 대전에 약 4천명, 농산물 집산지며 교통의 요지인 조치원에 약 1천 5백명, 천안에 약 1천명의 일인이 거주하였다. 직산금광(稷山金鑛)·임천광산(林川鑛山)·구봉산광산(久峰山鑛山) 등을 일인이 경영하며 한인 노동자를 혹사하여 광산물을 탈취해 갔다.

충북은 비교적 일인이 적었다. 도청이 있는 청주에 약 1천 명, 충주에 5백 명 정도가 거주하고, 월명광산(月明鑛山, 옥천군)·홍익식산주식회사(弘益殖産株式會社)·복부농장(服部農場, 청주군)이 있었다.

강원도에는 일인이 춘천에 약 1천명, 철원·평강·강릉에 4백 명 정도가 살고, 춘천·철원·고성군에 그들의 농장이 있었다.<sup>57)</sup> 또한 이들은 강원도의 임산물·광산물을 탈취하고, 숯장사·어업 심지어 아편재배까지 하면서 농촌경제를 파탄시켰다.

일제는 주세(酒稅)·연초세(煙草稅)를 부과하여 농민을 수탈하고 화전 경작도 제한하여 기사시키려 하였다. 공동묘지제(共同墓地制)를 강요하여 반일감정을 고조시켰다. 도로공사나 관공서 건립에 따른 개인의 토지·가옥을 몰수하고 각종 토목공사에 부역동원했다.

이러한 일제의 통치와 수탈로 일인에 대한 민족감정은 팽배해졌다. 1918년 철원군 마장면의 농민 5백 명이, 그리고 춘천군 농민 350여 명이 각각 면사무소를 공격한 것은 반일감정의 폭발이었다. 또 1918년까지 10만 내지 20만 명에 이르

57) 박경식, 『조선 3·1 독립운동』(평범사, 1987). 113쪽, 120~121쪽, 125쪽, 131쪽.

는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20여 개의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노동조건 개선, 임금인상, 비인간적인 대우 개선, 민족차별의 철폐를 목적으로 파업을 일으켰다.

당시의 민족자본가 농민·노동자 등은 근대적 의식을 갖고 어떤 계기가 있으면 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민심은 무엇이든지 유인하는 것이 있으면 곧 폭발할 듯한 긴장상태였다. 여기에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정세의 변화, 해외독립운동가들의 독립사상의 전파, 일본유학생의 민족자결주의 소개, 그리고 고종의 암살설로 한국민 특히 청년·학생들이 독립운동의 당위성에 공감케 되었다. 그러므로 유력한 지도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설득하면 항일독립 의식이 높아진 민중들이 적극 참여하였다.<sup>58)</sup>

## 2) 중부지방 3·1운동과 그 성격

3월 1일 서울에서 시위가 발발하자, 경기도 개성에서 운동이 태동하여 3일에 무력시위하고 이날 충남의 대전·예산, 9일 충북 청주, 10일 강원 철원에서 시위함으로써 중부지방 3·1운동이 점화되었다.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에서 시작되어, 면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자연 촌락으로 확산되었다. 경기·충남에서 먼저 시위하고 교통이 불편한 충북·강원에서 늦게 일어나 강렬하게 운동을 전개했다. 평강을 제외하면 서울과 사전 연락없이 시위하였으므로 전체가 보조를 맞추지는 못하였다.<sup>59)</sup>

3·1운동을 촉발·확산시키는데 있어서 독립선언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

5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692~693쪽.

59) 평강은 2월 28일 천도교본부의 안상덕(安相德)이 천도교평강교구장 이태윤(李泰潤)에게 전한 독립선언서 7백 매 중 33매를 배부 받아 운동을 추진하던 중 지도자가 체포되었다. 이리하여 평강은 강원도 서북지방 3·1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다(이병현, 『3·1운동비사』(1959), 874쪽).

였다. ‘민족대표’가 서명한 독립선언서는 전 민족의 쫓기를 촉구하여 반일의식이 팽배하던 한민족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였다. 내용은 소극적이었지만 시위와 봉기를 일으키는 몫을 담당했다.<sup>60)</sup>

2월 28일과 3월 1일에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가 천도교·기독교·학생·고종 국장에 참례한 유학자·상인 등을 통해서, 또는 지방에서 서울에 사람을 보내 가져와 비밀리에 각처에 배포되었다. 이후 각지에서 등사하거나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살포하고, 학교 및 군중집회장에서 낭독하면서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 외에 선전문·격문·취지서·통지서·경고문·통문·밀서 등 시위 참여를 촉구하는 수백 종의 문서가 배포되어 민중을 설득·계몽하였다. 또 국내외에서 발행된 독립운동관계 신문, 특히 등사판 지하신문인 『조선독립신문』은 독립운동의 상황을 알려주어 민중을 고무 격려함으로써 일제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였다.

각종 문서의 내용은 점차 대중 스스로의 요구조건을 강렬하게 표출하여, 초기 운동의 취약성을 극복해갔다. 이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독립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한민족 누구나 적극 참여케 했다.

독립운동은 처음에는 천도교나 기독교의 교단 조직을 통해 일어났으나, 점차 고종 국장에 참례하고 서울 시위를 목격한 유림 또는 서울 학생들이 귀향하여 일으킴으로써 거족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또 인근 지방의 운동소식과 독립선언서·선전문 등의 전달에 영향 받아 일어나기도 하였다. 대개 교동이 편리하고 천도교·기독교 등 중앙의 운동주동체와 연결되고, 운동을 추진할 만한 세력이 큰 지역에서 먼저 쫓기하였다. 그러나 중앙의 지도체와 연결된 것보다, 점차 각 지방 나름의 조직과 민중의 자발적 참여로 결행된 곳이 많아졌다. 초기 운동의 주동체가 천도교·기독교·학생 등의 단체인 것은, 일제 탄압으로 다른 사회단체가 거의 해산되었으나, 이들은 명맥을 유지하며 역량을 배양할 수 있었기 때

60) 강재언, 앞 책, 245쪽.

문이다. 특히 천도교인들은 국권회복과 독립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신념을 갖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독립을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독립선언서를 각지에 배포하고, 운동을 주도하며, 운동자금을 모아 독립운동의 장기화를 모색하였다.<sup>61)</sup>

유교는 의병투쟁 때 많은 지도자를 상실하여 초기에는 적극적이지 못했으나 고종 국장 때 배관(拜觀)했던 유림들이 귀향하여 격렬한 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했다.

불교는 비세속적인 성격과 조직이 확실치 못했으므로 적극가담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주동인물은 대개 지방에 거주하는 천도교인·기독교인·유림·교사·학생과 청년·서당생도·의병출신·구장·농민·상인·노동자·어부·광부 또는 일본 유학생이나 간도(間島)에서 귀환한 사람, 서울의 학생, 또는 면장·군청이나 면사무소의 직원, 심지어는 기생까지 앞장서서 다양했다.<sup>62)</sup>

의병투쟁 및 애국계몽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독립운동가들이 운동의 사상적 지주 역할을 하고, 교사·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층·농촌지도자·일부 민족자본가들이 민중을 동원·지도하였으며, 농민·상인·노동자가 운동의 역량이 되었다.<sup>63)</sup>

초기에는 지식인층·종교인·민족자본가의 주도로 시위하고, 비무장·무저항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젊은 학생층과 농민·노동자·상인층에 의해 확산되었다. 식민지하에서 소작농·농업노동자·화전민으로 전락해간 농민들이 3·1운동에서 가장 큰 역량을 발휘했다. 그들은 군중의 대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기술자·날품팔이·노동자

6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274쪽.

62) 수원과 안성 등지에서는 기생조합(妓生組合) 기생들이 참여하였다(김병조, 『한국독립운동사략』; 이병헌, 앞 책, 869쪽, 878쪽).

63) 안병직, 앞 책, 98쪽.

들도 적극 참여하고 나름대로의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시위 후에도 노동자들은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했다.<sup>64)</sup>

주동자나 참여군중은 독립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시위로 파리강화회의에 호소하여 독립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미 독립되었다고 믿고 축하하는 뜻에서 만세 부른 곳도 있었다. 독립의 가능성을 의심한 사람들도 독립의 기운을 타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운동 여하에 따라 독립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독립은 불가능하나 일제의 통치와 착취, 민족차별을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적극 가담하기도 하였다. 경기도 교하(交河)에서처럼 참설(讖說)을 믿거나 군중심리로 나선 자들도 있었다.<sup>65)</sup>

중부지방 3·1운동은 주동인물들이 협력 또는 합세해서 추진한 것은 대중운동으로 발전했다. 농민·학생·노동자·상인·종교인·서당생도·어부·광부 등이 군중의 대부분으로, 이들이 망라되거나 어느 한 계층이 단독 시위한 경우도 있고, 일인이 가담하기도 하였다. 계층·연령·학력·종교·직업·신분·남녀를 초월하여 자발적으로 운동을 계획·조직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동 참여했다. 시위계획이 실패한 것은 한인 관리를 설득하다가 탄로 나가거나, 구장의 배신, 미국선교사의 배반·고발로 말미암은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행정검속으로 발각된 것이었다.

대부분의 군중은 자발적으로 또는 설득·계몽을 통하여 시위에 참여했지만, 군수·면장·관공리·헌병보조원·일인 관공리 등을 위협하여 강제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시위 때는 대거 큰 태극기나 ‘독립만세’의 깃발을 앞세웠는데, 간혹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또는 시위 대표자의 이름을 쓴 기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관공리는 모두 죽여야 한다. 구금된 동포를 탈환하자” 또는 “독립과 함께 모든 관공서는 폐지되었다. 속히 건물 기타 물품을 인도

64)成大경, 「3·1운동 시기의 한국노동자의 활동에 대하여」, 『역사학보』제41집(1969), 98쪽.

6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495~498쪽, 520~521쪽, 950쪽.

하라” 그리고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돌아가라”는 함성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sup>66)</sup>

3·1운동의 전국적인 경향은 3월 초순에 전국적·거족적으로 확산되어, 3월 중순 이후 4월 상순까지는 전국에 걸쳐 거족적인 운동이 절정에 이르러 작열·혈전하고, 4월 하순에 이르러 지하운동으로 변질하는 한편 일제와 세계여론을 관망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sup>67)</sup>

경기도는 대체로 전국의 추세와 발맞추는 듯 3월 초순부터 4월 하순까지 전개되었다. 평안도처럼 단기간에 아주 강렬하든가, 경상도처럼 늦게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황해도와 비슷하게 끈기 있고 격렬하였다. 처음에 서북지방과 함께 전국 운동의 중심이 되고, 곧 수그러지는 듯하다가 3월 하순부터 폭발, 4월 상순까지에 그 절정기에 이르렀다. 이때는 매일 어느 군에서나 치열하게 시위했다. 시위횟수나 참집인원으로 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동을 펼쳤다. 시흥군 23회, 고양군 22회, 수원 20회에 걸쳐 시위하고, 강화군은 연인원 약 2만 4천명이 참여하여 서울·의주에 다음가는 대규모 군중이었다.

충남의 3·1운동도 비교적 격렬하였다. 3월 초순부터 4월 중순까지 전개되었는데, 특히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가 절정기로, 이 기간에는 도 전역에서 연일 쫓기하여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충남이 가장 치열하였다. 4월 6일에서 15일까지는 황해도에 이어 경남과 함께 많은 운동을 일으켰다.

충북은 비교적 늦게 쫓기했으나, 4월 중순까지 전 지역에서 시위했다. 특히 4월 초순에 각처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제히 전개되었다. 강원도는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개월 남짓 운동을 계속했다. 3월 말부터 4월 초순까지가 가장 많고 치열하였다.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절정기에는 하루 평균 4·5개소에서 시위하였다.<sup>68)</sup>

6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522쪽.

67) 윤병석, 앞 책, 49~50쪽.



시위 참집인원은 강화군처럼 1회에 2만 명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천 명의 경우가 많았다. 5·6명이 만세 부르기도 했지만 대개는 수백 명의 규모였다. 한 곳에서 한번 시위한 것이 아니라, 며칠씩 혹은 수십일 동안 계속하거나 장날마다 일으키기도 하였다. 자연촌락 단위로, 또는 생활권 중심으로 몇 개 마을이나 면·군이 연합해서 펼치기도 하였다. 청주군과 연기군의 봉화시위는 두개 이상의 군이 협력해서 전개한 것이었다. 거의 전 군민이 참여한 것은 강화군 시위였다.

시위형태도 지역과 주도 또는 참여계층에 따라 다양하였다.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평화적 시위, 밤에 산에서 횃불·봉화를 울리며 만세 부르는 횃불시위, 그리고 돌과 몽둥이로 관공서 등을 공격 파괴하는 무력항쟁 등으로 전개되었다.

처음에는 대개 5일장을 이용하여 장꾼 등에게 태극기·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주고, 선언서를 낭독한 다음, 시장을 누비고 군청·면사무소·경찰관주재소·헌병과견소·학교 등에 몰려가 시위하였다. 장날에 시위한 것은 인원 집결을 장꾼으로 가장시켜 적발을 막고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려는 의도였다. 또 도로공사의 부역꾼으로 가장하거나, 양묘장이나 식목하러 나온 사람, 임시연극홍행장의 관중을 선동하기도 하였다. 장터 이외에도 모이기 쉽고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관공서 소재지나 주변에서 시위하였다.

군경의 경계가 삼엄해지자, 미리 기일과 장소를 약속하여 모이고, 장꾼에 섞여 군중을 선동하고 관헌의 감시를 피해 각 집마다 찾아가 동원했다. 시위도 점차 평일에 일으켰다. 군중을 계획적으로 동원하는 데는 30·40대의 구장·일반 지식인이 앞장서고, 각 계층·연령의 연합적인 지도자가 효과적이었다. 평화적 시위는 기독교인의 단독 시위 또는 공·사립학교 생도의 주동에서 나타나며, 전

---

68) 국사편찬위원회, 앞 책, 218-291쪽.

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그리하여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폭력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sup>69)</sup>

한편 밤에 언덕·뒷동산 등에서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가평(3.9)·행주(幸州)(3.11)·괴산 청안면·진천(3.20) 등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으나, 충청남·북도의 거의 중심에 위치한 청주군 대성리에서 3월 23일 횃불시위 한 것을 계기로 청주군은 물론 충남·경기·강원도로 확산되었다. 횃불시위는 대개 구릉이나 평야에서 일어나고 한 곳에서 횃불을 올리면 그를 신호로 주변 마을에서도 호응하였다.

평화적 또는 횃불의 시위는 폭력적 저항운동으로서의 반일의병투쟁의 실패를 반성하고, 반일적 저항세력의 온존을 꾀하면서 최후까지 계속 독립을 주장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민중들이 스스로의 사상과 운동방법을 갖고 참여하여 비폭력 저항과 폭력적 저항을 병행하였다.<sup>70)</sup>

군중들은 시위하다 피검자가 생기면 경찰관서에 몰려가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던지, 일제의 무력탄압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항하여 무력시위로 전환하였다. 점차 군중들은 미리 점심을 망태에 넣어 걸머지고, 낫·괘이·곤봉·장작·축창·가래 등을 휴대하여 전투에 대비하고, 훈련된 정규군처럼 지휘자 명령에 따라 행동하였다. 결국 독립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일본을 축출고 독립을 쟁취하는데 있었으므로 무력화는 당연한 것이었다.

군중들은 투석으로 면사무소·군청·우편소 등 비교적 저항력이 약한 곳을 파괴하고 일기(日旗)를 찢고 관리를 구타하는 등 기선을 잡아 사기를 높인 다음, 경찰관서나 헌병분견소·파견소 등을 공격, 문·유리창·벽을 부수며 서류를 불사르고 체포된 동지를 탈환하였다. 또 일인·친일배·시위불참자의 가옥

6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275쪽.

70) 강제인, 앞 책, 252쪽.

이나 중국인의 상점을 부수었다.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전선을 끊고 교량을 파괴하여 통신과 교통을 두절시켰다. 군중들은 강원도에서처럼 권총을 소지·발사하였고, 흥천 물걸리 시위 때는 무기·탄약을 탈취할 목적으로 주재소를 공격하기도 하였다.<sup>71)</sup>

충남 서산에서는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여 총과 군도를 탈취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군중들이 관공서를 공격한 것은 일제 통치에 대한 전면적 거부인 동시에 정면 응징이었다. 그것은 또 사회의 이목을 끌기 쉽고, 한국의 독립과 함께 일제관헌들이 그 존재를 잃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sup>72)</sup>

무력시위로 경기도에서는 수원군의 남양(南陽)·사강(沙江)·신왕(新旺), 진위군의 서정리·안중(安仲)·봉남(鳳南)·백봉(柏峯) 등 8개 경찰관주재소를 철수케 하였다. 충남에서도 천안군의 북면(北面)·보산원(寶山院), 연기군의 서면 등의 헌병주재소, 천의·서산군 남면과 포지면의 경찰관주재소 등 7개 군경기관을 철폐케 하였다. 거류 일본인들은 겁에 질려 일제 군경기관 소재지로 피신하거나, 가족을 일본으로 귀환시키거나 준비하는 자가 많았다. 또 일선의 부일 협력자인 면직원·헌병보조원이 사직하였다.

시위 이외에도 다양하게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학생들의 동맹휴학, 상인의 철시·노동자의 파업 등이 계속되고, 납세 거부의 움직임도 대두되었다. 수원농림학교·병점농업학교가 동맹퇴교하고, 인천보통학교, 인천상업학교, 시흥보통학교,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가 동맹휴학하였다.<sup>73)</sup>

학생의 휴학·결석이 증가하고 입학생이 감소되었다. 상인들은 독립운동 초기부터 평일은 물론 장날에도 철시하여 인심을 들끓게 하여 운동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강화·고양에서는 철시하고 시위하라는 경고문이 살포되고, 개성에서는

7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573~576쪽, 1000쪽.

7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523쪽.

7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530쪽.

한인 상점은 물론 일인까지 호응했고, 안성에서는 중국 상인까지 가담케 하였다. 인천에서는 170여 상점이, 강경에서는 300여 상점이, 황성에서도 철시하였다. 개성·죽산·울진에서는 일본상품을 사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평택·양성(陽城)에서는 개점한 일인 또는 중국인 상점을 위협하고 파괴·방화했다. 고양군 서빙고리(西氷庫里)에서는 납세를 거절하지는 경고문이 나붙고, 양평에서는 군청의 국세철(國稅綴)·세금정리부(稅金整理簿) 등을 파괴하는 조세 저항이 일어났다. 일인 대금업자나 금융조합에 대한 공격·파괴로 일본의 고리대·금융자본의 침투에 대해서도 응징하였다. 그 결과로 일인 대금업자들은 대출을 중지하고 회수에만 전념하였다. 독립운동가들은 직공·노동자·광부 등의 파업을 유도하여 식민지수탈경제체제하의 생산활동을 저지하였다.<sup>74)</sup>

또한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청원·요구하는 서한을 보내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였다. 호서 유림들이 영남 유림과 함께 파리강화회의에 장서를 보내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였고,<sup>75)</sup> 양주군 별내면(別內面) 유생이 일본 천황에게 독립을 승인하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다.<sup>76)</sup>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제재는 신속·철저했다. 헌병대·경찰서·군청이 상호 연락하며 정보를 교환하며 온갖 수단을 강구, 시위를 사전에 봉쇄하려고 하였다. 시위 예상지역에 헌병을 급파하고 행군·순찰을 강화했다. 고종 국장에 참례하고 귀향하거나, 일본유학생 또는 간도에서 돌아온 사람, 타도에서 왕래하며 언동이 이상한 한인은 물론 외국 선교사까지 미행 적발했다. 각 종교인, 공·사립학교의 교사와 학생·서당생도·행상인을 감시하고 문서왕래·각종모임·야간 외출을 통제하고 종교집회에 밀정을 침투시켜 내사했다. 정거장·

74) 국사편찬위원회, 앞 책;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이병헌, 앞 책 참조.

75) 허선도, 「3·1운동과 유교계」, 『3·1운동50주년기념논문집』(동아일보사, 1969), 290~298쪽.

7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301~303쪽, 308~309쪽.

항만의 출입자를 검사하고 호구조사와 숙박업소에 대한 임검을 실시 주동자를 색출하였다. 한국의 독립은 망상이라고 역설하며, 시위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각처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한인 수렵자의 총기·화약류의 사용을 제한하고, 화약고의 관리를 강화했다. 경찰력을 증원, 무차별 발포하여 시위를 저지했다. 거류일본인들로 자위단을 조직하여 재향군인을 동원하였다. 죽산·용인·안성·평택에서는 소방대가 소갈퀴로 시위군중을 찢고 할퀴었다. 군대가 증원되자, 진압은 군대가, 주동자 검거는 경무 관헌이 맡았다.

소규모의 평화적 시위는 회유·방면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족분열을 획책했다. 운동이 재발하거나 격렬하면 위협과 발포로 사상자를 내며 진압했다. 시위가 대규모화·무력화하자 변장자를 침투시켜 주동자를 색출·검거했다. 지하신문의 출판을 막기 위해 등사원지·등사기를 통제 압수했다.<sup>77)</sup>

천도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천도교구장·기독교인·교사·유력자를 불러 교인·학생·농민의 시위 참여를 저지 하라고 강요했다. 군중의 집합을 막으려고 시장을 폐쇄·정지하고, 상인에게는 폐지 및 개점에 대한 서약을 받았다.<sup>78)</sup> 경기도의 양평·김포·여주 등 6개 시장이 8일간 폐쇄되고,<sup>79)</sup> 충남에서는 40여 시장이 정지되어 5월 2일에야 11개소가 해제되었다.<sup>80)</sup> 강원도는 강릉·양양·물치·간성·평강·봉평·이천군 지하리·화천 등 9개시장이 22회에 걸쳐 정지되었다.<sup>81)</sup>

그러나 항쟁의 방법으로 철시한 곳에서는 상업의소·경찰서를 통하여 개점케 하고, 이를 거절하자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로 문을 열게 하였다.<sup>82)</sup>

7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407~408쪽.

7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635~637쪽, 959~961쪽.

7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631쪽.

8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958쪽.

8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667쪽.

운동지는 철저히 검거해서 잔학한 고문과 참혹한 옥살이를 시켰다. 망명지는 가족을 능욕하고, 피살자까지도 무덤을 파고 관을 파괴했다. 더욱 기증스러운 것은 집단학살과 방화로 마을 전체를 폐허로 만드는 야만적인 보복행위였다. 수원 제암리의 대학살은 그들의 잔인성을 드러낸 한 예이었다.<sup>83)</sup>

평택에서는 12세의 소년이 성냥갑에 태극기를 그렸다고 총살하였다. 수원군의 향남(鄉南)·장안(長安)·우정·팔탄(八灘)·송산(松山)·서신(西新)·마도면(麻道面), 안성군의 원곡면(元谷面) 등 64개 부락에서 방화 살육을 자행했다. 제암리 이외에도 각 부락에서 총살 39명, 검거 2천명 이상, 소각 329호 이상의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행위는 경기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일제는 유력자를 각 관서에 불러 설득·회유하고 시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강요했고, 시위자는 자수케 하여 훈유하고 면장 구장이 서약서에 연판케 했다. 또 관민면담회를 열어 한인들의 의견을 개진케 하여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관공리·친일의 양반·지주들의 협력을 얻어 방지책을 강구했다. 지주로 하여금 소작관계를 이용, 소작인을 계도케 하고, 광산과 공장의 감독자들과 연락하여 노동자들을 감독케 했다.<sup>84)</sup>

일제는 국제적 이목을 고려해서 3·1운동 상황을 고의로 축소하고, 그들의 잔인한 만행을 감추려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1919년 6월의 전국 헌병대장(경무부장) 회의서에도 뚜렷이 나타나고, 이후 시위관계 통계자료에 일관되었다. 그러므로 3·1운동관계 통계는 실제보다 훨씬 축소되었다.

3·1운동은 어떠한 특정의 지도사상이나 정치결사에 의하여 체계적 조직적으로 지도된 운동은 아니고, 전국에서 각 계층의 민중이 스스로의 사상과 투쟁방

8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528-529쪽.

83) 일제는 4월 15일 20여 명의 군대를 동원, 제암리를 둘러싸고 기독교인과 천도교인들을 예배당에 강제 집합시킨 뒤 문을 잠근 뒤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그리고 불을 피해 나온 사람들은 총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127-130쪽).

8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632-636쪽.

법을 통하여 일으킨 민족운동이었다. 그러므로 3·1운동은 지역적·시기적으로 분산되고, 운동의 지도주체도 각각 독자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민족독립·국권회복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졌으나, 비조직적이고 행동이 통일되지 못했다.<sup>85)</sup>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일제의 잔인한 학살·무력 탄압으로 적수공권의 독립운동은 많은 희생자를 내고 독립을 성취하지 못한 채, 점차 표면상 시위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지만 3·1운동은 모든 면에서 한국민족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sup>86)</sup>

또한 한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역량을 세계에 인식시키고,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이를 통하여 한민족 스스로가 독립에 대한 결심과 인식을 굳게 하였다.

3·1운동 후 내심으로는 파리강화회의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또 일제 식민정책이 전환되어 언론 자유나 한인 차별대우가 개선될 것으로 낙관적 전망을 하거나, 반대로 일제의 압박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였다.<sup>87)</sup>

그러나 3·1운동 이후 한민족운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첫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의 지속화 활동이 대두되었다. 양반 유생 중에는 비밀리에 무기를 준비하여 시기를 기다리자는 전쟁준비론이 나타났다. 또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원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임시정부 선포문이 4월 23일경 춘천에 전해지자, 철원군 도피안사(到彼安寺)에서 8월에 철원애국단이 조직되고 각 군에 지부를 설치했다. 이 애국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는 창일계(昌一契)가 조직되어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sup>88)</sup>

춘천과 김화의 감리교인을 중심으로 독립자금 모금 등 임시정부 지원 활동이

85) 안병직, 앞 책, 94~97쪽, 133쪽.

86) 최영희, 앞 글, 74쪽.

8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596~598쪽.

8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596~598쪽.

일어났다. 수원군에서는 1920년 6월 삼일학교(三一學校)를 중심으로 여교사·여학생들이 '구국민단(救國民團)'을 조직, 기회를 보아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돕기로 하였다.<sup>89)</sup> 또 자금을 모아 천도교본부에 송달하는 자도 많아졌다.

둘째 3·1운동은 민족의식을 근대적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지식인의 민족의식이 민중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대중성을 띠게 되었다. 천도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공화정치를 계몽하고, 농민들이 공화정체를 표방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원단체에 가담한 것은 그러한 움직임의 표출이었다.

셋째 각 지역마다 독자적인 민족운동이 대두되었다. 3·1운동 중 개성에서는 '독립개성회(獨立開城會)<sup>90)</sup>, 부천면 용유면에서는 '혈성단(血誠團)<sup>91)</sup>이 조직되어 독립운동을 폈고, 양주 봉선사(奉先寺)의 승려와 서울 약종상은 '조선독립국 임시사무소(朝鮮獨立國臨時事務所)'라는 명의로 운동을 펼쳤다.<sup>92)</sup> 강원도에서는 태을교(太乙教)의 독립단 울진청년회의 활동이 활발하였다.<sup>93)</sup>

또한 일인 또는 관공리에 대한 한인의 태도가 당당해졌다. 유생들은 일제가 독립운동을 근절하려고 조직한 자위단의 서명을 거부했다. 경기도에서는 유력자들이 경찰서 출입을 끊고 한인 면상담역 회의에 참석치 않았다. 관청의 고원 채용에도 불응했다.

식민지 교육에 대한 저항으로 서당 교육이 강화되고 '대한독립만세'라는 말이 널리 유행하여 5·6세의 아동들이 이를 부르며 놀았다.<sup>94)</sup>

8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제5집, 377~378쪽.

9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515~517쪽.

9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313~315쪽.

9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301~303쪽, 308~309쪽.

9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제2권, 648쪽.

9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949~950쪽.



넷째 식민지정책에 대한 저항이 다방면에서 일어났다. 각종 강습을 통한 농업지도 및 육지면(陸地綿)재배를 기피하고, 강제로 배부하는 뽕나무·소나무의 묘목을 불태웠다.

가로수를 뽑고, 이를 금지하는 목찰도 파손했다. 직산금광의 갱부들이 시위하므로써 사업을 축소시키고, 당진·서산군의 간척공사 인부들이 작업을 거부하여 계획을 지연시켰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차별대우의 개선 요구로 도로공사 등이 부진하였다. 광업·연초업·어업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sup>95)</sup>

일인 경영의 음식점·상점을 이용치 않고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펴서 타격을 주었다. 땅이나 집을 일인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회수하여 점차 구축하려 했다.<sup>96)</sup>

다섯째 근대문화와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이 커졌고 정치사상이 양양되었다. 진학률이 점차 높아지고, 노동야학 등 성인교육이 활발해졌다. 또 국제정세의 추이를 관찰하려고 외국 신문을 구독하는 자가 현저히 증가했다.<sup>97)</sup> 일부 지식계층에서 사회주의사상이 급속히 퍼졌다.

여섯째 이제까지 전개된 여러 형태의 운동과 결합되어 그 유산을 계승하고 한계성을 극복하여 민족운동을 보다 전진시키고 다음의 운동 방향을 제시했다. 종교간의 반목이 불식되고 독립을 위해 연대의식을 갖게 되었다. 지방 청년회의 활동에 모든 종교가 망라되어 민족운동을 모색 하였다.

---

9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797~798쪽, 808~809쪽, 816~820쪽, 959~961쪽.

9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950쪽.

9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673~678쪽, 692~693쪽.

### 3) 강원도의 3·1운동

강원(江原)·함경도(咸鏡道)의 독립선언서 분배를 맡은 서울 천도교 본부의 안상(安相德)이 6·7백 매를 2월 28일 천도교평강교구장 이태윤(李泰潤)에게 전하고 원산(元山)으로 떠났다.<sup>98)</sup>

이태윤은 철원·김화 교구와도 연락, 3월 1일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에서 김찬호(金瓚鎬)가 돌아와 실황을 보고하자, 서둘러 이를 배포하였다. 철원군은 최병훈(崔炳勳)이 170매(혹은 2백매)를, 김화군은 채장숙(蔡章淑)이 150매를 가져가 90매는 화천교구에 보내고, 회양군(淮陽郡)은 김천일(金千鎰)이 120매를 가져가 통천군(通川郡)에 32매를 전하고, 이천군은 장선경(張善慶)이 15매를, 춘천군은 임종한(林宗漢)·신윤철(申允喆)이 150매를 배포케 하였다. 춘천군은 배포 전에 발각되어 압수당했으나 다른 곳은 천도교조직을 통하여 비교적 계통적으로 배포되어 독립운동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배포 담당자들이 3월초에 검거되어 곧 시위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3월 10일부터 3일간 철원에서 시위가 일어난 후, 한 흐름은 원산가도를 따라 11·12일에 김화·금성(金城)·회양 방면으로, 또 한 흐름은 김화·충주가도를 따라 23일 화천·춘천·홍천, 27일 횡성·원주 등으로 퍼졌다. 그리고 4월 1일 횡성·강릉, 3일 통천·양구, 4일 이천·평창·양양, 7일 정선, 10일 울진, 15일 삼척·회양, 18일 간성, 21일 영월에서 꺾기하였다. 그리하여 4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군에서 매일 시위를 계속했다. 그러나 5월 9일 양양시위를 끝으로 잠잠해졌다.<sup>99)</sup> 양양·횡성·홍천군에서 비교적 운동이 격렬하였고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강원도의 독립운동은 대체로 천도교인·일반지식인·청년과 학생·유생·기

98) 3월 2일에 독립선언서가 평강에 전해졌다고도 함(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2, 521쪽).

9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572쪽, 1000쪽.

독교인 그리고 의병출신들이 주동하였다. 특히 의병으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강점’ 후 술장사나 화전민으로 숨어살다가 3·1운동에 주동급으로 참여한 것은 의병투쟁과 3·1운동의 담당자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서 중남부와 북부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천도교는 고종의 흥거 때 관내 각 교구장들이 서울본부에서 운동에 관한 방책을 받은 듯 비밀리에 거사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독교 또한 깊게 참여하였다.

춘천에서는 미국인 선교사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운동을 추진했다. 유림이 주동한 것은 흥천군 동면, 양양·삼척의 시위가 두드러졌다. 철원·양양·흡곡·문막·통천·삼척 등의 공사립학교 학생들이 참가하고, 횡성·강릉·인제·영월의 보통학교 학생들의 계획은 사전에 저지됐다. 천도교와 기독교가 협력해서 시위한 곳은 흥천과 횡성이 있었고 기독교와 유림이 합쳐 거사한 곳은 양양이 있었다. 종교간의 협력은 많지 않았고, 어느 한 종교가 단독 추진한 것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식인·청년과 학생은 누구와도 쉽게 합류할 수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을 조직화하였다. 대체로 교통이 편리한 곳은 기독교, 산군(山郡)에서는 천도교가 주동하고, 그밖에는 학생·서당생도·농민 또는 양반이 앞장섰다.

특히 철원·흥천·양양 등에서는 여성들의 운동 또한 활발하게 일어났다. 철원읍의 교회목사 박언서는 교회의 학생·교사·전도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만세운동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일반인을 이끌고 만세운동을 벌인 것은 전도부인 탁진근, 정의학교 교사 엄재형·김경순과 개성 호수둔여학교 동창 이각경·이소희, 청년 이배근·이학수·박창근·윤상식·송희선 등이었다. 이중에서 광진근·김경순·이각경·이소희 4명이 여성이었다. 양양군에서는 조화벽이 만세운동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독립선언서는 강원 북부지방에서는 천도교 조직을 통해서 계통적으로 전달되었으나, 횡성에서는 서울에 사람을 보내 입수하였고, 평창에 전하여 강릉·원주·

영월·정선에 전달했다. 그 외 지역은 기독교인·학생·고종 국장에 참례했던 유림 등이 가져와 배포했다. 횡성·원주·영월 지방은 충북 제천의 이범우(李範雨)가 전하기도 하였다.

강원도도 처음에는 평화적 시위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무력 또는 햇불시위로 발전하였다. 3월 23일 화천, 28일 김화에서 군중이 헌병에게 무력을 가하고 우편소와 일인 상점을 공격함으로써 무력시위가 시작됐다. 강원도에서는 26건 50여 회의 무력시위가 전개됐다. 양양경찰서·이천헌병분견소, 원주·홍천·통천·철원군의 면사무소, 이천군 지하리·통천군 고저리·양양군 기사문의 헌병주재소 등 9개 처를 파괴했다. 그리고 경찰관서 4, 헌병파견소 4, 군청·면사무소 6, 우편소 3개소 등 17개소를 공격했다.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간성(3개면)·화천(1개소)·삼척(3월 31일)·김화(군전역)·정선·울진(4.1)·춘천·평창(4.2)·양양(4.4)·강릉·양구(4.5)·원주(4.7~9, 11 마을단위)·철원(4.10)·홍천군(4.11) 등에서 햇불시위가 전개되었다.

강원도는 일제측 기록에 의하면 3·4월에 56건 시위했다고 하나, 선언서 배포 등 미수에 그친 27건 이상을 제외해도 90건에 이르고 144회 이상의 시위에 총 6만 5천 400명이 참여했다. 일제는 사망 23명, 부상 68명이라고 하나 사망자는 37명 이상이며, 부상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sup>100)</sup>

검거된 자는 총 1천 156명(여자 6명 포함)이었는데, 군별로 보면 화천 175, 양양 172, 원주 87, 홍천 87, 김화 76, 철원 71(여자 6명 포함), 영월 69, 강릉 66, 이천 60, 횡성 56, 통천 56, 춘천 50, 회양 33, 울진 30, 평강 29, 간성 22, 정선 20, 양구 18, 인제 15, 평창군 14명이었다.<sup>101)</sup>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는 57회의 시위에 9만 9천 510명이 참가, 사망 144명, 부상 645명, 피검 1천 250명에 달했다고 한다.

10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 책, 571~572쪽, 939쪽.

101) 조선총독부서무부조사과, 앞 책, 104쪽.

## 4. 1920년대의 무장 · 의열투쟁

### 1) 1920년대의 무장 · 의열투쟁 개관

1920년대가 되면 본격적인 무장 · 의열투쟁이 전개된다.<sup>102)</sup> 봉천성 관전현 안자구(安子溝)에 본부를 둔 정의부(正義府)의 별동원 이진무(李振武) · 홍학순(洪學淳) · 김인옥(金仁玉) · 김학규(金學圭) · 이창만(李昌萬) · 오동락(吳東洛) 등은 국내에서의 무력투쟁을 목표로 1925년 7월 3일 평북 철산군 차배관(車輩館)에 당도하였다. 이곳 순사주재소를 공격하기로 결정한 대원들은 천도교 신자인 한민간인의 도움으로 평북과 짚신으로 변장한 후 군중이 운집하는 장날을 거사일로 잡고 2명 1조로 시차를 두어 주재소에 들어가되 검색을 당할 경우 뒤따라오는 다음 조가 검문 순사를 사살하며 행동개시는 일제의 지원부대가 출동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도록 신의주발 평양행 열차가 출발한 직후로 결정하는 등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거사에 착수하였다.<sup>103)</sup>

7월 6일 오후 5시경 주재소에 진입한 대원 4명은 회의 중인 순사들에게 한글로 된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주고 이를 해독하지 못하여 잠시 머뭇거리는 그들에게 일제히 권총 사격을 가하였다. 이 총격으로 경부보 무라가미 덴도귀(村上傅六) · 순사 이와우에 에이끼찌(岩上榮吉) · 조우코 도꾸에뵈(上甲德衛門) · 스야마 료이찌(須山良一) 등 4명이 즉사하고 주재소 급사 장덕승과 양무엽(揚武葉)이 총상을 입었다. 주재소를 나온 대원들은 양조업체인 영성상회(永成商會)에 가서 군자금 40원과 금시계 등을 수령한 후 장터로 나가서 군중들에게 자신들이 정의부중앙군사부 별동대원임을 밝히고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재소

102) 『한민족독립운동사』8권 3·1 운동이후의 민족운동 1, 1. 국내 민족운동(1) / 2. 무장항일과 의열사의 투쟁 / 2) 1920년대의 무장 · 의열투쟁 참조.

103) 한국민족운동연구소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3집, 373쪽, 464쪽.

순사들을 몰살하였다고 선언하고 미국·중국·남북민주 일대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분투·노력하는 애국지사(愛國志士)와 독립군(獨立軍)들이 사선(死線)을 초월(超越)하여 일치단결(一致團結) 용약매진(勇躍邁進)하고 있다고 역설(逆說)한 후 산중(山中)으로 피신(避身)하였다. 다음날 밤 의주군(義州郡) 월화면(月華面) 월하동(月下洞) 주가곡(朱哥谷)을 통과할 무렵(某時) 경찰(警察)과 조우(遭遇)한 대원(隊員)들은 접전(接戰) 끝에 이를 격퇴(擊退)시키고 대오(隊)를 분산(分散)하여 일경(日警)의 추격(追擊)을 뿌리치고 관전현(官田峴) 본부(本部)에 모두 귀환(歸還)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보도한 동아일보(104)는

지난 4일 오후 5시에 무장단 7명이 차배관 주재소를 습격하여 소장 경부보(警部補) 춘상(椿相)과 암상(暗相)·상갑(相甲)·수산(守山) 네 순사(巡使)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일보러 왔던 양무엽(梁武葉)과 금사(金士) 장덕승(張德承)과 다른 사람 하나는 비탄(悲嘆)에 맞아 중경상(中警長)을 당하였는데 이렇게 침입( 침입)한 독립단(獨立團)은 어느 사이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으나 그날 오후 4시경에 그곳 중국 요리점(中國 料理店)에 일급(日給) 사람이 들어가서 요리를 사먹은 후 한패( 한隊)는 주재소( 주宰所)로 가서 습격( 습擊)하고 한패( 한隊)는 시가로 나가서 총을 놓으며 …… 또 한패( 한隊)는 양조업( 養造業)하는 영성상회( 榮成商會)에 들어가 군자금( 軍資金)을 청구( 淸求)하였으나 주인이 없어 겨우 있던 돈 40원과 금시계( 金時計) 한 개를 가져가면서 이후( 以後)에 울타( 烏啼)이니 금 2만원( 2萬圓)을 장만( 張滿)하여 두라 그때 금 40원과 금시계( 金時計) 값은 제하고 받아갈 터( 터)이라고 나갔는데 ……”

라고 이들의 대담(大膽)한 행동을 소상(所詳)히 전하고 있다.

총독(總督)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858~ 1936)를 살해(殺害)하려다 실패(失敗)한 송학선(宋學善)은 1893년 서울(서울)에서 출생(出生)하여 극빈(極貧)한 가정(家庭)을 돌보( 돌보)기 위하여 보통학교(普通學校)를 중퇴(中退)한 후 농기구상(農具庫上) 등에서 종업( 종業)하면서 가계(家計)를 유지(維持)해야 하는 불우(不遇)한 환경(環境)에서 성장(成長)하였다. 그러나 한국(韓國)침략(侵略)의 원흉(元凶) 이토(伊藤)를 사살(殺害)한 안중근(安重根) 의사를 항상 흠모(欽慕)하며 총독(總督)을 처치(處治)하려는 의지(意志)를 굳히(固)고 있었다.<sup>105)</sup>

104) 『동아일보』, 1925년 7월 7일자.

1926년 3월 15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승하하자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성복제(成服祭)에 진참(進參)하는 것을 기회로 그를 살해하고자 하였다. 3월 16일(양력 4월 28일) 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총독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자 다음날 다시 금호문(金虎門)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일인 3명이 탑승한 자동차가 창덕궁으로 들어감으로 그를 총독으로 오인하게 되었다. 얼마 후 조문을 마치고 금호문을 통하여 나오는 이들의 승용차에 뛰어올라 좌측에 앉은 일인의 가슴을 난자하고 이어서 총독이라고 생각한, 가운데 앉은 자의 가슴과 복부를 찌르자 오른쪽 끝에 있던 자는 황급히 차에서 뛰어 내려 도주하였다.

이를 목격한 기마 순사 후지와라 도구이치(藤原徳一)가 피문은 칼을 들고 재동(齊洞) 방면으로 도주하는 송학선을 추격하자 한인 순사 오환필(吳煥弼)이 이에 합세하여 난투가 벌어지는 동안 수십 명의 경비 순사가 합세하게 되었다. 권총을 발사하며 뒤따라온 경찰대에 포위된 송학선은 머리에 부상을 입은 채 체포되었다. 당시 이 사건은 우리 민족의 심중을 자극시킨 사건인 동시에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의거였다.

이 의거에서 그가 총독이라고 오인한 자는 총독과 외모가 흡사한 서울 길야정(吉野町) 거주 국쇄회지회장(國粹會支會長) 사토 코지로(佐藤虎次郎)가 중상을 입었으며, 옆자리에 있던 경성부협의원(京城府協議員) 다카야마 고코(高山孝行)는 현장에서 즉사하였으며, 순사 후지와라 도구이치·오환필은 각각 중상을 입었다. 재판에 회부된 송학선은 1926년 7월 경성지방법원 판사 미타무라(三田村)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었으며,<sup>106)</sup> 상고심에서 다시 사형이 확정되어 1927년 5월 19일 형이 집행되었다.

105) 대한국민족운동연구소편, 앞 책,

106) 대정 15년 「형공」883호.



당시 조선은행 대구지점 모습

1927년 10월 8일 일제의 착취기관 조선은행 대구지점을 폭파한 장진홍(張鎭洪)의 의거는 일제의 엄중한 보안유지와 보도관제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던 중 1929년 2월 14일 피신 중이던 일본 오사카 시 [大阪市 猪飼町]에

서 경북 경찰부가 파견한 쿠보케(久保田) 등 형사대에 체포됨으로써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sup>107)</sup>

경북 칠곡(漆谷) 태생의 장진홍은 향리의 동지인 이내성(李乃成)과 함께 재만 독립운동 단체인 광복단(光復團)에 가입하여 무장 독립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러시아 하바로보스크에서 한인 청년 70여 명을 모집하여 군사훈련을 시키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sup>108)</sup>

그러나 당시 러시아 적백군(赤白軍) 간의 전투와 일본군의 출병으로 독립군 양성이 어렵게 되자 3·1운동 직후에 귀국하여 부산에서 조선일보 지국을 경영하는 한편 매약상(賣藥商)으로 위장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정세를 살피고 있었다.

이때 김창숙(金昌淑)의 파견으로 북경으로부터 다량의 권총과 폭탄을 반입하여 일제 고관과 중요 시설을 암살·파괴할 계획을 추진 중이던 이정기(李定基)와 그 동지인 이원록(李源祿)·이원기(李源祺)·이원유(李源裕) 등과 접선되어 비밀결사를 조직한 후 국제 공산당원인 이내성의 소개로 일인 공산당원

10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운동사연구집』제11집, 647~671쪽.

108) 한국민족운동연구소편, 앞 책, 898~900쪽.



호리기리 시계사부로(堀切茂三郎)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다이나마이트·뇌관·도화선과 50원의 자금을 얻어 사제폭탄을 제조하여 봉수산(蜂燧山)에서 폭파 시험까지 마쳤다. 폭탄제조를 마친 장진홍은 10월 8일 대구시내 덕홍여관에 손님을 가장하여 투숙한 후 네 개의 나무상자에 폭탄을 장치하여 도화선에 점화시킨 후 급히 포장하여 그 여관 종업원 박노선(朴魯善)으로 하여금 시내 남산정(南山町) 소재 길전상회(吉田商會)에서 보내는 벌꿀 5근이 포장된 선물이라고 하면서 경북 이시모토(石本) 경찰부장, 조선은행 대구지점장, 경북 스도(須藤) 지사, 식산은행 대구지점장 앞으로 속히 배달하도록 시킨 후 자신은 다시 매약상으로 변장하여 즉시 피신하였다. 여관 종업원 박노선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채 첫 번째로 조선은행 대구지점 출납창구 직원 요시무라(吉村)에게 지점장 앞으로 보내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상자를 넘겨주었는데 포병 중위 출신의 요시무라는 상자 안에서 화약이 타는 냄새를 느끼고 급히 네 개의 상자를 문 밖으로 옮겨 도화선을 절단하려는 순간 다른 세 개의 상자와 함께 폭발하였다. 이 폭발로 일경 4명, 은행 사환 및 행인 1명이 중상을 입었고 은행 건물이 대파되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원록·이원기를 체포하여 비밀결사조직을 탐지한 후 주동 인물을 체포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던 중 1929년 2월 14일 일본에 건너가서 오사카시내에서 피신 중 검거되었다. 장진홍이 체포되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호리기리 시계사부로·이내성 등은 자결하였으며, 장진홍은 1930년 1월 대구지



순국의사 장진홍 선생기념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애국동산 소재)

방법원과 대구복심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받아 6월 6일에 형이 집행되었다.<sup>109)</sup>

## 2) 공명단 우편자동차 습격탈취사건

1929년 4월 20일 서울 교외 망우리에서 일어난 우편자동차 습격탈취사건<sup>110)</sup>은 중국 산서성(山西省) 태원부(太原府)에서 안창남(安昌男)·이용화·김정연 등이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명단(共鳴團) 소속의 최양옥(崔養玉)이 그 국내 지부 설치와 군자금 모금을 목적으로 김정연 및 이선구 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와 거사한 것이다.



최양옥 선생

주동 인물인 최양옥은 3·1운동 당시 향리 강원도 횡성에서 시위운동을 주도하고 일경의 추적을 피하여 서울에 올라와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에 이동녕(李東寧)·박은식(朴殷植) 등의 과건으로 만주로부터 국내에 잠입하여 군자금 모금활동을 펴고 있던 신덕영(申德永)·노기준(盧基準) 등에게 포섭되어 전남 담양·곡성 등지에서 모금 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5년 간의 옥고를 치르고 1926년에 출감한 바 있었다.

최양옥은 이선구·김정연과 함께 1929년 4월 20일 망우리에서 춘천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우편자동차를 강제 정차시킨 후 적재된 현금 다수를 노획하고 일본인 명의의 우편물을 전부 소각하였다. 이들은 이 사실이 외부에 제보되

109) 소화 5년 「형공(刑控)」제143호, 「형상(刑上)」제65호.

110)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횡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김동정, 2016) 참조.

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지점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정차시키고 탑승객 70여 명의 눈을 가리우고 산속에 연좌·감금한 후 피신하였다.

급보를 접한 당국은 경기·황해·강원·충남북의 경찰과 일군 19사단의 군병력까지 동원하여 이 일대를 포위 공격하여 주야간에 걸친 격전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탄약과 식량이 떨어져 결국은 일경에 체포되고 말았는데,<sup>111)</sup> 당시의 상황을 동아일보<sup>112)</sup>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경춘 가도에서 우편 자동차를 비롯하여 두 대의 여객 자동차를 습격하고 대담히도 다시 통행차를 강탈하여 철옹성같은 경계망을 교묘하게 돌파하고 경성 시내에 잠입하여 유유히 횡행하며 소란하게 한 조선에서 처음 보는 권총 단사건은 20일 오전 1시 반에 그 연루자 한명이 화도면(和道面) 녹촌리(鹿村里) 백봉산(栢峯山)에서 산상 경위대와 교전 끝에 체포된 것을 비롯하여 나머지 두 명 중 한 명은 황금정(黃金町) 일정목(一町目)에서 20일 오후 11시 반에 체포되고 나머지 한 명인 최양옥 마저 체부동(體府洞) 118번지에서 21일 오전 5시 반에 체포되어 …….

공명단의 최양옥·이선구·김정연 등의 의거는 국내외 각지에서 일제의 강력한 무력에 대항하여 전개한 1920년대 무장·의열투쟁의 말미를 장식한 거사였다.

111) 재판에 회부된 이들은 경성지방법원판사 수에히로 기요요시[末廣清吉]에 의하여 최양옥 10년, 이선구 5년, 김정연 3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되었다(소화 4년 형공(刑控)제623호).

112) 『동아일보』, 1929년 4월 22일자.



## 제2장

# 황성지역에서 벌어진 의병 전투

1. 1896~1907년 전투
2. 1908년 전투
3. 1909~1910년 전투







## 제2장 황성지역에서 벌어진 의병 전투

### 1. 1896~1907년 전투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발생하고 이어서 단발령이 내려지자 일제의 내정간섭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황성출신의 의병장 박영묵(朴永默, 1845~1918)은 ‘관동의병대’ 대장이 되어 강원도와 충청도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그는 1896년 3월 홍천 삼마치에서 일본군 1백여 명과 만나 적군과 교전하여 적 8명을 사살하는데 이어 4월에는 황성에서 반년간 성을 지키면서 포고문·격고문(檄告文) 등으로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sup>113)</sup> 이는 황성에 있어서 의병에 관한 첫 기록이다.

1896년 10월 12일 원주 주재 도지휘관(原州駐都指揮官) 김재은(金在殷)이 군부에 보고하였는데, “의병 700여 명이 황성군에 들어온다고 병정 두 소대를 급히 보내달라”<sup>114)</sup>고 하였다. 김재은은 1887년(고종 24)에 전라도병마절도사에, 1888년(고종 25)에 한성부좌윤, 1892년(고종 29) 병조참판, 1896년(고종 33) 참령 친위제5대대 대대장, 1897년(광무 1) 시위대 대대장, 1898년(광무 2)에는 부

113) 김동정, 『황성지역 전투에 참여한 의병장과 봉복사』(2017), 127쪽 참조.

114) 『독립신문』(1896.10.24, 2면) 「시월십이일 도지휘관 김재은씨가 군부에」.

령(副領)에 임명하여 친위제1연대장에 보(補)하였고 같은 해 증추원 1등의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김재은이 도지휘관 직책에 있으면서 700명의 의병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후 황성에서 의병이 언급된 것은 군대해산 이후의 일이다. 당시 『대한매일신보』(1907.08.14. 3면) 「지방정형 지방 각 군의 통신을 거한 즉」이란 기사에 의하면 황성을 비롯하여 여러 도시에 의병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정황이 포착된다.

지방 각 군의 통신을 거한 즉 의병이 춘천군으로부터 와서 가평군을 쳤다 하였고, 원주에서는 해산한 병정이 화적당과 합하여 300여 명이 영천군에 모여서 점점 창궐한다하고, 안동 진위대 병정은 아직도 해산치 아니하고 의병과 합세하라 한다 하였고, 통진군은本月 11일에 강화에 패한 병정들이 통진군수에게 와서 총과 탄약을 달라하기로 위협을 당치 못하여 군수와 순검은 촌집에 가서 숨으며 인심이 흉흉하다 하였고, 금산군은 배일하는 주의를 품은 군수가 안장을 더 지고 갔는데 군수를 잃은 백성들은 어느 때에 폭동이 있을 런지 모르겠다 하였고, 여주군은 대단히 위험한 형세가 있어서 길에 행인이 끊어지고, 원주의 진위대는 인민 수백 명과 협력하여 주천과 황성의 두 길로 분파하여 나아갔다하고,本月 10일에 의병 300여 명이 제천군에 들어왔고, 강릉군에서는 평창군으로 가는 체전부는 종적이 불명하며 두 고을 사이에 의병 수효가 600여 명인데 강릉군을 근거지로 정하고 다시 크게 모여 경성을 도륙한다고 각 군에 격서를 돌리는데 형세가 심히 급한지라 원산에 있는 일본군대에서 1중대를 그 지방으로 보내어 집전케 한다 하며, 원주군에서는 의병이 나아간 후로 인민이 환산하매 일병\*이 엄절히 수탐한다 하였고, 원주에서 나아간 한병(대한제국군인)과 의병은 어제 흥천군에서 합하여 총과 탄환을 가지고 평창군 방면으로 향하였는데 그 수효가 1천명 이상 이라 하였고<sup>115)</sup>

115) 『대한매일신보』(1907.8.14. 3면) 「지방정형 지방 각 군의 통신을 거한 즉」.



라고 한 바와 같이 황성에는 수백 명의 원주의 진위대 출신 군인들과 백성들이 주천 지역과 두 길로 나누어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원주 진위대가 해산되기 직전의 서울 상황과 원주 주변의 상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삼천리』제5권 제1호(1933.1.1) 「한국(대한제국) 최후의 군대와 국방계획」에서 권동진이 다음과 같이 술화하였다.



권동진 젊었을 때의 모습

군부에는 당시 참모본부와 같은 것은 없으나 6조 중 병조판서가 군부 최고 기관으로서 군기를 통할하였다. 병조판서 아래에는 5군영(五營門) 즉 훈련도감(訓練都監, 훈련대장), 어영청(御營廳, 어영대장), 금위영(禁衛營, 금위대장), 호위영(護衛營, 호위대장), 총융청(總戎廳, 총융사)이 있어서 경사(京師)를 지키고 있었다.

당시의 병조판서는 민태호(閔台鎬, 1834~1884)였고 그 아래 훈련대장 조영하(趙寧河)가 5,772명의 수하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가 임오년(壬午年) 오영문중(五營門中)에 네 영문(營門)이 없어질 때에도 그는 홀로 버티고 있으면서 자기 소유의 전지(田地)를 팔아서 부하 군졸의 급료를 지불하면서 고성(孤城)을 수호한 것은 일흔 노푼 일이다. 그는 갑신개혁(甲申改革)의 희생자의 한 사람이다. 그밖에 신정희(申



민태호

正熙)가 호위대장으로 있었던 것을 희미하게 기억한다. 훈련청(訓練廳)의 5,772명 이외에 각영(各營)에는 각각 수천 명씩의 군인이 있었다. 이상의 군대가 중앙을 수호(護守)하기 위하여 도성(都城)의 내외에 배치되었고 지방에는 안주(安州)병사, 황주(黃州)병사, 회령(會寧), 북청양지(北靑兩地)에 남북(南北)병사가 있어서 북방의 외구침략(外寇侵略)에 각각 수백 수천의 군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삼남(三南)에는 청주(淸州), 강진(康津), 울산(蔚山)에 3병사(三兵使)가 있었고 수군으로는 웅진(熊津), 황해(黃海) 속대(束萊)에 각각 수사(水使)가 있었고 여수(麗水), 해남(海南)에 좌우수사(左右水使)가 있었다.

그 위에 통영(統營)에 통제사(統提使)가 있어서 삼남(三南)의 수륙대군을 통솔하였다. 통제사는 군사뿐 아니라 호두(虎頭)와 칼을 하사받고서 호두(虎頭)에 칼을 박아서 내보내면 감사(監使)라도 포박하여서 선참후계(先斬後戒)하는 큰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그밖에 선천(宣川), 길주(吉州), 철원(鐵原) 세 곳에 방어사(防禦使)가 있었다. 지금말로 하면 방어사는 오영문(五營門)의 중군(中軍)과 함께 중장(中將)의 지위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고는 요해(要害) 지대로서 강화(江華), 수원(水原), 광주(廣州), 춘천(春川) 네 곳에 유수(留守)가 있어서 일품 이상의 문무관이 수륙 양방의 군무를 견해보며 인근(隣郡)의 군수들을 그 감독 아래 두었다. 그뿐 아니라 국경지방의 수령으로는 대개는 무장(武將)을 파견하여 만일에 대비하였으며 경사(京師)의 탐관배(貪官輩)는 외지(外地)라고 하여 국경지방에 출사(出仕)하는 것을 꺼렸다. 그렇지만 표면상 제도는 이렇게 정연하나 실상에 있어서 군비(軍備)와 병제(兵制)가 명실이 상부하지 못하였던 것은 물론이다.

각영문(各營門)과 수사(水使)가 있는 곳에 거기창(車器廠)이 있어서 5년에 두 번씩 군기(軍器)를 꺼내서 수리정돈하며 춘추(春秋)로 수륙군에 각각 대 연습이 있었다고 하나 한말(韓末)에는 거의 실행한 일이 없고 군인은 돌아가서는 농사를 일삼고 번(番)을 갈라서 복무하니 훈련이 부족하였음은 물

론이다.

임오년(壬午年) 이후에 군기대신(軍部大臣)이 생기고 전술(前述)한 각 제도는 없어지고 좌우양영(左右兩營)이 신설되었다가 그 후에 전후양영(前後兩營)이 더 생겼으니 갑오년(甲午年) 이후에는 좌우(左右)훈련대와 근위대 2부대에 각각 500명씩의 군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 후 일본의 신병제(新兵制)를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군비 배치를 개정하였으나 강희(隆熙) 원년(元年) 7월 31일 밤 당시의 군부대신 이 병무(李秉武)는 군대해산의 조(詔)를 받고 8월 1일 훈련원에서 해산식을 거행하니 이에 한국 최후의 군대도 없어지고 만 것이다. 해산직전의 군대배치는 아래와 같았다.



군대해산 하던 날(1907.8.1)

### 해산직전 군대배치

#### 경성(京城)

시종무관부(侍從武官府) 부장이하 장교 6, 하사졸(下士卒) 7

배종무관부(陪從武官府) 참장(參將)이하 장교 5, 하사졸 7

군부 부장이하 장교 30

장관회의소 부장 5

헌병사령부 정령(正領)이하 장교 1, 하사졸 7

헌병대 참령(參領)이하 13, 하사졸 257

육군법원 참장(參將) 1, 문관(文官) 약간  
 연성학교(研成學校) 참장이하 장교 54, 하사졸 44  
 무관학교(武官學校) 정령(正領)이하 장교 30, 하사졸 38  
 유년학교(幼年學校) 부령(副領)이하 장교 17, 하사졸 32  
 군기창(軍器廠) 하사졸 3  
 위생원(衛生院) 군의(軍醫) 6, 하사졸 3  
 시위혼성여단(侍衛混成旅團)사령부 참장(參將)이하 장교 3, 하사졸 6  
 보병 제1연대 본부 부령(副領)이하 장교 3, 하사졸 3  
     제1대대 참령(參領)이하 장교 21, 하사졸 591  
     제2대대 참령이하 장교 21, 하사졸 591  
     제3대대 참령이하 장교 21, 하사졸 591  
 보병 제2연대 본부 부령(副領)이하 장교 3, 하사졸 6  
     제1대대 참령이하 장교 21, 하사졸 591  
     제2대대 참령이하 장교 21, 하사졸 591  
     제3대대 참령이하 장교 21, 하사졸 591  
 기병대 참령(參領)이하 장교 5, 하사졸 131  
 포병대 참령이하 장교 45, 하사졸 157  
 공병대(工兵隊) 장교 5, 하사졸 198  
 군악대 정위(正尉)이하 장교 3, 하사졸 101  
 치중대(輜重隊) 정위이하 장교 3, 하사졸 194  
 홍릉수비대(洪陵守備隊) 참위(參尉)이하 장교 5, 하사졸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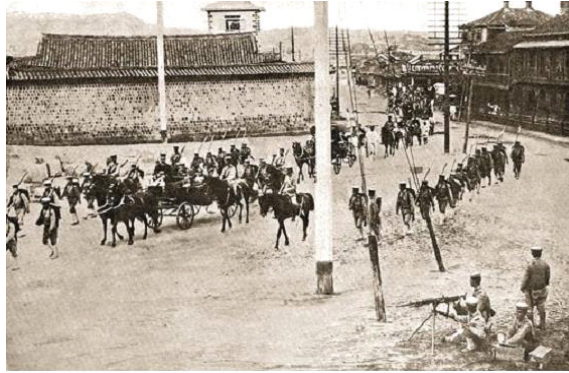
### 지방 각 진위대(鎭衛隊)

진위(鎭衛) 제1대대 본부(수원) 참장(參將)이하 장교 4, 하사졸(下士卒) 113  
     개성 분견소(分遣所) 정위(正尉)이하 장교 · 하사졸 103  
     안성 분견소 참위(參尉)이하 40

강화도 분견소 부위(副尉)이하 50  
북한(北漢) 분견소 하사졸 10  
진위(鎭衛) 제2대대 본부(청주) 부령(副領)이하 장교 7, 하사졸 153  
공주 분견소 정위이하 장교·하사졸 101  
홍주(洪州) 분견소 부위(副尉)이하 50  
진위(鎭衛) 제3대대 본부(대구) 부령이하 장교 10, 하사졸 25  
경주 분견소 부위이하 29  
울산 분견소 부위이하 21  
진주 분견소 부위이하 29  
문경 분견소 부위이하 50  
진남(鎭南) 분견소 정위(正尉)이하 101  
안동 분견소 진위이하 101  
진위(鎭衛) 제4대대 본부(광주) 참령(參領)이하 장교 4, 하사졸 105  
강진 분견소 부위(副尉)이하 50  
전주 분견소 정위(正尉)이하 101  
진위(鎭衛) 제5대대 본부(원주) 참령이하 장교 10, 하사졸 251  
강릉 분견소 부위이하 50  
진위(鎭衛) 제6대대 본부(해주) 참령이하 장교 10, 하사졸 251  
황주(黃州) 부령(副領)이하 50  
진위(鎭衛) 제7대대 본부(평양) 참령이하 장교 5, 하사졸 105  
안주(安州) 부위이하 50  
강개(江界) 정위이하 100  
의주(義州) 부위이하 50  
진위(鎭衛) 제8대대 (북청) 미상

위와 같이 강원도에는 원주에 진위(鎭衛) 제5대대 본부가 있었고 참령이하 장교 10, 하사졸 251 등 261명이, 강릉 분건소에는 부위이하 50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각 지방의 진위대(鎭衛隊)도 해산하기 위하여 군부대신(軍部大臣)이 이 날 전보로 각 진위대 대대장을 경성으로 소집하여 군부(軍部)에서 조칙(詔勅)을 전하는 동시에 은사금(恩賜金)을 주고 귀대(歸隊)시켜 해산(解散)을 실시



고종 퇴위식에 가는 이토 히로부미  
(마차에 탄 사람(1907.7.20.))

하게 하였으며,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따로 각 도에 타전하여 일본경관과 수비대로 하여금 진위대병(鎭衛隊兵)을 속여 무기를 몰수하여 사고 없이 해산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8월 3일에 수원진위대(水原鎭衛隊)를 해산한 것으로부터 9월 3일에 북청진위대(北靑鎭衛隊)를 해산한 것으로 모든 군대의 해산을 끝마쳤는데 그 중 원주와 강화의 두 진위대에서는 미리 일본인의 음모를 알고 무기를 가지고 봉기(蜂起)하여 일본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므로 많은 피해를 주었다.<sup>116)</sup>

앞서 군대해산과 경성시위대 의거의 소식으로 격동하고 있던 원주진위대에서는 특무정교(特務正校)인 민궁호(閔肯鎬)가 대대장(大隊長) 대리인 정위(正尉) 김덕제(金德濟)를 설복하여 그와 함께 전 대원을 동지로 만들어 이들에게 총기

116) 『고종시대사』6집 광무 11년, 정미년(1907) 8월 1일(음 6월 23일).

와 탄약을 분배하고 또한 지방민에게도 무기를 지급하여 해산에 앞서 의거를 일으켰다. 이 날 진위대원 250명을 포함한 원주의병들이 일본인과 일본경무분견소(日本警務分遣所)를 습격하여 건물을 파괴하고 또 정찰 나온 일본군충주수비대(日本軍忠州守備隊)와 2시간 동안 교전하여 이를 격퇴시키다. 이 날부터 원주진위대원들은 해당 명령을 떠나 민공호와 김덕제를 중심으로 몇 부분으로 나누어 각 지방으로 다니며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김덕제는 약 500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평창·강릉을 거쳐 삼척·양양·간성·고성·통천·흡곡·춘천 등 지방에서 활동하고 민공호는 1,000여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원주·제천·영월·충주·죽산·장호원·여주·이천·양근(현 양평)·홍천 등 각 지방에서 활동하였다.<sup>117)</sup>



김덕제(27세 때 모습)

이 무렵 안동 진위대 부위로 근무했던 백남규(白南奎, 1884~1970)는 1907년 한국군이 강제 해산 당하자, 경상북도 순흥(順興)에서 해산군인들을 규합하여 의병을 일으켜 부하 8백 명을 거느리고 왜병과 접전하였다. 그때 그는 강원도 횡성의 봉복사(鳳腹寺)에서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 머물고 있던 이강년(李康季)을 찾아 가서 만나게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24세였다. 당시 이강년은 류인석과 함께 활동했던 안성해(安成海)와 포군 6명을 인솔하고 원주·횡성·강릉 등지에서 동지를 모으고 있었다. 신식 군사훈련을 받은 유능한 군인이었던 백남규는 이강년의 인품에 감복되어 그와 합진할 것을 결의하고 부하 8백 명을 거느

117) 『고종시대사』6집, 율희 원년, 정미년(1907) 8월 5일.

리고 들어가 이강년 의진의 우선봉(右先鋒)으로 임명되면서 그와 평생 동지가 되었다. 의병진에서 우선봉(右先鋒)에 임명된 그는 이후 우선봉장과 도선봉장(都先鋒將)으로 여러 전투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1907년 8월 8일에 원주진위대 장교 휘하에 있던 군인 3명이 배일(排日)하는 목적으로 그 지방에서 의병 300여 명을 모집하여 2대로 나누어 1대는 제천으로 향하고, 1대는 횡성으로 향하였다.<sup>118)</sup> 1907년 8월 13일 의병이 홍천군을 습격한 데 이어, 오후 3시에는 군 무기를 소지한 의병 70~80명이 횡성 방면에서부터 홍천군에 이르러 일본인의 집을 파쇄하고 전재를 탈취하였으며, 오후 8시에 또 습격하여 일본인들이 내삼포로 도주하였다.<sup>119)</sup>

9월 7일 약 600명의 민공호 의병 부대는 2개 부대로 나뉘어 홍천을 습격하여 적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9월 10일 약 200명의 의병이 재차 홍천을 기습하였다. 또 나머지 400명의 의병은 낭천 군아(狼川郡衙)를 기습 공격한 후 그곳 무기고에서 총기, 탄약을 접수하였다. 또 20일에는 춘천 남방으로 10리되는 정족(鼎足) 부근에서 약 300명의 의병들이 일군과 격전을 벌이고 23일에는 횡성군 봉복사(鳳腹寺)에서 약 350명의 의병들이 일군과 격전을 벌여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1907년 9월 23일 민공호 의병부대는 봉복사전투에서 주둔지를 잃게 되지만, 영월·홍천·함창·음성·제천·통천·고성으로 이어가면서 계속 항쟁하였다. 1907년 10월 21일 원주에서 선유사일행과 일본군을 공격한 후 10월 27일 의병 약 300명이 새벽 횡성군 고모곡면(古毛谷面, 지금의 서원면) 둔촌(屯村) 부근의 서남방 고지와 남방 고지 두 곳에 매복하고 기다리다가 공격하여 일본군 소대에 대타격을 가하였다. 이후 강원도와 충북 사이의 도로상에 있는 부근이나 박달령부근을 공격하였고, 홍천 삼마치를 넘어 강릉에서 대대적인 전투를 벌였으

118) 『대한매일신보』(1907.8.24. 3면) 「8월 8일에 원주군에서」.

119) 『대한매일신보』(1907.8.22. 3면) 「1907년 8월 13일 홍천군에서 의병」.



며 양구·양양·정선 등 강원도 전역에서 활약하였다.<sup>120)</sup>

원주분견소보좌관보(原州分遣所補佐官補) 가리노 곤조(狩野近造)가 경시총감(警視總監)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 앞으로 보낸 「병기정리(兵器整理) 및 폭도토벌(暴徒討伐)의 건(件) 보고(報告)」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병기 정리 및 폭도 토벌을 목적으로 當 원주수비대 山本 少尉가 하사 이하 19명을 인솔하고 10월 25일 오전 7시 출발 당 분견소에서는 보조원 및 순검 각 2명이 附하였다(일진회원 5명 동행).

1. 출발 당일 즉 10월 25일 원주군 소초면 충정동(充澄洞)에 도착하자 同所 학곡(鶴谷) 부근에 폭도가 약간 출몰한다는 토인(土人)의 항설(巷說)에 따라 경계(警戒)를 가하면서 정오 12시 학곡에 도착, 적은 不在 洞長을 몰아 聞亂하였던 바 지난 16일 즉 원주에서 선유사와 회견하던 전전날 약 천 명의 폭도가 통과 후 彼等에 就하여 聞得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있어서 병기수집을 명하고 또 가택수색을 하였던 바 이미 폭도 등이 약탈하여 한 가지 물건(一物)도 얻지 못하고 횡성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1. 10월 26일 오전 8시 지난 밤 군(郡) 주사(主事)에게 명하여 來集한 부근 면동장에게 내부(內部) 군부 두 대신의 병기 정리에 관한 훈령의 취지를 고하고 병기수집을 명하여 아래와 같은 무기를 얻었다.

槍 三百本 類似 袖搦 二百本 廢刀 二十本 廢銃身 三十挺 弓의 矢 約 千本 右는 이미 폭도에게 압수된 나머지 폐물(廢物)로 그 사용을 할 수 없다고 認定 悉皆 燒棄하였다.

1. 10월 26일 아침 일찍 군 주사에게 명하여 횡성 읍내 인민을 지평 방향을 정찰하기 위해 내보냈으나 돌아오지 않아 다시 오후 同樣人民을 同 方向에 내보냈으나 이 역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정보에 의하면 횡성군 고모곡면(古毛谷面) 이목정(梨木亭) 방면에 폭도가 출몰한다고 하므로 山本一隊

120) 신용하, 1990, 「민공호 의병부대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권 참조.

는 二七日 午前 八時 橫城을 출발 梨木亭을 向하여 諸種의 정황을 正찰하면서 같은 먼 상물안리(上物安里)에 도착 경급사영(警急舍營)을 하였다.

1. 상물안리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同地의 서방 약 1리 내외의 둔촌(屯村) 외 섬실(蟾室) · 점사기(占砂基) · 궁거리(弓巨里) · 삼산리(三山里)의 各所에 약 천 명의 폭도가 집합 동영(冬營)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1. 10월 28일 오전 5시 출발 右 폭도를 공격하고자 전진하기 약 1리 둔촌(屯村)에 이르자 적의 감수초(監守哨)가 있어 이를 체포 亂問하니 적은 그 전방에 있다고 말하여 두 조(組)의 척후(斥候)를 내어 경계전진(警戒前進)하기 약 2~300m로 대(隊)를 소구거(小溝渠)의 지물(地物)에 가까히 하며 山本 소대장이 망원경을 잡는 찰나 서남방 소구부(小丘阜) 및 남방고지 모두 송림(松林) 中으로부터 불의에 급사격(急射擊)을 하였다. 때마침 불효(拂曉, 새벽녘)로 100m 이내가 겨우 인영(人影)을 인식할 수 있을 무렵이었다. 우리 대(隊)는 즉시 응진, 수십 분에 적화(敵火)가 약간 쇠퇴함을 보자 直時 북방고지에 반등(攀登)하여 全然 이를 점령 三面으로하는 적(북방고지에 있었던 것은 북방으로 퇴각 사격)과 대전(對戰) 약 2시간으로 적은 서남방 지평 방향으로 潰走(潰走)하였다.

1. 이날의 전투 적은 拂曉로부터 이미 三方 고지에 진지를 구축한 것으로 보아 미리 我의 공격에 대비하였던 것 같다.

1. 전투 개시는 오전 6시로 8시 15분에 종료, 적은 관동대진(關東大陣)의 후군(後軍)으로 그 수는 150명 不下한다. 적의 사상 약 14~15명이요 우리에게는 손해가 없다.

1. 우리 대(隊)는 그 부근을 소탕하면서 고모곡면(古毛谷面) 석영촌(石營村)을 경유 어제 28일 오후 5시 무사 귀환하였다.<sup>121)</sup>

121) 『한국독립운동사 자료』8권 「의병편」 1, 유희 원년(1907) 10월, 강원도, 병기정리 및 폭도토벌의 건 보고.

라고 하여 의병들이 황성으로 향하고 고모곡면(지금의 서원면) 상물안리(지금의 석화리) 서방 약 1리 내외의 둔촌(屯村) 외 섬실(蟾室)·점사기(占砂基)·궁거리(弓巨里)·삼산리(三山里)의 각소(各所)에 약 천 명의 의병들이 집합하여 동영(冬營)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듯 1907년 10월에 이르러 전국의 해산병들이 기존의 의진과 합세하여 자못 성세를 이루어 가자 10월 31일에 한갑복(韓甲復)·민궁호(閔肯鎬)·이인영(李麟榮)·여용서(余龍瑞)·장모(張某)·심상희(沈相熙) 등 의병장이 거느리는 의진이 황성과 지평간에 있는 고모곡(古毛谷) 일대에 집합하여 8천여 명의 연합 의진이 형성되어 유기적 의병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특히 군사경험이 있는 해산병들이 흡수되었으므로 의병활동도 다소 기동성 있게 전개된 점이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07년 10월 31일부터 8천 명을 거느리고 고모곡면(古毛谷面, 지금의 서원면)에 진을 치고 일본군과 대항하면서 황성·원주는 물론 충북 제천·충주 등지와 경기도의 양근과 지평(지금은 두 지역 합쳐서 양평)지역에서 대대적인 의병을 모으며 활동을 전개하였는데,<sup>122)</sup> 그 사실은 다음 『황성신문』(1907.11.10) 「의도행동(義徒行動) - 심상희, 여용서 등」의 기사에 이날의 상황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지난 달 31일 밤에 의도 약 400명이 회양군에서 일본우편국 호위병과 전투 중이라는 보고가 있어 고산지(高山地)에서 응원대 10여명이 급행하여 이번 달 1일에 해당 지역에 도착하였는데, 그 지역에 주둔한 백정(白井) 대위 등이 평강 방면으로 전진하여 의도를 추격 중이라 하였고, 신림(新林), 성남리(成南里), 황화(黃化), 신수정점(新水亭店), 송치(松峙), 주천(酒泉) 및 기타 도로 양측 산간부락에 의도 1천 200명이 둔재하여 12~3일 전부터 동북제작과 모피

122) 김동정, 앞의 책 142쪽 참조.

수집, 양식퇴적과 재화의 약탈이 무소부지(無所不至)인데, 부근 촌민이 동정을 표하여 원근(遠近) 촌락에서 물화의 집류(執留)에 노력한다 하였다.

이들 의도(義徒)는 향자(向者)에 강원도 선유사의 일행을 습격하여 그 위원 권태준(權泰駿)을 포획·협박하고 선유사의 서간(書簡)을 위조하여 이를 이용함으로 우매한 인민은 성의(聖意)를 오해하고 원근에서 그 무리에게 투항한 자가 있는 즉, 지금에 소탕치 아니하면 그 세력이 더욱 증가하리라 하고, 또 홍주(洪州)에서 온 자와 횡성부근을 경과하여 온 자와 문막 방향에서 온 자와 양근 이포 부근에서 온 자 등이 10여일 전부터 점차 모여 횡성~지평간 모곡곡(毛古谷)<sup>123)</sup>이라 칭하는 큰 땅에 둔취하여 그 근방 고지(高地)에 방어공역(防禦工役)을 시행하고, 초병(哨兵)을 배치하여 엄중히 계엄하며, 월동 준비에 분망(奔忙)하였다. 또 격문을 돌려 의도취집을 힘쓰고, 일거(一舉)하여 원주·충주를 탈취하고 대거(大擧)하여 경성으로 향한다고 성언(聲言)하는데, 토인의 말에 의한 즉, 그 충수가 8천명 이상이라 한다.

최후 기타 밀정 등으로 인하여 얻은 바, 확보(確報)에 의한 즉 거괴(巨魁)의 성명 및 그 거느린 의도 수효가 여좌(如左)하니 한운복(韓尹復) 등 3백여 명, 민근호 등 2백여 명, 한상열(韓相烈) 등 2백 50여 명, 이인영(李寅永) 등 2백여 명, 여용서(余龍瑞) 등 2백여 명, 장 아무개 2백여 명, 심상희(沈相熙) 등 〇천명이니 합위(合爲) 2천 5백 50여 명이오, 원주에서 판교리(板橋里)를 지나 충주로 향하는 도로 일원에는 의도가 없다더라.

이 시기에 강원도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하던 방관일은 1907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인영, 정대일 등의 의병장과 연합하여 700여 명 규모의 의병부대를 이끌고 횡성군 고모곡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그는 이른바 ‘의병토벌작전’을 전개하던 일본군 보병 제51연대의 사카베[坂部] 소좌가 지휘하는 보병 1중대, 포병·공병대 각 1개 소대와 강원도 고모곡 부근에서 격전을 벌이는 등 항일무장

123) 고모곡(古毛谷)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투쟁을 벌였다.

12월 초에, 횡성과 지평 양군 중간 고둔골<sup>124)</sup>에 의병이 주둔하여 망루를 설치하고, 정탐병을 두어 경계를 엄히 하고, 겨울을 날 양식과 막사를 준비하고, 격문을 돌려 군사를 모집하는데 그 수효는 8,000명이라



금대리 의병총(일본군 제51연대와 치열한 전투를 했을 때 순국하신 무연고 의병들의 묘소)

하였다.<sup>125)</sup> 『대한매일신보』기사에 의하면, 12월 초에 원주군 근처에 의병 400~500명이 둔취하므로 일본병이 가서 점전하려 한 즉 타처로 퇴진하였는데 원주·횡성·영월·정선·평창군 등 각처에 흩어져있는 의병이 6,000~7,000명이라 하였다.<sup>126)</sup> 12월 10일에 횡성군 동방으로 60리 쯤 떨어진 곳에서 의병 300여 명이 충주군 일본 소대와 3시간을 점전하였다.<sup>127)</sup>

서울탈환작전 중지 후 다시 본래의 작전지역인 횡성으로 돌아오는 중 횡성 둔내와 평창에서 소규모 전투를 치렀으며, 1907년 12월 28일에는 한갑복이 지휘하는 유격대가 청일면 화동리에서 휴식도중 기습을 받고, 유격장 한갑복이 전사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1907년 8월 1일 군대가 해산된 이후 총을 소지한 해산군인들이 포함된 의병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것도 횡성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평창,

124) 고모곡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125) 『공립신보』(1907.12.6. 2면) 「횡성 지평 양군 중간 고둔골」, 『대한매일신보』(1907.11.3. 3면), 「횡성군 근처에는 의병 수천명이」.

126) 『대한매일신보』(1907.12.17. 3면) 「원주군 근처에 의병 사오백명이 둔취하므로」.

127) 『대한매일신보』(1907.12.18. 3면) 「10일에 횡성군 동방으로」.

남쪽으로는 원주·영월·정선 등지, 서쪽으로는 지평, 북쪽으로는 흥천지역에서 등지에서 1만 명 이상의 의병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 2. 1908년 전투

1908년 1월 3일에 갑천면 지점의 서북방으로 20리 되는 지점에 의병이 군기를 가지고 매복하자, 일본병이 탐지하고 순사 3명과 통변 1인과 순검 1명을 급파하여 접전하였다.<sup>128)</sup>

4일에는 횡성에 주둔하고 있던 의병 50명이 지평 상동면을 지나 6일에 여주군 이포를 거쳐 양근으로 갔으며,<sup>129)</sup> 민공호 의병부대는 1908년 1월 10일 횡성 서방에서 크게 참패한 후 근방에서 소규모전투를 하다

1월 10일에는 횡성군 서방에서 의병 40여 명이 원주수비대 일본병들과 교전한 데<sup>130)</sup> 이어 12일 오후 11시에도 같은 지역에서 의병 40명이 원주수비대 일본병과 접전하였다.<sup>131)</sup>

서울진공작전에 참여한 연합의병부대는 1908년 1월말까지 서울 동대문 밖 30리 지점에 도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서울로 진격하던 선봉대 허위 의진이 1월 25일경 매복 중이던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고 후퇴하였으며, 13도창의군 총대장 이인영이 갑자기 부친의 부음을 접하자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문경 본가로 내려감으로 인하여 서울진격작전은 중지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민공호 의병부대는 강원도 원주지역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민공호 의병부대는 차

128) 『대한매일신보』(1908.1.12. 3면) 「3일에 갑천면 지점의 서북방으로」.

129) 『대한매일신보』(1908.1.12. 3면) 「4일에 의병 50명이 횡성에서 지평 상동면으로」.

130) 『대한매일신보』(1908.1.18. 3면) 「원주 일본병이 1월 10일에 횡성 서방에서」.

131) 『대한매일신보』(1908.1.18. 3면) 「12일 오후 11시에 횡성군 서방에서」.

후 50~60명의 소규모 부대로 편대를 분산시켜 유격전을 감행하였다. 1908년 1월 이후 실질적 전투력을 갖춘 민공호 의병부대는 일본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1908년 2월 27일 원주 치악산 아래인 강림(講林) 동쪽 약 10리 되는 등자치 부근에서 적에게 노출되었다. 적군은 강림에서 출발, 사자산(獅子山), 구룡산(九龍山) 방면으로 우회하여 등자치로 접근하였다. 이때 민공호의 부대는 그 10리 지점인 켈덕리(蕨德里)에 잠복하고 있었다. 29일 오전 11시에 접전하여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의병 20여 명이 사살되고, 민공호는 사로잡혀 강림으로 호송되었다. 그날 밤 민공호의 부하 60여 명이 강림을 습격하여 민공호를 탈환하고자 하였다. 의병 중의 한 사람이, “우리 대장 민씨는 어디 계신지 소리를 치시오.” 하였다. 이에 포박된 민공호가 도주하자, 일본군은 그를 사살하였다. 이때 의병 11명이 전사하고, 의병진은 북방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sup>132)</sup> 당시 상황을 『개벽』제42호(1923.12.01), 「민공호-비절장절(悲絶壯絶)한 민대장(閔大將)의 약사(畧史)에 잘 나타나 있다.

丁未年 朝鮮군대 해산 時에 原州에서 이어난 의병 대장 閔肯鎬라 하면 누 구던지 대개 기억할 것이다. 그는 원래 咸鏡南道 北靑 사람이였다. 육군 正校로 高城 鎭衛隊에 봉직하였다가 而已高城隊가 폐지되야 原州 鎭衛隊에 승軍하게 됨에 그도 또한 原州로 전근하였다. 그는 爲人이 강직하고 志概가 있는 慷慨의 군인이다. 당시 韓國의 군대가 모도 부패하야 병졸과 위관을 막론하고 日夜酒色 도박 등을 일삼되 특히 閔氏는 성질이 엄격하고 군대의 기풍을 確守하야 酒肆青樓에 족적을 入치 안이하니 閔氏의 부하는 물론이고 그의 상관이라도 항상 忌憚하였었다. 如斯히 原州營에서 2개의 星霜을 지내다가 마침 丁未年 6월에 군대 해산하는 期會를 당하였었다. 군부에서 해산 명령이 下하자 京

132) 김동정, 앞의 책, 116~117쪽 참조.

城, 忠州에 있는 日兵은 原州營을 暗襲하여 軍器를 占奪하라고 출동한 중이었  
 다. 其時 原州의 군대는 800여 健兒가 있고 또 叅領이하 다수의 將官이 있  
 ㅅ다. 그러나 감히 一言의 이의 하나를 하는 자가 없고 다만 안색이 如土하여  
 互相顧盼할 뿐이었다. 이때 閔氏는 당당이 出班하여 悲憤慷慨의 言論을 하고  
 상관에게 背城一戰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無勇無義한 상관들은 君命이 있  
 스니 妄動치 못한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閔氏는 憤氣가 天을 衝하여 腰下의  
 長劍을 拔하고 질책 曰 將在外에 君命은 有所不受일 뿐 안이라 況且 大君主  
 가 外人 협박을 익이지 못하여 非常의 海山령을 下하신 것은 路上小兒가 다  
 이는 바이라. 君等이 將官으로 屢歲國恩을 受하다가 危急存亡의 秋에 際하여  
 束手就縛을 坐待하니 此는 國賊이라 하고 一軍을 호령하니 감히 應從치 안이  
 하는 자가 업섯다. 乃 6월 27일에 蹶然이 義旗를 舉하여 스사로 의병 대장이  
 되고 사방에 傳檄하였다. 閔氏는 原州에서 3일을 留陣하다가 隣邑 寧越로 移  
 陣하였스니 이것은 원래 原州가 四面受敵之地인 故로 지세가 방어에 불리하  
 고 또한 原州에서 교전하면 原州人民이 慘禍를 당할 것을 고려한 것이다. 其  
 後 閔氏는 忠州 堤川 等地로 출병하여 日兵과 누차 交戰하여 다소의 功을 成  
 했스나 원래 훈련이 적은 烏合의 병졸이오 且 軍器, 兵糧, 兵力이 미약하고  
 본 즉 비록 勇壯하고 用兵의 기능이 있는 閔氏라도 其勢를 長久히 유지키 難  
 하였다. 堤川에서 敗劫한 후 다시 寧越로 퇴진하여 捲土重來를 계획하였다.  
 其時 江原道 宣諭使 洪祐皙은 閔씨의 歸化하기를 백방으로 권유하였스되 閔  
 씨는 斷不聽從하고 부하 수십인과 가터 寧越郡 水周面 月峴(舊 原州郡 登子  
 峴)에 隱伏하여 시기를 潛窺하고 있섯다. 時不利兮奈若何리오. 대구경찰대는  
 此를 탐지하고 暗中來襲하여 민가에 放火하고 亂銃을 射하였다. 事가 此에 至  
 함때 閔씨는 志를 決하고 村前에 돌출하여 大聲曰 閔肯鎬가 이에 있스니 無辜  
 한 양민을 살해치 말나 하고 自進就縛하였다. 義氣의 남자가 안일 것 가트면  
 이 때 閔씨는 자기 생명만 위하여 도주하고 다수한 촌민의 참해를 不顧하였을  
 것이다. 閔씨는 경찰대에 포박되어 覺林里에서 무한한 고육을 당하는 중에 閔



씨의 부하명은 氏를 구하라고 乘夜來襲하다가 다수한 사상이 나고 氏도 또한 亂軍 중에서 被害하니 嗚呼- 時는 戊申 正月 이십팔일이다. 原州수비대는 이로부터 高枕安眠하고 대구경찰대는 大賞을 受하였다. 그러나 義肝忠膽은 목석이라도 다 감동하는 바이라. 原州수비대는 閔씨의 義를 稱賞하여 棺槨과 繡衣를 具하고 當地人民과 상의하여 北門 외(今 原州面 樓門里)에 厚葬하니 其時 原州城 中の 인민은 남녀아동을 막론하고 揮淚치 안이한 자가 無하였고 氏의 靈輿는 氏의 元部下兵으로 있던 壯丁이 지원하여 호송하였다. 氏의 애첩은 (氏名 未詳) 원래 화류계 출신이지만 亦 氏를 위하여 3년간 節을 守하고 氏의 유택은 지금까지 原州의 名望家 安允玉씨가 수호한다.<sup>133)</sup>

민공호 의병부대의 전투와 이동로를 정리해보면 봉복사가 있는 황성 청일면 일대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홍천·춘천방면으로, 동으로는 평창·강릉방면으로, 서로는 여주·이천방면으로, 남으로는 제천·충주방면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지역을 아울러 진출하였다.

민공호가 거느린 의병 부대는 당시 강원도 일대에서는 가장 세력이 큰 의병 부대였다. 그는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로 전전하면서 전부 100여 회의 대소 전투를 벌여 일본군에게 가장 많은 타격을 주었다.

3월 초에는 황성군 북방 3리에서 의병 150명이 일본병 7·8명과 접전하였고<sup>134)</sup> 3월 3·5일 양일에는 황성 동북방 유동(절동이라고도 함)에서 의병 150명이 황성에 주재하는 일본병 7·8명과 교전하여 2시간 30분 후에 북방으로 후퇴하였다.<sup>135)</sup>

이달 8일에 황성 동쪽에서 의병들 약 60명이 일본병의 습격을 받았다.<sup>136)</sup> 3

133) 『개벽』제42호(1923.12.01) 「민공호-비절장절(悲絶壯絶)한 민대장(閔大將)의 약사(畧史).

134) 『대한매일신보』(1908.3.10. 3면) 「황성군 북방 3리에서 일병 칠팔명이」.

135) 『황성신문』(1908.3.10. 2면) 「지방소식 일통 황성에 주재하는 일본병이」.

136) 『대한매일신보』(1908.3.13. 2면) 「본월 8일에 일병이 황성 동방에서」.

월 9일에는 의병 17명이 황성군 둔내면 동창리에 있는 세금 영수원 박지환의 집에 들어가 세금 37원을 탈취하고 그 근처에 숨었다가 황성경찰서에서 한일 순사 4명으로부터 추격을 받기로 했다.<sup>137)</sup> 3월 13일에는 황성군 북방 4리 되는 지역에서 의병 150명이 황성수비대의 보병 분견대와 접전하였고 14일에는 황성 동방에서 의병들 약 100명이 습격을 받아 32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했다.<sup>138)</sup>

3월 22일에 홍주군 적면 부근에 잠복한 의병지도자 한상열(韓相烈)이 충주순사대 가등과 3시간 교전하였고 24일에는 황성군 동평 부근에서 의병들 20명이 교전하였다.<sup>139)</sup> 25일에는 황성군 동부 마암 근처에서 한상열이 거느린 의병이 일본 수비대와 접전하였고<sup>140)</sup> 4월 초에 홍천군 서석면 청양리에서 의병 한상열 등 250명이 교전 3시간 반에 탄약이 핏절하여 부득이 황성으로 철수하였는데, 경시 박태영(朴泰榮)·박영진(朴榮鎭) 양씨의 도움을 받은 일본군이 재차공격을 해오자 후퇴하여 황성군 곡일리에 도착, 이하영(李夏榮) 등 약 30명의 도움을 받아 강경히 저항하였다.<sup>141)</sup>

4월 초에 황성 북편 4리 되는 땅에서는 의병 100여 명이 일본병과 크게 접전하였고<sup>142)</sup> 황성군분견소로부터 의병장 윤성옥(尹成玉)이 체포되자, 그 자녀 성욱(成旭)이 본월 7일에 황성에 들어와 그 아버지를 탈환하려다가 수비대에 잡혔는데 그 때에 일본병 1명이 부상하였다.<sup>143)</sup>

4월 중순에 강원도 황성군 동부 마암(馬巖) 부근에서 한상열 의병장이 인솔

137) 『대한매일신보』(1908.3.13. 3면) 「본월 9일에 의병 17명이」.

138) 『대한매일신보』(1908.3.18. 3면) 「본월 13일에 황성군 수비대의 보병 분대가」와 『황성신문』(1908.3.20. 2면) 「본월 14일에 황성 동북방에서 의병들」 참조.

139) 『황성신문』(1908.4.2. 2면) 「거월 22일에 충주순사대가 홍주군 적면 부근에」.

140) 『대한매일신보』(1908.4.5. 3면) 「지방정형 거월 25일 황성군 동부 마암 근처에서」.

141) 『황성신문』(1908.4.5. 2면) 「충주전을 거한 즉 거월 19일 경시 이남녕(李南寧)씨가」.

142) 『해조신문』(1908.4.9. 1면) 「각처전진(各處戰塵) 황성 북편 4리 되는 땅에서는」.

143) 『황성신문』(1908.4.15. 2면) 「황성군분견소에서 의병장 윤성옥(尹成玉)을 체포하였는데」.

한 의병과 일본 수비대와 교전하였고<sup>144)</sup> 4월 19일 밤에 의병들이 황성에 습격하였다.<sup>145)</sup>

한편 1908년 2월에 흥천에서 일본의 대부대와 접전을 벌여 격퇴시켰으며 이에 적은 황성의 일본 수비대를 파견하여 4월 2일 홍주군 월운면 서북후동(月雲面 西北後洞)에 거주하는 한상열의 처자를 납치하여 귀순할 것을 종용하고자 각종의 유인·협박을 가하였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오히려 20일에 군사를 거느리고 황성을 습격하여 적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당시 『해조신문』(1908.4.26. 3면) 「황성 소식」의 기사가 당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이 사이에 황성군에 일병과 의병의 접전이 여러 번 되었는데 버덜골서 싸울 때에 일본병 5명과 의병 2명과 백성 5명이 죽었고 둔내 새목서 싸울 때에는 일본병이나 의병은 사상이 없고 백성 2명만 죽었고 개나리에서 싸울 때에는 백성 2명이 죽고 2명은 중상하여 기지사경되고 황성읍에는 의병에 들었다가 집에 돌아와 재생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일본병이 잡아다가 엄히 형벌을 하였는데 의병이 얼마 동안은 없어진 모양이더니 다시 크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더라.<sup>146)</sup>

4월 19일에 의병들 300여 명이 황성군에 들어가서 일본병과 3시간 교전하였고<sup>147)</sup> 같은 날에 원주군 동북방 학곡 근처에서도 의병 50명이 황성군 일본 수비대와 접전하였다.<sup>148)</sup> 19일에 황성·원주 2개소에 출장한 일본병이 원주 동북방에서 의병들 150명과 교전하였다. 20일에는 의병들 50명이 황성군에 들어가

144) 『해조신문』(1908.4.21. 2면) 「전신일통(戰信一通) 강원도 황성군 동부 마암(馬巖) 부근에서」.

145) 『황성신문』(1908.4.24. 2면) 「본월 19일 밤에 의병들이 황성에」.

146) 『해조신문』(1908.4.26. 3면) 「황성 소식」.

147) 『황성신문』(1908.4.28. 2면) 「황성 교전」, 『대한매일신보』(1908.4.29. 3면) 「19일에 의병 300여명이 황성군에 돌입」.

148) 『대한매일신보』(1908.4.30. 3면) 「본월 19일에 원주군 동북방 학곡 근처에서」.

서 수비병과 교전하였다.<sup>149)</sup> 이날 특히 김현국은 황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한상열, 양양·강릉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던 금기철 의병진, 신영순·조사길 의병 등과 연합하여 황성의 일본군수비대를 습격하였다.<sup>150)</sup>

5월 11일에 의병 14·15명이 원주 일본병과 원주군 서북방에서 교전하였고 같은 날에 의병 70명이 황성분건소 일본병과 황성군 서북방에서 교전하였다.<sup>151)</sup>

6월 16일 황성군 산내리에서 황재석이 거느린 의병 30명이 북방 산림 중에서 황성군 일본수비대와 접전하였고<sup>152)</sup> 6월 27일에 황성군 동북방에서 황성수비대 및 순사 3명에 의해 의병 2명이 죽고 2명은 생포되었다.<sup>153)</sup>

6월 28일에 의병 50명이 황성 동북방에서 원주수비대와 교전을 하였고<sup>154)</sup> 황성군 북방에서 의병 70명이 일본 수비대 중위 이하 25명과 접전하였고 7월 4일 황성군 소학리에서 의병 80명이 토벌대와 접전하였다.<sup>155)</sup>

7월 12일에 황성군 북방에서 의병 3명이 황성분건대 일본병에 의해 살해되었고<sup>156)</sup> 7월 17일 및 26일에도 홍천수비대에 의해 황성군에 활동하고 있는 의병 2명이 포로로 잡혔고 총 3자루도 압수되었다.<sup>157)</sup> 8월 2일에도 황성군내에서 의병 2명이 황성수비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총 2자루도 압수당하였다.<sup>158)</sup>

9월 8일에는 김현국 의병장이 노병원, 신영순 등 부하 33명과 함께 신림 헌병분건소를 습격하였다. 그는 같은 달 30일경에도 황성군 북면 냉리(冷里)에서

---

149) 『황성신문』(1908.4.30. 2면) 「본월 20일에 의병들 50명이 황성군에」.

150) 김동경, 앞의 책, 106·157쪽 참조.

151) 『황성신문』(1908.5.22. 2면) 「거월 7일에 황성분건소 일본병이 문막북방에서」,

152) 『대한매일신보』(1908.6.26. 2면) 「본월 16일 황성군 산내리에서 황재석이 거느린」,

153) 『황성신문』(1908.7.9. 2면) 「거월 27일에 황성수비대 및 순사 3명이」,

154) 『황성신문』(1908.7.11. 2면) 「거월 28일에 원주수비대가 황성 동북방에서」,

155) 『대한매일신보』(1908.7.14. 3면) 「황성군 북방에서 의병 70명이」.

156) 『황성신문』(1908.7.25. 2면) 「본월 12일에 황성분건대 일병이」.

157) 『황성신문』(1908.8.2. 2면) 「거월 17일 및 26일에 홍천수비대가 황성군에」.

158) 『황성신문』(1908.8.8. 2면) 「본월 2일에 황성수비대가 황성군 내에서」.

일본헌병대와 교전하였다.<sup>159)</sup> 9월에도 횡성, 홍천 등 군에 의병 십수여 명이 출몰하였다<sup>160)</sup>고 하는 등 횡성지역에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꾸준히 출몰하여 일본군과 접전하였다. 『대한매일신보』(1908.11.11) 「거월 23일 횡성군내에서」에 의하면,

10월 중순에도 개성지방에는 의병이 더 발생하는 모양이며 횡성과 마년과 영천과 삭녕 각군에서 의병장 연기호씨의 거느린 의병 백여 명이 출몰하여 일본토벌대와 수차 충돌하였는데 그 의병은 주황색 옷을 입고 군기는 신식총과 단발총이 많으며, 또 화승총을 각각 가졌다 하며 파주와 양주지방에는 의병장 윤인순씨가 의병을 모집하는 중이라 하고.

라고 하였는데, 10월 23일 횡성군내에서 의병 20여 명이 그 고을 일본 헌병과 접전하였다<sup>161)</sup>고도 하였다. 10월 24일에는 김현국 의병장이 신영순 등 부하 37명으로 횡성군 둔내면 영랑리에서 안흥 헌병 5명과 접전하였다.<sup>162)</sup> 10월 24일에도 횡성군에서 의병 약 40명이 안흥 헌병들과 교전하였다.<sup>163)</sup>

12월 7일에 횡성군 부근에서 의병 20여 명이 횡성군 분건소 일 헌병과 헌병보조원으로 더불어 접전하였다 하고<sup>164)</sup> 12일 횡성군 동방으로 50리 가량되는 땅에서 의병 10여 명이 횡성군 분건소 일본 헌병과 헌병보조원으로 더불어 접전하였다<sup>165)</sup> 12월 13일에는 민금호 휘하 한갑복, 윤성옥, 한상열 등 의병부대는 1,200~1,300명을 이끌고 횡성을 출발하여 홍천 서석면(瑞石面) 방면으로 나

159) 김동정, 『횡성지역 전투에 참여한 의병장과 봉복사』(2017), 106쪽 참조.

160) 『황성신문』(1908.9.25. 2면) 「횡성 홍천 등 군에 의병 십수여 명이」.

161) 『대한매일신보』(1908.11.11. 3면) 「거월 23일 횡성군내에서」.

162) 김동정, 앞의 책, 107쪽 참조.

163) 『황성신문』(1908.11.10. 2면) 「횡성군 남북방 안흥분건소 헌병 1명」.

164) 『대한매일신보』(1908.12.18. 3면) 「본월 7일에 횡성군 부근에서」.

165) 『대한매일신보』(1908.11.25. 3면) 「본월 12일 횡성군 동방으로 50리 가량되는」.

아갔다. 같은 날 주기준(朱基俊)이 이끄는 의병 150명은 횡성군 둔내면 자포동에 잠복하고 있다가 일본 평창수비대 25명의 습격을 받아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후 민궁호 휘하 한갑복, 윤성옥, 한상열 등 연합의병이 횡성군 동평 부근에 집결하여 양주군으로 향하여 서울로 진군해 갔다.<sup>166)</sup> 16일에는 횡성군 율실리에서 의병 몇 명이 횡성군 일본 헌병과 보조원으로 더불어 접전하였다.<sup>167)</sup>

이후 한갑복(韓甲復, 일명 甲福, ?~1907)은 군대해산에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켜 강원도 홍천군·인제군 일대에서 부하 수십 명과 함께 군자금을 모집하고 동년 12월 28일 강원도 횡성군 청룡면(靑龍面) 추동리(楸洞里)에서 부하 30여 명과 함께 일군수비대와 교전하다가 전사 순국하였다.

### 3. 1909~1910년 전투

1909년 5월에 원주지방은 비교적 평온하였지만 횡성군 지방에만 의병장 김치영이 거느린 의병 몇 명이 종종 출몰하였고 배일주의는 여전히 만연해 있었다.<sup>168)</sup>

9월에도 강원 횡성과 홍천군에는 의병 소란 이후로 순사와 헌병들이 길가 동리마다 매일잡꾼이 명석을 대령하라 하는데 일 많은 농사를 상관치 아니하고 길짐을 지운다고 그곳 백성의 원망하는 말이 개명국 순사와 병정은 어깨에 종기가 났는지 등에 등창이 났는지 총 한 자루나 의복 한 가지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지 통감부 훈령이 그러한지 알 수 없다고 원성이 창천하다더라<sup>169)</sup>

166) 김동정, 『횡성지역 전투에 참여한 의병장과 봉복사』(2017), 115~116쪽.

167) 『대한매일신보』(1908.12.02. 3면) 「거월 16일 횡성군 율실리에서 의병 몇 명이」.

168) 『대한매일신보』(1909.5.22. 3면) 「원주지방은 근래에는 안온하고 횡성군 지방에만」.

169) 『대한매일신보』(1909.10.2. 2면) 「못살겠다 못살어」.

5월 27일에 수백여 명 군중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크게 시위운동을 펼칠 때에 왜적수비대와 경찰대와 서로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sup>170)</sup>

한편, 원주진위대 특무정교 출신의 왕춘백(王春伯, 1881~?)은 민궁호 의병부대에서 활동을 하였다. 특히 그는 1907년 음력 7~8월 사이에 민궁호 의병부대에 속하여 동료 의병 300여 명과 함께 충북 충주(忠州), 강원도 원주·횡성군 소재의 마을에서 군자금품 수합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특히 1909년 9월부터 10일까지 전개된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에 의해 의병전쟁이 쇠퇴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까지도 의병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금지철(琴地哲)·이용석(李龍錫) 등 동료 의병과 함께 1911년 1월 2일 강원도 횡성군 고모곡(古毛谷, 지금의 서원면) 이십곡리(二十谷里)에서 군자금을 징수하는 등 의병활동을 하였다.<sup>171)</sup>

---

170) 『신한민보』(1919.7.8. 2면) 「횡성」.

171) 김동정, 위의 책, 141쪽 참조.





### 제3장

## 1920년대 강원도 황성지역 청년의 민족운동

1. 황성청년회의 설립과 문화운동의 전개
2. 황성노농동맹의 설립과 노동운동의 전개
3. 독립운동과 형평운동의 전개

### 安興青年會創立

橫城郡非谷而安興里에는相當  
青年機關이無하여恒常遺憾中  
는바該面有志者和吉甲筵晚酒  
疎異彦該鄭錫永金炳鍾李泰弼  
氏의誠心努力한結果安興青年  
會組織하여去月二十三日午後  
時當地安興公立普通學校內에  
創立會를開하고發起人側에서  
案한規則에對하여若干訂止의  
하고左記와如하任員을選舉한  
開會

會長崔和吉副會長權達洙副  
尼英一吳並喜右馬輔行鄭育部  
吳彥泳智育部長趙斗昌體育部  
申鉉晚紳議長李丙楨李相奭朴  
根孔在善書記李泰鎬會計李泰

(橫城)





### 제3장 1920년대

## 강원도 횡성지역 청년의 민족운동

횡성지역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항일민족운동의 현장 중 한 곳이었다. 일제가 1895년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을미개혁을 단행하자, 횡성 출신인 권대형(權大衡), 박성묵(朴性默), 홍재구(洪在龜) 등은 이소응(李昭應) 의진에 참여하여 일제의 행위에 항거하였다. 그리고 1907년 일제가 군대를 해산하고 고종을 퇴위시키자, 횡성의 강도영(姜道永), 최인순(崔仁舜) 등은 의병을 이끌고 일본수비대와 전투를 벌이다 전사하였다. 아울러 횡성인들은 1919년 3월과 4월에 횡성읍 내와 소초면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또한 3·1운동 이후 횡성인들은 횡성지역 내외에서 사회운동과 대중운동, 그리고 항일학생운동과 의열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횡성인들의 항일민족운동은 몇 편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었다.<sup>172)</sup> 그리하여 횡성지역의 항일의병의 창의이념과 항일투쟁의 내용과 성격 등이 고구되었다. 그리고 횡성인의 3·1운동, 문화운동, 학생운동, 의열투쟁 등이 부분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연구를 통하여 횡성지역에서 전개된 여러 계열

172) 강대덕·박정수·최창희, 「한말 횡성지역의 항일의병전쟁」, 『횡성 민족운동사』(횡성문화원, 2003). 강대덕, 「한말 횡성지역의 항일의병전쟁」, 『중앙사학』21호 상암김호일교수정년기념특집(2005). 조규태, 「대한독립공명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33(2002).

의 민족운동이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황성지역의 의병과 3·1운동, 최양옥의 의열 투쟁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규명되었으나<sup>173)</sup> 황성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황성인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황성지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다루어야 할 분야가 너무나 많다. 이 중에서 관심을 갖고 먼저 연구해야 할 분야가 1920년대 청년의 민족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3·1운동 후 민족운동의 주도세력은 청년이므로, 1920년대 황성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파악함으로써 1920년대 황성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민족운동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하고, 1930·40년대 황성지역 사람들이 전개한 민족운동의 실마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1운동 후 황성지역의 청년들이 황성청년회를 만들고 이것을 배경으로 문화운동을 전개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황성청년회의 문화운동에 한계를 느낀 청년들이 황성노농회와 황성노농동맹을 조직하고 전개한 노농운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sup>174)</sup>

## 1. 황성청년회의 설립과 문화운동의 전개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황성지역의 청년들은 새로운 민족운동의 활로를 모색하였다. 마침 조선총독부가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청년운동과 문화운동을 장려하자, 전국에서는 청년회가 조직되고 있었다.

---

173) 최근에 필자가 집필한 『황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2016), 『황성 3·1운동 주도 인물 재조명』(2017), 『황성지역 전투에 참여한 의병장과 봉복사』(2017) 등의 연구가 있다.

174) 이 내용은 조규태의 「1920년대 강원도 황성지역 청년의 민족운동」(『한성사학』23, 2012)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1920년 4월 4일 황성읍 읍상리에서 황성청년구락부(橫城靑年俱樂部)가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회원의 수는 87명에 이르렀다. 황성청년구락부의 간부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부장(副長) 조기순(趙基淳), 총무 조철구(趙徹九), 부원 이동구(李東求) 등의 이름이 확인된다.<sup>175)</sup> 이동구는 황성교구의 천도교인이었으며<sup>176)</sup>, 조철구는 1924년 동아일보 황성분국의 분국장으로서 활동하는 것<sup>177)</sup>으로 보아 황성지역의 유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군의 예를 통해서 미루어 보면<sup>178)</sup>, 황성청년구락부의 설립에는 황성군의 군수 등 관공리의 유도 혹은 주도가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황성청년회의 구성원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황성감리교회 등에 소속된 기독교인의 참여도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황성청년구락부는 강연회를 통하여 문화사상과 문화운동론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였다. 예를 들어 황성청년구락부의 부원인 이동구는 1921년 6월 12일 오후 9시 황성 천도교구에서 부장 조기순의 사회 아래에 「우리 청년의 사명」이란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sup>179)</sup> 황성청년구락부는 천도교 황성교구와 합동으로 천도교 청년회 동경지부의 순회강연단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황성청년구락부는 7월 2일 오후 3시 성환관(星環館)에서 환영만찬을 갖고, 다음날 오후 9시부터 천도교구에서 이동구의 사회 아래에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강연에서 전민철(全敏徹)은 「인생과 교육」, 정중섭(鄭重燮)은 「우리의 각성과 내두(來頭)세계」, 천도교청년회 경성분회 특과원인 김홍식(金弘植)은 「인류의 자연성과 종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sup>180)</sup> 강연내용은 주로 각성과 교육, 교화를 통한

175) 『동아일보』 1921. 6. 19, 1929. 1. 12.

176) 『경종경고비(京鐘警高秘)』제 12191-3, 「사상범 출감자 동정의 건」(1931. 10. 14), 『사상에 관한 정보』 1.

177) 「신문잡지통신사 및 지(分)국조」, 『대정13년 관내상황』.

178) 안성지역의 경우, 안성청년회의 전신인 안성청년야학회는 군수 등 관공리의 주도로 조직된 것이 확인된다(『매일신보』 1920. 4. 6. 『동아일보』 1920. 5. 18, 4면 4단, 「안성청년야학회」).

179) 『동아일보』 1921. 6. 19, 1929. 1. 12.

청년 등 인간의 변화와 개조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횡성청년구락부는 1921년 10월 1일 오후 8시 횡성군 읍상리 천도교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횡성청년구락부란 명칭을 횡성청년회로 변경하였다.<sup>181)</sup> 1920년 이후 청년회가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세워지던 상황을 보고 횡성 지역의 청년들도 동호인모임



『동아일보』 1921년 6월 19일자 기사

같은 느낌을 주는 횡성청년구락부라는 명칭을 운동단체인 횡성청년회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횡성청년회는 창립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하였다. 임원은 회장 조철구(趙徹九), 부회장 김용재(金龍在), 총무 심용구(沈容九), 회계 윤태년(尹泰年), 서기 유대진(柳大振), 평의원 조근영(趙根英) · 이동구(李東求) · 함기섭(咸基燮) · 조기순(趙基淳) · 정운시(鄭雲時) · 백영도(白永道), 간사 윤태환(尹泰煥) · 임동수(林東洙) · 유인택(柳寅澤), 고문 엄형섭(嚴衡燮) · 중서수지조(中西壽之助) · 정호봉(鄭鎬鳳), 지육부장 최혁련(崔赫鍊), 덕육부장 윤태년(尹泰年), 체육부장 한명수(韓明洙)로 구성되었다.<sup>182)</sup>

김용재는 1922년 동아일보 횡성분국장으로 활동하는 것<sup>183)</sup>으로 보아 조철구

180) 『동아일보』 1921. 7. 10. 15.

181) 『동아일보』 1921. 10. 31.

182) 『동아일보』 1922. 7. 8.

183) 『동아일보』 1922. 12. 21.

처럼 이 지역의 유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윤태년은 황성 교통계의 선구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이동구는 천도교 황성교구의 교역자였다. 그리고 조근영은 1906년 황성군 읍상리에 설립된 황성감리교회의 목사였다.<sup>184)</sup> 그리고 엄형섭은 황성군수, 1915년 수원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한 함기섭은 황성군의 군속 8등급 공무원, 정호봉은 면장, 중서수지조(中西壽之助, 1924 김화공립보통학교 訓導 5)는 황성보통학교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sup>185)</sup> 위의 인물들로 보아 황성청년회의 주도인물은 황성청년구락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황성군의 관공리들은 일선에서 물러나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조철구·윤태년 등의 유지와 조근영·이동구 등의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이 회의 활동을 선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13년 정화여학교, 1916년 화성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1919년 황성 엽위청년회를 조직하여 운영한 황성 감리교회<sup>186)</sup>의 교인들은 천도교인과 함께 황성청년회의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황성청년회는 1922년 4월 9일 오전 9시 읍상리 천도교당에서 열린 제2회 정기총회에서, 회장 조철구, 부회장 한기섭, 총무 윤태년, 지육부장 최혁현(崔赫鉉) 등을 보선하였다.<sup>187)</sup> 1922년 8월 경 이동수(李東壽), 방흥범(方興範), 추병옥(秋秉玉), 유규혁(柳奎赫), 조근영(趙根英), 신영호(申永鎬), 이종기(李鍾基), 조철구(趙轍九), 김윤수(金允洙), 방기범(方箕範)도 순회강연의 연사로 활동하였던 것<sup>188)</sup>으로 보아 황성청년회의 간부 혹은 회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2년 9월 9일 임시총회에서는 부회장 조근영, 평의원 김상준(金相俊), 체육부장 윤태환(尹泰煥), 간사 이종기(李鍾基), 회계 한명수(韓明洙) 등이 보선되었다.<sup>189)</sup>

184) 『동아일보』 1922. 11. 20; 『황성 민족운동사』, 135쪽.

185) 『동아일보』 1921. 10. 31. 함기섭에 대해서는 직원록(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참조.

186) 『황성 민족운동사』, 135~136쪽.

187) 『동아일보』 1922. 4. 20

188) 『동아일보』 1922. 8. 12.

1923년 8월 경 황성청년회에서는 이동수, 한명수, 윤탈현(尹兌鉉), 최혁현, 방희세(方熙世), 윤탈년, 방기범, 조철구, 박순경(朴淳卿), 유대진, 윤창호(尹昶鎬)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sup>190)</sup> 또 1924년 1월경에는 안신행(安信行), 윤선현(尹先鉉)이 회원으로 활동하던 사실이 확인된다.<sup>191)</sup>

황성청년회는 강연과 교육 등 문화운동에 주력하였다. 1922년 8월 황성청년회는 동아일보 황성분국과 함께 군내 각 면을 순회하며 강연을 실시하였다. 강연 일시와 장소 및 강연지는 다음과 같다.

#### 황성청년회 각면 순회강연단 일정<sup>192)</sup>

◇ 연사 : 이동수, 방홍범, 추병옥, 유규혁

8월 9일 : 공근면 학담리

8월 10일 : 서원면 분삼리

8월 11일 : 서원면 조항리

◇ 연사 : 조근영, 신영호, 이종기

8월 9일 : 비곡면 하안흥리

8월 10일 : 둔내면 자포곡리

8월 11일 : 정곡면 정금리

◇ 연사 : 조철구, 김윤수, 방기범

8월 9일 : 청일면 유동리

189) 『동아일보』 1922. 9. 18.

190) 『동아일보』 1923. 9. 4.

191) 『동아일보』 1924. 1. 28.

192) 『동아일보』 1922. 8. 12.



8월 10일 : 갑천면 매일리

8월 11일 : 갑천면 포동리

◇ 연사 : 미상(未詳)

8월 14일 : 우천면 하수남리

8월 15일 : 우천면 남산리

8월 16일 : 황성면 읍내리

황성청년회는 1922년 9월 1일 동아일보 황성분국의 후원을 얻어 청년회관에서 갈뚝회 순회강연을 실시하였다. 이 강연에서는 김낙선이 「조선사회와 갈뚝회」라는 강연을, 신일용이 「상호부조의 정신」이란 제목을 강연을 실시하였다.<sup>193)</sup>

1924년 1월부터 황성청년회는 청년회관 등지에서 매월 2회씩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sup>194)</sup> 강연회의 연제는 청년의 각성과 아울러 여성의 각성에 관한 것도 있었다. 예컨대, 황성청년회는 1924년 1월 19일 연사 안신행(安信行)이 「시대와 여자」라는 주제로, 윤선현(尹先鉉)이 「애(愛)」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sup>195)</sup>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황성청년회는 지육부가 중심이 되어 노동야학과 청년야학을 실시하였다. 1923년 8월 25일부터 황성청년회의 이동수, 한명수, 윤태현, 최혁현, 방희세, 윤대년, 방기범, 조철구, 박순경, 유대진, 윤창호 등은 교사로 70여 명의 학생을 가르쳤다.<sup>196)</sup> 황성청년회는 1924년 봄에도 야학을 계속

193) 『동아일보』 1922. 9. 9, 4면 6단 「황성청년회주최 동아일보후원의 갈뚝순 강단」.

194) 『동아일보』 1924. 2. 2.

195) 『동아일보』 1924. 1. 28.

196) 『동아일보』 1923. 9. 4.

하여 3월 24일부터 황성청년회관에서 청년야학을 개설하고, 60일을 기간으로 청년들에게 법학과 산학을 교수하였다.<sup>197)</sup> 한편 황성청년회의 회장은 황성읍내 기독교회에서 운영하는 여자야학의 졸업식에 참석하여 여자야학을 권면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sup>198)</sup>

황성청년회의 회원들은 황성지역의 소년회와 노농회 등의 단체를 지도하기도 하였다. 황성청년회의 평의원인 조근영은 1922년 8월 2일에 황성읍 기독교회당에서 창립된 황성소년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sup>199)</sup> 그리고 황성청년회는 1924년 8월 경 황성노농회의 야학을 지도하였다.<sup>200)</sup> 또 황성청년회는 1924년 5월 황성소년회, 화성유치원, 황성노농회, 황성형평분사, 황성보통학교 체육부와 함께 메이데이와 어린이날의 기념식을 개최하기도 하였다.<sup>201)</sup>

그런데 황성청년회의 활동은 1923년 무렵부터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성청년회는 1923년 12월 30일 회원들이 월회비를 내지 않고 강연회·토론회 등에 참석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23년 4월에서 9월까지의 밀린 회비를 1924년 1월 25일까지 내도록 하고, 탈회 희망자는 신고하도록 하여 회의 정비를 꾀하였다.<sup>202)</sup> 또한 황성청년회는 1924년 1월 25일 회장 방현영의 사회 아래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비를 미납하고 퇴회를 희망한 23명을 제명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sup>203)</sup>

---

197) 『동아일보』 1924. 3. 24.

198) 『동아일보』 1922. 7. 8, 4면 4단, 「황성여자야학수업식」.

199) 『동아일보』 1922. 8 15.

200) 『동아일보』 1924. 8. 23.

201) 『동아일보』 1924 5. 7

202) 『동아일보』 1924 1. 6.

203) 『동아일보』 1924. 2. 2.

1. 과번(過番) 추수기에 중지되었던 노동야학은 구력(舊曆) 정월 초순부터 계속할 사.
1. 강습회와 토론회는 매월 2회씩 종전대로 계속할 사.
1. 본회원은 일반에게 생활개선상 필요품인 염색의 사용을 실행키 위하여 구력 정월 1일부터 솔선실행할 사.
1. 조림사업을 실행키 위하여 도(道) 당국에 국유임야(國有林野) 대부신청(貸付申請)을 제출할 사.
1. 본 회관 내에 화성유치원을 이전하여 일반유치생의 편의를 여(興)케할 사.<sup>204)</sup>

즉 황성청년회는 강연회와 노동야학을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과 아울러 ‘염색의 입기’ 등의 생활개선운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화성유치원을 황성청년회관 안에 옮기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황성청년회는 1925년 4월 27일 오전 10시 동회 회관에서 회장 방현영(方顯榮)의 사회로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관설비의 개선, 전군순회강연 등을 통한 회원의 증대와 회의 발전을 도모하였다.<sup>205)</sup> 그러나 황성청년회의 회세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의 대다수가 소작농으로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성과 교육’을 강조하는 문화운동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929년경 황성청년회의 회원은 회장 방현영 등 37명에 불과하였다.<sup>206)</sup>

한편 황성지역에서는 황성청년회와 아울러 1922년 7월 23일에는 황성군 정곡

204) 『동아일보』 1924. 2. 2.

205) 『동아일보』 1925. 5. 1.

206) 『동아일보』 1929. 1. 12.

면 안흥리의 안흥공립보통학교에서 안흥청년회가 창립되었다. 안흥청년회의 창립 당시의 임원은 회장 최화길(崔和吉), 부회장 권달수(權達洙), 고문 중미영일오(中尾英一吳, 횡성군수) ·

희유마순행(喜有馬純行, 횡성보통학교장) · 정호봉(鄭鎬鳳, 면장), 덕육부장 오언수(吳彦泳), 지육부장 조두창(趙斗昌), 체육부장 신현만(申鉉晩), 평의원 이양철(李兩轍) · 이상석(李相奭) · 박송근(朴崇根) ·



안흥청년창립회 기사(1922.8.8)

공재선(孔在善), 서기 이태호(李泰鎬), 회계 이태진(李泰鎭)이었다.<sup>207)</sup> 그런데 이후의 안흥청년회의 활동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2. 횡성노농동맹의 설립과 노농운동의 전개

횡성지역의 청년들은 청년회를 통한 문화운동에 한계를 느끼고 노농운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횡성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깊었다. 1920년대 횡성군지역의 농업상황은 다음의 <표 1> 과 같다.

207) 『동아일보』 1922. 8. 8.

〈표 2〉 1920년대 말 황성군지역의 농민 구성(1929년 12월)

(단위 : 호/%)

구분	지주 갑	지주 을	자작	자·소작	소작	화전민	계
호수	69	315	1,063	3,717	4,581	344	10,089
비율	1	3	11	37	45	3	100

자료 : 『강원도황성군세일반』(황성군, 1930.3).

즉 이에 따르면, 1929년 경 황성의 농가는 전체 호구수 11,125호 중에서 10,089호를 차지하였다. 비율면으로는 91%나 되었다. 그리고 농가의 구성을 보면 자·소작과 소작농가가 전체 농가의 82%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작농을 비롯한 농민의 경제적 여건의 개선이 황성지역의 농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러한 황성지역 농민의 상황을 인식하였던 황성지역의 청년들은 1924년에 황성노농회를 조직하였다.<sup>208)</sup> 당시의 위원장은 강원도 원주군 원주면 상동리(上洞里) 출신인 이동수(李東壽)였다.<sup>209)</sup> 그 외 황성노농회의 회원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듯이 1924년 무렵 황성청년회의 간부들이 황성노농회를 위하여 야학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황성청년회와 유사한 성격을 띠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반영하듯, 설립 초기에 있어서 황성노농회는 계몽운동과 개량운동에 치중하였다. 1924년 8월 18일 황성노농회는 제1회 임시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208) 『동아일보』 1925. 3. 18. 이 기록에 의하면 황성노농회가 창립된 지 2개 성상(星霜)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황성노농회는 1923년 혹은 1924년에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황성노농회의 제1회 임시총회가 1924년 8월에 열린 점으로 보아 황성노농회는 1924년에 설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209) 『동아일보』 1924. 8. 23. 강원도경찰부장, 「맹휴선동자의 처분 및 불온격문 살포범인 검거에 관한 건」(1930. 1. 29).

## 횡성노농회 제1회 임시총회 결의사항

1. 본회의 회원을 정리할 것.
1. 본회의 자금을 적립할 것.
1. 본회의 야학은 당지 청년회와 소년회의 후원을 득하여 내(來) 9월 1일부터 개최할 것.
1. 본회의 부업장려는 회원 일반에게 위선(爲先) 연직(筵織)을 장려할 것.
1. 본회에서 내(來) 추수기부터 각 사음(舍音)들의 악습인 마령(斗量)을 폐지케 할 것.<sup>210)</sup>

위의 내용처럼, 횡성노농회는 설립 초기인 1924년 계몽운동인 야학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횡성청년회는 노농회원들에게 부업으로 대자리를 짜게 하고, 사음들의 악습인 마령(斗量), 즉 말이나 되로 재는 것을 폐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즉, 횡성청년회는 농민계몽과 농민의 수익 향상과 소작인들에게 가해지는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개량적인 운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횡성노농회는 1925년 3월 14일 제5회 임시총회에서 회관을 건축하기로 결의하였다. 횡성노농회는 1925년 음력 3월 1일까지 회원 100여 명이 일제히 목재를 운반하기로 하고 의연금출을 출연하기로 다짐하였다.<sup>211)</sup>

그런데 이러한 횡성노농회의 활동은 횡성지역의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성과가 크게 미흡하였다. 횡성노농회는 1926년 3월 7일 당지 횡성청년회관에서 혁신총회를 개최하고 횡성노농회의 조직과 운영을 개선하려고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인 이동수는 혁신의 필요성에 관한 의미 깊은 개회사를

210) 『동아일보』 1924. 8. 23, 3면 6단, 「횡성노농결의」.

211) 『동아일보』 1925. 3. 18, 3면 5단, 「횡성노농총회 회관을 건축할 터」.

하였고, 조수웅(趙秀雄)은 혁신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오규선(吳奎善)·유천복(柳天福)은 황성노농회에 대한 감상을 발표하였다. 이어 황성노농회는 의안을 심의하여 위원제를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정하고, 결의사항을 결정하였다.<sup>212)</sup>

◇ 위원

위원장 오지묵(吳之默)

사무부 집행위원 이동수·오규선(吳奎善)·유천복(柳天福)·오호영·엄천일(嚴千一)·조수웅(趙秀雄)

소작부 집행위원 이문칠(李文七)·김원실(金元實)·이화춘(李化春)·박명칠(朴明七)·한신명(韓愼明)·함춘화(咸春化)

노동부 집행위원 김종실(金鍾實)·김주봉(金主奉)·이억석(李億石)·김창홍(金昌洪) 등

◇ 결의

- ① 회원정리에 관한 건.
- ② 소작문제에 관한 건.
- ③ 노동문제에 관한 건.
- ④ 농민교양에 관한 건.
- ⑤ 농촌경제상황 조사에 관한 건.
- ⑥ 세포단체 조직에 관한 건.

위의 내용에 따르면, 황성노농회는 먼저 회원을 정리하고, 회의제도를 상의하달식 조직인 간사제에서 하의상달식 조직인 위원제로 바꾸었으며, 세포단체를

212) 『조선일보』 1926. 3. 14.

조직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유행한 사회주의의 운동방식을 반영하고 아울러 황성지역의 농민을 결속함으로써 농민들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한 의도에서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원제로 혁신한 황성노농회는 소작문제, 노동문제, 농촌경제상황 등을 조사하는 등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농민과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황성노농회는 황성군 내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강원도 및 전국조직과 연계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황성노농회의 서무부 집행위원이었던 이동수(李東壽)는 1927년 7월 7일 원주에서 창립된 원주노동회의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sup>213)</sup>

아울러 그는 1927년 8월 18일 강원청년연맹의 혁신운동을 추진하였으며,<sup>214)</sup> 1927년 10월 경 강원청년연맹의 순회강연대 중 제3대 영서대의 일원으로 황성지역을 순회하기도 하였다.<sup>215)</sup> 뿐만 아니라 그는 1927년 5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의 창립대회에 참석하였고<sup>216)</sup>, 1927년 7월 10일 강원도사회운동자대회의 개최를 추진하였다.<sup>217)</sup> 요컨대 황성노농회의의 이동수와 같은 인물은 인근지역의 노동운동에 간여하고, 강원도지역의 청년단체와 사회운동단체의 통합에 간여하며, 아울러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전국적인 청년단체, 노농단체, 기타 사회단체와의 연합적인 활동을 추진하였다.

바로 이러한 활동에 기초하여, 이동수와 조쟁(趙鍾) 등은 1928년 4월 황성노농회를 해체하고 황성노농동맹을 조직하였다. 1928년 4월 5일 오후 8시부터 황성청년회관에서 개최된 창립대회에서 이동수는 황성노농동맹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의미심장한 연설을 하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황성노농회는 황성 노농동맹

213) 『중외일보』 1927. 7. 27.

214) 『중외일보』 1927. 8. 13.

215) 『동아일보』 1927. 10. 7.

216) 『경고비(警高秘)』제2502-1,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의 창립대회 개최상황 및 집회금지에 관한 건」(1927. 5. 30).

217) 『중외일보』 1927. 6. 5.



으로 발전되었다. 횡성 노농동맹은 창립대회에서 맹원가맹수리(盟員加盟受理), 회원점명(會員點名), 자격심사를 마치고 집행위원장 최성술(崔成述)과 집행위원을 선정하였다.<sup>218)</sup>

그리고 6일에는 다음과 같이 부서의 책임자가 선정되었다.<sup>219)</sup> 집행위원장 최성술, 서무부장 김창수(金昌株), 동 부원 김만수(金萬壽) · 이은삼(李恩三) · 최상옥(崔相玉) · 정춘원(鄭春元), 농민부장 이문칠(李文七), 동 부원 김종실(金鍾實) · 김성수(金聖洙), 체육부장 조재, 동 부원 한철수(韓哲洙), 선전부장 홍팔복(洪八福), 동 부원 정의섭(鄭義燮), 조직부장 김성만(金成萬), 동 부원 권윤진(權允鎭), 조사부장 한응철(韓應哲), 동 부원 방순범(方順範)이었다.

위의 인물 중 서무부장인 김창수는 1920년대 말과 1930년 초 횡성군 횡성면 읍성리 출신의 대표적 사회주의운동가인 고평수와 교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 고평수의 사망 시 김창수는 그의 시신을 인수하였을<sup>220)</sup> 정도로 친밀하였다. 아마도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의 간부인 고평수가 모스크바에 갔다가 1928년 초 귀국하여 고려공산청년회의 선전부장과 전국대회의 준비위원 등으로 활동할 무렵<sup>221)</sup> 그와 관계를 맺고 활동하였던 것 같다. 김창수는 사회주의자인 고평수와 접촉하며 횡성지역 노동자 · 농민을 의식화 하고, 이들에게 공산주의사상을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횡성노농동맹은 창립 후 다음과 같이 조직, 교양, 노동, 소작문제 등을 다루

218) 『조선일보』 1928. 4. 10. 『중외일보』 1928. 4. 11.

219) 『중외일보』 1928. 4. 11. 『조선일보』 1928. 4. 18.

220)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사망에 관한 건」(1930. 2. 7).

221) 고평수의 행적에 대해서는 강만길 · 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23쪽 참조. 1900년 횡성에서 출생한 고평수는 춘천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보성전문학교를 중퇴하였다. 그는 1920년 4월 간도에서 조선인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그 해 9월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가입하였다. 그는 19차년 10월 귀국하여 조선공산당에 관계하면서 1926년 말에는 통합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로 선임되었다. 또한 그는 국제공산청년동맹의 승인을 얻기 위해 모스크바에 파견되었다가 1928년 2월 귀국하여 고려공산청년회의 선전부장, 전국대회준비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기로 결의하였다.

### 황성노동동맹의 창립시 결의사항<sup>222)</sup>

#### 제1부 조직문제

1. 세포단체 조직 촉진의 건
1. 부문운동에 관한 건

#### 제2부 교양문제

1. 노동자·농민 기초지식 연구의 건
1. 신문·잡지 구독의 건
1. 노동야학 개최의 건

#### 제3부 재정문제

1. 기본재산 적립의 건
1. 회원 부담금에 관한 건

#### 제4부 사회 및 당면 문제

1. 봉건적 허례 등 타파에 관한 건
1. 여성, 백정, 노예 등에 관한 차별 철폐의 건
1. 인신매매 금지의 건
1. 무산아동 수업료 철폐의 건
1. 18세 남녀 결혼금지의 건
1. 민족단일당 구성 촉진의 건
1. 신간회 지지의 건
1. 근우회 지지의 건

222) 『조선일보』 1928. 4. 10; 『중외일보』 1928. 4. 26.

## 제5부 노동 및 소작문제

1. 최고임금 결정의 건
1. 8시간노동제 실천의 건
1. 소작료 결정의 건
1. 부당부과 철폐의 건
1. 사음(舍音) 철폐의 건
1. 경작권 확립의 건
1. 회관문제

위의 내용에 따르면, 황성노농동맹은 농민의 계몽과 농민문제를 개량적으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단일당 구성 촉진의 건, 신간회와 근우회 지지의 건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노동조건과 임금조건과 같은 노동문제, 소작료·경작권과 같은 소작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러한 황성노농동맹의 활동에 비판적인 세력도 있었다. 과거 황성노농회의 회장이었던 윤태환은 1928년 7월 12일 오후 8시 황성청년회관에서 황성노농동맹 임시의총을 열고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황성노농동맹의 청부공사 진행의 건을 가결하였다.<sup>223)</sup> 그리고 윤태환은 1928년 7월 31일 임시의총회를 개최하고 황성노농동맹의 맹원정리, 위원장 개선 등을 결정하였다.<sup>224)</sup> 또 윤태환은 1928년 11월 8일 전천공사(前川工事)의 건, 관북수해 구제의 건, 노동야학 개최의 건, 회원정리의 건, 축우구입의 건, 공동경작의 건, 청년회관 장초(薔草)의 건 등을 가결하였다.<sup>225)</sup> 윤태환 등 보수세력은 이동수 등이 황성노농동맹의 실권을 잡고 민족유일당 지지와 같은 정치문제에 간여하고, 노동문제와 소작문

223) 『동아일보』 1928. 7. 19.

224) 『동아일보』 1928. 8. 7.

225) 『동아일보』 1928. 11. 8.

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자, 황성노농동맹의 운영권을 장악한 후, 다시 계몽적이고 개량적인 농민운동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 이후 황성지역의 청년들의 대다수는 192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전개되던 신간회 활동에 거군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1929년 3월 중외일보 황성지국장 又堂이 황성인의 사회의식의 박약을 비판<sup>226)</sup>할 정도로, 황성지역의 청년들은 민족유일당을 조직하려는 의식이 약하였고, 이에 따라 신간회 황성지회조차 조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황성노농동맹의 실권을 잃은 이동수는 다른 단체의 인물들과 관계를 맺고 계속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30년 1월 경 이지연(李止淵)·서창남(徐昌南) 등이 동맹휴교를 촉구하는 전단을 철원지역에 뿌린 사건에 관계하였고 이로 인해 피검되어 옥고를 겪었다.<sup>227)</sup> 그리고 그는 1930년 말 신간회의 중앙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민족통합전선의 결성을 위해 활동하였다.<sup>228)</sup>

### 3. 독립운동과 형평운동의 전개

1920년대 황성지역의 청년들은 문화운동·노농운동과 아울러 항일적 학생운동을 전개하였다. 1922년 4월 1일 개량서당인 암양학숙(暗陽學塾)의 학생 23명은 교사의 언동이 불온당하다고 하며 교사를 배척하기 위한 동맹휴교를 전개하였다. 또 1922년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황성공립보통학교의 학생 139명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춘계운동회 즈음에 일본인과 조선인 학생 사이에 투석을

226) 『중외일보』 1929. 3. 8

227) 강원도경찰부장, 「맹휴선동자의 처분 및 불온격문 살포범인 검거에 관한 건」(1930. 1. 29).

22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4권(1978), 339쪽.

하며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학교직원들의 처우가 불공평한 것을 문제 삼아 동맹 휴교를 전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주모자들은 30일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sup>229)</sup>

한편 황성지역의 3·1운동 시 크게 활동하였던 이 지역의 천도교인들 중에는 3·1운동 후에도 민족적 색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1924년 경 황성 지역의 요시찰인은 갑종 2명, 을종 2명 등 총 4명이 있었는데<sup>230)</sup> 천도교인 안경춘(安敬春)과 장도훈(張道勳)이 요시찰 대상자였다. 안경춘은 이명이 안승경(安承敬)으로 1901년 황성군 정곡면 하안흥리 667번지 출생이었다. 그는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징역 10개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고 그 후 2년간 행방이 묘연하다가 1926년 이후 정곡면 지절리(地湖里)에 거주하며 오병선(吳並善)·정완중(鄭完鍾)·김운하(金雲河) 등과 교류하고 있었다.<sup>231)</sup> 또 장도훈은 원래 영월군 수주면 월현리 출신이나 황성군 정순면에 거주하며 천도교 교사로서 활동하던 중 3·1운동에 참여하여 징역 2년을 받았으며 1920년대에도 치열한 독립사상을 소유하고 있었다.<sup>232)</sup>

1920년대 황성지역 출신의 천도교 청년으로 독립사상을 견지하고 독립운동을 추진한 대표적인 인물은 황성청년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한 이동구였다. 1886년 강원도 황성군 황성면 영영포리 420번지에서 출생한 이동구는 세잔(世殘)한 집의 서자 출신이었다. 그의 입교 동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평등을 강조하는 천도교사상에 매료되었던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그는 1918년 6월 경 강원도의 의사원(議事員)에 선임되어 천도교의 의사원에서 강원도지역 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21·22년 경 황성에서 청년구락부와 청년

229) 「1924년 관내상황」 부(附) 동맹휴교 기타 학교분쟁사건 동기일람(同盟休校 其他 學校紛爭事件 動機一覽). 동맹휴교 기타 학교분쟁사건 내용(同盟休校 其他 學校紛爭事件 內容).

230) 「1924년 관내상황」 附 「요시찰인서별일람표」(1924년 6월말 현재).

231) 『접정시대인물사료(接政時代人物史料)』6권, 139쪽.

232) 『접정시대인물사료(接政時代人物史料)』3권, 29쪽.

회를 이끌면서 한편으로 서울에서 최동희(崔東曦), 홍병기(洪秉箕), 오지영(吳知泳), 김봉국(金鳳國) 등과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사상을 천도교의 이념 아래에서 재해석하여, 권위주의적 교회제도를 개선하고 평등한 민주적 제도를 실시하려는 목적에서 천도교단 내의 혁신운동을 주도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 의정원이 설립되자, 그는 황성의 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어 천도교단의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는 이 혁신운동이 원로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혁신운동에 참여한 동지들과 함께 1922년 말 천도교연합회를 설립하고 천도교총부로부터 분립하였다.<sup>233)</sup> 한편 그는 1922년 7월 14일 서울에서 동학(東學)의 항일정신을 견지하는 인사들과 함께 고려혁명위원회(高麗革命委員會)를 결성하고 해내조직부(海內組織部) 부장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sup>234)</sup>

이동구는 고려혁명위원회의 위원들이 해외에 망명하여 활동하던 1924부터 1925년 사이 국내에서 형평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1925년 8월 최동희의 부름을 받고 만주로 갔다. 그는 10월 경 길림(吉林), 하얼빈에서 최동희를 만나 그로부터 고려혁명당의 결성계획에 관하여 들었다. 그는 1925년 12월 경 귀국하여 김봉국에게 천도교·형평사·정의부(正義府)가 합동하여 중국 땅에 고려혁명당을 조직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동구는 서울 와

233)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선인, 2006), 181~190쪽; 「천도교인물열전-혁명운동가 이동구」, 「신인간」 567호(1997. 12) 참조.

234) 고려혁명위원회의 결성에 관하여는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1956, 234쪽 참조. 이 위원회의 임원은 고문 이종훈(李鍾勳), 위원장 홍병기(洪秉箕), 부위원장 최동희(崔東曦), 비서 송헌(宋憲), 외교부장 최동희, 해외조직부장 이동락(李東洛), 해외선전부장 김광희(金光熙), 해내조직부장 이동구, 해내선전부장 김봉국(金鳳國), 재정부장 박봉운(朴奉允), 위원 김치보(金致甫), 강창선(康昌善), 지동섭(池東燮), 김홍중(金洪鍾), 강도희(姜道熙), 김문각(金文闈), 이동욱(李東郁), 강명혁(姜明赫), 김병식(金炳植), 손두성(孫斗星)이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 위원회가 어느 곳에서 결성되었는 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최동희의 아들인 최익환은 이 단체가 만주 길림성(吉林省) 반석현(磐石縣)에서 조직되었다고 들었다고 한다. 반면에 최정간은 그의 저서 『해월 최시형가의 사람들』(웅진출판, 1994), 270쪽에서 이 단체가 서울 제동(제동의) 홍병기의 자택에서 조직되었다고 하고 있다.

룡동의 형평사 중앙총본부로 오성환(吳成煥)을 찾아가 이 조직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유하였다. 그 후 이동구는 오성환의 대리로서, 송헌의 대리자격을 띤 김봉국·이동락과 함께 1926년 3월 22·23일 경 만주 길림성(吉林省) 길림성내(吉林城內)에 도착하였다. 이동구는 3월 26일 양기탁의 방에서 최동희, 양기탁, 오동진, 정원흠(鄭元欽), 고활신(高豁信), 이일심(李一心), 주진수(朱鎭壽), 김광희, 이규풍(李奎豐), 현정경(玄正卿), 현익철(玄益哲), 곽종육(郭鍾毓), 이성계(李成桂) 등과 회합하여 고려혁명당의 결성을 모의하고, 동월 29일 양기탁의 집에서 양기탁, 이동구, 최동희, 이동락, 김봉국, 고활신, 이일심(李一心), 주진수, 김광희, 이규풍, 현정경 이 모여 고려혁명당의 결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이동구는 책임비서에 선임되었다. 이후 이동구는 1926년 11월 길림성 아성현(阿城縣)에 거주하는 유공삼을 하얼빈에 불러내어 고려혁명당의 목적을 알려 주고 입당하게 하였다.<sup>235)</sup>

그러나 그는 고려혁명당의 활동을 오래 전개하지 못하였다. 중앙집행위원 이동락(李東洛, 천도교인)이 1926년 12월 28일 장춘(長春)의 동아정미소에서 장춘경찰서원에게 체포됨으로써 고려혁명당의 조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직이 탄로된 후, 이동구는 1927년 3월 11일에 정이형, 이동욱, 이원주, 이규풍 등과 함께 길림에서 일경에게 검거되었다. 이후 그는 징역 5년(미결구류 200일 통산)을 받고 1932년 10월 출옥한 직후인 1933년 10월 7일 47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sup>236)</sup>

235) 고려혁명당사건 판결문(신의주지방법원, 1928. 4. 20), 이동구 관련사항;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선인, 2006), 207~209쪽; 조규태, 「천도교인물열전-혁명운동가 이동구」, 『신인간』567호(1997. 12); 박환, 「정이형(1897-1956)」, 『한국민족운동사연구』(우송 조동걸 선생 정년기념논총II), 1997, 610쪽 참조.

236) 『재만불령단병의사회주의단체(在滿不逞團並益社會主義團體)의 상황』, 1928. 3, 9~10쪽. 김준엽·김창순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제4권, 청계연구소, 1986, 126쪽에서 재인용. 『동아일보』 1933. 10. 10.

한편 황성한우로 유명한 황성지역에는 백정들이 많았고, 백정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지식인도 적지 않았다. 마침 1923년 4월 24일 경남 진주에서 형평사(衡平社)가 만들어져 백정들에 대한 차별 철폐와 평등 대우를 주장하는 형평운동이 전개되자, 황성지역의 청년들은 1924년 1월 황성군 읍하리에 형평사 황성분사를 설립하였다. 당시 임시 분사장은 길만학(吉萬學)이었다.<sup>237)</sup> 1925년 1월 창립1주년에 참석한 인원이 500여 명에 달하는 것<sup>238)</sup>으로 보아 형평사 황성분사의 인원은 100·200여 명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평사 황성분사는 1925년 1월 4일 창립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황성지역에 선전빠라 약 1,000여 매를 배포하여 형평운동의 취지를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다.<sup>239)</sup>

형평사 황성분사의 임원들은 형평사 본사의 임원으로도 참여하였다. 길만학과 이동구는 1924년 형평사 본부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고, 1925년에도 두 사람은 각기 중앙집행위원과 감사위원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sup>240)</sup> 길만학은 1928년 6월 8월 강원도 지방을 순회하는 특별위원, 1929년 2월에는 충남을 순회하는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30년 4월에는 형평사 상무집행위원인 생활보호부원으로 활동하였고,<sup>241)</sup> 1931년 3월에는 형평사 정기총회 강원도 순회위원으로 활동하였다.<sup>242)</sup> 또, 황성청년회원 방영린(方榮麟)은 1925년 경 형평사의 서기로서 활동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1925년 경 사회주의계 사상단체인 북풍회(北風會)의 회원으로 40만 명이나 되는 형평사원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sup>243)</sup>

237) 『동아일보』 1924. 1. 10.

238) 『동아일보』 1925. 1. 13.

239) 『동아일보』 1925. 1. 13.

240) 김중섭, 『형평운동 연구』(민영사, 1994), 151쪽.

241) 김중섭, 『형평운동 연구』(민영사, 1994), 221쪽.

242) 김중섭, 『형평운동 연구』(민영사, 1994), 228쪽.

243) 「형평운동과 북풍회 주의자에 관한 건」(1925. 9. 3).



형평사 황성분국은 1931년에도 활동하던 사실이 확인된다. 1931년 3월 25일 임시총회에서 김월봉(金月鳳)이 전체대회 대의원으로 선정되었고, 위원장 길학성, 서기장 길용옥(吉龍玉), 조직재정부장 김월봉, 교양출판부장 김석송(金石崇), 부인청년부장 조영준(趙英俊), 생활보장부장 이태평(李太平), 사회부장 조만봉(趙萬鳳) 등의 임원이 선정되었다.<sup>244)</sup> 형평사 황성분국의 조직재정부장인 김월봉은 1931년 4월 24일과 25일 서울 경운동에서 개최된 제9회 형평사전체대회에 참석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sup>245)</sup>

그러나 형평사 황성분국은 이 이후 활동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형평사 본부는 1931년의 해소논쟁과 그 뒤 1933년 형평전위동맹사건을 겪으면서 그 활동이 퇴조하였는데<sup>246)</sup> 형평사 황성분국도 이 무렵부터 활동이 미미하게 되어 해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황성지역의 청년들은 3·1운동 후인 1920년 4월 4일 황성청년구락부를 조직하였다가 1921년 10월 1일 황성청년회를 조직하였다. 황성청년회는 천도교인 이동구, 기독교인 조근영과 황성지역의 유지인 조철구·김룡재 등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것의 활동을 황성군 내의 군수와 면장 등의 관헌들이 후원하였다.

황성 청년회는 문화운동에 주력하였다. 황성 청년회는 자체 강연회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청년 등 인간의 각성과 개조를 촉구하였고, 야학활동을 통해 신인간의 형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황성청년회는 황성소년회, 황성노농회, 형평사 황성분국 등을 지도하고 이 구성원들을 계몽하였다.

244) 『동아일보』 1931. 3. 30, 3면 8단, 「황성형평총회」.

245) 『경종경고비(京鐘警高秘)』 제52기호, 『조선형평사본부 집회취체 상황보고』(1931. 4. 27), 「사상에 관한 정보」(부분).

246) 고숙화, 『일제하 형평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1995), 225쪽

그러나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의 대다수가 소작농으로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성과 교육'을 강조하는 문화운동은 농민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따라서 황성청년회의 활동은 1920년대 중반 문화운동의 전반적인 퇴조와 함께 점차 위축되어갔다.

황성청년회의 문화운동이 한계에 직면할 즈음인 1923년 이동수(李東壽) 등은 황성노농회를 조직하였다. 설립 초기 황성노농회는 농민들의 계몽과 농민들의 경제적 소득 향상, 개량적인 농민문제의 해결 등에 치중하였다. 그런데 황성노농회는 그 조직이 농민 중심이 아닌 지식인 중심의 조직이었으므로 농민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자 이동수 등은 1926년 황성노농회의 혁신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농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황성노농회의 조직을 간사제에서 위원제로 변경하고 농민의 결속을 위해 세포단체를 조직하려고 하였다. 이후 황성노농회는 소작문제, 노동문제, 농촌경제상황 등을 조사하는 등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농민과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황성노농회의 주도인물인 이동수와 김창수 등은 강원도 및 전국의 노농단체, 청년단체,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기초하여 이동수와 김창수는 1928년 황성노농회를 황성노농동맹으로 발전시켰다. 황성 노농동맹은 농민의 계몽과 농민문제를 개량적으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단일당 구성 촉진의 건, 신간회와 근우회 지지의 건과 같은 민족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노동 조건과 임금조건과 같은 노동문제, 소작료·경작권과 같은 소작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황성노농동맹은 과거 황성노농회의 주도인물인 윤태환(尹泰煥) 등의 반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소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3·1운동 후 황성지역의 청년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황성지역의 학생들은 1922년 동맹휴교를 행하여 일본인 교사의 한인차별 등에 항의하였다.

또한 황성지역의 3·1운동시 크게 기여한 천도교인들은 항일적 민족운동을 지속하여 나아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구였다. 그는 1922년 최동희 등 동학의 항일정신을 견지하는 인물들과 고려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해내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25년 말에서 1926년 초 만주의 최동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천도교 연합회원과 형평사원을 견인하여 1926년 3월 길림에서 천도교연합회·형평사·정의부(正義府)의 삼각동맹으로 고려혁명당을 조직하였다. 그는 그 책임비서로 활동하였는데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한편 황성의 길만학과 이동구는 1924년 형평사 황성분국을 조직하고 형평사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형평사 황성분국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30대 초 형평사 본부의 쇠락과 함께 해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4장

# 황성인의 독립운동

1. 3·1만세운동
2. 철원애국단과 탁영재
3. 고려혁명당과 황성인
4. 상록회와 백흥기







## 제4장 황성인의 독립운동

### 1. 3·1만세운동

#### 1) 황성의 3월 27일 만세운동

황성군의 3·1운동은 처음에는 천도교인이 주도했다. 황성면 영영포리에 본부를 둔 황성천도교의 대교구장 최종하(崔宗河)와 도훈(道訓) 이채일(李采一)·의사원(議事員) 이동구(李東求), 그리고 봉훈(奉訓) 신재근(申在根)·강만형(姜萬馨)이 대표적 주도자들이었다.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3월 13일 이들은 정곡면(지금의 안흥면) 상안흥리 교인 장도훈(張道勳, 49세)을 서울 이동구에게 보내서 독립선언서 40매와 태극기 20매를 구입하여 영영포리 신재근의 집으로 가져왔다. 여기에서 20대의 청년들인 강만형(28세)과 안경춘(20세)이 가담하여 활동하고 황성면 읍하리의 청년회원 윤태환(22세)이 동의하여 적극 참여하였다. 이곳에서 먼저 우천·공근면 그리고 황성면에 배포하고, 원주 소초면은 강만형이 담당하고 안경춘(安敬春)·김인경(金麟卿)을 통해 정곡과 갑천·둔내면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3월 27일은 황성 장날이었다. 시위의 선두는 윤태환이었다. 윤태환은 황성청

년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의기가 넘치는 청년이었다. 그는 큰 태극기를 들고 군중들 앞에 섰다. 천도교인 8명과 그 외 4명 등 지도급 인사 12명이 군중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64세로 천도교 봉훈이던 신재근 노인이 나서서 독립선언서를 읽으려 하였다. 시장의 군중들은 아직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있었다. 이때 이미 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던 일본의 헌병들이 나타나 앞에 있던 신재근과 윤태환을 체포하였다.

이날 시위는 천도교인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먼저 모든 상점의 폐쇄부터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상점들을 닫고 시위대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할 때, 이 조짐을 알고 원주에서 헌병 3명, 보병 4명(기마병 7명)이 출동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 장터에 모인 사람은 300명가량이었는데, 독립만세를 몇 번 부르지 못한 채 일제 헌병대의 기습적 제압으로 주도자 12명이 구금되자 시위대는 해산되고 말았다.

이 병력은 3월 16일 춘천 일본군 79연대에서 파견된 병력이었다. 3월 16일 황성보통학교 학생들이 고종 황제에 대한 조의(弔意)의 표시로서 삼배 천을 달고 등교하고, 황성에서는 계시된 3·1운동에 대한 총독 이른바 유시문을 찢어버린 것 때문에 원주로 이동하여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3월 27일의 황성 장날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제에 붙잡힌 인사들은 2년에서 6개월까지 징역을 살았다. 신재근·장도훈 각 2년, 안경춘 10개월, 강만형 8개월, 윤태환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원주지청에서 예심을 거쳐 그 해 5월 1일에 경성지방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서류 심사로서 기각되었다. 강만형은 8개월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 중 모진 고문으로 옥중에서 1920년 2월 28일 2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 2) 횡성 4월 1일 만세운동

4월 1일은 그 다음 장날이었다. 천도교에서는 지난 장날 거사실패를 거울삼아 청년층과 감리교회 영영포리 탁영재와 내지리 정해경(43세)측과도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횡성읍으로 출입하는 도로에 교인을 배치하고 마을에서는 교인이 장꾼을 인솔하였다.

천도교에서는 교인들이 우천면 범주리 강성순(27세), 정곡면 안흥리 김인경(38세), 가좌곡리 김연의(21세), 하산전리 조상렬(49세), 김순서, 갑천면 매일리 김윤배(56세), 횡성면 읍상리 전성수(34세), 원주 소초면 둔둔리 강달희(51세), 하영현 그리고 교항리의 추병륜(45세) 형제 등이 죽음을 무릅쓰고 만세군중을 동원하기 위해 밤낮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3월 27일 장사하러 횡성 장터에 왔던 영월군 양변면 주천리 김성서(金聖西)와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김윤신 등 천도교인들은 만세운동을 위하여 장사를 가장하고 마을을 다니며 활약했다.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 사람들은 천도교인 하영현, 강사문 등의 인솔로 참여하였다.

이렇게 시중의 공기가 심상치 않자 일본 관헌도 비상태세에 돌입하여 군청·면사무소 등의 중요 서류를 감추고 군수 심상준(沈相俊)과 면장 김석환(金錫煥)은 관리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오후 3시경 군중은 1,300여 명에 달했고 마침내 만세소리가 폭발하였다. 온 장터가 만세 소리로 뒤덮였고 상점들을 철시했으며, 장꾼들이 가담했다. 천도교 교구실에는 태극기가 높이 솟았고, 군중은 태극기나 몽둥이 아니면 장작<sup>247)</sup>을 들고 관공서 앞의 게시판, 군청 건물일부, 문을 닫지 않은 상점 등을 파괴

---

247) 오후4시 정도가 되자 장터에서 쌀가게를 하던 조홍렬이 집을 고치려고 준비해 두었던 서까래 나무를 잘라서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3월 27일 시위의 선도에 섰던 윤태환의 형 윤석환이 장작을 나누어 주었다(『횡성의 종소리』, 105쪽 참조, 1996).

하였다. 오전부터 주요 문서들을 숨긴 일제 관헌들은 오후에 도망하여 몸을 숨겼다.

만세를 부르는 군중의 기세가 도도해지자 경찰서에 근무하는 일경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됨을 판단한 경찰서장은 원주에 있는 일본헌병과건대에 연락을 취하여 병력지원을 요청했다. 원주헌병과건대에서 급파된 일본헌병들은 황성 앞내다리(前川橋)를 건너서면서부터 전투태세를 갖추고 황성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는 군중들의 동향을 살피며 서서히 접근하여 왔다.

황성군민들의 만세소리는 점점 고조되어 갔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만세를 부르는 군중의 수는 점점 많아졌고 열기는 거세어졌다. 만세를 부르는 군중의 선두가 일본인 경찰들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본 일본헌병들은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만세를 부르다 일본헌병이 쏜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동포들을 본 군중은 대노하기 시작했고 격렬해지면서 맨주먹을 움켜쥐고 혹은 돌과 몽둥이를 집어 들고 왜병을 향해 몰려가기 시작했다. 사태가 위급하여진 일본 헌병들은 거세게 무차별 사격으로 독립을 외치는 군민들에게 대항하였다.

장터의 여러 술집에서는 서로 술을 권하며 만세시위 참여를 권했다. 당시 수로공부(修路工夫)로 있던 전한국은 장터 한농옥 술집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술을 받아주었다. 황성면 옥동리 한치 고개에서 술을 팔던 황소아줌마(김순이, 황소갈보)도 술판에 어울려 만세운동을 역설하였다. 송강루 옆에 있던 황용구의 술집에서도 만세운동을 역설하는 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때 황성 헌병분견소의 헌병 고지마리(小島了)는 말을 타고 거리로 나타났다. 군중들은 “저놈 죽여라!”고 소리쳤고, 군중 속에서 최동수(崔東壽)는 말 위에 뛰어 올라 헌병을 끌어 내렸다. 그리고 밟고 때렸다.

이때 총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총소리에 시위대의 행동이 일단 멈추었으나,

군중을 해산하지 않고 날이 저문 후 다시 만세시위가 계속되어 밤중까지 이어졌다.

시위대는 헌병분견소로 향했다. 다시 수비대 총구에서 불을 뿜었고, 날이 밝을 때까지 총성이 계속되었다. 야간 총격으로 5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이날 순국한 사람은 강성순, 전한국, 하영현, 강달희(강사문), 김치정이고 총에 맞은 한 명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바로 죽었다.

강성순은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죽음이 겁나 만세를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찾겠느냐”며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다 순국하였다. 김치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기미년 만세사건 때는 갑천면



황성면사무소(1959)

매일3리 속칭 잔골마을에서 50대의 장년으로 한문서당을 마련해놓고 10여 명의 문하생을 두고 한학(漢學)을 가르치고 있었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유생이었다. 김치정은 도잔골에서 제자 신건수를 대동하고 황성으로 와서 만세를 부르는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김치정은 무차별 난사하는 총탄에 맞아 만세 부르던 현장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신건수는 총소리에 놀라 어떻게 피신했는지 조차 알 수가 없었다. 만세사건 후 갑천면 잔골마을로 김치정의 사망한 소식이 전달되어 잔골부락민들이 황성까지 나와서 시신을 운구하여 오고 부락민들의 정성된 협력으로 그나마 일경의 눈을 피해가며 매일 2리 박해운 자택 옆에 있는 동산에 장사를 지냈다. 묘가 현재도 친척들의 보살핌으로 보존되어

오고 있다.

일제 관헌이 시체를 면사무소에 가져다 놓자 둔둔리 사람들은 면사무소로 몰려가 하영현과 강달회(일명 사문)의 시체를 찾아 걸머메고 동리로 돌아갔다. 둔둔리 주민들은 의분을 참지 못하여 4월 5일 원주군(지금의 원주시) 소초면 사무소가 있는 평장리로 몰려가 다시 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일 만세운동을 펼치다가 붙잡힌 사람은 물론, 4월 2일부터 대대적인 사찰로 일제 관헌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가혹한 태형을 당하였다. 헌병대에서 태형으로 90대의 매를 맞아서 살이 일그러져 1년 동안 병 치료로 아무 일도 못한 사람도 있었다. 일제 관헌에 피체된 정해경·김성서는 1년 6월, 천선재는 징역 1년, 김인경·조상렬·김윤신·전성수·김윤배·김연의(김순서) 등은 각각 8월, 추병륜은 6월의 징역을 살아야했다. 탁영재·최동수·김명기(김사극)·추병학은 만세운동 후에 피체를 면했다.

윤동선의 경우, 4월 1일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총상으로 부상을 당하였다. 당시 최양옥 지사도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처갓집까지 따라온 일경에 체포되었지만 도중에 간신히 탈출하여 훗날 큰일을 할 수 있었다. 만세운동 주도자들은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경찰이 괴롭혀 모두 가난한 살림에서 고생하였다.

4월 2일에도 시위는 계속되었다. 이날 아침부터 황성읍의 사람 200명이 헌병분견소에 모여 독립운동을 허가할 것과 체포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전날 참여하였다가 해산했던 사람들도 다시 시위대열에 합류했다.

잡화상이었던 이기순은 4월 5일에 둔내면 자포곡리(自浦谷里) 천관여(千官汝)의 집에서, 천관여와 여러 사람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함으로써 체포되었다. 그는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받았다.

4월 6일까지 황성읍내의 상점들은 문을 닫아걸고 항쟁을 계속했다. 7일에 가서야 상점들은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날 읍내 길가에는 태극기를 세워 놓고 그 밑에, “군수를 죽이고 묶여 있는 사람을 석방하라”는 선전문이 나붙었다.

4월 12일 황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에서 송병기(宋秉箕), 성태현(成泰鉉), 박민희(朴民喜), 이정헌(李正憲)은 함께 송병창(宋秉昌)의 집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협의하고 주민 70여명을 규합하여 분일리내 향산(香山)과 수동(水洞) 사이의 뒷산에 올라가 봉화(烽火)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 만세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다시 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을 순회하며 밤새도록 시위를 벌였는데 새벽 1시에야 끝났다. 이 일로 인하여 송병기, 성태현·박민희, 이정헌 등이 체포되어 송병기 징역 10월형, 성태현 박민희 징역 8월형, 유정근 징역 7월형, 이정헌·이두연·이종우·김옥봉은 각각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황성 천도교회가 만세운동을 추진할 때 각 지방에서 참가한 사람은 천도교인, 감리교인, 유학자, 그리고 청년회원 등이 참여하였다. 주도층을 보면, 세 갈래의 계통이었다.

그 하나는 천도교 계통으로, 황성천도교구장 최종하, 읍상리 전성수, 영영포리 신재근, 법주리 강성순, 갑천면 매일리 김운배, 안흥면 안흥리 천선재(78세), 상안흥리 장도훈·김인경·안경춘, 가좌곡리 김연의(21세), 하산전리 조상렬,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 강달희·강만형·하영현, 교항리 추병학·추병륜 등이었다. 유학자인 우천면 두곡리 김명기·김진대 등이 주동자로 참여하였다. 또 하나는 내지리 정해경·탁영재 등의 감리교 계통이었다. 다른 또 하나는 윤태환·최동수 등 청년회의 계통이었다.



1972년 8월 16일 황성3·1운동기념비 제막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는 최종완 강원도지사(좌). 제막식에서 동아일보 김상만 사장이 3·1운동유공자 운동선 응에게 기념패 전달(동아 1972.8.17)

## 2. 철원애국단과 탁영재

### 1) 철원애국단

철원애국단은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의 강원도단이다. 대한독립애국단은 1919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독립운동단체로 1919년 5월 신현구(申鉉九)·권인채(權仁采) 등이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직하였다. 본부의 구성원은 단장 신현구, 재무총장 김순호(金順皓), 재무감독 문봉의(文鳳儀), 그 밖에 권인채·안황(安滉)·김영식(金永植)·서병철(徐丙轍)·김상덕(金相德, 일명 金載根)·이시우(李時雨)·안교일(安教一)·김영철(金永喆) 등이었다. 신현창(申鉉彰)은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파견되어 연락을 담당하였다.

본부의 결성과 동시에 지방조직에 착수하였다. 전라도 지역은 같은 해 5월 김순호의 지도로 김영식이 주관해 고창 일대에 기초 조직을 확보하였다. 강원도 지역은 같은 해 8월 권인채·김상덕에 의해 철원군단(鐵原郡團)이 결성되었다. 강원도 김화 출신으로 3·1운동 당시 연희전문학교 학생이었던 김상덕은 서울

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동년 8월 6일에 보석으로 출옥하였다.

다음날 남대문 밖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권인채를 만나 그로부터 애국단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듣게 되었고, 이 때 강원도에도 애국단 지단을 세우기로 뜻을 모았다. 즉시 애국단의 조직과 설치 규정을 기재한 「애국단행정기관반포문」을 갖고 철원에 내려간 김상덕은 8월 9일 철원남감리교회의 목사 박연서(朴淵瑞)를 찾아 애국단의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일 밤 박연서의 집에서 강대려(姜大呂)·김철회(金喆會)·박건병(朴健秉) 등이 모여 군단(郡團) 설치에 대한 1차 모임을 가진 후, 이틀 후인 8월 11일에 철원의 도피안사에서 위의 인사 외에 김완호(金完鎬)·이용우(李用雨)·이봉하(李鳳夏)·오세덕(吳世德)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원군단을 결성하였다. 이 때 승려로 임시정부 특파원 출신이었던 신상완(申尙玩)과 건봉사의 탁능허(卓能虛)·이운파(李雲坡) 세 승려가 참여한 것도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었다.<sup>248)</sup>

다음 날인 8월 12일 군단장 이봉하, 서무과장 강대려, 재무과장 김완호, 통신과장 박연서, 학무과장 박건병, 외교부원 이용우·김철회·오세덕 등의 부서 및 임원을 정했다.

그리고 김상덕의 소개장과 함께 통신과장 박연서를 서울로 보내 애국단 단장 신현구에게 철원군단의 설치상황을 보고하게 했다. 이 세부 상황을 보고받은 본부에서는 철원군단을 강원도 조직을 관할하는 강원도단으로 승격시키며 당시 철원을 대표했던 애국계몽가이고 독립운동가인 소몽 이봉하 군단장을 도단장으로, 각 과장은 국장으로 승격해 도지부의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도내 독립운

---

248) 장석홍, 「대한독립애국단연구」, 『대한독립운동사연구』1, 1987, 186·199쪽 참조. 이경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BBC NEW 기고문인 「독립운동 철원 애국단 결성지는 '철원도피안사」(2018.11.16)에서 신상완과 김상현, 이석윤 등 세 스님이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수행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을 지하에서 펼치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은 박연서 목사이다. 그는 철원의 3·1만세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비록 그가 표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철원 만세운동은 시작되었다. 철원애국단의 강대려, 김철회, 박건병, 이봉우 등도 교회 및 교육활동을 통해 철원의 항일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인사들이었다.

또 다른 인물은 김상덕이다. 그는 연희전문학교에 진학하기 이전에 철원에 이웃한 김화에서 사립학교 신창학교(信昌學校)를 세우고 교육활동을 전개했을 뿐 아니라 후에 전도활동을 펼칠 만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따라서 철원지방의 교육 및 교육 인사들도 자연스럽게 잦은 교류를 가졌을 것이고 그러한 관계로 그는 철원 남감리회교회 목사인 박연서를 찾아가 쉽게 애국단 설치에 관한 의논을 할 수 있었다.

이에 철원군단은 엄밀하게 말해 기독교계 독립운동가인 신현구(1882~1930)에 의해 국내 독립운동단체의 결속, 국내 연통본부설치, 국내정보 수집, 제2만세운동 추진, 자금모집 등의 다양한 활동 속에 전국조직을 확대해 나아가기 위해 3·1만세운동 직후인 4월 말부터 비밀리에 조직된 대한독립애국단의 지방조직인 군단(郡團)과 도단(道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국내 행정조직이었다.

철원군단은 곧 강원도단(江原道團)으로 승격되고, 군단장은 도단장(道團長)으로 과장은 국장으로 역시 승격되어 도단체계를 갖추었는데, 강원도단을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이라고도 불렀다.

강원도단 즉 철원애국단은 8월 21일, 기독교 독립운동가 조종대(1873~1922)가 강원도 각 군에 군단설치의 책임을 지고 9월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원주·횡성·강릉·울진·삼척·평해·양양·평창·김화군 등지의 도내 독



립운동인사들과 함께 각 군단의 조직설치와 다양하고 본격적인 독립활동을 비밀리에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조종대(趙鍾大, 1873~1922)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그는 황해도 금천(金川) 출신으로 철원에서 성장한 기독교 전도사였다. 한의학을 전공, 약종상(藥種商)을 하기도 했던 그는 경술국치 이전에 봉명(鳳鳴)학교와 배영(培英)학교를 중심으로 구국교육 활동을 폈었다. 당시 배영학교는 군사교육까지 실시하던 민립학교였는데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된 후 그는 서울로 올라왔다. 그 뒤 서울에 있으면서 상동(尙洞)교회의 선교사업에 종사하였고 금천을 비롯한 황해도 일대와 철원 등 강원도 각지를 다니며 선교활동을 폈다. 그러한 관계로 교육사업을 통한 철원지방의 인사 및 강원도 일대의 기독교 인사 그리고 약종상의 직업 등으로 강원도 지방의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그는 선교활동을 펴는 한편 조선인관리퇴직동맹에 필요한 재장자금의 모집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배영학교 시절부터 같이 활동했던 강원도단의 서무국장 강대려로부터 8월 21일 애국단의 설치사정을 듣게 되었고 이때 조종대는 강원도 각 군에 군단을 설치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후 그는 서울에 올라와 강원도단의 조직확대에 따른 준비를 진행하는 한편, 강원도단에서 파견한 통신국장 김철희와 서울에서 9월 초·중순에 두 차례 만나 활동자금의 자원 등을 협의하였고 동년 9월 26일경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활동 경로는 원주를 시작으로 횡성 등지의 강원도 서남지방에서 강릉·양양의 동부지방으로 거쳐 김화철원의 북부지방을 순회한 것으로 강원도의 거의 전역에 해당하는 것이었다.<sup>249)</sup>

마침내 10월 10일, 강대려 국장의 주도로 박건병과 오세덕은 '대한민국임시정

---

249) 장석홍, 위의 논문, 187쪽.

부성립선언서'와 태극기·만국기를 준비하고, 철원을 시가지에서 임시정부성립 축하연설과 만세운동을 벌였으며, 당시 철원을 시가지 상점이 모두 철시하며 크게 호응을 얻었다.

이후 10월부터 '조선인관리퇴직동맹계획'을 통하여 일제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는 활동을 철원 중심으로 펼치던 가운데, 안타깝게도 일제에 협력하던 부호들과 친일세력의 밀고에 의해 1920년 1월 20일, 조종대가 일경에 피체되면서 100명이 넘는 조직원 가운데 43명(철원출신 15명)이 연이어 검거됐다. 이로 인해 대한독립애국단과 강원도단의 실체와 전모가 일제에 의해 밝혀지고 당시에 언론들의 대서특필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의 회오리를 일으키게 된다.

설립 이후 이 단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결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 조직, 즉 연통제 구실을 해 군자금 모금·통신연락·선전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만세시위도 주도해, 1919년 10월 10일 철원에서 강원도단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회를 열고 독립만세를 불렀는데, 철원군민들이 철시하고 시위에 호응하였다. 같은 해 11월 28일 안국동에서 대동단(大同團)과 연합해 만세시위도 벌였다.

그리고 식민기관에 종사하는 조선인을 일제히 퇴직시켜 일제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강원도단의 조종대가 중심이 되어 조선인 관리의 퇴직 동맹결성을 추진했으나, 1920년 1월 조종대가 일본경찰에 붙잡히면서 무산되었다. 1919년 11월 본부단장 신현구가 일본경찰에 붙잡혔으나 조직이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종대가 붙잡힌 뒤 강원도단 조직이 발각되었고, 이어 충청도단·전라도단 조직도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말았다.

신현구가 붙잡혀 본부의 활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본부의 문봉의·안교일이 같은 해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파견한 김태원(金泰源)·김교선(金敎善)·신봉균(申鳳均)과 함께 조직한 혈복단(血復團)에 계승되었다.

## 2) 탁영재

탁영재(1919;53세~1941.12.23)는 1919년에는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326번지에 살고 있었다. 그의 직업은 목공이었고 황성4·1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시위현장을 떠나 어디론가 도망쳤는데, 몇 개월 후인 1920년 2월 철원애국단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일제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그의 애국적인 신앙과 신념을 엿볼 수 있었다.

철원애국단은 1919년 5월 서울에서 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의 강원도단(江原道團)의 속칭으로, 대한독립애국단의 활동이 강원도에서 가장 활발했고 또한 철원은 강원도단의 중심지였으므로 흔히 철원애국단이라 불렀다. 대한독립애국단의 강원도단이 설치된 것은 1919년 8월 21일로, 처음에는 철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이후 강원도단은 양양·강릉·평창 등지에 군단을 설치하며 강원도의 각처에 조직을 발달시켜 갔다.

이러한 철원애국단은 임시정부의 국내조직인 연통부(聯通府)의 체계는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시정부에 대한 선전 및 군자금 모집 등을 통하여 임시정부의 국내 조직인 연통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철원애국단에서는 통합 임시정부의 수립을 촉하하는 만세시위를 독자적으로 추진했는가 하면, 단원을 임시정부에 파견하면서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철원애국단은 1920년 1월에 발각됨으로써 조직이 파괴당하였는데, 탁영재는 이 일로 일경에 피체되어 고초를 겪었다. 그리고 풀려난 후 황성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이때 원주지방 감리사였던 모리스 선교사는 철원애국단 사건에 대해 보고하면서 탁영재를 “자신의 지방에서 가장 열심히있는 평신도다”라고 하였다. 1926년에는 금주총회 총무를 맡아 당시 교회의 금주운동을 황성에서 일으키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1935년에는 주일학교 교장을 맡아 교육에 최선을 다했다.<sup>250)</sup>

『조선중앙일보』(1935.3.16, 4면)의 「횡성사회계의 중요한 활동가들 : 횡성교회 창설자 명예목사 탁영재씨」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횡성사회에서 가장 신앙이 두터운 씨는 기독교 독신자로 횡성에 수 교회를 창설하고 40여년간 종교 생활로 일관하면서 노청년의 기분이 농후 하다. 지조는 높고 가히 청빈지조가 이에 있으며 사회의 반면이다. 횡성에 수 교회의 명예목사로 화성유치원 후원회와 횡성체육회 고문을 역임하고 횡성사회의 지고한 인격자이면서 실천가임을 알 수 있다. 횡성 전체는 씨의 건재를 한층 밧고 있다.

라고 하여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일관되게 믿음생활도 40여 년을 했으며, 1935년에는 명예목사로 횡성사회에 존경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가족 중 탁영의, 탁영회는 만주로 이주하여 광복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고려혁명당과 횡성인

#### 1) 고려혁명당

고려혁명당은 1926년 만주에서 조직되었던 독립운동정당이다. 1925년 조선공산당이 성립되었고, 1926년 조선공산당 만주 총국이 설치되어 민족주의 진영의 좌경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이념운동으로 승화시키려는 경향이

---

250) 김진형, 『횡성교회 90년사 횡성의 종소리』, 글터, 1996, 113쪽.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 조류에 발맞춰 종래의 투쟁 형식으로는 독립 쟁취가 요원하며, 혁명을 위한 이념 무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1926년 4월 5일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한 한국독립운동단체로 같은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통의부 말기와 정의부 초기에, 만주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설립한 것입니다. 주요활동은 하얼빈, 국내, 만주 등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독립운동을 이념운동으로 승화시키려는 경향이 불었을 당시, 이러한 시대조류의 영향을 받아 혁명을 위한 이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1926년 3월부터 정의부(正義府)의 양기탁(梁起鐸)·현정경(玄正卿)·고할신(高轄信, 일명: 고할신(高豁信))·오동진(吳東振)·곽종대(郭鍾大) 등과 소련에서 돌아온 이규풍(李圭豐)·주진수(朱鎭洙)·최소수(崔素水), 천도교혁신파·형평사(衡平社) 인사인 김봉국(金鳳國)·이동락(李東洛)·이동구(李東求)·송헌(宋憲) 등이 모여 논의를 거듭하여 4월 5일 창당하였다.

고려혁명당의 위원장에는 양기탁, 책임비서에 이동구, 위원은 정이형(鄭伊衡)·현정경·고할신·오동진·이동락·김봉국·현익철(玄益哲)·이규풍·최소수·주진수·곽종대 외 4명이었다. 당원수는 정당원·준당원을 합하여 1,500명이었다.

당은 정의부의 민족유일당 형성 운동의 일환으로 형성되었다. 정의부는 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당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행정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의부 소속 독립군은 고려혁명당군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당 내부에는 사회주의 사상에 공명하는 인사들이 많아 내부 분열이 잦았다. 그리고 일제의 탄압과 분열을 시도하는 간계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민족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모략을 간파하고 대부분 탈당하였다. 그리고 정의부도 당과의 인연을 끊고, 주진수·이규풍 등이 소련으로 돌아가 버린 뒤에, 단체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더욱이, 1926년 12월 이동락이 체포될 때 고려혁명당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서류에 관계자 이름이 있었다. 일제는 이를 토대로 대대적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이듬해 12월까지 당 간부 이동락은 장춘(長春)에서, 정이형·이동구·이원주(李元柱)·유공삼(柳公三)은 하얼빈에서, 송헌·장지필(張志弼)·홍병기(洪秉箕)·이동욱(李東郁)·오승환·서광훈(徐光勳)은 국내에서, 김봉국은 봉황성(鳳凰城)에서 체포 되는 등 국내 국외 20여 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정의부 군사위원장을 겸한 오동진이 일제의 주구 김종원(金宗源)에게 속아 길장선(吉長線) 흥릉산역(興隆山驛)에서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정의부와 고려혁명당에 큰 영향을 끼쳐, 결국 고려혁명당이 해체되고 말았다.

정의부는 유일당 운동을 주도하여, 1929년 4월 참의부(參議府)·신민부(新民府)와 3부를 통합한 국민부(國民府)를 결성하였다. 당은 사상적 이념을 초월한 단체로서 신간회보다 앞섰으나, 성립 후 내부의 이념적 차이로 말미암아 와해되고 말았다.

## 2) 이동구

이동구(李東求)는 강원도 횡성출신이다. 1922년 7월 14일 서울 재동에서 홍병기(洪秉箕)·최동희(崔東曦, 일명 최소수(崔素水))·이동락(李東洛)·김봉국(金鳳國) 등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고려혁명위원회(高麗革命委員會)의 국내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23년 경상남도 진주(晉州)에서 강상호·장지필·이학찬 등의 주도로 조선형평사(朝鮮衡平社)가 창립되자 유공삼(柳公三)과 함께 조선형평사에 가입하였고, 조선형평사의 내부 분열시 혁신동맹계(革新同盟系)로 활동하였다. 1924년 8월 16일 개최된 조선형평사 중앙총본부 임시대회에

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고 1925년 4월 조선형평사전국대회에서 임시의장 및 중앙검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6월 전북 전주(全州)에서 개최된 전라북도형평사대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형평운동에 주력하였다.

1925년 6월 중국 동북군벌(東北軍閥)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사이에 이른바 삼시협정(三矢協定)의 체결로 만주지역의 독립운동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립운동단체의 통일운동을 주도하던 최동희·정이형(鄭伊衡, 본명 정원흠(鄭元欽)) 등은 만주의 정의부원(正義府員), 국내의 천도교도와 형평사원 등을 규합하여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을 결성하고자 하였다. 1925년 8월 중국 장춘(長春)에서 최동희와 회합한 그는 고려혁명당 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의 조선형평사와 천도교연합회(天道教聯合會)를 중심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임무를 띠고 국내로 귀국하였다. 1926년 3월 경성(京城)에서 천도교연합회 간부 김봉국·송헌(宋憲) 등에게 고려혁명당 조직계획을 통보하는 한편, 조선형평사 중앙총본부에서 오성환(吳成煥)을 가입시키는 등 국내 천도교계와 형평사 간부들을 중심으로 당원을 확보하였다. 동년 3월 22~23일 경 이동락과 함께 가입을 허락한 당원들의 위임장을 갖고 중국 길림성(吉林省)에 도착한 그는 3월 25일 길림에서 김봉국·최동희·이동락·양기탁(梁起鐸)·고활신(高豁信)·이일심(李一心)·주진수(朱鎭壽)·김광희(金光熙)·이규풍(李圭豐)·현정경(玄正卿) 등과 함께 고려혁명당의 선언·강령·당규 등을 의논하였으며, 동월 29일 당명을 고려혁명당으로 명명하고 4월 5일 고려혁명당을 창당하면서 책임비서로 선출되었다.

고려혁명당 창립 후 국제공산당(코민테른)과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의 원조를 받아 만주를 근거로 직접 혁명을 전개할 목적으로 당원 최동희를 파견하여 북경(北京) 주재 소련대사 카라한과 중국국민당 장제스(蔣介石)를 면담토록 하는 한편, 만주 일대에 당원과 조직 확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1926년 12월 고려혁명당의 주요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중앙집행위원 이동락의 피체

를 계기로 고려혁명당  
당원들이 일경에 피체  
되기 시작하자, 정이형  
등과 함께 하얼빈으로  
이동하여 재기계획을 추  
진하였다.

그러나 1927년 3월  
하얼빈 전가전(傅家甸)  
박경중(朴慶鍾)이 경영

하는 농업공사(農業公司)에서 정이형·유공삼 등과 함께 일경(日警)에 피체되어  
하얼빈총영사관 경찰서를 거쳐 신의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신의주형무소에 수용된 후 옥중투쟁을 전개하여 항일의지를 고양하기도 하였  
으며, 1927년 12월 개최된 제1회 공판에서 정이형과 함께 경어(敬語)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문에 대해 침묵하여 대답하지 않는 등 시종 공술을 거부하  
여 징역 7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공소하였다. 1928년 10월 평양복심법원  
(平壤覆審法院)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으로 징역 5년을 받고  
4년 7개월여의 옥고를 치렀으며, 1933년 동지 유공삼의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다음은 이동구와 고려혁명당에 관한 기사를 보기로 한다. 중외일보 1927년  
11월 4일자 2면에는 「길림 양기탁(梁起鐸) 저(邸)에 회집(會集) 대표 13명」이란  
기사가 있다.

별항과 같이 이동구(李東求)\*의 분주로 만주에서 그와 같은 비밀결사를 조  
직하고 작년 3월경에 이동구는 비밀히 조선에 들어와 경성 천도교 연합회 간  
부 김봉국(金鳳國), 송헌(宋憲), 이동락(李東洛)과 형평사 중앙총본부의 간부



신의주지방법원



장지필(張志弼), 오성환(吳成煥), 조귀용(趙貴容) 등에 만주에서 고려혁명당을 조직한 것을 전달하고 작년 3월 20일 경에 이동구는 형평사 측의 대표로 김동국, 이동락은 천도교 측의 대표로 중국 길림으로 들어가 길림성내에 있는 양기탁 방에서 정의부의 대표 정원흠(鄭元欽), 고할신(高割信), 이일심(李一心), 현정경(玄正卿) 30명이 회합하여 구체적으로 고려혁명당을 조직하고 당칙을 제정한 후 조직, 선전, 경리, 검사 등 기관을 두고 만주 각지와 조선 내지에 세포단체를 두기로 하고 만반 계획을 세운 후 활동하다가 별항 사실과 같이 발각되었다\*이동구(1886~1933)는 황성 출신.<sup>251)</sup>

라고 하여 이동구를 비롯한 30명이 고려혁명당을 조직한 내용을 신고 있다. 그러나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각되어 당원들이 검거되기에 이른다. 『중외일보』 1927년 11월 4일자 2면에 「이동락(李東洛) 체포로 정체가 노현(露現), 그 후 검거선풍은 뒤이어 조선과 만주를 석권하며 총 검거 16명」이란 기사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그와 같이 비밀결사를 조직한 후 각 간부들은 각처로 흩어져 당지에 조차 운동을 하다가 작년 12월경에 이동락(李東洛, 38)이 장춘 동아정미소에 잠복하여 가지고 장춘에서 세포단체를 조직하던 중 당지 일본영사관 경찰에게 이 계획의 일단을 발각당하여 체포되었는데 이때에 이동락의 회중으로부터 당측과 당원 명부가 드러나 즉시 검거의 선풍은 일어나 경성에서 당원 조귀용(趙貴容), 장지필(張志弼), 서광훈(徐光薰), 오성환(吳成煥) 등이 검거되었으며, 만주에서 송헌(宋憲), 김봉국(金鳳國), 홍병기(洪秉箕) 등을 검거하고 이어서 금년 2월 21일에 서대문경찰서원의 손에 이동욱(李東郁)이 검거되고 또 검거

251) 『중외일보』 1927-11-04 / 2면, 「길림 양기탁(梁起鐸) 저(邸)에 회집(會集) 대표 13명」.

의 선풍은 해외로 밀려 3월 10일에 하얼빈 도외 농업공사에서 동(同)당의 책 임비서 이동구(李東求)\*와 정원흙(鄭元欽), 방찬문(方贊汶), 이원식(李元植), 이한봉(李漢鳳), 유공삼(柳公三), 박기돈(朴基敦) 등 정의부원이 체포되어 전 후 16명이 검거되어 지난 5월 6일에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예심을 받다가 별 향과 같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이한봉을 제외한 15명이 기소되었다더라\*이 동구는 횡성 출신.<sup>252)</sup>

라고 하여 이동락이 당원 명부를 소지한 채 체포되어 이동구를 비롯한 16명이 검거되었음을 기재하고 있다. 같은 『중외일보』 1927년 11월 4일자 2면에는 「형 평운동의 선구, 이동구(李東求)가 산과역」이란 기사가 함께 실려 있다.

일찍이 조선형평운동 초기에 있어 당당한 투쟁으로 금일의 형평운동 선상 에 까지 적지 않은 공헌이 있는 이동구(李東求)는 재작년 4월경에 조선을 떠 나 만주로 건너가 만주에 상당한 세력을 부식하고 있는 천도교의 중진 천도교 연합회 상무간사 송헌(宋憲), 김봉국(金鳳國)과 동교 종법사 홍병기(洪秉基), 최동희(崔東熙) 등과 만주에 근거를 두고 독립운동의 직접파인 정의부의 간 부 정원흙, 고할신, 이일심, 현정경 등과 비밀리에 조선 독립에 대하여 합의한 결과 조선 내지에 특수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형평운동자와 천도교 중 좌파와 전기한 직접 파에 속한 정의부와 같이 고려혁명당이란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조선의 독립과 아울러 만주 일대를 적화시키고자 운동을 개시하다가 마침내 경찰에게 발각된 바 되어 이 사건이 법정에 나가게 되었다.

252) 『중외일보』 1927-11-04 / 2면, 「李東求 체포로 정체가 露現, 그 후 검거선풍은 뒤이어 조선과 만주를 석권하며 총 검거 16명」.

라고 하여 조선형평운동 초기 투쟁부터 고려혁명당 조직까지 산과역을 한 이동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고려혁명당원들은 1927년 12월 19일에 1회 공판에 이어 한 달 반만에 1928년 2월 8일 2회 공판에 참석하였다. 『중외일보』 1928년 2월 9일 2면에 「혹한의 국경 신의주에서 고려혁명당의 2회 공판, 영하 24도의 8일 신의주법원에서 피고 열다섯 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이란 기사에서 공판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신의주지방법원 제일호 법정에서 제일회공판 당시와 같이 혼대(本町) 주심 재판장과 시정(市井) 이(李) 양 배석 판사의 입회로 계속 개정되었는데 피고 등의 친척과 각단체의 관계 인물이며 기타 방청객이 물밀 듯 하는 군중 속에서 여전하게도 경찰 당국은 정사복 경관을 요소와 군중 속에 섞이어 경계를 엄중히 하였다.

피고의 자유를 속박하는 불법 재판에 항의를 제출  
 법정 안에서도 수갑을 채우므로 김변호사 불법을 통론

12시 경에 피고 십오명이 출정하여 개정되었는데 피고들은 혹한의 국경 형무소에있었던 관계로 손과 발, 얼굴 등이 얼어서 보기도 참담하였는 바 영하 24도의 추위에 피고 중 홍병기(洪秉箕)는 더욱 몹시 상했다. 변호사는 경성 이인(李仁), 김병로(金秉魯) 양씨와 신의주의 최창조(崔昌朝)씨와 이희직(李熙植) 양씨가 합석하였고 예정한 혼자매(本島) 검사는 목하 출장 중이므로 그 대신 임(林)검사가 합석하여 개정하였는데 이미 시간이 1시 반이 되었으므로 금일에도 결심을 하지 못할 모양이며 경계는 일심보다 더욱 심하여 피고들에게 수갑을 전부 채우고 개인 심리를 하겠다 선언함으로써 변호사 김병로씨는 “피고의 자유를 너무 속박함은 불법이요, 또 개인심리는 재판상 중대한 관계가 있음으로써 합병 심리를 요구한다”고 항의를 하였는데 경계를 엄중히 하

기 위하여 경관과 간수 세 명을 늘이기로 하고 재판은 20분간 휴정되었더라(8일 오후 세시반 전).

출정피고 15명

그들의 씨명은 아래와 같다

초회 공판이 작년 12월 19일에 단 한 번 열린 이후 해를 거듭하고 달을 두 차례나 바꾸어 두 번째 8일에 2회 공판을 받게 된 고려혁명당사건의 피고씨명은 아래와 같다. 이동구\* 김봉국 이동락 이한봉 송헌 오성환 서광훈 조귀용 장지필 홍병기 박기돈 유공삼 이원식 조원흠 방찬문\*이동구는 횡성 출신

라고 하여 검사와 변호사 간의 수갑채우는 문제와 개인심리 문제의 실랑이로 휴정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어 공판이 속행되었지만 수갑을 채운 채 진행하자 김병로 변호사가 불법이라고 항변하자 연기신청을 요청하며 또 휴정하였다.

경계의 불비를 이유로 고려혁명당 공판 연기  
정사복 경찰을 배치하고 경계하면서  
간수가 세 명밖에 안 왔다고 공판 연기  
변호사 항변도 귀어수포(歸於水泡)

지나간 지면에 보도된 바와 같이 8일 오후1시 25분에 신의주지방법원에서 개정된 고려혁명당의 관계자 이동구 이동락 조귀용 장지필 서광훈 오성환 송헌 김봉국 홍병기 이동욱 방찬문 이원식 이한봉 유공삼 박기돈 등 15명에 대한 제2회 속공판의 상보를 듣는데 피고 열다섯명이 출정한 후 혼지매(本島) 재판장으로부터 공판 속행을 선언하자 변호사 김병로 씨로부터 피고들의 수갑을 풀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항변이 있어서 피고들의

수갑을 일일이 끄르게 하였으나 임(林)검사로부터 동사건은 위험한 인물이 많이 있으니 만치 경계 간수가 부족한 즉 금일은 연기를 하지는 연기 신청이 있었으므로 변호사 김병로씨로부터 또 다시 위험한 인물로 인정하는 제령 위반, 강도 살인 사건의 관계자로 되어 오는 피고 중 삼명 밖에 없으니 그 삼명을 분리하고 계속 심리하는 것이 어느 편으로도 유익할 것이라고 항변을 하였으므로 부득이 재판장으로부터 이십분 휴정을 선언하고 회의실로 밀려들어가서 의논을 하게 되었다더라\*이동구는 횡성 출신.

라고 하였다. 『신한민보』 1928년 3월 8일 2면에 「고려공산당 제2공판-공술을 거절 피고의 태도 여하」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만주 별관을 무대로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정의부와 조선 안에 다수한 교도를 가진 천도교며 조선사회에 특수 세력을 가진 형평사 등이 조선 독립을 성취하고자 일대 활동을 개시하였다가 관헌이 손에 체포된 고려혁명당 사건의 공판은 작년 12월 19일 신의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제1회 공판이 개정되었으나 피고 열두 사람 중 이이소(일명은 이동구)\*는 이름이 틀리고, 재판장이 경어를 쓰지 않는다 하여 정원흙은 공술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하여 각각 재판장 심리에 공술을 거절하였으므로 재판장은 할 수 없이 기타 피고에 대한 심리만 마치고 공판을 연기하였던 바 일반 사회의 다대한 주목을 끌고 있는 이 사건의 제2회 공판은 금 8일에 역시 신의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재판장 심리, 두 판사 배석 검사 입회하에 개정 되었다는데 제1회 공판 때에 공술을 거절하던 전기 피고 두 사람의 태도가 과연 어떠한지 매우 흥미 있는 문제라고 하며 경성으로부터는 변호사 김병로 이인 양씨가 이 사건을 변호할 차로 출장하였다더라\*이동구는 횡성 출신

라고 하여 공술 거절한 이동구와 정원흙의 태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중의일보』 1928년 3월 11일 2면에는 「이동구 외 9 피고 심리 그리고 즉시 휴정하여 고려혁명당 공판」이란 기사와 함께 공판 내용이 실려 있다.

고려혁명당사건 공판은 지난 보도와 같이 9일 정오에 개정하여 피고 15명을 직명(直名)을 마치고 이동구(李東求)\*로부터 심리를 개시한 다음 계속하여 김봉국 이동락 유공삼 외 다섯 명에게 극히 간단한 문답을 몇 번씩 거듭한 다음 30분 휴정을 하였는데 때는 이미 오후 1시40분이었더라 【신의주지국 전보】 [\*이동구는 황성 출신.

라고 하였다. 재판장과 이동구의 공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 : 대정 14년 8월 중 최동회 편지를 들고 만주에 가서 그를 만나 만주의 정의부와 조선내의 천도교 및 형평사와 연락하여 고려혁명당을 조직하였는가?

李\*\* : 그렇소

재 : 고려혁명당은 조선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동시에 사유재산제를 부인하고 공산주의를 실현코자함인가.

이 : 물론이요

재 : 1926년 3월 초순경에 경성부 와룡동 천도교연합회 간사 이동락, 김봉국, 송헌에 대해 말한 일이 있는가?

이 : 다른 사람은 틀리고 김봉국한테는 말한 일이 있소.

재 : 형평중앙총본부 간사 장지필, 오성환, 조귀용과 이 협의한 일이 있는가?

이 : 오성환 한테 말한 일은 있소

재 : 경운동 천도교총본원에 있는 홍병기에 대해서도 운동 계획을 말한 일이 있는가?

이 : 그런 일 없소

재 : 김봉국 오성환만 협의하였다하니 찬성하는가?

이 : 물론 찬성이요.

재 : 형평 대표로 중국 길림성에 간 일이 있는가?

이 : 그렇지 않소. 오성환 더러 아무쪼록 협의 잘하라고 하며 형평사의 위임장을 주기에 가지고 들어간 적은 있으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재 : 대정 15년 삼월 하순경에 김봉국, 이동욱과 같이 길림에 가서 오동진, 양기탁 외 12인이 모여 고려혁명당을 조직하고 조직부, 선전부, 경리부, 검사부 기타 10개소 세포단대를 조직하여 운동의 조직을 실행하였는가.

이 : 그렇소

다음에 재판장은 ‘공산주의는 무엇인가’라고 물어 재판장과 피고 간에 공산주의에 대한 약간 한 씨름이 있은 후 재판장은 다시

재 : 그런 세상을 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 하고 물음에

이: (이하 오행 약)하고 재판장과의 문답은 자못 심각한 곳으로 들어 이론을 거듭하다가 심리는 김봉국에게로 넘어갔다\*재는 재판장, \*\*이는 이동귀.

라고 하였다. 3월 19일 4회 공판을 거쳐 4월 8일 5회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김봉국과 이용구가 본건에 대해 “나는 인정치 못할 말이 있으니 죄 없는 이유를 말하겠다” 하니 인도기일을 정하고 폐정을 해 버렸다. 『중외일보』 1928년 4월 9일 2면에는 판결연도에 대한 기사가 있다.

고려혁명당 사건, 내(來)이십일에 판결 인도

최 이 양변호사 변론 열렬

창효소연(騷然) 중에 폐정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달 19일 제4회로 열렸던 고려혁명당 사건 공판은 신의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혼다[本多] 재판장과 이치이[市井], 이(李)양 배석판사와 혼시마[本島]검사 입회로 멀리 경성에서 온 이인, 김병로 양씨와 당지 이희덕, 최창조씨 등 네 변호사의 임석으로 개정되자 이어 본도 검사로부터 각 피고에게 대하여 구형이 있는 후 이 변호사로부터 변론에 들어가자 불연 중지를 당하게 됨에 이어서 김병로씨가 먼저 재판장에게 이인씨 변호를 중지시키는 것은 조선법조계에서 처음으로 듣는다고 하면서 항의가 끝나자 김, 이변호사의 장시간 변론이 있던 후 시간상 관계로 당지 변호사는 변론치 못했다가 지난 휴일 오후 1시 10분에야 비로서 동법원에서 전기와 같이 본다 재판장 시정, 이 양 배석판사와 본도 검사 담화로 최창조, 이희덕 양 변호사가 임석한 후 개정하여 재판장은 피고 이동구(李東求)\*로부터 차례로 호명을 마치고 이어 최창조 변호사로부터 피고를 위한 열렬한 변론을 시작하고 다음에 이희덕 변호사도 역시 열렬한 변론을 끝내었는데 재판장은 다시 피고에게 새로 할말은 없느냐고 해 피고 중 김봉국이가 나서서 본건에 대해 나는 인정치 못할 말이 있으니 죄 없는 이유를 말하겠소 하자

재 : 변호인이 피고에게 이롭게 변호하지 않았는가 하고 말을 못하게 할 때 이용구가 뒤미처 말을 하려 하므로 재판장은 즉시 본월 12일로 인도 기일을 정하고 폐정해 버렸는 바 때는 오후 2시 40분이었더라 【신의주】 [\*이동구는 횡성 출신.

라고 하였다. 10월 7일 이동구 심리한 내용은 『중외일보』 1928년 10월 8일 2면에 「동서이산(東西離散)하는 무산군(無産群)을 구원함이 목적이다」[이동구 심리(1)]에 의하면



예에 의하여 주소 성명을 몰았는데 성명의 상위가 있다 하여 피고의 질문이 있는 후 마침 이동구로부터 심문이 시작되었는데 피고는 1926년 8월 29일에 만주 길림에서 최동회 외 몇사람과 같이 만나고 고려혁명당을 조직하였노라고 답변한 후 다시 자고의 소위 통치자라는 자는 특권계급과 자본계급만을 우호하고 무산대중에게 거침없이 하여오는 ○○수단과 ○○수단으로 인하여 의식주 삼자에 곤궁을 당하여 동서남북으로 이산하는 참상을 그저 볼 수가 없음으로서 무산대중을 구원하고 자 고려혁명당을 조직하였다고 설명하니 이번 재판장은

재\* : 어찌하여 ○○\* 단체 정의부와 종교단체 천도교와 또 형평사가 합동하게 되었나.

피\* :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서로 말할 것이다.

재 : 그러나 첫 번은 정의부에서 주창하지 않았나

피 : 그렇지 않다.

재 : 정의부가 주창자가 되어가지고 천도교와 형평사를 가입 ○○○○케 한 것을 ‘러시아’에서 자문을 얻고저 한 이치

피 : 그렇지 않다

재 : 그러나 압호로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자 하지 않았나

피 : 그야 압호로 단지 ‘러시아’ 뿐이 아니라 각 혁명당은 호상원조할 것이다.

재 : 고려혁명당의 강령은 어떠한가.

피 : 계급사회 제도를 부인하고 ○○○○○○○을 ○○○당하여 ○○하는 무산대중을 ○○하여 일치행동을 취하여 자유와 평등의 인간애가 흐르는 이상적 ○○를 ○○○하려함이다.

[\*재는 재판장[\*독립]을 ‘○○’으로 처리[\*피는 이동구]

라고 하였고 같은 『중외일보』 1928년 10월 8일 2면에 「통역의 불충분을 입회 변호인이 항의 장래방침 등을 웃고 종결」[이동구 심리(2)]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 : 혁명당의 목적이 성공되면 이상적 사회가 건설될 것으로 아닌가?

피 : 그야 물론이다.

재 : 그러면 '러시아'와 같이 하자는 말인가

피 : 나는 무식해서 '러시아'는 모른다.

재 : '러시아'도 모르고 어떻게 혁명당을 조직하였다.

피 : 그야 '러시아'가 마침 혁명되었으니 '러시아'를 운운하지 그것을 모른다고 혁명당을 조직할 바 아니다. 오직 각자 마음속에 있는 이상을 실현시키면 그만이다. 이 때에 이 변호사로부터 통역이 서투르다고 경고를 밝혔다가 계속하여 형평사에 입사한 동기와 혁명당에서 책임비서의 직분의 유무를 문답한 후 다시 재판장은

재 : 장래에 하고자 하는 방침은 어떤가

피 : 마침 ○○○○을 조직하고 내부로는 주인자의 단결, 외부로는 세계무산 대중과 단결하여 계급주의와 ○○○○를 ○○한 후 그를 높이 두루 떠봄을 한껏 두드릴 때 우리의 이상적 사회가 건설될 것이다.

이로써 심리가 끝났다. 1928년 10월 19일 고려혁명당원들에 대한 판결이 언도되었다. 『중외일보』 1928년 10월 20일 2면에 다음과 같이 그간의 공판 설명과 함께 판결이 언도되었다.

고려혁명당원 복심판결 언도 서(徐), 박(朴) 양인 무죄

최고 이동구 5년

금년은 흉년이 들었다 한 즉 사오년 밥벌이나 하다오마

퇴정 피고의 양천대소

고려혁명당 피고사건의 복심 공판이 지난 휴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개정되어 심리를 마친 후 검사로부터 1심과 같이 구형하였다 함은 기보한 바이거니와

10월 0일 동법원 형사법정에서 공판을 계속개정하고 경 재판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판결언도가 있었다는데 당일도 이른 아침부터 구형보다 얼마나 가벼워질까 하여 초민한 기색으로 멀리 경성, 신의주, 성천 등지에서 모여든 친척 동지들로 공판장은 만원을 이루었으며 피고 이동구(李東求) 외 7명은 다 각기 씩씩한 얼굴로 미소와 목례를 방청석과 교환하면서 출정하였는 바 재판장은 피고 여러 사람을 불러 세우고 범죄사실을 일일이 낭독한 후 다시 말을 계속하여 '피고 등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요 민족 해방운동자로 인정하는 까닭에 특별히 경형에 처한다' 말을 마치자 피고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묵묵히 섰을 뿐이었는데 어찌하여 징역살이를 하라는 말이나고 말을 계속하고자 하다가 허락하지 않아 중지하고 공 50분에 퇴장하였는데 용수를 쓰고 퇴장하는 순간에 김봉국은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형무소 안에서 들으니까 금년은 흉년이 라는데 나는 한 3년동안이나 밥이나 벌어 먹다가 오막하며 오히려 양천대소하였는데 당일 무죄의 판결을 받은 서광훈, 박기돈의 2명은 4년 동안이나 같이 신음하다가 먼저 출옥하게 되었음을 섭섭하게 생각하는 듯이 보였다더라. 【평양】 .

이동구 : 5년 김봉국 : 4년 송헌 : 3년 오성한 : 3년 이동욱 : 3년 흥병기 : 2년 200일 면산(각통) 박기돈 : 무죄 서광훈 : 무죄  
[\*이동구는 황성 출신]

라고 하여 황성출신 이동구는 가장 무거운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5년형을 마치고 1931년 7월에 출옥하였다. 그리고 치료 중 1933년 10월 7일에 세상을 떠났다. 『(조선중앙일보) 1933년 10월 11일자 2면에 실린 「李東求씨 영면」 기사가 그의 황성에서의 만세운동, 형평운동, 고려혁명당 활동 등 48년간의 일생을 대변해 주고 있다.

고려○○당 책임비서로 있다가 하얼빈에서 체포된 후 5년형기를 마치고 1931년 7월에 출옥한 이동구(李東求)씨는 그간 신병으로 치료 중 지난 7일 오전 7시에 시외 신당리 하동정동 16번지 유공삼씨 집에서 영면하였는데 그 장례는 9일 오전 2시에 흥제화장장에서 동지들의 손으로 거행되었다. 이동구 씨는 1886년 10월 28일에 강원도 횡성에서 출생하여 천도교 신자로서 기미년에 활동하다가 징역 1년형을 마치고 출옥하였으며 다시 형평운동에 참가하였다가 1924년에 만주로 건너가 고려○○당을 조직하고 책임비서가 되었다가 체포된 것이다\*혁명을 ‘○○’으로 기재\*이동구(1886~1933)는 횡성 출신.

## 2) 고광수

고광수(高光洙, 1903~1930)는 강원도 횡성(橫城)출신이다. 그는 춘천고등보통 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보성전문학교를 다니다 중퇴했다. 1921년 3월 1일 3·1운동기념 선전문을 인쇄하여 배포한 사실이 발각되어 서울에서 3개월 간 옥고를 치렀다.

출감 후 고광수는 국외 탈출을 결심하고 북간도로 망명했다. 1921년 9월 북간도 소재 ‘상해당 만주부료’에 입당한 그는 곧 러시아 연해주로 이동했다. 여기서 고광수는 러시아 내전에 뛰어들어 1922년 3월 고려혁명운동 의용병대에 자원했다고 한다. 1922년 3월 대한의용군에 입대하여 8월까지 하바로프스크에 머물다가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갔다. 소비에트 러시아 공청(레닌주의 공산청년회) 및 러시아공산당에 입당한 고광수는 1925년 10월 국내로 돌아왔다.

1926년 2월부터 7월 20일까지 조선노동당에서 활동하며 합법적 신분을 얻기 위해 경성기독교청년회관(YMCA) 영어과에 입학했다. 같은 해 6월 대대적인 ‘제

2차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을 피해 해외로 망명했던 고광수는 8월에 입국했다. 그 사이 지도부의 공백으로 와해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 겸 선전부장으로 선임되었다. 고광수는 고려공산청년회와 고려공산청년동맹과의 통합에 노력하여 '통합 고려공청'을 탄생시키고 책임비서가 되었다. 국내외를 오가며 공산주의 청년단체의 통일과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해 힘썼다.

1929년에는 길림에서 '조공제조직중앙간부회' 결성에 참여한 고광수는 6월부터 함경남도 북청(北靑)에서 철도부설공사장 인부로 일하면서 조공 재건을 위한 지하운동을 하던 중 체포되었다.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을 받던 중 고문 후유증으로 폐결핵에 걸려 신음하다 1930년 1월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월 5일 숨졌다.

그가 족적은 적게나마 신문기사에서 만날 수 있다. 『중외일보』 1930년 1월 22일 3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 고광수 위중 보석 출원

그러나 보석하여 나올 보증금 변출 무로(無路)

간도공산당 사건의 관계자로 제1차와 제2차 검거 당시에 몸을 피하였다가 작년가을에 북경에서 체포되어 이래 경성지방법원 예심에부터 방금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중에 있는 고광수(高光洙)\*는 오랫동안 감옥생활로 폐결핵에 걸려 위중한 상태에 있다는데 급보를 접한 이인(李仁)변호사는 보석원을 제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보석하도록 힘쓰고 있으나 신원보증금이 없어서 문제 중이라더라\*고광수(1900~1930) 황성 출신.

라고 하여 서대문형무소 수감 중에 폐결핵으로 위중한 상태에 병보석을 추진하였지만 신원보증금이 없어 문제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기재되어 있다. 이인 변호사의 노력으로 열흘 후 출옥하여 치료를 받은 내용도 있다. 『중외일보』 1930년 2월 1일 2면 기사에 다음과 같이 게재되어 있다.

### 간공(間共) 고흥수 보석

31일 오후 4시에 출옥

제2차 간도공산당사건의 피고로 경성지방법원 제1예심에 부터있는 고흥수(高光洙)는 오랫동안 서대문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무서운 병에 걸리어 위독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간 이인(李仁) 변호사가 주선하여 겨우 허가를 얻어 동(同) 변호사의 책임으로 31일 오후4시에 출옥케 되었는데 곧 가회동 208번지 고창한(高昌漢) 방에 류하며 치료케 되었다더라

라고 하여 출옥 후 치료를 받았지만 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 동지장은 불허, 고흥수의 장의

(중외일보 1930-02-08 / 2면)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간도공산당 등 중요한 간부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의 운동을 하고 있던 고흥수(高光洙)는 얼마전 서대문형무소에서 보석되어 시내 가회동 대동학교에 류하면서 폐병을 치료하고 있다가 5일 밤 8시 반경에 3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함은 기묘한 바이거니와 7일 오전 11시에 동지장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소관 종로서에서는 동지장을 금지하는 동시에 장의에는 가족 이외 한사람도 수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의 유해만은 예정대로 서대문 밖 화장터로 이구되었다더라.

## 4. 상록회와 백흥기

### 1) 상록회

#### (1) 상록회 개관

1937년 3월 14일 강원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결성한 항일비밀결사단체다. 일제강점기 학생운동으로 1926년 10월 일본인 교사가 우리 민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자 배일맹휴(排日盟休)를 감행하였고, 1938년에는 재학생들과 독립지사들이 상록회(常綠會)를 조직해 춘천 및 만주 등지에서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회장 조규석(曹圭奭), 선전부장 문세현(文世鉉), 조직부장 이찬우(李燦雨), 서적부장 백흥기(白興基), 회계 용환각(龍煥珌) 등이 창립회원이다. 이들은 산하에 별도 조직으로 독서회를 두었다.

회원들은 각종 토론회와 독서 발표회를 개최하는 한편 귀농 운동 등을 펴고 졸업생들과도 연락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확대했다. 이들은 또 춘천시 천전리에서 수양단이라는 농민단체를 구성하고 비밀 회합을 가졌으며 이웃 춘천농업고등학교 독서회와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지역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춘천농업고등학교 독서회는 1940년 12월 회원들이 검거돼 해산될 때까지 3년 이상 지속됐으며 두 학교 학생들의 활동은 1930년대 춘천지역의 대표적인 학생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록회의 졸업생들은 춘천지역을 넘어 국내의 다른 지역, 나아가 만주 등 해외에서의 활동도 모색했다.

민족의식 고취 등을 통한 일제 저항을 추진하던 상록회는 그러나 1938년 일본 경찰에 발각되는 ‘상록회 사건’이 발생하여서 137명이 연행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때 10명이 2년 6개월 형을 받았으며 백흥기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스무 살 어린 나이에 순국했다. 그러나 상록회는 그 뒤에도 활동을 계속했

다. 하지만 1941년 2월 24일 또 다시 24명이 검거 투옥돼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고웅주가 김천형무소에서 순국하는 등 2명의 희생자를 냈다. 이들이 전개한 민족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해 춘천고등보통학교의 후신인 춘천고등학교는 1967년 4월 교내에 상록탑을 세우기도 했다.

## (2) 주요 인물

### ① 조규석(曹圭奭, 1918~1963)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1918년 4월 28일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다. 춘천고등보통학교에 재학중이던 1937년 3월 문세현(文世鉉)·백흥기(白興基)·용환각(龍煥珪)·이찬우(李燦雨) 등과 항일 학생 비밀결사인 상록회(常綠會)를 결성하여 일제의 민족 차별교육에 대항하는 활동을 펼쳤다. 상록회의 강령 및 부서를 정할 때 회장으로 뽑히자 학년별로 조직을 분담하는 한편, 자신은 2학년 지도를 맡았다.

그러던 중 1938년 가을, 상록회 조직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면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체포되어 1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이듬해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77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② 문세현(文世鉉, 1919~1945)

1919년 11월 25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춘천고등보통학교에 재학중이던 1937년 3월 남궁태·용환각·이찬우·조규석 등과 일제의 민족 차별 교육에 반대해 항일 학생 비밀결사인 상록회(常綠會)를 조직하면서 항일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상록회 창립 당시 선전부장을 맡아 직접 회가(會歌)를 짓는 한편, 토



론회·월례회·독후감발표회 등 독서활동을 벌여 민족 의식을 북돋우고 귀농운동을 통한 농민 계몽에 힘썼다.

졸업한 뒤에도 철원 금융조합 서기로 근무하면서 1938년 3월부터 10월까지 상록회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 해 가을 상록회 조직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면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체포되어 1939년 12월 27일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광복 3일 만인 1945년 8월 18일 사망하였다. 1977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③ 이찬우(李燦雨, 1918~1983)

1918년 4월 15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춘천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3년을 수료하였다. 춘천고등보통학교에 재학중이던 1937년 3월 남궁대·문세현(文世鉉)·백흥기(白興基)·용환각(龍煥珏)·조규석(曹圭奭) 등과 항일 학생 비밀결사 상록회(常綠會)를 조직하고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면서 3학년 지도를 맡았다. 상록회는 토론회·월례회·독후감발표회 등 독서활동을 통해 항일의식을 북돋우고 귀농운동 등 농민 계몽에도 힘쓴 단체이다. 1938년 3월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문세현·백흥기 등과 만주로 건너가 우급학교(優級學校) 교사로 근무하였다.

만주에서 독립운동가 석일경(石一慶)·이동산(李東山) 등과 함께 길림(吉林) 상록회를 조직해 활동하던 중 같은 해 가을, 춘천에 있는 상록회 조직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면서 만주에서 체포되었다. 이후 춘천으로 압송되어 1년간 모진 고문을 당하다 1939년 12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2년 6월의 징역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에는 정계에 몸담아 제5대 민의원을 거쳐 제2대 노동청 청장을 지냈다. 1968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 ④ 백흥기(白興基, 1920~1940?)

1920년 5월 18일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활약한 독립 운동가로서 춘천고등보통학교에 재학중이던 1937년 3월 남궁태·문세현·용환각·이찬우·조규석(曹圭奭) 등과 일제의 민족 차별 교육에 반대해 항일 학생 비밀결사인 상록회(常綠會)를 조직하면서 항일 운동에 몸담았다. 상록회 결성 당시 서적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동지들과 토론회·월례회·독후감발표회를 개최하는 한편, 귀농운동을 벌여 농민 계몽 및 항일의식 고취에도 앞장섰다. 1938년 3월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문세현·이찬우 등과 만주로 건너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석일경(石一慶)·오종태(吳鍾泰)·이동산(李東山) 등과 함께 지린(吉林) 상록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38년 가을, 춘천고등보통학교의 상록회 조직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면서 만주에서 체포되어 춘천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1년간 고문을 받은 끝에 1939년 12월,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순국하였다. 1940년에 순국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1977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⑤ 용환각(龍煥珏, 1917~1979)

본관은 홍천(洪川), 호는 선록(鮮綠)이다. 1917년 11월 10일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다. 춘천고등보통학교(춘천고보)를 거쳐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였고, 춘천고보에 재학중이던 1937년부터 학생 항일 운동에 몸담았다. 1937년 3월 같은 춘천고보 학생인 문세현(文世鉉)·백흥기(白興基)·이찬우(李燦雨)·조규석(曹圭奭) 등과 항일 학생 비밀결사인 상록회(常綠會)를 조직하고 회계를 맡는 한편, 학년별로 조직을 분담할 때 5학년 대표로 활약하였다.

그 뒤 상록회 산하 별동조직인 독서회(讀書會) 회장을 거쳐 새롭게 개편한 상

록회 조직의 부회장을 맡아 활약하던 중 1938년 가을, 조직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다른 회원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후 1년 동안 고문을 당한 끝에 1939년 12월,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2년 6월의 징역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77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⑥ 고옹주(高雄柱, 1923~1943)

1923년 12월 1일 강원도 정선(旌善)에서 태어났다. 춘천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38년 가을, 이 학교의 항일 학생 비밀결사인 상록회(常綠會)가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전회원이 체포된 뒤, 고제훈(高濟勳)·권혁민(權赫民)·김영근(金榮根)·박영한(朴泳漢) 등 동료 학생들과 함께 독서운동을 전개하면서 항일 학생운동에 투신하였다.

이들은 민족서적을 구입해 돌려가면서 읽은 뒤, 회원들 간에 독후감을 교환하거나 토론 등을 통해 항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 상록회의 후신 역할을 하였으나, 상록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조직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1941년 3월, 독서회의 회원인 고제훈·박영한·원후정(元厚貞) 등이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일제의 민족차별에 분개해 춘천고등보통학교 교내에서 일본인 학생들과 대규모로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싸움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일본 경찰까지 개입해 한국 학생들을 탄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독서운동 조직도 발각되고 말았다.

고옹주 역시 이때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1년간 고문을 받은 끝에 1942년 5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단기 1년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김천소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1977년 대통령 표창,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2) 백흥기

강원도 횡성(橫城) 사람이다. 춘천고등보통학교(春川高等普通學校) 재학 중인 1937년 3월에 동교생 남궁태·이찬우·조규석·문세현 등과 함께 일제의 민족 차별교육에 반대하여 항일학생결사 상록회(常綠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강령 및 부서를 정하였는데 그는 서적부장의 일을 맡았다.

그 후 상록회는 신입회원을 가입시켜 회세를 확장하여 전교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록회의 주요활동은 월례회·토론회·독후감발표회 및 귀농운동 등으로서 주로 독서활동을 통한 항일의식을 고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 회원은 졸업 후에도 그러한 상록회의 활동을 계속하여 각기의 정착지에서 새롭게 상록회 조직을 결성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38년 3월 졸업 후 그는 문세현·이찬우 등과 만주(滿洲)로 건너가 재만독립운동가 이동산(李東山)·오종태(吳鍾泰)·석일경(石一慶) 등과 합세하여 길림(吉林)에 상록회를 조직하는 등 문세현과 함께 간도(間島)지방에서 활동하였다.

그런데 1938년 가을, 춘천에서 상록회의 조직과 활동이 일경에 발각됨으로 그도 이에 연루되어 만주에서 피체되었다. 피체 후 춘천으로 이송된 그는 1년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39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그의 제1회 신문조서<sup>253)</sup>는 다음과 같다.

---

253)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58권 「상록회사건」(1) 경찰신문조서(白興基 신문조서1).

피의자 백흥기(白興基)

위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화 一三년(1938) 一二月 八日 春川 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江原道순사 李致億을 입회시키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본적을 말하라.

답 본적 江原道橫城郡安興面安興里四七번지

주거 滿洲國吉林省永吉縣第二區棋盤街

신분 평민

직업 원 교원

성명 白興基

연령 당 一九세

문 작위, 훈장, 기장을 가지고 연금, 은금을 받거나 또는 공무원이 아닌가.

답 아니다.

문 지금까지 형사처분, 기소유에 또는 훈계방면을 받은 일은 없는가.

답 지금까지 처분을 받은 일이 없다.

여기에서 피의사건을 말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니 피의자는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답하다.

문 피의자는 원래 春川邑에 거주하여 春川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는가.

답 나의 집은 春川邑昭陽通二丁目에 있고, 소화 八年 四월에 春川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소화 一三년 三월에 졸업했다.

문 피의자는 그 학교 재학 중에 상록회에 관계한 일이 있는가.

답 그렇다. 소화 一二年 三月 어느날 내가 그 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南宮珪, 李燦雨, 文世鉉, 曹圭奭, 龍煥珏, 成綏慶 등과 상록회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한 일이 있다.

문 상록회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조직한 것인가.

답 조선 전민족에게 민족주의를 주입하여 다수의 동지를 획득함과 동시에 시기를 보아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문 오늘은 이것으로 일단 조사를 중지할 것인데 특히 진술할 것이 있는가.

답 다음 조사 때 말하겠다.

위를 본인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무인하다.

진술인 白 興 基

작성일 소화 一三년 一二月 八日

春川경찰서

신문자 사범경찰관 도경부보 濱野增太郎

입회인 사범경찰리 도순사 李 致 億

백흥기의 제2회 신문조서<sup>254)</sup>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白 興 基

위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화 一三년 一二月 二〇일 春川경찰서에서 사범경찰리 江原道순사 李致億을 입회시키고 전회에 이어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 피의자는 백흥기(白興基)인가.

답 : 그렇다.

문 : 피의자의 가정 및 생활 상태를 말하라.

답 : 가족은 춘천읍(春川邑) 소양동(昭陽洞) 이정목(二丁目)에 거주하며, 가족은 10명으로 부친 백남규(白南奎) 56세, 모친 이정희(李丁姬) 55세, 장형 백영

254)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58권 「상록회사건」(1) 경찰신문조서(白興基 신문조서2).

기(白永基) 36세, 차형 백춘기(白春基) 18세, 아우 백명기(白明基) 16세, 백상기(白相基) 12세, 만형수 이정희(李貞姬) 28세, 둘째 형수 고흥봉(高鶴鳳) 27세, 장형의 조카 백풍현(白豐鉉) 9세, 차형의 장녀 백순현(白順鉉) 7세의 가족으로 가정은 매우 원만하다. 생활 상태는 나는 소화 13년 3월에 만주(滿洲)로 가서 그 해 5월 6일 만주국(滿洲國)의 교원이 되어 월급 45원을 받아서 생활하고, 부친은 농사를 하여 벼 연수 70석, 기타의 수입을 합하여 약 2,000원으로 중류 생활을 하고 있다.



백흥기 졸업사진

문 : 자산의 정도는 어떤가.

답 : 나는 자산이 없으나 부친 명의로 논 시가 8,000원쯤, 밭 시가 500원쯤, 산림 시가 600원쯤, 가재 시가 800원쯤 소유하고 있다.

문 : 학력 및 경력은 어떤가.

답 : 학력은 소화 2년 4월 강원도 횡성군 안흥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소화 8년 3월 25일 졸업하고, 그 해 4월에 춘천공립중학교(원래 춘천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소화 13년 3월에 졸업했다. 경력은 소화 13년 3월 학교 졸업 후 만주로 가서 그 해 5월 4일까지 차형 원세희(元世熙)의 집에서 기숙하면서 5월 6일 만주국(滿洲國) 간도성(間島省) 화룡현(和龍縣) 경광개산둔(景光開山屯)에 있는 공립국민우급학교(公立國民優級學校) 교원으로 취직하여 월급 30원을 받고 있다가, 소화 13년 5월 28일 학교장과 충돌하여 사직하고, 그 해 8월 10일 만주국(滿洲國) 길림성(吉林省) 영길현(永吉縣) 제2구기반가(第二區棋盤街)에 있는 공립국민우급학교 교원이 되어 월급 45원을 받다가 그 해 11월 25일 가사의 형편으로 사직했다. 이상과 같다.

문 : 종교 관계는 어떤가.

답 : 기독교를 믿고 있다.

문 : 건강 상태는 어떤가.

답 : 매우 건강하고 이상이 없다.

문 : 피의자는 사상에 관하여 어떤 책을 읽었는가.

답 : 나는 춘천공립중

학교 제4학년 재

학 중에 민족주

의 색채가 있는

『조선의 현재와

장래』(이광수 지

음), 『마의태자』

(이광수 지음),

『흙』(이광수 지

음), 『단종애사』(이광수 지음), 『열혈 청년론』(주운성 지음), 『영원의 무

정』(노자영 지음), 『폐허의 눈물』(노자영 지음), 『무정』(이광수 지음),

『상록수』(심훈 지음), 『이차돈의 죽음』(이광수 지음), 『그 사람의 자서

전』(이광수 지음), 『제주도 기행문』(이은상 지음), 『성공자 소년시대 서

양인』(이은상 지음) 등을 읽었고 잡지는 『사해공론』, 『조광』 등을 읽었

고 신문은 『동아일보』를 읽었다.

문 : 피의자가 읽은 책은 사서 읽었는가.

답 : 『조선의 현재와 장래』, 『열혈 청년론』, 『상록수』는 이찬우(李燦雨)에게

서 빌려서 읽었고 내가 사서 읽은 것은 『마의태자』, 『단종애사』, 『흙』,

『영원의 무정』, 『폐허의 눈물』, 『이차돈의 죽음』, 『그 사람의 자서전』,

『제주도 기행문』, 『성공자의 소년시대』 등이며, 또 『무정』은 문세현(文

世鉉)에게서 빌려서 읽었다.



춘천공립중학교 모습



문 : 피의자는 민족주의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 민족주의란 어느 한 개로 결단된 같은 종족이 소위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침범을 배척하고, 자기 민족의 완전한 자유와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민족주의이다. 그러므로 조선민족이 품고 있는 민족주의는, 조선민족은 일본민족이 지배하는 굴레를 벗어나서 조선민족은 조선민족에 의하여 지배하는 경지에 있는 주의를 의미한다.

문 : 피의자는 민족주의에 공명하고 있는가.

답 : 그렇다. 나는 민족주의에 공명하고 있다. 그렇게 된 동기는 내가 중학교 2학년 2학기까지는 양과 같이 천진난만했으나, 그 무렵부터 사물을 추구하는 버릇이 생겨서 외래의 자극에 대하여 예리하게 관찰하게 되고, 조선에서 민족주의를 선동하는 『동아일보』를 읽는 중에 부지불식간에 민족주의의 함정에 빠지고 있을 때 중학교 강전(岡田)교유의 조선민족을 모욕하는 언동이 있었다. 그 내용은 岡田교유와 우리를 동급생 황순호(黃淳昊)가 응답하다가 강전(岡田)교유가 “조선인은 낮이나 꿩으로 저항하지만, 일본은 대포나 기관총이 있으니 도저히 대항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여 매우 마땅하지 못한 말을 했었다. 여기에서 나의 민족적 반항심은 박차를 더하여 전술한 민족주의적 색채가 있는 책을 읽었다. 그 뒤 내 눈에 비치는 사회는 일본인의 착취 압박이었다. 그 현저한 압박을 느끼는 것은 일본인도, 조선인도 같은 관청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조선인이기 때문에 조선인에게는 가봉, 숙사료가 지급되지 않고 일본인은 조선에 자유롭게 건너올 수 있지만, 조선인의 일본 도항은 제한하고 압박하고 있으며, 조선의 농촌은 매우 비참한 상황인데 일본인은 미의미식을 하고 있는 등 보기에든 듣기에든 너무 착취와 압박을 느껴서 점차 민족적 반항심이 격렬해졌다. 농후한 민족주의를 품고, 그 뒤 국가행사인 일본국가 합창이나 동방요배, 신사참배 등도 실행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춘천 중학교 재학 중 또 이찬우(李燦雨), 문세현(文世鉉) 등과 친구이며 조선

을 사랑하는 열렬한 민족주의자이어서 환경 또한 민족주의를 공명하는 상태이었다.

문 : 피의자는 국가행사인 동방요배, 일본국가 합창, 신사참배를 실행하지 않았는가.

답 : 그렇다. 가끔 실행하지 않았다. 이유는 민족주의를 신봉하게 되면서 일본의 국가행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문 : 피의자는 이찬우(李燦雨) 외 4명과 상록회를 조직한 일이 있는가.

답 : 그런 사실이 있다.

문 : 피의자는 상록회를 조직한 전말을 말하라.

답 : 나는 춘천공립고등보통학교 입학 중에는 문세현(文世鉉)과 매우 친한 사이였다. 소화 12년 2월 어느 날 학교 교실에서 옆에 있던 문세현이 나에게 물리공책에 장래 조선인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작문한 것을 보이고 나의 사상을 타진했다. 나도 조선민족은 이대로 방임한다면 마침내 일본에 동화되어 자멸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 문제에 항상 머리를 썩히고 있었다고 대답하고, 그 뒤 문세현과 협의하여 조선민족에게 치열한 민족반항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회를 조직하려는데 의향이 일치하여 동지를 물색하게 되어 노력한 결과 당시 춘천공립고등보통학교의 제4학년생 남궁태(南宮瑋), 조규석(曹奎奭), 용환각(龍煥珩), 성수경(成綏慶), 이찬우(李燦雨) 등도 현정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동지로 획득하여 회 조직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동지의 첫 회합을 했다.

그 상황을 말하면 소화 12년 3월 9일 오후 4시부터 5시가 지나기까지 강원도 춘천군 춘천읍 소양통(昭陽通) 2정목(二丁目)에 있는 학교 정구장에서 회 조직의 준비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는 전술한 나의 동급생 문세현, 이찬우, 조규석, 남궁태, 용환각이었다. 착석을 기다려 나 및 문세현은 회 조직의 준비회를 개최하는 취지로서 “우리의 민족의식을 농후하게 하

기 위함과 동시에 장래 조선의 중견인물인 지식계급에 민족 반항심을 양성하기 위하여 회를 조직할 계획인데 동지들의 의견 피력을 구한다.”고 요망했더니, 집합지는 전폭의 찬의를 표했고, 이어서 문세현은 “우리들은 조선의 독립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곤란하다. 소위 다수의 동지가 일단이 되어야 한다”고 회 조직의 필요론을 말했다고, 이어서 이찬우는 “오늘 이와 같이 훌륭한 동지를 얻어서 장래 조선독립운동에 매진하게 된 것은 조선동포를 위하여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일치결속하여 회 결성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회 조직의 찬성론을 말하고, 다음 남궁태는 무엇인가 말했는데 잊어버렸다. 그리고 전부가 낱자를 정하여 동지가 회합을 하여 회 조직의 구체안을 연구하기로 약속하고 산회했다.

다음 제2회의 회 조직 준비회를 소화 12년 3월 14일 오전 11시가 지나서 강원도 춘천군 춘천읍 소양통 이정목에 있는 나의 집에서 전술한 문세현, 이찬우, 조규석, 용환각, 남궁태, 성수경 등 6명과 나 함께 7명이 모여서 장소를 선정한 결과 춘천읍 전평리(前坪里) 수원지 앞 모래밭이 적지라고 결정하고, 전기 7명이 함께 나의 집을 출발하여 오전 11시 30분경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전회에 이어 협의를 시작했다. 먼저 문세현은 회 조직에 대한 의견을 구하니, 남궁태는 “현재 조선인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매우 피폐해 있다. 이런 추이로 가면 조선민족은 아이누민족이나 유태민족과 같이 유랑민족이 되고 만다. 우리는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선민족을 일본민족의 통치 굴레에서 이탈시켜야 한다”고 했고, 다음 문세현은 “완전한 조선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하여 민족의식을 주입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가정에 민족의식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여자 동지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는 장래 여성을 연구하여 동지로 획득하자”고 했고, 이어서 이찬우는 “우리는 이렇게 조선독립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민족의식이 있는 동지

를 많이 획득해야 한다. 또 동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조선역사 및 조선문학을 연구하게 하여 확고한 민족 반항심을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어서 나는 “현재 조선 농촌은 극히 비참한 상태에 있다. 이대로 방임한다면 농촌의 피폐는 심각하게 된다. 우리들 조선의 중견인물은 학교 졸업 후에 귀농하여 경제적 궁지에 있는 그들 농민을 구제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이어서 문세현은 장래 동지 획득 및



이찬우 졸업사진

각자의 심경토로를 구하니, 남궁태는 금후 1년간에 동지 5명을 획득하겠다고 그 결의를 피력하고, 문세현은 금후 1년간에 여자 동지 5명을 획득하도록 노력할 각오라고 했고, 이찬우는 금후 1년간에 동지 3명 획득할 방침이라고 그 결의를 말하고, 나에게 용환각은 금후 1년간에 동지 3명을 획득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또 민족주의자다운 사람이 되겠다고 했고, 조규석은 무엇인가 말했는데 기억이 없고, 성수경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 그래서 각자의 민족의식도 판명되고, 회의 결성에도 의견이 일치하였으므로 회를 결성하려고 다시 자택으로 7명이 도착하여 회 결성의 조직 대강을 협의한 결과는

1.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단체를 조직하고
2. 결사에 외교부 및 서적부의 두 기관을 결성하는데
  - 1) 외교부는 선전부장 중심으로 의식분자인 동지를 획득할 것.
  - 2) 서적부는 책에 의하여 동지를 획득할 것.
  - 3) 동지를 획득했을 때는 완전한 의식분자가 되었을 때 전회 일치로 허부를 결정할 것.

3. 학교에서의 활동방침으로 가급적 빨리 동급생 중에서 의식분자를 획득할 것.

4. 사회에서의 활동방침으로

- 1) 회의 각 위원은 사회에서의 지도자가 되어 개인이나 단체에 의식을 주입할 것.
- 2) 집단적 민족운동을 할 것.
- 3) 매년 8월에 총회를 개최하고 각자의 사업을 보고할 것.
- 4) 회의 연락을 하지 않을 것.

등이었다. 다음으로 임원선거를 했는데 위원장 조규석, 부위원장 남궁태, 선전부장 문세현·이찬우, 서적부장 백흥기, 회계 용환각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조규석은 위원장직을 사퇴했으므로 협의 결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쌍방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취임했다. 이어서 회의 명칭을 협의한 결과 제1안에서 제3안까지 있었다.

제1안 조양회(朝陽會)는 우리가 조직하는 회의 조선을 태양처럼 빛낸다는 뜻.

제2안 부흥회는 우리는 현재 비참한 조선을 부흥시킨다는 뜻.

제3안 상록회는 우리의 사상은 푸르리 마치 초록색과 같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상록회로 결정했다. 이어서 회칙을 심의했는데,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나는 것을 말하면

제1조는 회명을 전술과 같이 상록회라고 적고

제2조는 회의 목적으로 본회원은 각지를 완성하고, 조선민족에 바쳐서 조선독립운동을 할 것을 맹세하고, 본회원은 단결심을 기르고 훈련할 것 등을 규정하고, 기타 총회를 연 1회 개최한다는 등이며, 회의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적부장 1명, 선전부장 1명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월례회는 매월 개최하고, 각자 회원의 의견교환과 연구발표 등이 지금까지 기억에 있다. 다음은 동지 획득이 중대하므로 각자가 완성된 사람이 되고, 또 동지를 지도할 만하게 되는 것이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집합자가 소지하고 있

는 책을 회에 일시 대여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이찬우는 “우리 동지가 이와 같이 회를 조직한 이상 다른 사람의 선두에 서서 타인을 유도하고 협력하여 조선민중을 통일시켜, 조선의 통일은 언제쯤 달성될지 모르나, 죽을 때까지 하나가 되어 조직된 상록회를 지키고 조선독립에 도달할 때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인사를 하고, 다음으로 남궁태는 폐회의 인사와 제1회 월례회까지 회비 납입을 지시하고 그 날 오후 3시경에 산회했다. 이상이 우리들이 상록회를 조직한 전말이다.

문 : 위 상록회 조직의 목적을 말하라.

답 : 현재 조선의 실상을 보건대 일본에 병합된 이래 일본의 경제정책은 착취 정책이기 때문에 동포는 점점 생활고가 심해지고 농촌은 날로 피폐의 도를 더해 가고, 또 정치적으로는 모두가 자유를 빼앗겨 여러 가지 압박의 상태에 있는 것이 눈에 비치고 있으므로 민족주의를 교양하고 조선독립운동에 종사할 수 있는 투사를 양성하여 모든 조선민족에게 민족독립의 관념을 주입하여 언젠가 조선을 일본의 굴레에서 이탈시켜, 조선은 조선민족의 손에 의하여 통치하는 전제로 상록회를 조직하여 조선인의 안녕과 행복을 줄 생각이었다.

문 :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는가.

답 : 전술한 바와 같이 소화 11년 민족주의 문헌, 혹은 이찬우, 문세현 등과 친하게 사귀는 중에 점차 배일사상과 민족 반항심이 격렬하게 되어 위와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문 : 위 결사를 위하여 그 뒤 어떤 활동을 했는가.

답 : 상록회 조직 후 제1회 회의는 소화 12년 4월 어느 날 오전 11시에 강원도 춘천읍 화원정(花園町) 2목정(二丁目) 일연종(日蓮宗)의 비석이 있는 곳에서 개최했다. 이 회의 개최의 취지는

1. 상록회 월간잡지 발행의 일
2. 서적 교환 윤독의 일
3. 동지 획득 방법의 일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그 회의 내용은

제1. 상록회 기관지 발행의 일은 그 이유로 동지 획득 방법과 회원의 의식 양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본건은 원고를 상록회 회원이 투고하여 그것을 편철 회람할 것을 협의하고 실행할 것을 약속하고,

제2. 책 교환의 일은 회원이 각자 소지하고 있는 책을 서적부장인 나에게 지참하여 교환할 것을 협의 결정하고,

제3. 동지 획득의 방법의 일은 선전부장의 책임으로 다수를 획득할 것 및 다른 간부위원도 배가하여 동지를 획득할 것을 결정하고, 그 날은 그것으로 산회했다.

그 뒤 나는 심경의 일부 변화로 그 상록회를 조직한 것이 발각될 경우 처벌 되어 전도가 암울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문세현과 상의했더니, 문세현도 또한 동감이었었으므로 이 불온단체 상록회를 해소할 것을 협의하고, 소화 12년 5월 어느 날 나는 춘천읍 대화정 이정목 남궁태의 집을 방문하고 남궁태에게 상록회 해산을 요구했으나 태도가 명확하지 못했다. 그 후 2·3일 뒤에 선전부장 이찬우에게 또 상록회 해산을 요구했으나, 그는 이어서 회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반대하므로 나는 탈퇴를 표명해두었다. 그 뒤 소화 12년 5월 허순경 어느 날 춘천중학교 교정에서 이찬우 및 남궁태는 회에 출석하여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했다.

그러나 그 뒤 상록회 및 독서회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다. 그것에 대하여 말하면 소화 12년 12월 어느 날 오후 3시경 춘천중학교 기숙사 뒤 언덕에 이찬우의 권유로 갔더니 그 곳에는 당시 춘천중학교 제5학년생으로 나의 동급생 제5학년생 이찬우, 용환각, 남궁태, 조규석, 전흥기, 배근석, 이병주, 이풍섭, 차주환, 서동철, 임근호, 최남혁, 문세현, 박규원 등이 모였다. 용환각이 그 언덕에 조선반도를 그리고, 그 가운데 흰 석회로 백두산맥을 만들고 백두산 마루에 집합자의 모자를 쌓아 머리로 하고, 또 반도를 그린 가운데에 「고향」을 써서 반도의 선을 그었는데 집합자가 옆으로 누워 반도의 바깥 선이 되

게 하고, 춘천읍 대화정 일정목 소화사진관이 촬영했다. 이 촬영 이유는 제1회 졸업기념사진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몸으로 조선지도의 외곽을 만든 것은 우리 동지로써 조선을 지킨다는 의미이며, 흰 석회로 조선반도를 가운데서 백두산맥을 그린 것은 백두산맥이 조선의 중심이며, 백두산 정상에 모자로 만든 것은

우리 동지가 백두산이라는 의미이며, 「고향」이라고 쓴 것은 우리의 조국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사진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다시 20일쯤 뒤인 그 해 12월 하순경 오후



당시 춘천중학교 14회 16명의 사진  
(‘우리의 우정은 봉의성 상록같이 푸르자’)

3시에 전술한 춘천중학교 기숙사의 뒤쪽 언덕에 전술한 14명 및 나 외에 동급생인 이진우도 와서 함께 16명이 일렬로 서서 촬영하고 사진 아래쪽에 언문으로 ‘우리 우정은 봉의산성의 푸르름과 같다’고 기입하여 이 사진을 제14회 춘천중학교 졸업자 기념사진장에 등재했다.

그 뒤 상록회 회합에 참석한 것은 용환각의 초대로 소화 13년 음력 정월에 춘천읍 소양동 이정목 용환각의 집에 모였다. 그 때 참석자는 동급생 이찬우, 문세현, 조규석, 남궁태, 전흥기, 이풍섭, 차주환, 황병구 및 나와 주인격인 용환각 10명이 모였다. 용환각의 집에서 낸 음식을 먹은 뒤 유행하는 회가를 부르고, 남궁태의 연설이 있었다. 그 요지는 “우리들이 졸업 후 걷는 길은 시련장이며 전투장이다. 소위 인생사회의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다. 학창시대의 온상적 생활과는 다르다. 각자가 긴장된 기분으로 준비가 없으면 거친 파



도에 휩쓸려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모두들 열심히 분투하여 몸을 만주로 가든 조선에 살든 온 생명을 다하여 조선을 위하여 싸우자”고 격렬한 말이 있었고, 다음 이찬우는 “우리가 싸울 곳은 사회가 되었다. 각자가 힘껏 싸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만주로 가든 조선에 있던 전생명을 던져서 분투하여 최후의 일순간까지 이민족에 지배되어 도탄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동포 민족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자”고 인사했고, 다음엔 주인공 용환각은 앞의 두 사람의 연설과 같이 사회에 나가서도 거친 파도에 굴하지 말고 분투하자고 맹세하고, 조규석은 “자기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므로 자기완성에 힘써 사회의 거친 파도와 싸울 것이니 제군도 노력하라”고 했으며, 다음 문세현은 석별의 노래를 했다. 그 요지는

봄에 만나서 알게 된 벗이여  
다시 봄이 되어 왜 헤어지는가.  
알게 된 것이 어제 같은데  
어느 사이에 헤어져야 하는가.  
재미가 많은 이 시절인데  
다시는 없을 좋은 시절이여.  
헤어져 떠나는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라 우리의 정신을.

그 뒤 보고회가 있었는데, 1년만에 동지 획득 상황 보고가 있었다. 이찬우는 과거 1년만에 동지 5명을 획득했다고 보고하고, 문세현은 1년만에 여자동지 6명을 획득했다고 보고하고, 남궁태는 과거 1년만에 동지 4명을 획득했다고 보고하고, 조규석은 동지 획득이 없다고 보고하고, 기타 사람의 말도 있었으나 기억에 없다. 다음에 이찬우, 남궁태 외 수명은 사상가로 상륙회 회기라는 것을 불렀다. 그 노래의 요지는 조선민족이 무쇠와 같은 단결의 힘으로 나

아가면 조선의 압박 받는 동포는 영원히 기뻐한다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으며  
잡담을 하다가 산회했다.

문 : 그 밖에 활동한 일은 없는가.

답 : 없다.

문 : 피의자는 민족주의에 공명함과 동시에 일본의 조선을 압박 혹은 착취하  
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답 : 조선의 현상을 보면 농촌은 해마다 피폐하여 조밥 혹은 초근목피로 상식  
하고 있는데, 일본인 특히 조선에 사는 일본은 미의미식을 하고 있다. 그  
런 것은 일본인이 착취했기 때문이며, 같은 조선인이라는 일본신민이 된  
이상 모두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할 것인데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현저  
한 차별을 보게 된다. 그 실례로는

1. 관청에서의 관리의 봉급의 차별
2. 일본 도항의 제한
3. 병역의무가 없고
4.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 등이다.

문 : 피의자는 국가행사인 신사참배, 일본국가 합창, 동방요배를 실행하지 않  
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하라.

답 : 일본을 적대시하는 관념을 포회하고 있고, 배일관념을 품고 있었기 때문  
이다.

문 : 피의자가 상록회를 조직하여 조선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가.

답 : 조선독립의 실현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민족 반항심에서 그런 결과가  
되었다.

문 : 상록회의 회칙을 기재한 것은 누가 보관하고 있는가.

답 : 최초 원고지에 쓴 회칙을 내가 보관하고 있었으나, 소화 12년 3월 어느  
날 위원장 남궁태에게 준 뒤는 모른다.

문 : 피의자가 상록회의 존재를 극비로 한 이유를 말하라.

답 : 비합법단체이므로 발각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문 : 제2회 회의에서 발행하기로 확약한 상록회 잡지를 발행했는가.

답 : 너무 계획이 크다는 말도 있었고 발행하지 않았다.

문 : 그러면 제2회 회의에서 협의한 책을 피의자는 소지한 것이 있는가.

답 : 없었다.

문 : 제2회 회의에서 협의한 동지 획득 방법은 어떻게 되었는가.

답 : 나는 탈퇴 표명 후는 관계하지 않았으므로 모른다.

문 : 피의자가 탈퇴를 표명한 뒤 상록회는 해소되었는가.

답 : 상록회도 존속하고, 또 독서부 회원도 다수 획득하여 계속하여 민족의식의 교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 : 피의자가 상록회원과 함께 찍은 사진은 어떻게 했는가.

답 : 동지 이찬우가 만주국 관현에게 체포된 것을 보고 조선반도를 그린 사진은 태워 버렸다.

문 : 피의자가 민족주의 색채가 있는 책을 읽은 독후감은 어떤가.

답 : 모두 민족 반항심을 격렬하게 하는 민족의식 교양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문 : 그러면 『조선의 현재와 장래』는 어떤가.

답 : 그 책은 민족주의자가 쓴 책으로 조선민족을 타민족과 비교하여 논한 것인데, 현재 조선민족은 타민족보다 지적 양적으로 수준이 낮으므로 그것을 인식하고 개혁한다면 '조선민족의 개조'는 가능하다는 요지가 적혀 있는데, 나도 동감이다.

문 : 『마의태자』의 독후감은 어떤가.

답 : 그 책도 이광수가 쓴 책으로 그 책의 요지는, 신라조의 마지막 왕자인 마의태자는 신라조를 빼앗은 고려의 반항이 서술되어 있는데, 만약 민족주의를 포회하고 있는 사람이 읽으면 현대와 같이 이민족에게 지배되면서 그것에 반항하지 않는다면 실로 비굴한 민족이라고 느꼈다.

문 : 『단종애사』는 어떤가.

답 : 그 책도 이광수가 쓴 책으로 이조 6대의 단종을 중심으로 왕위쟁탈을 서술한 것인데, 단종의 여섯 명의 충신의 의기와 열의에 감탄했다.

문 : 『흠』의 독후감은 어떤가.

답 : 그 책도 이광수의 저작으로 그 책의 요지는, 주인공 허숭(許崇)이 변호사의 직을 버리고 피폐해 가는 농촌을 구하기 위하여 온 사실을 서술하여 마치 조선의 현상과 같이 생각되었다.

문 : 『상록수』는 어떤가.

답 : 그 책은 심훈(沈薰)의 소설로 민족적 색채가 있는 책으로, 그것은 우리들이 결성한 상록회도 이 책의 상록을 본 따서 붙인 것이며, 그 요지는 주인공 박동혁이 그 애인과 함께 고향 농촌을 위하여 온 생명을 희생한 사실을 서술한 것이다.

문 : 그 밖의 『영원한 무정』, 『폐허의 눈물』, 『무정』, 『이치돈의 죽음』, 『열혈 청년론』 등의 독후감은 어떤가.

답 : 모두 민족의식을 양양하는데 충분한 것이었다.

문 : 피의자가 학교 졸업 후 동지들과 편지 왕래 상황은 어떤가.

답 : 남궁태, 문세현 등에게서 편지가 있었으나 별로 사상경향은 없었다.

문 : 피의자가 상록회원과 찍은 사진은 이것인가.

이 때 증 제1호 및 증 제17호를 보이다.

답 : 그렇다.

문 : 피의자의 심경은 어떤가.

답 : 내가 민족주의 사상을 포회하게 된 것은 춘천중학교 제3학년 제3학기로 사물에 대한 이해, 해석이 불충분한 때였다. 아무것이나 무비판적이고 다만 단순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민족주의 색채가 있는 책을 읽고 민족적 반항심은 전신을 불태우고, 그 뒤는 무엇이고 직관적 비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민족주의를 포회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성질까지 편협하게 되어 신중한 비판과 정중한 이해는 그 속에 매몰된

상태가 되어 나의 민족주의는 도를 더하고, 민족 반항심도 격렬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정에 반항하는 상록회를 조직했으나, 민족 반항심에 만족하지 않고, 따라서 그것을 탈퇴하고, 학교 졸업 후 만주로 가서 자형 원정희(元正喜)의 집에 기숙하고 있었다. 이 때 원정희는 나의 사상을 알고, 만주는 오족협화의 신천지이므로 과거의 사상은 버리고 일본인이 되라고 충고했지만, 한 번 민족주의에 공명한 나는 한 번의 의견으로 전향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결국 자형과 의견대립이 되어 나는 자형의 집을 떠나 만주국 길림(吉林)으로 가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소비하고 결국 나는 농촌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만주 농촌에 사는 대부분의 조선동포가 일본 정책에는 대체로 감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민족사상을 재검토하고, 또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방침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연구했더니, 그 결론으로 '일본은 극력 조선을 동화하여 진정한 내선일체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전적으로 민족주의에서 이탈할 생각은 결코 없었으나, 종래의 맹목적인 조선관을 고쳐서 진정한 일본의 모습을 알려고 연구하는 중에 돌연 경찰이 과거의 범죄를 조사하여 범죄자로서 과거를 회오할 기회가 왔다. 즉 내가 사리분별이 불충분할 때 것처럼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은 다만 운명의 장난, 아니 인생으로서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여기에서 죄악이란 무엇인가라는 것까지 재인식하게 된 것도 또한 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나는 민족주의를 정말 이탈할 수 있을지 없는지의 문제도 진정한 일본의 모습을 이해한 오늘은 다시 형극의 길에 의한 삶을 생각할 때는 민족주의를 버리고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장래 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상이 나의 현재의 심경이다.

문 : 피의자에 유리한 증거는 없는가.

답 : 없다.

위를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무인하다.

진술인 백흥기(白興基)

작성일 소화 13년 12월 20일

춘천경찰서

신문자 사법경찰관 도경부보 濱野增太郎

입회인 입회인 사법경찰리 도순사 李致億

1937년부터 38년 사이 진행된 ‘상록회’ 검거 사건은 일제강점기 후반 민족운동을 위해 결성된 비밀결사에 대한 탄압의 예이다. 본 연구가 ‘상록회’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이 비밀결사가 문학 작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시각이 짙고, 특히 소설 작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족의식을 높이는 사상서로 활용했다는 점 때문이다. 본고가 확인한 결과 ‘상록회’ 회원 38명에 대한 경찰과 법원의 신문 및 공판 기록을 통해 전체 82권의 도서가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9권이 문학 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학 작품 가운데에는 34편의 소설이 포함되어있었으며, 결사의 회원들은 이 작품들을 중심으로 회원을 확충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특이한 점은 이 소설 작품들 가운데 대중소설로 분류되는 것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다.

백흥기 이외에도 황성출신으로 상록회 회원은 신현억(申鉉億)이 있었다.<sup>255)</sup>

255) 정병배, 1995, 「1920~1930년대 춘천지역의 청년·학생운동」, 한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6쪽 (표8) 상록회 관계자 약력 참조.

## 참고문헌 |

- 『독립운동사』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애국동지원호회, 1956)
- 『무장독립운동비사』(채근식, 대한민국공보처, 1949)
- 『한국공산주의운동사』4(김준엽·김창순, 1967~76).
- 강대덕 외 2인, 2003, 『황성 민족운동사』, 황성문화원.
- 강원의병운동사연구회 편, 1987, 『강원의병운동사』, 강원대학교 출판부.
-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5, 『橫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강원문화사.
- 광복회 강원도지부, 『강원항일독립운동사』(Ⅰ·Ⅱ·Ⅲ·Ⅳ).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4, 『의병항쟁사』, 동 편찬위원회.
- 김동정, 2016, 『황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 강원도민일보.
- 김동정, 2017, 『황성지역 전투에 참여한 의병장과 봉복사』, 강원도민일보.
- 김동정, 2017, 『황성3·1운동주도인물 재조명』, 강원도민일보.
- 김중섭, 1994, 『평형운동연구』, 민영사.
- 조규태, 2006, 『천도교의 민족운동연구』, 선인.
- 조동걸, 1972, 『橫城과三一운동』,三一운동기념비건립황성군협찬회.
- 최승순 외 7인, 2007, 『강원 항일사』, 강원일보사.
- 최승순 외 7인, 2007, 『강원 항전사』, 강원일보사.
- 홍영기, 2009, 『한말 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황 현, 1955, 『매천야록』, 국사편찬위원회.
- 황성감리교회[김진형], 1996, 『황성의 종소리』, 도서출판 글터.
- 황성군, 2001, 『황성군지』.
- 정병배, 1995, 「1920~30년대 춘천지역 청년·학생운동」, 한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규태, 2012, 「1920년대 강원도 황성지역 청년의 민족운동」, 『한성사학』23.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중외일보, 해조신문, 황성신문





## 부 록

부록1 횡성 문화유적 탐방

부록2 일제강점기 횡성출신 징용자 명부

부록3 횡성출신 독립유공자 명부





## 부록 1 | 횡성 문화유적 탐방

2018년 4월 13일, 오전에 문화원 이사들이 회의를 하였다. 회의 후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풍수원성당, 매봉서원, 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 취석정, 금대



도로에서 본 풍수원 성당 모습

리 의병총을 답사하였다. 1시에 첫 코스인 풍수원 성당을 향해 출발했다. 문화원에서 출발하여 횡성교-큰골을 거쳐 장지고개를 넘자 가까이 313고지가 보이고 저 멀리에는 독재봉이 우뚝 솟아 손짓이라도 한다. 신촌삼거리에서 6번국도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들어서면 초원1리가 나온다. 초원1리 입구 우측에는 태봉(336m)이 있다. 태봉을 뒤로하고 언덕을 한참 오르면 상하대(上下岱)가 있다. 상하대는 ‘고을 원님이 내려온 곳’이라 하여 고을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상화대(上花岱)라 부른다. 고개를 넘어 유현을 지나 6여 분 정도 가면 우측에 고풍이 찬란한 풍수원 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 풍수원성당

도로 입구에는 ‘풍수원성당’이라고 크게 쓴 표석이 서 있다. 입구에

서 30~40m 가면 좌측에 옛 광동분교가 자리잡았던 터가 나온다. 옛 광동분교는 지금 풍수원성당 순례자 쉼터로 활용되고 있었다. 광동분교터 앞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이곳이 옛 유현초등학교 광동분교장임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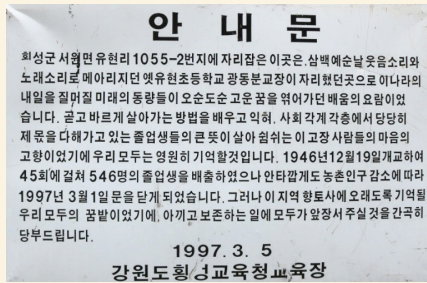
## 안 내 문

황성군 서원면 유현리 1055-2번지에 자리잡은 이곳은 삼백예순날 웃음소리와 노래 소리로 메아리치던 옛 유현초등학교 광동분교장이 자리했던 곳으로 이

나라의 내일을 짚어질 미래의 동량들이 오순도순 고운 꿈을 엮어가던 배움의 요람이었습니다. 끈고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 사회각층에서 당당히 제 몫을 다해가고 있는 졸업생들의 큰 뜻이 살아 숨 쉬는 이 고장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었기에 우리 모두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1946년 12월 19일 개교하여 45회에 걸쳐 54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니까 안타깝게도 농촌인구감소에 따라 1997년 3월 1일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향토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우리 모두의 꿈 받이기에 아끼고 보존하는 일에 모두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1997. 3. 5

강원도황성교육청교육장



한편, 운동장 반대편에는 풍수원성당 교우 농산물 판매장이 있었다. 전시된 농산물은 뽕잎나물, 구기자, 들기름, 옥수수 수염, 무말랭이, 감자가루, 강냉이튀김, 고춧가루, 각종 짬아찌, 쇠비름효소, 개복숭아 효소, 오디효소, 오디잼, 돼지감자차, 고추씨, 옥수수차, 찹옥수수알, 표고버섯, 단호박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대여섯 분의 이름으로 된 돈통이 있어 필요한 농산물을 사고 그 값에 해당하는 돈을 통에 넣으면 된다. 농산물은 있는데 판매지는 없어 셀프구매다.



옛 광동분교터(풍수원성당 순례자쉼터)와 풍수원성당 교우 농산물판매장

이곳을 둘러보고 성당 쪽으로 30m 남짓 걸어갔을 때 박순업 문화원 장님이 왼쪽 붉은 슬라브 양옥 2층집을 가리킨다. “저 붉은지붕의 양옥집 있는 곳이 윈터예요”라고 하신다. 즉 풍수원이 자리하고 있던 곳이다. 주소는 ‘경강로 유현1길 13-4’라고 되어있는데, 옛



‘1888년 유적지 풍수원성당’이라고 쓴 표지석에서 본 윈터(붉은지붕의 양옥집)

주소로는 유희리 1056번지이다. 조선시대에 여행자의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원(院), 즉 풍수원이 있던 데서 성당이름도 유래되었다. '1888년 유적지 풍수원성당'이라고 쓴 표지석에서 좌측 20m 정도 안 쪽에 위치해 있다.

일행은 풍수원성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약 50m 앞에 고풍 찬란한 풍수원성당이 위풍당당하게 우뚝 서 있었다. 성당 옆 기념식수로 심어진 느티나무도 키가 성당 높이보다 1.5배 큰



고풍 찬란한 풍수원성당과 기념식수로 심었던 느티나무 모습

모습으로 '푸른 잎사귀가 무성함 같이' 웅대한 모습으로 성당과 역사를 같이하며 우리 일행을 반겼다.

성당 가까이 다가가자 박원장님은 좌측 언덕에 있는 집을 가리켰다. “저 집터가 바로 삼위학당 초기 학당터예요”라고 하였다. 주임을 맡은 날부터 정규하 신부는 조선교구장 뒤편 주교에게 1927년까지 40년 동안 프랑스어로 107통의 편지를 썼다. 그 내용 중 1908년 12월 28일자 편지에는 묘한 표현이 나온다.

..... 주교님, 여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학교라 할 수 없습니까? 제 학교는 선생으로 보나, 건물로 보나, 유지비로 보나 도무지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골 서당인데, 아이들이 21명입니다.

라고 하였듯이 삼위학당을 세우기 2년 전에 서당을 개설하여 20여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나 건물, 운영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만 배우고자 몰려 온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저 서당이 자라서 학당이 되고 학교가 되었던 것이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국권을 망실하자 정규하 신부는 성당 사랑방



삼위학당의 초기 서당터(양옥집)

에 ‘삼위학당(三爲學堂)’을 개설해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말’을 비롯하여 한문·수학·역사를 가르쳤다. 논산에서 박 도마 교우를

초빙해 역사를 가르쳤다. 일경의 감시를 의식하여 우회적으로 『월남 망국사』를 가르쳤는데, 그마저도 문제가 되어 교재는 압수되고 교사는 옥고를 치렀다. 삼위학교는 훗날 광동국민학교로 발전하였는데, 지금 풍수원성당 초입의 주차장 자리가 광동국민학교 터인 것이다. 박순업 문화원장이 제공한 삼위학당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설립동기 : 풍수원 본당 정규하신부는 1910년 8월 한일병합이 일어나자 성당 사랑방에 삼위학당(三位學堂)을 열었고 학생들에게 신문학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 연혁

- 1910년 삼위학당 설립(정규하 신부)
- 1913년 2개 교실 신축 준공
- 1931.04.01. 4년제 성원학원(聖心學園) 개칭 인가
- 1938.04.01. 5년제 심상과로 개편
- 1944.06.10. 2대 원장 김학용(시몬) 신부 부임
- 1946.12.09. 6년제 광동(光東)사립국민학교로 개칭 인가
- 1951.01.20. 6·25전쟁으로 교사1동 전소
- 1957.10.01. 학부모성금으로 1개 교실 증축
- 1958.04.01. 5학년 교직원 봉급을 국고에서 보조
- 1960.12.05. 현대지 위에 이전 목조건물 신축
- 1969.05 춘천교구에서 원주교구 학교법인 진광학원으로 이양
- 1969.06.13. 교장 최송하 부임(일반인)
- 1972.03.01. 천주교 원주교구 진광학원에서 황성군 공립학교로  
설립자 변경
- 1982.03.01. 유현국민학교 광동분교로 격하
- 1997년 폐교

편지에는 초기부터 의병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등장하는데, 을사늑약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난다. 그중에서 상당수가 화력에 밀리면서 황성의 의병과 합류하게 된다. 정규하 신부는 의병이 찾아오면 침식을 제공하고 격려하며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성당의 지하에는 비밀창고가 있다. 성당 바닥의 마루널 아래에 습기를 막기 위해 비워둔 공간이 있는데, 그중 넓은 쪽을 활용해 사람이 앉아서 며칠을 견딜 정도의 공간을 만든 것이다. 아무래도 그 공간이 정규하 신



부의 의병 지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승철옹의 증언 기록을 보면 “왜병 순사들의 감시 속에서도 신부님은 의병에게 마당이나 주변 야산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성당 마당에서 신자 의병장이 의병 50~60명을 모아 훈련시키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왜병 순사들도 신부님이 인격이 높은 지식인이란 점에서 몹시 어려워했다. 신부님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주면서 걸으로는 유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그들이 강요하던 ‘신사참배’ 따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무시했다.”고 하였다.

일행은 성당과 성당 구 사제관을 한 번 둘러보았다. 풍수원성당 안 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 횡성(橫城) 풍수원(豐水院) 천주교회(天主教會)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9호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서

원면 유현리

이 교회는 도(道)에서 처음으로 세운 고딕양식의 천주교당(天主教堂)이다.

본래 이곳은 조선(朝鮮) 순조(純祖) 원년(1801) 신유박해(辛酉迫害), 고종(高宗) 3년(1866) 병인양요(丙寅洋擾), 고종 8년(1871) 신미양요(辛未洋擾) 등으로 탄압받던 신도들이 피난 온 곳으로 고종 27년(1890) 프랑스의 르메르 이신부(李神父)가 초가 사랑방에 초대신부로(初代神父)로 부임한 한국의 네 번째 천주교회로 출발한 곳이다.

지금의 교회는 제2대 정규하(이우구스띠노, 1863~1943) 신부가 설계하여 고종 광무(光武) 10년(1906) 착공, 이듬해(1907)에 완공하였는데, 중국인(中國人) 기술자와 전(全) 신도(信徒)들이 공사에 참여하였다.

위엄있는 풍수원성당을 뒤로하고 왼쪽 옆으로 발길을 옮길 때 두 팔을 벌리고 “다 내게로 와라”라고 손짓해 보이는 흰 가운을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눈에 들어왔다. 육안으로 약 3m 남짓 되어 보이는 상이 참 평온해 보였다. 동시에 20여 m 떨어진 곳에 사제관이 보였다. 입구에 가서 보니, 옆에 설명문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횡성 풍수원 성당 구 사제관

등록문화재 제163호(2005.4.15)  
건립년도 : 1912년(1913년 완공)

“저희 집 사제관은 이제 준공되었습니다. 지금은 새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썩 잘 지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정규하 신부 서한에서 (1913.10.1)

칭칭나무로 우거진 골짜기를 배경으로 산언저리에 위치한 사제관은 붉은 벽돌로 세워진 2층건물이다. 성당보다 5년 늦은 1912년 지어졌

지만 원형이 잘 남겨진 벽돌조 사제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당시 사용된 벽돌은 가까운 피미기 마을에서 구워 나른 것으로 추정되며, 정규하 신부가 건립진행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소한 모습 속에서도 현관·창호·처마 주위의 벽돌쌓기 장식이 돋보인다. 1·2층 내부에서 거실을 사이에 둔 방 배치와 서재를 보면 당시 사제의 주거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2층창문을 열면 마을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고 멀리 떨어진 주막 거리가 보이는 위치에 있어 마을의 분위기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신부는 사제관에서 성당준비실까지 가려면 돌계단을 천천히 걸어내려 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예배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면서 성당으로 향했을 것이다.



사제관 전경

1989년 12월 5일

황 성 균 수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들어온다. 돌계단을 천천히 걸어내려 오면서 예배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면서 성당으로 향했을 신부를 생각해 보았다. 참 기록해 보이는 발걸음이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사제관을 들어갔다.

2층에 올라가자 한 벽면에 풍수원성당의 약사가 1888년부터 2010년까지 정리되어 있었고 십자가 종류와 그 유래, 풍수원성당의 의인인 조이분(마리아) 할머니 이야기, 미사 때 사용한 각종 촛대, 초기 가톨릭성당의 건축과 풍수원성당, 한국 가톨릭성당 건축의 변천(1890~1940년대) 등등 다양한 배울거리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마터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신앙의 선조들이 벽돌을 구웠던 곳이라고 하니 더 자세히 보게 되었다. 풍수원성당의 가마터는 성당을 짓기 위해 성당



피미기 마을에 있던 가마터

에서 500m떨어진 피미기 마을에 가마터를 만들고 벽돌을 구웠다. 정규하 신부가 직접 감독하여 회색, 분홍색 안료를 넣어 벽돌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눈에 들어 온 것이 「신양선조들의 피신처, 강원도의 첫 본당」이란 주제였다. 풍수원 교우촌은 1801년 신유박해 때 복자 신태보 베드로가 용인이천지역의 순교자 유가족들 40여 명과 함께 피신처를 찾아 떠돌다가 풍수원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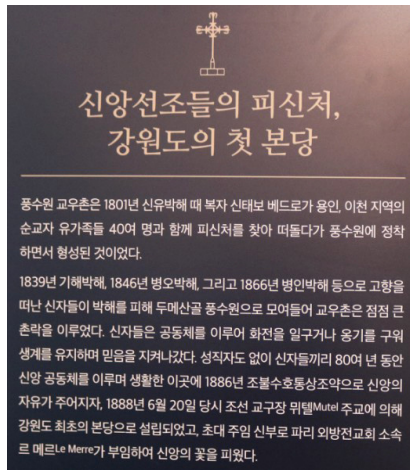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그리고 1866년 병인박해 등으로 고향을 떠난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두메산골 풍수원으로 모여들어 교우촌은 점점 큰 촌락을 이루었다. 신자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화전을 일구거나 용기를 구워 생계를 유지하며 믿음을 지켜 나갔다. 성직

자도 없이 신자들끼리 80여 년 동안 신앙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한 이곳에 1886년 조블수호통상조약으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자, 1888년 6월 20일 당시 조선 교구장 뮈텔 주교에 의해 강원도 최초의 본당으로 설립되었고 초대 주임 신부로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르메르가 부임하여 꽃을 피웠다.

정규화 신부는 1896년(건양 1) 4월 26일 명동성당에서 金大建(안드레아), 崔良業(토마스) 신부에 이어서 세번째 사제로 서품되기에 이르렀다. 사제로 서품된 이후 그 해 6월 10일 첫 부임지로 풍수원 성당 보좌신부로 발령이 났으며, 그로부터 2개월후인 8월 17일 초대 주임 신부인 르메르 신부에 이어서 제2대 주임신부로 부임하기에 이른다.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성당의 사랑방에 삼위학당(三位學堂)을 설립하였으니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정 신부가 민족의식이 강한 성직자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삼위학당에서 여러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특히 논산에서 초빙한 신자교사 박 토마스가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당시의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외국의 망국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제가



이런 움직임은 간과하고 결국 박 토마스를 체포하여 옥고(獄苦)까지 치른 것을 통하여 여실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규하(鄭圭夏, 아우구스티노) 신부는 1863년 8월 18일 충청남도 아산군 신창면 남방리 출생으로써 천주교 신자인 기화(基化)의 3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병인박해로 온 가족이 피신생활을 하다가 그가 15세 무렵 충청북도 충주 부근의 소탕이에 정착하였다. 그 뒤 블랑(Blanc, J.M.G., 이圭三) 주교에 의하여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명동성당의 글방에서 공부한 뒤 신부가 되기 위하여 1884년 말레이시아의 페낭신학교에 유학하였으나 기후와 풍토를 이기지 못하고 1891년 귀국하여 새로 설립된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지금의 가톨릭대학 신학부의 전신)에 입학하였다.

1896년 4월 26일 뮈텔(Mutel, G.C.M., 閔德孝) 주교에 의하여 사제로 서품되었고 신부가 된 뒤 47년간을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에 위치한 풍수원본당(豐水院本堂)에서만 활동하였는데, 1896년 6월 10일 풍수원본당 보좌로 부임한 뒤 1896년 8월 17일 풍수원본당 제2대 주임으로 부임하였고 1907년 11월 22일 풍수원본당 성전을 착공하여 1910년 완공과 함께 삼위학당(광동국민학교의 전신)을 설립하였고 1911년 3월 11일 성부안나회(안나회)를 설립하였으며, 1920년 6월 3일 제1회 풍수원 성체현양대회를 거행하였고 1943년 10월 23일 선종하면서 풍수원본당 뒷산에 있는 성직자묘지에 안치되었다.



풍수원성당의 1대 르 메르 신부, 2대 정규하 신부, 3대 김학용 신부 모습

## 매봉서원

풍수원성당에서 일행은 매봉서원으로 향하였다. 6번국도를 따라 1km 정도 가서 409지방도를 따라 8km 지점에서 서원면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2.2km 정도 가면 길가에 매봉서원이 있다. 박원장님은 “횡성 서원면의 유래가 된 철폐된 칠봉서원을 대신하여 이곳 매봉산 아래에 건립하여 유학의 전통을 잇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다.



매봉서원 앞의 안내 문에는 그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 매봉서원(梅峰書院)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353-1

서원은 석학(碩學)과 충절(忠節)한 분들을 배향(配享)하고 학문을 강학(講學)하던 사학기관(私學機關)으로 1542년(중종 37)에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 그 효시(嚆矢)이다.

매봉서원의 모태(母胎)가 된 칠봉서원은 1612년(광해군 4)에 건립되어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 팔계군(八溪君) 정종영(鄭宗榮), 구암(久菴) 한백겸



매봉서원 전경

(韓白謙), 정간공(貞簡公) 관란(觀瀾) 원호(元昊)를 배향(配享)하였으며, 대원군(大院君)의 서원철폐(書院撤廢) 정책에 따라 1868년(고종 5)에 철폐되었으며, 198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원주시 호저면 칠봉리에 서원터가 흔적만 남아있다.

매봉서원은 서원면의 유래가 된 옛 칠봉서원(七峰書院)을 복원(復元)하여 조상의 건학정신(建學精神)과 유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마을의 성지로 삼고자 1997년 10월 29일 매봉산 아래에 건립하고 매봉서원(梅峰書院)으로 명명(命名)하였다.

현재 이 서원은 2003년 11월 불의의 화재(火災)로 본관이 소실(燒失)되어 2005년 7월에 재복원(再復元)된 것이다.

서기 2005년 7월 30일

매봉서원복원추진위원회



매봉서원을 뒤로 하고 압곡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로 향하였다. 이곳에서 압곡리 방향으로 3km 정도 가면 아늑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나온다. 이 시기 정도 되면 왜가리와 백로의 둥지가 많이 보이는 시기이다. 왜가리와 백로는 매년 2월 20일경 선발대격인 10여 마리가 먼저 압곡리로 날아와 주변상황을 점검하고 3월초에는 둥지를 만들기 위해 50여 마리가 도착한다. 이에 우리 일행에게 보이는 이 서식지에는 군데군데 큰 둥지들이 보였다. 개체수가 적어서인지 생각보다 둥지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횡성 압곡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는 마을 서쪽에 있는 영산과 북쪽의 압산에 있다. 영산의 정상에는 200~300년 된 소나무를 중심으로 숲이 우거져 있으며, 압산에는 산등성이에 약



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전경

90년 된 소나무 1그루와 그 밖에 떡갈나무, 상수리나무가 있다. 약 20년 전까지는 대부분 왜가리 집단이 번식하였으나, 점차 왜가리는 감소되고 최근까지는 중대백로가 번식집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73년 7월 조사 때에는 영산에서 중대백로 620둥지 979개체와 왜가리 7둥지 13개체, 압산에서 중대백로 116둥지 305개체, 왜가리 3둥지 16개체를 각기 확인하였다. 두 번식 집단을 합산하면 중대백로 736둥지 1,284개체, 왜가리 10둥지 27개체였다. 저녁에 귀소할 일부의 집단을 고려하여도 2,000개체 미만이었다. 임야소유주 최범하에 의하

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도래·번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백로마을이라는 명칭까지 얻었으나 번식지 자연환경 훼손으



횡성 압곡리 왜가리 및 백로 번식지 예전 모습

로 2010년 전후로 개체 수가 200마리까지 줄어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 명성에 위기를 맞았다. 이에 압곡리 주민들은 왜가리와 백로가 다시 찾는 번식지를 만들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일대 농사를 친환경 농법으로 바꾸고 수시로 미꾸라지 방사 등 먹잇감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압곡리를 찾는 왜가리와 백로가 늘기 시작해 2011년에는 500마리에 이르렀다.

횡성 압곡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중의 하나이므로 천연기념물 제248호(1973.10.05) 지정·보호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 횡성 압곡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천연기념물 제248호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취석로

이곳에 최초로 중대백로와 왜가리가 도래하여 번식한 것은 약 300년 전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왜가리가 많았으나 점차 백로류의 수

자가 증가하였으며, 주민들의 성의있는 보호로 그 수가 증가하다가 번식지의 영소목 고사로 인하여 수가 감소하고 있다.

매년 3월 초순부터 4월 초순까지 중대백로, 쇠백로, 왜가리가 도래하여 번식을 마친 후 8월 중순이 지나면 월동지로 이동한다. 대부분의 왜가리 무리에 소수의 백로류가 함께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아름다운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를 뒤로 하고 취석정으로 향하였다. 남쪽으로 3.6km를 가면 소로 옆에 취석정이 있고 그 아래 계곡 큰 바위에 ‘취석(醉石)’이 바둑판과 함께 새겨져 있다.

### 취석정(醉石亭)

이 정자는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에 있다. 1641년(인조 19) 조선 중기의 시인 최문발이 낙향하여 세운 정자로, 취석(醉石) 최문발(崔文潑)이 창건하고 그의 아호를 따서 취석정(醉石亭)이



횡성문화원 이사·직원들의 취석정에서의 기념

라 하였다. 최문발(崔文潑, 1607~1673)의 조선중기의 문인으로 호는 취석(醉石), 시조 충무공 필달의 23세손이며, 매곡공 기벽의 셋째 아들이로서 그의 형 문오와 문활을 비롯한 동생 문식은 모두 벼슬을 하였으나 그는 세속의 명리(名利)를 초탈하여 시(詩), 주(酒)와 더불어 일생을 보냈다. 취석정에서 최문발은 친구들과 시 짓고 술 마시고 바

독을 두며 풍류를 즐겼다. 최문발은 시와 술, 바둑과 활쏘기[詩酒棋射]에 능해 4절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가 정착한 압곡리 마을에는 아직도 최문발의 숨결이 살아있는 듯하다.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압곡2리는 방지라는 연못에 많은 오리떼가 놀고 있다고 하여 ‘압실’이라고도 하며, 취석정(醉石亭)이 여기에 있다. 최문발이 살아 있을 때 허다한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이 그와 함께 시주(詩酒)를 함께 하기 위하여 선바위재를 넘나들었다고 한다.

그가 남긴 시(詩)는 후손들이 『취석시집(醉石詩集)』(3권 2책 395수의 시)이란 이름으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다. 서원 8경을 읊은 가사 중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

꼬불 꼬불 돌아가는 20리 냇가,  
산마루 푸른하늘도 봉우리 따라 꼬불.  
걸음마다 진달래가 발목을 잡네.  
취석정 술 한잔에 시 한수 하니,  
줄고 싶든 해오라기 나래를 친다.

취석정 아래의 냇가에는 돌에 새긴 바둑판과 취석(醉石)이란 두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주변에는 구룡소, 광대소, 승학대(乘鶴臺) 등 경관이 뛰어난 명소가 많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정자는 자취조차 없고 취석의 시원중(詩願中)에 ‘소정수동원상소정(小亭水洞援上小亭)’(물골 냇가에 작은 정자를 오르다)이라는 칠언율시를 고증삼아 1984년 7월 15일 후손인 강릉최씨 압곡종친회에서 새로 세운 것이다. 누각 안에

는 취석정상량문(醉石亭上樑文)과 취석정복원현황(醉石亭復元現況) 현판이 걸려 있다. 현판은 대한민국 10대 최규하(崔圭夏)대통령의 친필로 쓰여져 있다.



취석정 아래 냇가의 돌에 새겨진 「취석」 글자와 비둑판(우측 상단) 모습



취석(醉石) 글자와 비둑판 모습

취석정을 뒤로하고 강을 따라 3.8km 올라오면 서원초등학교 금대분교터(지금의 금대귀농학교)가 있고 그 옆에 잘 단장된 금대리 의병총이 있다.

### 금대리 의병총

이 금대리 의병총은 항일운동사적지로서 1907년 황성군 서원면 부근에서 싸우다 순국한 무명의병의 무덤이다. 당시 풍수원성당에서 무술훈련을 지도하였고 이 서원지역에서 700여 명의 의병들이 활동하였다. 1989년 12월 산재(散在)해 있던 묘소를 수습하여 현재의 금대리

서원초등학교 금대분교 옆에 의병총을 조성하였다. 2009년에 묘역주변을 단장하여 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매년 11월(음력 10월)에 제례를 지내며 넋을 기리고 있다.



황성문화원 이사들의 금대리 의병총 참배 모습

이곳에서 먼저 문화원 이사들의 참배가 있었고 이어 박순업 문화원장님의 이 금대리 의병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의병총에는 1907년 당시 이 곳 주변에서 일본군 제51연대와 치열한 전투를 했을 때 순국하신 의병 중에 연고 없는 세 분을 모신 곳”이라고 하셨다. 비석 뒷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이곳 금대리(琴垞里) 의병총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1907년 조선군을 강제 해산하고 고종황제를 폐위한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하여 의병으로 봉기한 분들 중 이 지역전투에서 순국하신 세 분의 무연고 의병을 모신 묘역이다.

1907년 11월에서 12월까지 이곳 서원면(書院面)에는 700여 의병이 대



금대리 의병총 전경

부대를 이루고 일본군 보병 제51연대와 대치하던 강원·경기·충청도 의병의 거점으로 연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장렬히 전사하신 의병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길이 후손에 전하고자 묘역을 정비하고 비를 세우다.

1989년 12월 5일

황 성 군 수

이렇듯 1989년 의병총을 조성한 이후 2010년에 다시 묘역주변정비 사업을 하여 고귀한 정신을 기렸다. 의병총 앞 안내문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금대리(琴垞里) 의병총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1907년 조선군을 강제 해산하고 고종황제를 폐위한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하여 의병으로 봉기한 분들 중 이 지역전투에서 순국하신 세 분의 무연고 의병을 모신 묘역이다.

1907년 11월~12월 사이에 서원면(書院面) 지역에서 700여 의병이 일본군 보병 제51연대에 맞서 항전하였으며, 당시 금대분교장 학교림 부근 지역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여섯 분의 무연고 의병의 묘가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1989년 초라하게 산재해 있던 세 분의 무연고 의병을 수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묘역주변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선열들의 고귀한 나라사랑의 정신을 기리고 길이 후손에 전하고자 합니다.

2010년 5월 26일

서 원 면 장

이렇게 오전 문화원 이사들의 임시총회를 마치고 모두 오후 풍수원 성당-매봉서원-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금대리 의병총을 답사하였다. 봄을 알리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이곳저곳, 이산저산에 활짝 피었고 산과 산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의 소리가 산새들의 지저귐과 어울려 황성의 아름다움을 교향곡으로 연주하고 있었다.

올 한 해도 황성문화원과 이사들의 황성군민들을 위한 섬김과 군민들의 문화원을 통한 문화의식 제고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황리에 잘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 부록 2 | 일제강점기 황성출신 징용자 명부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동 원 지	명 부 명
1	고 모 수	강원도횡성	1918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K44/49책
2	신 윤 하	강원도횡성	1920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S7/11책
3	가 상 익	강원도횡성	1909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K1/49책
4	가천성록	강원횡성군	1925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5	가천성록	강원도횡성	1925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재적)-경기도강원도
6	가천성록	강원도횡성	1925		군인·군속사물자명부
7	가천성옥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 군계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계1특설근무대(2))
8	간 석 린	강원도횡성	1907	일본북강현삼정삼지 광업소만전노무사무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내량현북강현1/2)
9	강 계 남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	강 대 근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1	강 대 만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	강 대 무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	강 대 악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	강 대 진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	강 대 형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	강 대 호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	강 명 학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	강 복 남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	강본경래	강원도횡성	1927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20	강본병록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 군경정사관구보병제2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경정사관구보병제1,2보충대)
21	강본상택	강원도횡성	1925	조선남선제17방면 군인천조병창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 군인천조병창(1))
22	강본석룡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3	강본양택	강원도횡성	1920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24	강본인수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5	강본정용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지나과건 군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유수명부(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26	강본진섭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제58군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제58군예하 제96,111,121사단독혼제108여단)
27	강본춘실	강원횡성군	1916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8	강본춘실	강원도횡성	1916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구일본해군 제적)-경기도강원도
29	강본춘실	강원도횡성	1916		군인·군속사물자명부
30	강 봉 형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31	강산선규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허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32	강 석 수	강원도횡성	1928	일본구주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33	강 성 섭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34	강 소 현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35	강 수 명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36	강 순 친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37	강 시 영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38	강 영 복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39	강 영 옥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0	강원덕삼랑	강원도횡성	1921	보병제74연대제6중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41	강원덕삼랑	강원도횡성	1922	중국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유수명부(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42	강원수철	강원도횡성	1924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43	강원재준	강원횡성군	1926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44	강 윤 문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5	강 윤 태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6	강 인 손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7	강 정 록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8	강촌남문	강원도횡성	1925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49	강 춘 실	강원횡성군	1916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50	강 춘 영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1	강 충 근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2	강 해 원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53	강 현 상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4	강 흥 춘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55	경산규창	강원도횡성	1923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56	경산규창	강원도횡성	1923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57	경산정일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58	경 석 구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9	계산삼갑	강원도횡성	1914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60	계산삼갑	강원도횡성	1914	남양나울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61	계 완 중	강원도횡성	1912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62	고 간 원	강원도횡성	1924	남양선박선박군남방	유수명부 (선박선박군-남방비도비루마)
63	고 간 원	강원도횡성	1924	남양선박선박군남방	유수명부 (선박선박군-남방비도비루마)
64	고 간 원	강원도횡성	1924	제3선사	육군운수부군속명부(타나)
65	고 경 주	강원도횡성	1918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K44/49책
66	고 금 록	강원도횡성	190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7	고 기 선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8	고 대 현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9	고도수만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70	고도영국	강원도횡성	1921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71	고 두 식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2	고 명 규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3	고목창하	강원도횡성	1923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74	고 범 수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5	고 병 규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6	고 복 만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7	고본낙훈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78	고본태문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복포제2기숙 사불이료(日本吳海軍工廠福 浦第2奇宿舎不二療)	구레(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79	고산동석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병고현삼릉 중공업주식회사신호조선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3/3)
80	고산병록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81	고산봉산	강원도횡성	1915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82	고산상순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83	고산윤석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84	고산이수	강원도횡성군	1924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인력원표
85	고산인석	강원도횡성군	1916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86	고 영 규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7	고 영 섭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8	고 영 식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9	고원용시	강원도횡성군	1913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90	고원용일	강원도횡성군	1913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91	고 인 규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2	고 종 대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3	고 증 록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4	고 지 영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5	고 창 하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6	고 천 복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7	고 천 쇠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8	고 춘 봉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9	고 태 문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0	고향홍배	강원도횡성	1922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01	곡원명식	강원도횡성군	1928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인력원표
102	곡원복이	강원도횡성	1919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03	공 기 영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4	공산지진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05	공 선 석	강원도횡성	1917	일본복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6	공전영성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07	공전정옥	강원도횡성	1921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08	곽 정 현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9	곽 종 달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10	곽 종 덕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11	곽 창 근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12	광금근중	강원도횡성	1910	조선북선제17방면군 평양육군병기보급창	유수명부(북선제17방면군평양육군병 기보급창제12야전보충마창조선군관 구교육대)
113	광리원조	강원도횡성	1918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14	광산상용	강원도횡성	1912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15	광산성틀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과건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과건군직할부대-중지)
116	광산성틀	강원도횡성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117	광산성틀	강원도횡성		보병제77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118	광산성을	강원도횡성		중국호북성(湖北省)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119	광원북양	강원도횡성	1929	조선선제5항공군(북선)	유수명부(선제5항공군북선)
120	광원봉양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58사단직할부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58군직할부대)
121	광원시양	강원도횡성	1916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22	광원정주	강원도횡성	1926	호복환	군속선원명표(전26책)No11
123	광원정주	강원도횡성	1926	북도방면(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124	광원정주	강원도횡성	1926		구일본육·해군징용선사망자명부
125	광원정주	강원도횡성			군인·군속사몰자명부 (오,북강북원부)
126	광전충선	강원도횡성	1924	중국관동군직할근무대	유수명부 (관동군관동군직할근무대축성대)
127	광춘광록	강원도횡성	1901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28	광춘근재	강원도횡성	1927	조선남선제17방면군 조선육군화물창창고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조선육군화물창)
129	광춘영장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30	교하성지	강원도횡성	1916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31	구 상 복	강원도횡성	190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2	국본건무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33	국본관선	강원횡성군	1923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34	국본관선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복포제2기숙 사불이료(日本吳海軍工廠福 浦第2奇宿舎不二療)	구래(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135	국본광시	강원횡성군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36	국본광시	강원도횡성		일본신구현(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37	국본광연	강원횡성군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38	국본귀룡	강원횡성군	1915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39	국본동교	강원도횡성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40	국본병학	강원횡성군	1895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41	국본사문	강원도횡성	1926	남양비도제14방면군 직할제19사단	유수명부 (비도제14방면군직할제19사단)
142	국본삼남	강원도횡성	1921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43	국본상혁	강원횡성군	1928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144	국본성래	강원도횡성	1919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45	국본승록	강원도횡성	1913	일본병고현일야제강 주식회사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3/3)
146	국본승무	강원도횡성		남양필리핀민다나오섬 (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147	국본승반	강원도횡성	1919	일본복강현보주산광업주식 회사보주산탄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복강현2/2)
148	국본승반	강원도횡성	1919	일본복강현보주산광업주식 회사보주산탄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복강현2/2)
149	국본시영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50	국본업기	강원도횡성	1906	일본복강현상반탄광	일제하피징용자명부(3)
151	국본영룡	강원도횡성	1921	일본좌하현암곡탄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좌하현1/2)
152	국본영운	강원도횡성	1924	조선함흥제74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53	국본영운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파견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파견군직할부대-중지)
154	국본원달	강원도횡성	1920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55	국본육환	강원횡성군	1912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56	국본응달	강원횡성군	1920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57	국본응달	강원도횡성	1920		군인·군속사물자명부
158	국본장순	강원도횡성	1915	일본공성현삼릉 광업주식회사세창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암수현공성현)
159	국본종태	강원도횡성	1917	중국관동군직할근무대	유수명부 (관동군관동군직할근무대축성대)
160	국본철재	강원도횡성	1919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161	국본대무	강원도횡성		남양비도제35군	유수명부 (비도제14방면군직사단제35,41군)
162	궁본병석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산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산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63	궁본병운	강원도횡성	1913	중국관동군군사령부및 교육대	유수명부(관동군군사령부병교육대)
164	궁본해기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165	궁성대수	강원횡성군	1924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166	궁장순문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정기료 (日本吳海軍工廠正氣療)	구레(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167	권 구 성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8	권 기 봉	강원도횡성	190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9	권 기 봉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0	권 낙 주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1	권 대 수	강원도횡성	1913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172	권 덕 수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3	권 두 원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4	권 백 용	강원도횡성	190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5	권 삼 봉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6	권 수 만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7	권 수 봉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78	권 순 칠	강원도횡성	1918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179	권 양 원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0	권 양 중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81	권 오 봉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2	권 오 연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3	권 오 익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4	권 오 현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5	권 오 형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6	권 용 석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7	권 용 식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8	권 이 석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9	권 인 수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0	권전돈귀	강원도횡성	1916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191	권 정 식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2	권 태 룡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3	권 태 현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4	권 학 봉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5	금강석근	강원도횡성	1922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96	금강송충	강원도횡성	1923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197	금강인기	강원횡성군	1918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98	금강정수	강원도횡성	1919	중국지나지나과건군제6방면 제20군예하부대(중지)	유수명부(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제20군예하부대중지)
199	금강정수	강원도횡성	1919	보병제79연대보충대제3기관 총중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200	금강현주	강원도횡성	1919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50사단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20,150사단)
201	금곡남영	강원횡성군		일본황수하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02	금곡병연	강원도횡성	1915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203	금곡봉기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204	금곡수업	강원횡성군	1921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05	금곡영주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06	금곡장배	강원도횡성군	1916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07	금곡장배	강원도횡성	1916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208	금곡장배	강원도횡성	1916		군인·군속사몰자명부
209	금곡주술	강원도횡성군	1908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10	금곡주학	강원도횡성	1921	일본병고현전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11	금곡창시	강원도횡성군	1909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12	금관오복	강원도횡성	1924	중국선박선박군(중국대만)	유수명부(선박선박군-중국대만)
213	금관오복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북지방면군 직할야전근무대	유수명부(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214	금관오복	강원도횡성	1924	치중병제20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215	금관오복	강원도횡성	1924	중국하남성(河南省)	조선인육군군인조사(3)충청남도, 충청북도,강원도
216	금광광수	강원도횡성	1924	중국선박선박군(중국대만)	유수명부(선박선박군-중국대만)
217	금광광수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북지방면군직할 야전근무대	유수명부(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218	금광광수	강원도횡성	1924	치중병제20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219	금광광수	강원도횡성	1924	중국하남성(河南省)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충청북도,강원도
220	금광도수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21	금광봉수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복포제2기숙 사불이료(日本吳海軍工廠福 浦第2奇宿舎不二療)	구레(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222	금광영우	강원도횡성군	1924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223	금광영우	강원도횡성	1922	일본병고현전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24	금광영철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225	금광용헌	강원도횡성군	1924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226	금궁명현	강원도횡성	1928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227	금궁인태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28	금본창순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29	금본갑균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30	금본경태	강원도횡성	1922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31	금본광웅	강원도횡성	1922	남양남방남방군조왜부로 수용소	유수명부 (남방남방군마래조와부로수용소)
232	금본광정	강원횡성군	1909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33	금본광정	강원도횡성	1909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재적)-경기도강원도
234	금본광정	강원도횡성	18xx		군인·군속사불자명부
235	금본기석	강원횡성군	1924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236	금본달수	강원도횡성	1916	일본삼중현석원산업주식회사 기주광산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삼중현지하현대관부)
237	금본달환	강원도횡성	1924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38	금본대경	강원도횡성	1924	중국관동군직할근무대	유수명부 (관동군관동군직할근무대축성대)
239	금본동섭	강원도횡성	1930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240	금본동의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41	금본만수	강원도횡성	1923	중국관동군직할근무대	유수명부 (관동군관동군직할근무대축성대)
242	금본명수	강원횡성군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43	금본명수	강원도횡성		일본산구현(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재적)-경기도강원도
244	금본수명	강원도횡성	1916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45	금본영취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46	금본완수	강원도횡성	1922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47	금본용철	강원횡성군	1919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48	금본정수	강원도횡성	1919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49	금본중문	강원횡성군	1923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50	금본진동	강원도횡성군	1922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51	금본진범	강원도횡성	1919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52	금본춘식	강원도횡성	1927	일본북강현동해강업주식회사 약송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북강현2/2)
253	금본해수	강원도횡성군	1916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54	금산갑순	강원도횡성군	1925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255	금산기남	강원도횡성군	1905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56	금산남성	강원도횡성	1926	조선복선제79사단사령부	유수명부(복선제79사단사령부)
257	금산남재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 군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58	금산남철	강원도횡성	1924	중국선박선박군(중국대만)	유수명부(선박선박군-중국대만)
259	금산남철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북지방면군 직할야전근무대	유수명부(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260	금산남철	강원도횡성	1924	치중병제20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261	금산남철	강원도횡성	1924	중국하남성(河南省)	조선인육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262	금산달수	강원도횡성	1923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사령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사령부)
263	금산삼반	강원도횡성	1921	일본북강현상반탄광	일제하괴징용자명부(3)
264	금산상민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265	금산순봉	강원도횡성	1914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66	금산신출	강원도횡성군	1911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67	금산영도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68	금산용제	강원도횡성	1923	일본좌하현암곡탄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좌하현1/2)
269	금산인재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270	금산재문	강원도횡성	1919	일본삼중현석원산업주식회사 기주광산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삼중현자하현대관부)
271	금산중무	강원도횡성	1918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72	금산학수	강원도횡성군	1921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73	금산학수	강원도횡성	1921	남양페리류섬(사망지)	괴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분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274	금산학수	강원도횡성	1921		군인·군속사몰자명부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75	금성교원	강원도횡성	1922	일본병고현삼통생야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2/3)
276	금성기관	강원도횡성	1929	중국지나과건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과건군직할부대-중지)
277	금성기봉	강원도횡성	1923	중국관동군제1방면 군134사단	유수명부(관동군제1방면군직할부대 제122,134사단)
278	금성기승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유수명부(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279	금성길옥	강원횡성군	1918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80	금성길옥	강원도횡성	1918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281	금성길옥	강원도횡성	1918		군인·군속사몰자명부
282	금성달수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283	금성동식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284	금성동운	강원도횡성	1924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종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85	금성만복	강원횡성군	1907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86	금성백룡	강원횡성군	1904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87	금성성운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 군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288	금성순영	강원횡성군	1912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89	금성영복	강원횡성군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90	금성용순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91	금성우열	강원횡성군	1910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92	금성옥의	강원도횡성	1924	중국하북성(河北省)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293	금성옥재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유수명부(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294	금성옥재	강원도횡성	1924	야포병제26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295	금성원제	강원횡성군	1908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96	금성용수	강원횡성군	1915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97	금성점복	강원횡성군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98	금성주천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299	금성창근	강원도횡성	1920	일본장기현길원광업소 대지좌단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300	금성창석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301	금성홍렬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302	금성홍렬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303	금 압 운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304	금원선재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305	금원응철	강원횡성군	1914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306	금원현대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과건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과건군직할부대-중지)
307	금전기빈	강원횡성군	1911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308	금전성배	강원도횡성	1926	남양제4항공군(비도)	유수명부(선제3항공군-남서제4항공 군-비도제6비행사단-호북제31군-중 부대평양제32군-충승)
309	금전영배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310	금전일	강원도횡성	1915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311	금전임돌	강원횡성군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312	금전임돌	강원도횡성		일본산구현(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313	금전임봉	강원횡성군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314	금전진구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315	금전진귀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316	금전창녕	강원도횡성	1924	남양남방남방군제8방면군 제20사단	유수명부 (남방남방군제8방면군제20사단)
317	금전창녕	강원도횡성	1924	중국대만방면(나진환) (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318	금전창녕	강원도횡성			군인·군속시몰자명부 (오,복강복원부)
319	금전창직	강원횡성군	1920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320	금전창환	강원도횡성	1920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321	금전창환	강원도횡성	1920		군인·군속시몰자명부
322	금전태환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323	금전행언	강원횡성군	1916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324	금전홍배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325	금천기만	강원도횡성	1920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326	금천대복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복포제2기숙 사불이료(日本吳海軍工廠福 浦第2奇宿舎不二療)	구래(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327	금천대홍	강원도횡성	1900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328	금천맹학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329	금천문계	강원도횡성			군인·군속사물자명부 (오,북강복원부)
330	금천순복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331	금천용석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정기료 (日本吳海軍工廠正氣療)	구래(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332	금천익승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333	금천장록	강원도횡성	1923	일본내지제15방면군(중부)	유수명부(내지제13방면군-동해제15 방면군-중부)
334	금천장록	강원도횡성	1923	보병제8연대보충대제8중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335	금천장록	강원도횡성	1923	일본대판(大阪)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충청북도,강원도
336	금천종건	강원도횡성	1923	마래부로우수소제3분소 제1본건소유수담임부대 동부군사령부	병상일지6/30책
337	금천종건	강원도횡성		남양남방남방군 마래부로우수소	유수명부 (남방남방군마래조와부로우수소)
338	금천태동	강원도횡성군	1915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339	금천한수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340	금청경연	강원도횡성군	1928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341	금촌x경	강원도횡성	1920		군인·군속사물자명부
342	금촌남국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343	금촌동련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344	금촌동식	강원도횡성	1916	남양면전대부로우수소	유수명부(면전대부로우수소)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345	금촌만봉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346	금촌문성	강원도횡성	1921	일본좌하현암곡탄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좌하현1/2)
347	금촌상권	강원도횡성군	1925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348	금촌상희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349	금촌승기	강원도횡성		중국지나과건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과건군직할부대-중지)
350	금촌연교 (金村演教)	강원도횡성	1902	일본북해도미패탄갱 (日本北海道美唄炭坑)	비바이(미패)탄갱사망자명부(북해도)
351	금촌영식	강원도횡성군	1927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352	금촌옥봉	강원도횡성		일본제5방면군북방(천도)	유수명부(북방제5방면군)
353	금촌옥봉	강원도횡성		소련북간도아피강도북방약 50천(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354	금촌인경	강원도횡성군	1920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355	금촌정웅	강원도횡성	1928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356	금촌종환	강원도횡성	1916	일본좌하현저도군 대정정저도탄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좌하현2/2)
357	금촌주호	강원도횡성	1921	남양선제3항공군(남서)	유수명부(선제3항공군-남서제4항공 군-비도제6비행사단-호북제31군-중 부대평양제32군-충승)
358	금촌주호	강원도횡성	1921	남양자바섬자카르타 조선인민회근무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359	금촌주호	강원도횡성	1921	남양자카르타(ジカルタ)	조선인육군인조사(3) 충청남도,충청북도,강원도
360	금촌철동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361	금촌학순	강원도횡성군	1923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362	금촌학순	강원도횡성	1923	소련북천도근해(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363	금촌한향	강원도횡성	1921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364	금촌현돌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365	금촌형경	강원도횡성	1919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K22/49책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366	금촌형경	강원도횡성	1920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367	금촌형옥	강원도횡성	1928	조선선제2항공군	유수명부(선제2항공군)
368	금택경죽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369	금택경칙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370	금택광동	강원횡성군	1917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371	금택남규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372	금택대근	강원횡성군	1924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373	금택방한	강원도횡성	1911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374	금택병기	강원횡성군	1920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375	금택병기	강원도횡성	1920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376	금택병기	강원도횡성	1920		군인·군속사물자명부
377	금택성보	강원도횡성	1923	남양면전태부루수용소	유수명부(면전태부루수용소)
378	금택순복	강원도횡성	1915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379	금택준경	강원도횡성		보병제41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380	금택준향	강원도횡성		중국지나파견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파견군직할부대-중지)
381	금택진옥	강원도횡성	1926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382	금택진원	강원도횡성	1915	일본공성현삼릉광업주식회사 세창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암수현공성현)
383	금택학래	강원횡성군	1923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384	금택학래	강원횡성군	1923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385	금택학래	강원도횡성	1923	남양루손섬북부(사망지)	피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386	금허준수	강원도횡성	1924	중국선박선박군(중국대만)	유수명부(선박선박군-중국대만)
387	금허준수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북지방면군 직할야전근무대	유수명부(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388	금허준수	강원도횡성	1924	치중병제20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389	금허준수	강원도횡성	1924	중국하남성(河南省)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390	금해국부	강원도횡성	1912	일본도근현도무광산	쓰모(도무)광산의연행자명부(도근현) 강제노동회강광산사망자명부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391	금해국부	강원도횡성	1912	일본도근현도무광산	쓰모(도무)광산의연행자명부(도근현) 강제노동화강광산시망자명부
392	금해금철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393	금해무웅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394	금해병성	강원도횡성	1920	중국관동군직할보급감부	유수명부(관동군관동군직할보급감부 육군병원)
395	금해상준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복포제2기속 사불이료(日本吳海軍工廠 浦第2奇宿舎不二療)	구레(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396	금해영규	강원도횡성	1923	조선남선제17방면군조선 육군화물창창고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조선육군화물창)
397	금해정수	강원도횡성	1929	조선남선제17방면군조선 육군화물창창고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조선육군화물창)
398	금해종열	강원횡성군	1914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속신상조사표
399	금해종환	강원도횡성	1924	조선북선제17방면군 직할부대	유수명부(북선제17방면군직할부대)
400	금해천봉	강원도횡성	1921	조선남선제17방면군 고사포제152연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고사포 제151,152연대)
401	금해한봉	강원횡성군	1906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속신상조사표
402	기산필우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403	기천용범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404	길본향구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405	길산병섭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406	길 용 희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07	길전정일	강원횡성군	1922	일본오진수부	구해군속신상조사표
408	길전종옥	강원도횡성	1924	중국관동군제4군제119사단	유수명부(관동군제4군제119,123,149 사단독혼제80,135,136여단)
409	길전치일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복포제2기속 사불이료(日本吳海軍工廠 浦第2奇宿舎不二療)	구레(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410	길천병훈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파견군제6방면군 제11군예하부대(중지)	유수명부(지나지나파견군 제6방면군제11군예하부대중지)
411	길천병훈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지나파견군제6방면 군직할부대(중지)	유수명부(지나지나파견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412	길천병훈	강원도횡성	1924	보병제79연대보충대 보병포중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413	길천희수	강원도횡성	1923	일본좌하현암곡탄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좌하현1/2)
414	길촌기성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과건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과건군직할부대-중지)
415	길촌기성	강원도횡성	1924	조선제42부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416	길촌기성	강원도횡성	1924	중국강소성(江蘇省)	조선인육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417	길 호 순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18	김 갑 구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19	김 갑 성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420	김 갑 성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21	김 갑 중	강원도횡성	190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22	김 건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23	김 건 수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24	김 경 연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25	김 경 태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26	김 공 렬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427	김 광 옥	강원도횡성	190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28	김 광 진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29	김 광 진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30	김 광 천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31	김 교 석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32	김 교 옥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33	김 교 진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34	김 구 복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35	김 귀 돌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36	김 규 복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37	김 규 채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38	김 규 훈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39	김 근 성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40	김 근 수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41	김 금 복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42	김 금 성	강원도횡성	190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443	김 금 철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44	김 기 남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45	김 기 봉	강원도횡성	189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46	김 기 원	강원도횡성	189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47	김 기 인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48	김 길 동	강원도횡성	190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49	김 길 록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50	김 길 옥	강원횡성군	1918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451	김 남 국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52	김 남 진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53	김 남 하	강원도횡성	190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54	김 달 삼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55	김 대 복	강원도횡성	1909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456	김 대 쇠	강원도횡성	1909	일본복강현입산탄광	일제하피징용자명부(3)
457	김 대 연	강원도횡성	1920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458	김 대 원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59	김 대 원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60	김 덕 기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61	김 도 경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62	김 독 룰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63	김 동 규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64	김 동 근	강원횡성군	1928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465	김 동 선	강원도횡성	1919	일본추전현삼릉미거택 광산주식회사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추전현)
466	김 동 수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67	김 동 운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68	김 동 익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69	김 두 갑	강원도횡성	1914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470	김 만 덕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71	김 만 록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72	김 만 복	강원도횡성	190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주 소 지	명 부 명
473	김 만 복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74	김 만 수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75	김 만 수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76	김 만 수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77	김 만 식	강원도횡성	1920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478	김 만 일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79	김 만 진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80	김 만 춘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81	김 만 출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82	김 명 남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83	김 명 섭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84	김 명 진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85	김 문 향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86	김 백 인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87	김 범 룡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88	김 범 석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89	김 범 수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90	김 병 문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91	김 병 봉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92	김 병 연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93	김 병 윤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94	김 병 호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95	김 복 경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96	김 복 기	강원도횡성	1924	남양군도	왜정시피징용자명부(경기도)
497	김 복 남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98	김 복 록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499	김 복 만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00	김 봉 근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01	김 봉 기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02	김 봉 세	강원도횡성	190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03	김 봉 수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04	김 봉 춘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05	김 사 복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506	김 삼 복	강원도횡성	190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07	김 상 권	강원도횡성	192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08	김 상 렬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09	김 상 렬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산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산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510	김 상 복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11	김 상 봉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12	김 상 윤	강원도횡성	192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13	김 상 종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14	김 상 준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15	김 상 철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16	김 상 훈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17	김 석 창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18	김 선 규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19	김 선 영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20	김 선 제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21	김 성 극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22	김 성 렬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23	김 성 록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24	김 성 록	강원도횡성	1923	조선남산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산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525	김 성 한	강원도횡성			태평양전쟁한국인전몰자유골명부
526	김 성 현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27	김 세 녕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28	김 수 복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29	김 수 복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30	김 수 산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31	김 수 업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32	김 수 호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33	김 순 경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34	김 순 구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35	김 순 배	강원도횡성	190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36	김 순 복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37	김 순 복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주 소 지	명 부 명
538	김 순 석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39	김 순 용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40	김 순 창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41	김 순 팔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42	김 술 쇠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43	김 승 기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44	김 씨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45	김 압 이	강원도횡성	189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46	김 연 길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47	김 연 수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48	김 연 조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49	김 연 창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50	김 영 근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51	김 영 길	강원도횡성	189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52	김 영 민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53	김 영 섭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54	김 영 수	강원도횡성	1921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555	김 영 순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사령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 군경성사관구사령부)
556	김 영 식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57	김 영 원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58	김 영 종	강원도횡성	1911	일본북해도탄광기선주식회사 평화광업소평화광	소위조선인징용자등에관한명부(2)
559	김 영 주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60	김 영 진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61	김 영 천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62	김 영 철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63	김 영 철	강원도횡성	1926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564	김 영 택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65	김 영 환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66	김 영 환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67	김 오 성	강원도횡성	1918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568	김 완 규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69	김 완 수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70	김 용 기	강원도횡성	1925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K40/49책
571	김 용 득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72	김 용 만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73	김 용 석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74	김 용 수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75	김 용 준	강원도횡성	1910	조선강원목호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76	김 용 진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77	김 용 학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78	김 운 태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79	김 원 녕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80	김 원 제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81	김 윤 기	강원도횡성	1914	남양군도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82	김 윤 옥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83	김 은 중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84	김 응 성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85	김 응 화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86	김 인 수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87	김 인 영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88	김 인 향	강원도횡성	190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89	김 일 수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90	김 입 택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91	김 장 길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92	김 장 배	강원횡성군	1916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593	김 장 배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94	김 장 배	강원도횡성	1920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K11/49책
595	김 재 관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96	김 재 문	강원횡성군	1924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597	김 재 문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598	김 재 복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599	김 재 봉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00	김 재 봉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경상북도3)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아 원 지	명 부 명
601	김 재 석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02	김 재 술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03	김 재 호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04	김 점 석	강원도횡성	190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05	김 정 수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06	김 정 순	강원도횡성	190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07	김 정 식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08	김 정 완	강원도횡성	190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09	김 정 현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10	김 종 건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11	김 종 권	강원도횡성	190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12	김 종 대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13	김 종 대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14	김 종 렬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15	김 종 만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16	김 종 만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17	김 종 명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18	김 종 무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19	김 종 문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20	김 종 백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21	김 종 병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22	김 종 석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23	김 종 성 金鍾聲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서울특별시)
624	김 종 식	강원도횡성	190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25	김 종 식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26	김 종 옥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27	김 종 온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28	김 종 원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29	김 종 윤	강원도횡성		일본복강현상반탄광	일제하피징용자명부(3)
630	김 종 일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31	김 종 진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32	김 종 철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33	김 종 철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634	김 종 철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35	김 종 태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36	김 종 학	강원도횡성군	1920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637	김 종 화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38	김 주 경	강원도횡성	189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39	김 준 범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40	김 준 원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41	김 중 경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42	김 중 득	강원도횡성	190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43	김 진 갑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44	김 진 복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45	김 진 석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46	김 진 석	강원도횡성	1900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647	김 진 성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48	김 진 안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49	김 진 옥	강원도횡성	192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50	김 진 옥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51	김 진 우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52	김 진 익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53	김 진 태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54	김 진 태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55	김 진 태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56	김 진 효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57	김 찬 경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58	김 찬 태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59	김 창 녕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60	김 창 녕	강원도횡성			태평양전쟁한국인전몰자유골명부
661	김 창 녕	강원도횡성			태평양전쟁희생자명부
662	김 창 렬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63	김 창 록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64	김 창 룡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65	김 창 식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66	김 창 재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동 원 지	명 부 명
667	김 창 제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68	김 창 직	강원횡성군	1920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669	김 창 현	강원도횡성	1926	일본좌하현암곡단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좌하현1/2)
670	김 창 환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71	김 창 환	강원도횡성	1923	일본구주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72	김 천 근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73	김 천 만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74	김 천 수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75	김 천 식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76	김 철 용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77	김 춘 경	강원도횡성	189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78	김 춘 산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79	김 충 근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80	김 치 국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81	김 치 규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82	김 칠 룡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83	김 타 관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84	김 태 동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85	김 태 복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86	김 태 복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687	김 태 산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88	김 태 석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89	김 태 수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90	김 태 수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91	김 태 식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92	김 태 운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93	김 태 인	강원도횡성	1919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694	김 태 호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95	김 평 동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96	김 필 준	강원도횡성	190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697	김 학 돌	강원도횡성	189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698	김 학 수	강원횡성군	1921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699	김 학 수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00	김 학 순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01	김 학 철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02	김 학 철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03	김 한 경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04	김 해 석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05	김 해 수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06	김 행 언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07	김 현 남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08	김 현 철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09	김 형 경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10	김 형 경	강원도횡성	1919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K22/49책
711	김 형 달	강원도횡성			자유한인보7호
712	김 형 수	강원도횡성	1905	조선화천발전소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13	김 호 봉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14	김 홍 근	강원도횡성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715	김 홍 래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16	김 홍 섭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17	김 황 렬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18	김 홍 수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19	나정광택	강원도횡성	1926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720	남 가 렬	강원횡성군	1921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721	남 가 열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22	남 경 호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23	남관건민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유수명부(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724	남 광 우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25	남 궁 환	강원횡성군	1922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726	남 기 창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27	남 기 춘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28	남병행길	강원횡성군	1903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729	남 봉 학	강원도횡성	190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30	남부기룡	강원횡성군	1927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인력원표
731	남 상 호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32	남 성 수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33	남성원표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734	남 세 우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35	남 수 복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36	남양영갑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737	남원성현	강원도횡성	1916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738	남원재만	강원도횡성		중국지나파견군 직할부대(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파견군 직할부대-중지)
739	남 윤 우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40	남 이 섭	강원도횡성	189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41	남 차 경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 군직할부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직할부대)
742	남 창 호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43	남천순성	강원도횡성	1921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744	남평수구	강원도횡성	1916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745	남 해 수	강원도횡성	189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46	노산인섭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747	노 상 명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48	노 순 봉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49	단촌원재	강원도횡성	1924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750	달성광동	강원횡성군	1923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751	달성광훈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정기료 (日本吳海軍工廠正氣療)	구래(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752	대산명칠	강원도횡성	1911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753	대산삼석	강원횡성군	1919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754	대서구용	강원횡성군	1912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755	대서한택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756	대성옥현	강원횡성군	1925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757	대천백여	강원도횡성		남양남방남방군 제8방면군제20사단	유수명부 (남방남방군제8방면군제20사단)
758	대천백여	강원도횡성		남양남방남방군 제8방면군제20사단	유수명부 (남방남방군제8방면군제20사단)
759	대천수길	강원도횡성	1917	조선남선제17방면 군인천조병창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인천조병창(1))
760	덕금태호	강원횡성군	1912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761	덕산만준	강원도횡성	1916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762	덕산사렬	강원횡성군	1923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763	덕산사렬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복포제2기속 사불이료(日本吳海軍工廠福 浦第2奇宿舍不二療)	구래(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764	덕산순옥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765	덕산순철	강원횡성군	1923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766	덕산순철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복포제2기속 사불이료(日本吳海軍工廠福 浦第2奇宿舍不二療)	구래(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767	덕산중문	강원도횡성	1920	일본좌하현암곡탄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좌하현1/2)
768	덕천은동	강원횡성군	1925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769	덕택명수	강원횡성군	1921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770	덕택명영	강원횡성군	1921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771	덕택명영	강원도횡성	1921	남양루손섬마닐라동방산중 (사망지)	피징용사망지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772	덕택정수	강원도횡성			군인·군속사물자명부 (오,복강북원부)
773	도 병 준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74	도 수 만	강원횡성군	1916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775	도 수 만	강원도횡성	1916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지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776	도 수 만	강원도횡성	1916		군인·군속사물자명부
777	도 한 준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778	동본오봉	강원도횡성	1917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779	동부기호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직할부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직할부대)
780	동부혁두	강원도횡성	1921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781	동순대	강원도횡성	190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82	동아순옥	강원도횡성	1923	조선선제2항공군	유수명부(선제2항공군)
783	동원문빈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784	동 칠 룡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85	등전호발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공병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 포공동신치중병보충대병사부지구사 령부육군병원)
786	등전호발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320사단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제330사단)
787	마 광 득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88	마 윤 섭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789	매원경두	강원도횡성	1927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790	매원경두	강원도횡성		일본제5방면군북방(천도)	유수명부(북방제5방면군)
791	매원경두	강원도횡성		소련북간도아뢰강도북방약 50천(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792	매원원길	강원도횡성	1921		군인·군속사물자명부
793	매원윤길	강원도횡성	1921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794	매원윤길	강원도횡성	1921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795	매원학두	강원도횡성	1921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796	매원학두	강원도횡성	1921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797	매원학두	강원도횡성	1923		군인·군속사물자명부
798	매전달호	강원도횡성	1928	조선선제2항공군	유수명부(선제2항공군)
799	맹 영 재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00	맹 정 재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01	목산관식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802	목산귀남	강원도횡성	1923	치중병제20년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803	목산귀남	강원도횡성	1923	중국선박선박군(중국대만)	유수명부(선박선박군-중국대만)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804	목산귀남	강원도횡성	1923	중국지나북지방면군직할 야전근무대	유수명부(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805	목산귀남	강원도횡성	1923	중국하남성(河南省)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충청북도,강원도
806	목산명구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807	목촌검룡	강원도횡성	1907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808	목촌계빈	강원횡성군	1903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809	목촌광무	강원도횡성	1921	조선복선제3군훈성 제101연대	유수명부(복선제3군훈성 제101연대제34군예하부대)
810	목촌상령	강원도횡성	1921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811	목촌성록	강원도횡성	1919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812	목촌성순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813	목촌승원	강원도횡성	1916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814	목촌영우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 군경성사관구사령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사령부)
815	목촌영일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 군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816	목촌원중	강원횡성군	1912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817	목촌장실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818	목촌춘영	강원도횡성	1924	조선복선나남사관구 보병제1보충대	유수명부(복선나남사관구사령부보병 제1보충대)
819	목촌춘영	강원도횡성	1924	조선복선나남사관구 보병제1보충대	유수명부(복선나남사관구사령부보병 제1보충대)
820	목촌향국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821	목호용무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822	무산귀남	강원도횡성		일본제5방면군복방(천도)	유수명부(복방제5방면군)
823	무산귀남	강원도횡성		동경1도북위47(사망지)	피징용사망지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824	무산지영	강원도횡성	1921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825	무산하식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826	문 관 식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27	문산간식	강원도횡성	1922	일본복강현상반탄광	일제하피징용자명부(3)
828	문산영식	강원도횡성	1915	일본복강현보주산광업주식 회사보주산탄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복강현2/2)
829	문산영식	강원도횡성	1915	일본복강현보주산광업주식 회사보주산탄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복강현2/2)
830	문산윤현	강원도횡성	1919	일본병고현일야제강주식회사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3/3)
831	문 석 구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우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832	문암관식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833	문 용 익	강원도횡성	1925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M4/4책
834	문 인 근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35	문 제 문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36	문천갑화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우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837	문천옹부	강원도횡성	1915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838	문천희부	강원도횡성	1919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839	문 태 식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40	문평성호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 직할부대(중지)	우수명부(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 직할부대중지)
841	민 강 호	강원도횡성	1921	조선경성	왜정시피징용자명부(서울특별시)
842	민 기 준	강원도횡성	190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43	민 두 식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44	민산구호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우수명부(남선제17방면 군제1특설근무대(2))
845	민산상오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50사단	우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20,150사단)
846	민 순 호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47	민 영 갑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48	민 정 호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49	민 철 호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850	민 치 승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51	민 흥 호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52	박 경 선	강원도횡성	1914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853	박 광 학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54	박 구 선 (박구비)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55	박 구 성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56	박 군 선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57	박 규 봉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58	박 금 룡	강원도횡성	190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59	박 기 남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60	박 기 년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61	박 기 동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62	박 기 룡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63	박 기 성	강원도횡성	189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64	박 기 순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65	박 기 천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66	박 도 원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67	박 만 재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68	박 만 태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69	박 명 천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70	박 백 봉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복강현	일제하피징용자명부(2)
871	박 병 팔	강원도횡성	1914	일본공성현삼릉광업주식회사 세창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암수현공성현)
872	박 복 만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73	박 복 만	강원도횡성		소련북간도아피강도북방약 50천(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874	박 봉 대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75	박 봉 래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76	박 봉 석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77	박 봉 선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78	박 봉 섭	강원도횡성	189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79	박 봉 학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주 원 지	명 부 명
880	박 상 봉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81	박 성 덕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82	박 성 호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83	박 수 봉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84	박 수 진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85	박 순 각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86	박 순 명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87	박 순 복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88	박 순 복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89	박 순 상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90	박 순 석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91	박 순 성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92	박 순 신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93	박 순 언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94	박 순 택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95	박 순 필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96	박 승 일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97	박 역 용	강원도횡성	189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98	박 영 남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899	박 영 옥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00	박 영 춘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01	박 완 실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02	박 용 빈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03	박 용 선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04	박 용 선	강원도횡성	1921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P13/14책
905	박 용 선	강원도횡성			자유한인보7호
906	박 용 성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07	박 용 이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08	박 원 섭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09	박 윤 수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10	박 윤 식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11	박 은 구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12	박 을 산	강원도횡성	190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913	박 응 준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14	박 응 진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15	박 인 식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16	박 인 식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17	박 인 진	강원도횡성	1915	일본복강현대일본건류공업 주식회사약송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복강현2/2)
918	박 종 관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19	박 종 만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20	박 종 명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21	박 종 식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22	박 종 태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23	박 종 현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24	박 증 필	강원도횡성	190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25	박 지 선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26	박 진 상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27	박 창 교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28	박 창 록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29	박 치 정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30	박 치 환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31	박 칠 선 (박칠비)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32	박 칠 성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33	박 태 준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34	박 학 선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35	박 학 성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36	박 해 양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37	박 행 옥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복강현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경기도)
938	박 현 철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39	박 희 덕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40	반 봉 근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41	방산영석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58사단직할부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58군직할부대)
942	방산희인	강원도횡성	1924	조선합흥제74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943	방산희인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과건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과건군직할부대-중지)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944	방성로수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945	배 봉 만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46	배 석 중	강원도횡성	189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47	배 석 춘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48	배 중 혁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49	백 승 복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50	백 승 복	강원도횡성	1925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P2/14책
951	백 승 복	강원도횡성			자유한인보7호
952	백원남식	강원횡성군	1910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953	백천남팔	강원도횡성	1920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종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954	백천승복	강원횡성군	1925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955	백천승복	강원도횡성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956	백천승복	강원도횡성	1925		군인·군속사물자명부
957	백천영준	강원도횡성	1926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958	백천인범	강원도횡성	1917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959	백천형국	강원횡성군	1909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960	번남현서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961	변 계 동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62	변 석 은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63	변 영 목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964	변 원 근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965	변 원 봉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66	변 이 춘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67	변 인 수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68	변 중 근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69	변 중 운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70	변 필 만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971	보분환기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파견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파견군직할부대-중지)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972	보본환기	강원도횡성	1924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973	보본환기	강원도횡성	1924	중국한구(漢口)	조선인육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974	복산순익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과건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과건군직할부대-중지)
975	복산순익	강원도횡성	1924	지나강서성강령현남동화기 공사병기숙사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976	복산순익	강원도횡성	1924	보병제77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977	복산순익	강원도횡성	1924	중국남경(南京)	조선인육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978	복산순택	강원도횡성군	1924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979	본정순홍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980	부영우길	강원도횡성	1920	일본내지제16방면군(서부) 예하	유수명부(내지제16방면군(서부)예하)
981	사송원	강원도횡성	1923		군인·군속사물자명부
982	산강석길	강원도횡성	1921	남양괴계로트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983	산강수길	강원도횡성군	1921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984	산강찬직	강원도횡성군	1900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985	산동병하	강원도횡성	1925	조선남선제17방면군경성사 관구보병제1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 보병제1,2보충대)
986	산본규복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987	산본균성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988	산본길명	강원도횡성	1924	남양선박산박군비도	유수명부 (선박선박군-남방비도비루마)
989	산본길명	강원도횡성	1926	오선사제1영안환	군속선원명표(전26책)№11
990	산본덕배	강원도횡성	1924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991	산본명순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992	산본상춘	강원도횡성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993	산본수덕	강원도횡성		소련북간도아뢰강도북방약 50천(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994	산본안옥	강원도횡성	1919	일본삼중현석원산업주식회사 기주광산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삼중현자하현대판부)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995	산본영의	강원도횡성	1924	공병제30연대보충대제1중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996	산본영의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파견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파견군직할부대-중지)
997	산본용문	강원도횡성	1921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998	산본인덕	강원도횡성	1918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999	산본인덕	강원도횡성	1918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000	산본인덕	강원도횡성	1918		군인·군속사물자명부
1001	산본정치랑	강원도횡성	1916	일본공성현삼릉광업주식회사 세창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삼수현공성현)
1002	산본종철	강원도횡성	1922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Y1/20책
1003	산본태영	강원도횡성	1921	일본병고현천기 중공업제철소증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004	산본태홍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005	산본현오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파견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파견군직할부대-중지)
1006	산본현오	강원도횡성	1924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1007	산본현오	강원도횡성	1924	중국강소성(江蘇省)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1008	산원운동	강원도횡성	1917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1009	산원중빈	강원도횡성		남양비도제14방면군 제35군제30사단	유수명부 (비도제14방면군제35군제30사단)
1010	산원중빈	강원도횡성		남양필리핀민다나오섬 (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1011	산전영범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012	산주성광	강원도횡성	1912	일본복강현상반탄광	일제하피징용자명부(3)
1013	산촌주성	강원도횡성	1925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1014	삼본봉학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015	삼산병대	강원도횡성	1922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016	삼산병대	강원도횡성	1922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017	삼산병대	강원도횡성	1922		군인·군속사물자명부
1018	삼산시용	강원도횡성	1925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S11/11책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019	삼정현봉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020	삼주병삼	강원도횡성	1924	조선제22부대편산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1021	삼주병삼	강원도횡성	1924	중국자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유수명부(자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1022	삼주병삼	강원도횡성	1921	중국자나과건군 직할부대사단(중지)	유수명부 (자나지나과건군직할부대사단-중지)
1023	삼주병삼	강원도횡성	1924	중국당도(當塗)	조선인유공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1024	삼주석중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025	삼주정구	강원도횡성		남양남방남방군마래부로 수용소	유수명부 (남방남방군마래조와부로수용소)
1026	삼주택구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027	상산만기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028	상원정손	강원횡성군	1906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029	상원정웅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58사단직할부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58군직할부대)
1030	상 천 돈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031	서 기 수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32	서 명 운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33	서 병 옥	강원도횡성	189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34	서 상 근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35	서 상 식	강원도횡성	192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36	서 운 석	강원도횡성	190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37	서원갑수	강원횡성군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038	서원갑수	강원도횡성		일본신구현(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039	서원경태	강원도횡성	1924	중국관동군제4군제119사단	유수명부(관동군제4군제119,123,149 사단독혼제80,135,136여단)
1040	서원덕상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041	서원두희	강원횡성군	1926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042	서원상기	강원도횡성	1925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043	서원한석	강원도횡성	1924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044	서 장 식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45	서 창 범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46	서천기수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1047	서천오봉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우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048	서춘귀봉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우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049	서 한 택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50	서 흥 석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51	석능씨동	강원횡성군	1926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인력원표
1052	석산재린	강원도횡성	1914	조선제5항공군(남선)	우수명부(선제5항공군남선)
1053	석전창영	강원도횡성	1923	제5농경근무대	우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054	석 철 석	강원횡성군	1909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055	석 철 석	강원도횡성	1909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056	석 철 석	강원도횡성	1910		군인·군속사물자명부
1057	선산규봉	강원도횡성	1898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1058	선성봉진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우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059	선전관석	강원도횡성	1902	조선우선주식회사한강환	군속선원명표(전26책)No11
1060	설 귀 선	강원도횡성	1919	일본복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61	설 순 화	강원도횡성	189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62	설 진 태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63	성 낙 선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64	성산만수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우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065	성산의선	강원도횡성	1921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H5/5책
1066	성야재식	강원도횡성	1909	일본복강현삼정삼지광업소 만전노무사무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내량현복강현1/2)
1067	성야진환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우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068	세림용선	강원횡성군	1920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069	세림용순	강원횡성군	1920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070	세림용순	강원도횡성	1920	남양페리류섭(사망지)	피징용사망자명부6/10 (구일본해군재적)-경기도강원도
1071	세림용순	강원도횡성	1920		군인·군속사물자명부
1072	세림좌호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보병제2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보병제1,2보충대)
1073	세림해수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1074	소림인춘	강원도횡성	1921	남양면전태부로우용소	유수명부(면전태부로우용소)
1075	소흥정홍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1076	손도환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77	손병규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78	손봉교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79	손사갑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80	손용만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81	손용석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82	손용성	강원도횡성	192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83	손용칠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84	손재덕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85	송강두영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086	송강성용	강원횡성군	1927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1087	송강홍륜	강원도횡성	1923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088	송곡수조	강원횡성군		일본좌세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089	송광혁규	강원도횡성	1920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1090	송궁조익	강원도횡성	1920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1091	송궁희호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092	송규현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93	송만준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094	송복룡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095	송본갑준	강원도횡성	1922	남양면전태부로수용소	유수명부(면전태부로수용소)
1096	송본관옥	강원횡성군	1912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097	송본관옥	강원도횡성	1912	남양투르크(도라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098	송본광원	강원도횡성		남양비도제14방면군 제35군제30사단	유수명부 (비도제14방면군제35군제30사단)
1099	송본광원	강원도횡성	1919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M2/4책
1100	송본기룡	강원횡성군	1914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101	송본기룡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장청기료 (日本吳海軍工廠正氣療)	구래(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1102	송본동선	강원도횡성	1923	일본내지제12방면군(동부)	유수명부(내지제12방면군-동부)
1103	송본무식	강원횡성군		일본횡수하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104	송본병선	강원도횡성	1923	조선남선제17방면군 광주사관구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광주사관구)
1105	송본봉성	강원도횡성	1911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1106	송본삼일	강원횡성군	1911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107	송본상우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108	송본영정	강원도횡성	1924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종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109	송본영환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사령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사령부)
1110	송본윤복	강원횡성군	1928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1111	송본을경	강원횡성군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112	송본응근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113	송본재원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114	송본제욱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115	송본홍환	강원도횡성	1912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1116	송산만철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117	송산무본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20사단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20,150사단)
1118	송산봉군	강원횡성군	1916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119	송산봉군	강원도횡성	1916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120	송산봉군	강원도횡성	1916		군인·군속사몰자명부
1121	송산봉문	강원도횡성	1921	남양면전태부로수용소	유수명부(면전태부로수용소)
1122	송산순친	강원도횡성		남양남방남방군제8방면군 제20사단	유수명부 (남방남방군제8방면군제20사단)
1123	송산순친	강원도횡성		남양인도네시아환선령 (사망지)	피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1124	송산영복	강원도횡성		남양면전태부로수용소	유수명부(면전태부로수용소)
1125	송산영복	강원도횡성	1924	남양면전면전제18방면군(태)	유수명부(면전면전제18방면군(태))
1126	송산영복	강원도횡성	1924	독립보병제1606부대제3중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1127	송산영복	강원도횡성	1924	남양프라차프키리칸토 (ブラチャップキリカント)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1128	송산영진	강원도횡성	1924	중국관동군직할근무대	유수명부 (관동군관동군직할근무대축성대)
1129	송산인선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130	송산일랑	강원도횡성	1923	일본공성현공성군주식회사 노동조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암수현공성현)
1131	송산재룡	강원도횡성	1920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1132	송산한중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133	송암경우	강원횡성군	1919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134	송암경우	강원도횡성	1919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135	송암순형	강원도횡성	1923	남양남방남방군제8방면군 제20사단	유수명부 (남방남방군제8방면군제20사단)
1136	송암순형	강원도횡성	1923	남양인도네시아뉴기니아 (사망지)	피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1137	송암용우	강원도횡성	1924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138	송암유순	강원도횡성	1921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139	송암재여	강원횡성군	1908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140	송암종국	강원도횡성	1924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141	송암준우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사령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사령부)
1142	송암청우	강원도횡성	1923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143	송암청우	강원도횡성	1923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144	송암청우	강원도횡성	1923		군인·군속사물자명부
1145	송암홍기	강원도횡성	1925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보병제1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보병제1,2보충대)
1146	송 약 경	강원도횡성	1916		군인·군속사물자명부
1147	송 영 규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148	송 오 성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149	송원경자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조선육군화물창창고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조선육군화물창)
1150	송원광추	강원도횡성	1921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151	송원만억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사령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사령부)
1152	송원성규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153	송원수부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154	송원영호	강원도횡성	1927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1155	송원재호	강원도횡성	1920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156	송원재호	강원도횡성	1920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157	송원재호	강원도횡성	1920	소두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158	송원제형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159	송원창복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160	송원청우	강원도횡성	1923		군인·군속사물자명부
1161	송원태현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162	송원현문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163	송 익 선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164	송 인 규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165	송 인 식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166	송자규현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167	송전국평	강원횡성군	1915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168	송전덕준	강원도횡성		남양제4항공군(비도)	유수명부(선제3항공군-남제4항공군-비도제6비행사단-호북제31군-중부태평양제32군-충승)
1169	송전무영	강원횡성군	1918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170	송전무영	강원도횡성	1918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171	송전성영	강원도횡성	1918		군인·군속사물자명부
1172	송전수석	강원도횡성	1922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축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173	송전영수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174	송전주문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175	송천영기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176	송천춘식	강원도횡성	1914	남양면전태부로우용소	유수명부(면전태부로우용소)
1177	송춘만달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178	송춘성화	강원도횡성	1928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1179	송춘양선	강원도횡성	1921	남양비도제14방면군 직할제19사단	유수명부 (비도제14방면군직할제19사단)
1180	송춘양선	강원도횡성	1921	중국대만제10방면군	유수명부(대만제10방면군)
1181	송춘하운	강원도횡성		남양남방남방군 제8방면군제20사단	유수명부 (남양남방군제8방면군제20사단)
1182	송춘하운	강원도횡성		남양인도네시아뉴기니아 30고지(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1183	송 휘 원	강원횡성군	1923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184	송 흥 옥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185	수안영선	강원횡성군	1920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186	수안영선	강원도횡성	1920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187	수안영선	강원도횡성	1920		군인·군속사물자명부
1188	수안은상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유수명부(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189	수야재근	강원도횡성	1923	남양도서도서군	유수명부(도서도서군)
1190	수적길찬	강원횡성군	1919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191	수적길찬	강원도횡성	1919	남양페리류섭(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192	수진정	강원도횡성	1920	중국관동군제3방면군 제44군직할부대	유수명부 (관동군제3방면군제44군직할부대)
1193	신경주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194	신근룡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195	신금산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196	신기립	강원도횡성			태평양전쟁한국인전몰자유골명부
1197	신기선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198	신본미동	강원도횡성	1924	일본내지제15방면군(중부)	유수명부(내지제13방면군-동해제15 방면군-중부)
1199	신본상동	강원도횡성	1924	야포병제30연대보충대	병적전시정무강원도4/4책
1200	신본상동	강원도횡성	1924	불명(不明)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충청북도,강원도
1201	신본성립	강원도횡성	1916	일본공성현삼릉광업주식회사 세창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암수현공성현)
1202	신봉순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03	신성광덕	강원도횡성	1915	일본공성현삼릉광업주식회사 세창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암수현공성현)
1204	신성룡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05	신성초	강원도횡성	189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06	신성호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07	신송화성	강원횡성군	1913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208	신승일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09	신승태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10	신영균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11	신영록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12	신영옥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13	신영준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14	신우룡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15	신운하	강원도횡성	1920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S7/11책
1216	신은묵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17	신응수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218	신 잔 교	강원도횡성군	1906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219	신 재 교	강원도횡성	190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20	신 재 봉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21	신 재 현	강원도횡성군	1925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222	신 재 현	강원도횡성			태평양전쟁한국인전몰자유골명부
1223	신 재 현	강원도횡성			태평양전쟁희생자명부
1224	신정구선	강원도횡성	1920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225	신정근후	강원도횡성군		일본 횡수하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226	신 정 득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27	신정민부	강원도횡성	1924	조선북선제17방면군 평양육군병기보급창	유수명부(북선제17방면군평양육군병 기보급창제12야전보충마창조선군관 구교육대)
1228	신정수복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229	신정순강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사령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사령부)
1230	신정순성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231	신정순영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232	신정순종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포병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 포공통신치중병보충대병사부지구사 령부육군병원)
1233	신정순종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보병제2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 보병제1,2보충대)
1234	신정순필	강원도횡성군	1919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235	신정순필	강원도횡성	1919	소련북천도근해(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236	신정승룡	강원도횡성군		일본 횡수하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237	신정연철	강원도횡성	1924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238	신정영진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보병제2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 보병제1,2보충대)
1239	신정용선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 무대(2))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240	신정용진	강원도횡성	1919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241	신정윤경	강원도횡성	1920	일본병고현삼통생야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2/3)
1242	신정인선	강원횡성군	1923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243	신정인선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복포제2기속 사불이료(日本吳海軍工廠福 浦第2奇宿舎不二療)	구래(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1244	신정종경	강원도횡성	1923	남양메레온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245	신정중선	강원횡성군	1924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1246	신정중하	강원횡성군	1923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247	신정중학	강원횡성군	1923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248	신정중학	강원도횡성	1923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249	신정중학	강원도횡성	1923		군인·군속사물자명부
1250	신정중선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251	신정호선	강원횡성군	1921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252	신 종 태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53	신 차 섭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54	신 창 균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55	신 창 근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56	신 창 순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57	신 천 수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58	신천홍영	강원도횡성	1924	중국관동군직할근무대	유수명부 (관동군관동군직할근무대축성대)
1259	신 태 길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60	신 택 순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61	신 현 복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62	신 현 봉	강원도횡성	192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63	신 희 승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64	심 근 택	강원도횡성	1900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1265	심 상 문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66	심 석 근	강원도횡성	192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267	심 승 택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68	심 연 화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69	심 용 봉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70	심 우 삼	강원도횡성	192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71	심 정 대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72	심 천 봉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73	심 형 래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74	십 석 우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75	쌍성영진	강원도횡성	1922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276	아진봉기	강원도횡성군	1926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1277	안 경 석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78	안 구 성	강원도횡성	189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79	안 귀 봉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80	안 규 승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81	안금봉한	강원도횡성		일본산구현(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282	안 금 석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83	안 금 석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84	안 기 준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85	안 대 희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86	안 도 성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87	안동오상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288	안등덕선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289	안등덕선	강원도횡성	1921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290	안 만 길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91	안 명 순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92	안 백 천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93	안 병 익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94	안본동수	강원도횡성군	1923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295	안본동수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복포제2기숙 사불이료(日本吳海軍工廠福 浦第2奇宿舍不二療)	구레(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296	안본상갑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297	안 봉 옥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98	안 상 영	강원도횡성	192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299	안 상 호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300	안 선 옥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01	안 성 옥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02	안 성 준	강원횡성군	1922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303	안소능선	강원도횡성		소련북간도이퇴강도북방약 50천(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1304	안 승 서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05	안 승 운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06	안 승 재	강원도횡성	190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07	안 승 준	강원도횡성	1922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A2/2
1308	안 영 주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09	안 운 학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10	안 익 승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11	안 장 순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12	안 재 수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13	안전광성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314	안전근수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고사포제152연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고사포 제151,152연대)
1315	안전봉환	강원횡성군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316	안전선옥	강원횡성군	1910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317	안전성준	강원횡성군	1922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318	안전성준	강원도횡성	1922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319	안전성준	강원도횡성	1922		군인·군속사물자명부
1320	안전승서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북포제2기속 사물이료(日本吳海軍工廠福 浦第2奇宿舍不二療)	구레(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1321	안전인상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322	안전장석	강원도횡성	1918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323	안전종환	강원도횡성	1922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324	안전창규	강원도횡성군	1920	일본횡수하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325	안전태석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326	안전홍식	강원도횡성군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327	안 종 록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28	안 준 희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29	안천명순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330	안천성룡	강원도횡성		소련북간도아피강도북방약 50천(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재적)-경기도강원도
1331	안 천 준	강원도횡성	1920	중국관동군제1방면군 134사단	유수명부(관동군제1방면군직할부대 제122,134사단)
1332	안춘성이	강원도횡성	1924	중국대만제10방면군	유수명부(대만제10방면군)
1333	안춘성철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보병제1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 보병제1,2보충대)
1334	안 필 주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35	안 학 희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사령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 사령부)
1336	안 효 승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37	암 기 백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338	암본갑정	강원도횡성		중국한구(漢口)	조선인육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1339	암본만수	강원도횡성	1921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340	암본만준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341	암본상국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342	암본씨들	강원도횡성	1897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1343	암본우정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파견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파견군직할부대-중지)
1344	암본우정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파견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파견군직할부대-중지)
1345	암본우정	강원도횡성		조선제44부대제4중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346	암본청민	강원도횡성		남양남방남방군제8방면군 제20사단	유수명부 (남방남방군제8방면군제20사단)
1347	암본청씨	강원도횡성		남양인도네시아만데이 (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1348	암성도석	강원도횡성	1927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349	암송한우	강원도횡성	1919	일본병고현일야 제강주식회사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3/3)
1350	암촌래선	강원도횡성군	1920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351	암촌순갑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352	암촌순해	강원도횡성	1926	조선선제2항공군	유수명부(선제2항공군)
1353	암촌행구	강원도횡성	1918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354	야전덕현	강원도횡성	1924	조선제44부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1355	야전덕현	강원도횡성	1924	중국강소성(江蘇省)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1356	양 덕 복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57	양 만 복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58	양분구용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359	양 성 일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60	양 승 만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61	양 우 용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62	양 운 석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63	양 재 영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64	양 재 원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65	양천금봉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366	양천덕복	강원도횡성군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367	양천덕윤	강원도횡성	1925	조선남선제17방면군 사령부직할부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사령부직할부대)
1368	양천명환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369	양 태 석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70	엄 경 만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71	엄 복 섭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372	엄 상 옥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73	엄 용 운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374	엄 운 섭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75	엄 중 학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76	엄 창 섭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77	엄 천 복	강원도횡성	1917	조선청진제철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78	엄 희 연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79	여 광 석	강원도횡성	1917	일본복강현고하광업주식회사 호간광업소	일제하피징용자명부(3)
1380	연전환수	강원도횡성	1920	일본병고현일야제강주식회사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3/3)
1381	연천고수	강원횡성군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382	연천고수	강원도횡성		일본산구현(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383	연천대영	강원도횡성	1928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1384	연홍강철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385	염 광 필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86	염 만 진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87	염 윤 길	강원도횡성	1921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Y18/20책
1388	염 윤 길	강원도횡성			자유한인보7호
1389	염 윤 서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90	염 인 영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91	염 재 근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92	염 춘 복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93	염 형 진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94	염 호 근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395	영공연모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공병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 포공통신치중병보충대병사부지구사 령부육군병원)
1396	영본종기	강원횡성군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397	영본종기	강원도횡성		일본산구현(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398	영송상근	강원도횡성	1913	일본복강현상반탄광	일제하피징용자명부(3)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399	영송순환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400	영야창옥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1401	영월경준	강원도횡성	1924	중국선박선박군(중국대만)	유수명부(선박선박군-중국대만)
1402	영월경준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북지방면군 직할야전근무대	유수명부(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1403	영월경준	강원도횡성	1924	치중병제20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1404	영월경준	강원도횡성	1924	중국하남성(河南省)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1405	영천정부	강원도횡성	1907	중국관동군직할보급감부	유수명부(관동군관동군직할보급감부 육군병원)
1406	영천학기	강원도횡성	1921	조선남선제17방면군 조선육군화물창창고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조선육군화 물창)
1407	오강문옥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408	오 관 득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09	오 기 영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10	오 기 영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1411	오 길 선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12	오 독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병고현삼릉중공업주식 회사신호조선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3/3)
1413	오 만 복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14	오산병학	강원도횡성	1926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20사단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20,150사단)
1415	오산병학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보병제1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 보병제1,2보충대)
1416	오 상 설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17	오 석 영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18	오 성 관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19	오 연 창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20	오 영 갑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21	오 용 석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22	오 용 주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23	오 원 일	강원도횡성	188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24	오 재 룰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425	오 중 근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26	오훈기선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427	오훈복만	강원도횡성	1923	조선북선제17방면군 직할부대	유수명부(북선제17방면군직할부대)
1428	오 필 주	강원도횡성	1924	일본내지제16방면군(서부) 직할	유수명부(내지제16방면군(서부)직할)
1429	오 필 주	강원도횡성	1924	일본내지제16방면군(서부) 직할	유수명부(내지제16방면군(서부)직할)
1430	오 학 성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31	옥산경환	강원도횡성	1921	일본북강현상만탄광	일제하피징용자명부(3)
1432	옥산귀성	강원도횡성	1924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433	옥산병태	강원도횡성	1923	일본북강현삼릉만총광업소 연전탄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내량현북강현1/2)
1434	옥산한근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435	옥전광치	강원도횡성	1924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인력원료
1436	옥전병룡	강원도횡성	1924	조선북선남남사관구보병 제1보충대	유수명부(북선남남사관구사령부 보병제1보충대)
1437	옥전병룡	강원도횡성	1924	조선북선남남사관구보병 제1보충대	유수명부(북선남남사관구사령부 보병제1보충대)
1438	옥전호출	강원도횡성		일본이진수부	구해군속신상조사표
1439	완산방걸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 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440	완산향봉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 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441	왕금인혁	강원도횡성	1924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1442	요산양환	강원도횡성		남양비도제14방면군직할 제19사단	유수명부 (비도제14방면군직할제19사단)
1443	요산양환	강원도횡성	1922	중국대만제10방면군	유수명부(대만제10방면군)
1444	요산양환	강원도횡성	1922	남양비도제14방면군직할 제19사단	유수명부 (비도제14방면군직할제19사단)
1445	용영복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46	용영준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447	용 영 호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48	용 인 석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49	우도병철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450	우 석 은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51	우아복관용	강원도횡성	1924	조선북선제3군훈성 제101연대	유수명부(북선제3군훈성제101연대 제34군예하부대)
1452	우아복의량	강원도횡성	1918	일본병고현일자제강주식회사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3/3)
1453	우아재근	강원도횡성	1923	공병제19연대제3중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1454	우아재근	강원도횡성	1923	남양트락크도(トラック島)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1455	우아호근	강원도횡성		남양비도제14방면군 제35군제30사단	유수명부 (비도제14방면군제35군제30사단)
1456	우 장 한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57	운산계원	강원도횡성		일본기부현읍비천전기주식 회사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기부현정강현)
1458	운산종식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459	운산주범	강원도횡성	1917	조선남선제17방면군 조선육군화물창창고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조선육군화물창)
1460	운산주범	강원도횡성	1917	조선남선제17방면군 조선육군화물창창고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조선육군화물창)
1461	원 갑 성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62	원강관식	강원도횡성	1924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463	원강규선	강원도횡성	1918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464	원강규선	강원도횡성	1918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465	원강규선	강원도횡성	1918		군인·군속사불자명부
1466	원강명식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467	원강병렬	강원도횡성	1924	중국선박선박군(중국대만)	유수명부(선박선박군-중국대만)
1468	원강병렬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북지방면군 직할야전근무대	유수명부(지나북지방면군 직할부대)
1469	원강병렬	강원도횡성	1924	치중병제20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470	원강병렬	강원도횡성	1924	중국하남성(河南省)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1471	원강병일	강원도횡성	1924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472	원강병철	강원도횡성	1923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1473	원강병호	강원도횡성	1924	일본병고현일야제강주식회사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3/3)
1474	원강용태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475	원강원선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476	원강향선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제58군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제58군이하 제96,111,121사단독혼제108여단)
1477	원 경 규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78	원곡현창	강원도횡성	1922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479	원 관 식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80	원 관 희	강원도횡성	1919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W2/2책
1481	원 관 희	강원도횡성			자유한인보7호
1482	원 기 상	강원도횡성	1923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483	원 길 희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84	원 도 연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85	원 동 호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86	원 명 식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87	원 문 규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88	원변석주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489	원본갑훈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490	원본제학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과건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과건군직할부대-중지)
1491	원본제학	강원도횡성	1924	보병제68연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1492	원본제학	강원도횡성	1924	불명(不明)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1493	원본철희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1494	원 봉 연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95	원산삼량	강원횡성군	1925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496	원 석 하	강원도횡성	189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97	원 성 만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498	원성지상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유수명부(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1499	원성지상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유수명부(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1500	원성지상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유수명부(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1501	원 세 근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02	원 세 동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03	원 세 영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04	원송영록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505	원 순 만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06	원 승 길	강원횡성군	1914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507	원 승 길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08	원 영 관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09	원 영 규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10	원 영 순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11	원 오 상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12	원 용 주	강원도횡성	1927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1513	원원달식	강원도횡성	1923	조선선박선박군	유수명부(선박선박군-북방남북선)
1514	원원만규	강원도횡성	1924	중국선박선박군(중국대만)	유수명부(선박선박군-중국대만)
1515	원원만규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북지방면군직할 야전근무대	유수명부(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1516	원원만규	강원도횡성	1924	치중병제20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1517	원원만규	강원도횡성	1924	중국하남성(河南省)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1518	원원옥상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허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1519	원원호연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파견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파견군직할부대-중지)
1520	원원호연	강원도횡성		조선함흥제74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1521	원원호연	강원도횡성		중국신양(信陽)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1522	원 윤 상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독립혼성제127여단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독립혼성제127여단)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523	원 윤 상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보병제2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 보병제1,2보충대)
1524	원 윤 식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25	원 인 규	강원도횡성	189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26	원 정 선	강원도횡성군	1923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일표
1527	원 종 근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28	원 종 렬	강원도횡성	192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29	원 종 식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30	원천석영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포병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 포공통신차중병보충대병사부지구사 령부육군병원)
1531	원촌기상	강원도횡성	1924	남양남방남방군제8방면군	유수명부(남방남방군제8방면군)
1532	원 촌 선	강원도횡성	1919	일본충승본도홍좌(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1533	원촌세영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534	원촌승길	강원도횡성군	1914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535	원촌영관	강원도횡성군	1906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536	원촌영상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1537	원촌의웅	강원도횡성	1922	중국관동군제3방면군 제44군직할부대	유수명부 (관동군제3방면군제44군직할부대)
1538	원촌이연	강원도횡성	1923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539	원촌인상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파견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파견군직할부대-중지)
1540	원촌인상	강원도횡성	1924	조선평양제42부대제7중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1541	원촌인상	강원도횡성	1924	중국응산(應山)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1542	원촌종관	강원도횡성군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543	원촌종관	강원도횡성	1924	중국관동군직할근무대	유수명부 (관동군관동군직할근무대축성대)
1544	원촌종관	강원도횡성		일본산구현(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545	원촌종룡	강원도횡성군	1924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일표
1546	원 촌 희	강원도횡성	1919	남양도서도서군	유수명부(도서도서군)
1547	원 한 규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주 소	명 부 명
1548	원 현 배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49	원 현 성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50	원 현 세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51	원 현 순	강원도횡성	189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52	원 호 석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53	원 호 연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54	원 호 춘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55	원 흥 연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56	원 흥 연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57	원 흥 천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58	월산봉우	강원도횡성군	1927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559	월성상원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병고현대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560	월성장순	강원도횡성	1928	조선제5항공군(남선)	유수명부(선제5항공군남선)
1561	월성재근	강원도횡성	1916	일본회복현대고려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1562	월성재철	강원도횡성군	1920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563	월천홍진	강원도횡성군	1928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1564	유 계 옥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65	유 관 수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66	유 광 근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67	유 기 상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68	유 기 수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69	유 기 준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70	유 남 희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571	유 동 성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72	유 만 수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73	유 만 식	강원도횡성	1916	일본병고현대일본세루로이도 주식회사강간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2/3)
1574	유 명 섭	강원도횡성	1906	일본복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75	유 명 수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76	유 문 식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577	유 백 만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78	유 상 식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79	유 상 철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80	유 성 렬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81	유 순 영	강원도횡성	1916	일본복강현상반탄광	일제하피징용자명부(3)
1582	유 양 규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83	유 언 창	강원도횡성	1916	주우흥지무광산	소위조선인징용자등에관한명부(6)
1584	유영이랑	강원도횡성	1919	보병제74연대보충대	유수명부(보병제74연대보충대)
1585	유영이랑	강원도횡성	1919	조선남선제17방면군제58군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제58군예하 제96,111,121사단독혼제108여단)
1586	유영이랑	강원도횡성	1919	조선남선제17방면군제58군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제58군예하 제96,111,121사단독혼제108여단)
1587	유 완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88	유 운 봉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89	유 이 준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90	유 인 복	강원도횡성		일본제5방면군북방(천도)	유수명부(북방제5방면군)
1591	유 인 복	강원도횡성		소련북간도아뢰강도북방약 50천(사망지)	피징용시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재적)-경기도강원도
1592	유 재 익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93	유전충선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사령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사령부)
1594	유정기상	강원횡성군	1924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1595	유정대열	강원도횡성	1923	남양비도제14방면군 직할제19사단	유수명부 (비도제14방면군직할제19사단)
1596	유정대열	강원도횡성	1923	중국대만제10방면군	유수명부(대만제10방면군)
1597	유 정 식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98	유 준 철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599	유 준 철	강원도횡성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600	유 진 태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601	유 창 규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02	유춘봉제	강원횡성군		일본 횡수하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603	유택윤수	강원도횡성	1920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동 원 지	명 부 명
1604	유택창규	강원도횡성		일본제5방면군북방(천도)	유수명부(북방제5방면군)
1605	유택창규	강원도횡성		소련북간도이퇴강도북방약 50천(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재적)-경기도강원도
1606	유택호수	강원횡성군	1924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인력원표
1607	유 환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08	유 흥 규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09	윤 기 환	강원도횡성	190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10	윤 명 균	강원도횡성	1921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Y20/20책
1611	윤 명 균	강원도횡성			자유한인보7호
1612	윤 병 직	강원도횡성	190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13	윤 복 준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14	윤 상 렬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15	윤 성 록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16	윤 수 관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17	윤 영 희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18	윤 용 재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19	윤 용 재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20	윤 율 순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21	윤 재 순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22	윤 재 흥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23	윤 중 렬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24	윤 중 현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25	윤 창 현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26	윤 춘 봉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27	윤 태 철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28	윤 태 현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29	윤 활 수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30	은송영원	강원도횡성	1923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재적)-경기도강원도
1631	은송휘원	강원횡성군	1923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632	의봉홍인	강원도횡성	1913	일본좌하현암곡탄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좌하현1/2)
1633	의촌용남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목현고허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634	이 갑 성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35	이 강 수	강원도횡성	1904	조선함북아오지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36	이 건 하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37	이 건 호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38	이 관 선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39	이 관 현	강원도횡성	189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40	이 광 시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41	이 광 식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42	이 광 연	강원도횡성	1923	일본삼중현석원산업주식회사 기주광산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삼중현자하현대관부)
1643	이 구 룡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44	이 구 성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45	이 규 백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46	이 규 복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47	이 규 영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충청북도)
1648	이 규 익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49	이 규 환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50	이 금 철	강원도횡성	190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51	이 기 석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52	이 기 선 (이기비)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53	이 기 용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54	이 기 우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55	이 기 흥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56	이 길 영	강원도횡성군	1919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657	이 낙 중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58	이 달 만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59	이 달 환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60	이 대 근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61	이 대 원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62	이 덕 우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63	이 덕 재	강원도횡성군	1907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664	이 덕 준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65	이 동 근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경기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무 원 지	명 부 명
1666	이 동 두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67	이 동 일	강원도횡성	189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68	이 동 춘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69	이 동 호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70	이 두 연	강원도횡성	1914	일본대판제철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71	이 만 복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72	이 만 수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73	이 만 수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74	이 명 구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75	이 명 복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76	이 명 영	강원도횡성			태평양전쟁한국인전몰자유골명부
1677	이 명 영	강원도횡성			태평양전쟁희생자명부
1678	이 명 재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79	이 문 재	강원도횡성	190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80	이 민 하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681	이 백 룡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82	이 백 수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83	이 백 연	강원도횡성	1897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1684	이 백 형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85	이 범 용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사령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사령부)
1686	이 범 태	강원도횡성	189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87	이 병 구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88	이 병 기	강원도횡성	190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89	이 병 섭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90	이 병 세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91	이 병 암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92	이 병 운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93	이 병 철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94	이 병 태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95	이 병 학	강원도횡성	189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96	이 병 호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697	이 병 화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98	이 병 훈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699	이 보 영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00	이 보 현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01	이 복 만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02	이 복 연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03	이 본 섭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04	이 부 연	강원도횡성군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705	이 부 연	강원도횡성		일본신구현(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706	이 부 흥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07	이 사 문	강원도횡성	1900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Y11/20책
1708	이산세길	강원도횡성	1921	일본주식회사목전조작업소 복강작업장	소위조선인징용자등에관한명부(1)
1709	이산세길	강원도횡성	1921	일본주식회사목전조	소위조선인징용자등에관한명부(1)
1710	이 삼 봉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11	이 삼 성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12	이 삼 성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13	이 상 국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14	이 상 령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15	이 상 목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16	이 상 범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17	이 상 연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18	이 상 오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19	이 상 우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20	이 상 운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21	이 상 의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22	이 상 학	강원도횡성	190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23	이 석 기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충청북도)
1724	이 석 출	강원도횡성	1904	일본북강현적지광업소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25	이 석 환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26	이 선 우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27	이 선 재	강원도횡성	190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28	이 성 남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주 원 지	명 부 명
1729	이 성 칠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30	이 성 환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31	이 세 녕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32	이 세 만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33	이 수 돌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34	이 수 선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35	이 수 천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36	이 순 갑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37	이 순 근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38	이 순 근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39	이 순 석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40	이 순 세	강원도횡성	189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41	이 순 연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42	이순인석	강원도횡성	1923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부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부대(2))
1743	이 승 덕	강원도횡성	1916	일본복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44	이 승 춘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45	이 시 영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46	이 시 효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47	이 신 중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48	이 쌍 봉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49	이 억 만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50	이 영 경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51	이 영 구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52	이 영 복	강원도횡성	192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53	이 영 쇠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54	이 영 옥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55	이 영 철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56	이 영 태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57	이 영 학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58	이 완 중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59	이 용 관	강원도횡성군	1922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760	이 용 관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761	이 용 관	강원도횡성	1922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재적)-경기도강원도
1762	이 용 관	강원도횡성	1922		군인·군속시몰자명부
1763	이 용 문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64	이 용 봉	강원도횡성	1908	일본북강현이리아마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65	이 용 섭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66	이 용 우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67	이 용 우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68	이 용 재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69	이 용 재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70	이 윤 봉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71	이 윤 섭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72	이 원 구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73	이 원 녕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74	이원동우	강원횡성군	1920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775	이원호선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 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776	이 유 갑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77	이 유 선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78	이 욱 봉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79	이 윤 근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80	이 은 형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81	이 응 달	강원횡성군	1920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782	이 이 봉	강원도횡성	190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83	이 익 환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84	이 인 모	강원도횡성	1920	일본북해도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85	이 인 복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86	이 인 재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87	이 인 종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88	이 인 학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89	이 일 용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90	이 일 천	강원도횡성	190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91	이 장 길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92	이 장 복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동 원 지	명 부 명
1793	이 장 복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1794	이 장 성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95	이 장 순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복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96	이 재 덕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97	이 재 만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98	이 재 봉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799	이 재 선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00	이 재 우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충청북도)
1801	이 재 칠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02	이 재 흥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03	이 정 명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04	이 정 하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05	이 종 국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06	이 종 근	강원도횡성군	1928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인력원표
1807	이 종 덕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08	이 종 만	강원도횡성	1921	일본주식회사목전조작업소 북강작업장	소위조선인징용자등에관한명부(1)
1809	이 종 만	강원도횡성	1921	일본주식회사목전조	소위조선인징용자등에관한명부(1)
1810	이 종 선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11	이 종 성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12	이 종 성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13	이 종 진	강원도횡성			태평양전쟁한국인전몰자유골명부
1814	이 종 현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15	이 종 현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16	이 종 혁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17	이 종 호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18	이 주 옥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19	이 주 창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20	이 지 연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21	이 지 현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22	이 진 갑	강원도횡성	1908	일본복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경기도)
1823	이 진 갑	강원도횡성	1907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824	이 진 우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25	이 창 길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26	이 창 록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27	이 창 산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28	이 창 오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29	이 창 우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30	이 척 연 (이탁연)	강원도횡성	1926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1831	이 천 석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32	이천형각	강원도횡성	1920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833	이 청 우	강원도횡성	1923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보5)5/10책
1834	이 청 우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35	이 초 연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36	이 춘 근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37	이 춘 기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38	이 춘 득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39	이 치 선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충청북도)
1840	이 치 옥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41	이 칠 만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42	이 태 근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43	이 태 수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44	이 태 연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45	이 태 옥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46	이 태 우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47	이 태 인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48	이 태 화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49	이 태 희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50	이 택 수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51	이 필 인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52	이 필 주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53	이 학 봉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54	이 학 선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55	이 학 성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856	이 한 교	강원도횡성	1926	조선남선제17방면군 인천조병창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인천조병창(3))
1857	이 한 구	강원도횡성	189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58	이 한 진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59	이 한 천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60	이 항 선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61	이 해 광 (이해신)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62	이 해 성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63	이 해 철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64	이 현 구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65	이 현 상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66	이 형 산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67	이 호 선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68	이 호 선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69	이 호 연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70	이 호 진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71	이 호 철	강원도횡성	190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72	이 흠 현	강원도횡성	1923	일본북강현보주산광업주식 회사보주산단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북강현2/2)
1873	이 흠 현	강원도횡성	1923	일본북강현보주산광업주식 회사보주산단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북강현2/2)
1874	이 흥 수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75	이 흥 준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76	이 희 준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77	임 기 택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78	임 기 호	강원도횡성	190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79	임 노 중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80	임 동 규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881	임 방 진	강원도횡성	1924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1882	임 병 두	강원도횡성	1924	중국관동군직할근무대	유수명부 (관동군관동군직할근무대축성대)
1883	임 봉 순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884	임 봉 해	강원도횡성	1921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족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1885	임 상 록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86	임 순 남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87	임 영 원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88	임 용 범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89	임 원 호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90	임 육 만	강원횡성군	1907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891	임 윤 식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92	임 윤 환	강원도횡성	1923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893	임 재 원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894	임 정 갑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95	임 종 태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96	임 종 학	강원횡성군	1928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료
1897	임 창 식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98	임 태 봉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899	임 희 수	강원횡성군	1919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900	임 희 수	강원도횡성	1919	소련북천도군해(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901	입계연시	강원도횡성	1922	소련북천도군해(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1902	장 경 환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03	장 기 만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04	장 기 북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05	장 기 흥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06	장 남 수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07	장 덕 기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08	장 만 계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09	장 만 석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10	장 백 돌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11	장 범 석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12	장 병 철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913	장본만규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유수명부(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1914	장본범석	강원도횡성	1921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1915	장본중희	강원도횡성	1919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1916	장 봉 록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17	장 봉 석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18	장산종자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1919	장 삼 봉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20	장 선 봉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21	장 세 국	강원도횡성	189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22	장 세 영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23	장 순 문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24	장 순 종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25	장 순 태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26	장아준봉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1927	장 연 봉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28	장 영 운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29	장 용 만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30	장 원 길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31	장원홍관	강원도횡성	1921	조선남선제17방면군 인천조병창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인천조병창(2))
1932	장 월 성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33	장 익 환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34	장 인 서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35	장전상옥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사령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사령부)
1936	장전희천	강원도횡성	1925	조선남선제17방면군제58군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제58군예하 제96,111,121사단독혼제108여단)
1937	장 정 남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38	장 태 성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39	장 태 진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40	장 호 진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1941	적성시효	강원도횡성	1917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1942	전 광 운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43	전 국 봉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44	전 달 근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45	전 대 길	강원도횡성	189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46	전 명 오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47	전 명 준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48	전 병 식	강원도횡성	190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49	전 병 태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50	전 병 환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51	전 삼 봉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52	전 상 오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53	전 성 룰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54	전 순 근	강원도횡성군		일본횡수하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955	전 오 근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56	전 용 만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57	전 용 범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58	전 응 찬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59	전 일 만	강원도횡성	190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60	전 일 봉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61	전 재 룡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62	전 재 수	강원도횡성	1908	일본장기현일철광업주식회사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63	전치맹규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산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산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1964	전 철 원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65	전 태 환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66	전 흥 진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67	정 경 시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68	정 구 용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69	정금병철	강원도횡성	1928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1970	정 기 양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71	정 기 준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주요 업적	명부명
1972	정기철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73	정기홍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74	정남기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75	정대운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76	정도영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77	정동수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78	정동양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79	정두화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80	정만돌	강원도횡성	190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81	정명수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82	정명철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83	정병덕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84	정병석	강원도횡성	1904	일본석천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85	정병섭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86	정병화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87	정분순탁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1988	정봉해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89	정부양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90	정시순완	강원도횡성	1916	일본병고현일본파이푸제조 주식회사원전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1991	정사현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92	정석균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93	정성화	강원도횡성	192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94	정수봉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95	정수봉	강원도횡성	189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96	정수영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97	정순양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98	정승철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1999	정시양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00	정연택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01	정연학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02	정완철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03	정우화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경기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004	정 원 영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05	정 이 봉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06	정 이 화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07	정 인 범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08	정 일 봉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09	정 입 경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10	정 재 동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11	정 재 면	강원도횡성	189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12	정 재 시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13	정 재 화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14	정전동근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20사단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20,150사단)
2015	정전병식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2016	정 종 식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파견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파견군직할부대-중지)
2017	정 종 식	강원도횡성	1924	조선제42부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2018	정 주 화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19	정 찬 교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20	정 찬 민	강원도횡성	1923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021	정 창 석	강원도횡성	1913	일본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22	정 창 순	강원도횡성	1913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023	정 창 순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24	정 창 순	강원도횡성	1912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C20/26책
2025	정 창 순	강원도횡성			자유환인보7호
2026	정 창 오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충청북도)
2027	정 천 봉	강원도횡성	1916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2/2)
2028	정 천 영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29	정춘길영	강원도횡성	1928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인력인표
2030	정춘길영	강원도횡성	1928	조선조선진해(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2031	정 태 경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32	정 태 수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주 소	명 부 명
2033	정 대 철	강원도횡성	190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34	정 현 두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35	정 현 영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36	정 호 련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37	정 호 석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38	정 호 영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39	정 환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40	조 광 진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41	조 광 진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42	조 국 원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43	조 규 동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44	조 규 택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45	조 규 학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46	조 근 상	강원도횡성	1920	일본구주	왜정시피징용자명부(경기도)
2047	조 근 상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048	조 기 도	강원도횡성	188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49	조 남 교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50	조 동 근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51	조 무 성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52	조 병 기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53	조 보 현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54	조본용행	강원도횡성	1921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055	조 봉 진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56	조 부 산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57	조 삼 성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58	조 성 락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59	조 성 록	강원도횡성군	1925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060	조 성 록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61	조 성 용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62	조 성 진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63	조 성 호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64	조 순 진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065	조양재선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066	조 영 조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67	조 영 환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68	조 영 환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69	조 원 만	강원도횡성	1908	일본복해도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70	조 원 모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71	조 원 영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72	조 원 용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73	조 원 철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74	조 윤 구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75	조 인 원	강원도횡성	1921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076	조 재 규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77	조 재 봉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78	조 재 성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79	조 재 원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80	조 정 현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81	조천연순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유수명부(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2082	조천연순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과건군제6방면군 제11군예하부대(중지)	유수명부(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제11군예하부대중지)
2083	조천연순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유수명부(지나지나과건군제6방면군 직할부대중지)
2084	조 철 봉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85	조 태 룡	강원도횡성	190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86	조 학 순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87	조 흥 환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88	종산순하	강원도횡성	1924	중국관동군제4군제119사단	유수명부(관동군제4군제119,123,149 사단독혼제80,135,136여단)
2089	종적길찬	강원도횡성	1919		군인·군속시몰자명부
2090	주 기 순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91	주 돈 필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92	주 둘 춘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93	주 병 룡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동 원 지	명 부 명
2094	주 영 철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95	주 용 복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96	주 훈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97	주 흥 춘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98	주 흥 환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099	죽본강성	강원횡성군	1907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100	죽본성규	강원도횡성	1924	중국선박선박군(중국대만)	유수명부(선박선박군-중국대만)
2101	죽본성규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북지방면군직할 야전군무대	유수명부(지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2102	죽본성규	강원도횡성	1924	치중병제20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2103	죽본성규	강원도횡성	1924	중국하남성(河南省)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2104	죽본인선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105	죽본호선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 군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군무대(2))
2106	죽안무선	강원도횡성	1913	조선남선제17방면군 인천조병창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인천조병창(2))
2107	죽안주선	강원도횡성	1925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집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108	죽원문웅	강원도횡성	1921	남양남방남방군조왜부 수용소	유수명부 (남방남방군마래조왜부수용소)
2109	죽원문웅	강원도횡성	1921	남양남방남방군조왜부 수용소	유수명부 (남방남방군마래조왜부수용소)
2110	죽원화용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사령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사령부)
2111	죽원희동	강원횡성군	1923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2112	죽재용천	강원횡성군	1901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113	죽춘규부	강원도횡성		남양남방남방군마래부 수용소	유수명부 (남방남방군마래조왜부수용소)
2114	죽춘규천	강원도횡성	1922	남양마래부수용소제3분소 제1분건소	병상일지4/30책
2115	중광강훈	강원도횡성	1921	남양남방남방군조왜부 수용소	유수명부 (남방남방군마래조왜부수용소)
2116	중광경길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117	중광국달	강원도횡성		남양마레용	노동원시방자명부(각도)
2118	중광국달	강원도횡성			군인·군속시물자명부 (오,복강복원부)
2119	중광국련	강원도횡성	1925	남양매레운섬(시방지)	피징용시방지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2120	중광국연	강원도횡성군	1925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121	중광국원	강원도횡성			태평양전쟁한국인전물자유골명부
2122	중광국원	강원도횡성			태평양전쟁희생자명부
2123	중광기립	강원도횡성			태평양전쟁한국인전물자유골명부
2124	중광단목	강원도횡성군	1923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125	중광은목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복포제2기속 사불이료(日本吳海軍工廠福 浦第2奇宿舎不二療)	구레(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2126	중광재구	강원도횡성	1924	남양비도제14방면군 제35군제30사단	유수명부 (비도제14방면군제35군제30사단)
2127	중광재구	강원도횡성	1924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S2/11책
2128	중광재정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 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129	중광재하	강원도횡성군	1909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130	중광대선	강원도횡성	1929	조선제5항공군(남선)	유수명부(선제5항공군남선)
2131	중촌지영	강원도횡성	1927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50사단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20,150사단)
2132	중촌태용	강원도횡성군	1907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133	지 봉 학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34	지 석 돌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35	지 석 범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36	지 순 룡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광주사관구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광주사관구)
2137	지 순 혁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38	지원순복	강원도횡성	1921	일본복강현상반탄광	일제하피징용자명부(3)
2139	지 일 갑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40	지 창 한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41	지촌창순	강원도횡성군	1913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142	지촌창순	강원도횡성	1912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C20/26책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동 원 지	명 부 명
2143	지촌창순	강원도횡성	1913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2144	지촌창순	강원도횡성	1913		군인·군속사물자명부
2145	지 팽 둔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46	진 관 옥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47	진 도 용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48	진 만 성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49	진 문 성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50	진 병 성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51	진산시영	강원도횡성	1919	일본좌하현암곡탄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좌하현1/2)
2152	진 성 두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53	진 성 쇠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54	진 양 근	강원도횡성	1922	일본복강현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경기도)
2155	진 영 병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56	진 운 하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57	진 중 식	강원도횡성	190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58	진 주 삼	강원도횡성	189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59	진천상근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우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160	진 천 석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61	진 충 근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62	진 학 두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63	진 혁 두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64	차 덕 준	강원도횡성	1925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C1/26책
2165	차 영 술	강원도횡성	190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66	차전성근	강원도횡성	1919	일본좌하현암곡탄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좌하현1/2)
2167	차 주 석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68	창산규택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우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169	창소민부	강원도횡성	1924	중국대만제10방면군	우수명부(대만제10방면군)
2170	창소민부	강원도횡성	1924	중국대만제10방면군	우수명부(대만제10방면군)
2171	창수홍환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172	창영봉완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173	창원윤영	강원도횡성	1920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174	창택길희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경성사 관구보병제3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 보병제3보충대)
2175	채 상 준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176	천도환수	강원도횡성		소련북간도아뢰강도북방약 50천(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2177	천본달윤	강원도횡성	1919	일본선박선박군(충승)	유수명부(선박선박군-충승)
2178	천본인영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179	천본찬영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사령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사령부)
2180	천본택영	강원도횡성	1924	중국관동군직할근무대	유수명부(관동군관동군직할근무대축 성대)
2181	천본화윤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보병제1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 보병제1,2보충대)
2182	청산기준	강원도횡성	1922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183	청산기철	강원도횡성	1915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184	청산만귀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2185	청산봉수	강원도횡성	1913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186	청산석균	강원도횡성	1921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187	청산영진	강원도횡성	1924	일본선내지항공군	유수명부(선내지항공군)
2188	청산영진	강원도횡성	1924	제6항공교육대제2중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2189	청산영진	강원도횡성	1924	불명(不明)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충청북도,강원도
2190	청산익준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320사단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제330사단)
2191	청산제택	강원도횡성	1923	남양비도제14방면군 제35군제30사단	유수명부 (비도제14방면군제35군제30사단)
2192	청산제택	강원도횡성	1923	남양필리핀민다나오섬 (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2193	청송문택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194	청송선순	강원도횡성	1928	일본삼중현석원산업주식회사 기주광산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삼중현차하현대판부)
2195	청송우현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196	청송형우	강원도횡성	1924	중국관동군직할근무대	유수명부 (관동군관동군직할근무대축성대)
2197	청안용득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198	청원석봉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2199	청원영복	강원도횡성군	1915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200	청원영암	강원도횡성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2201	청원영암	강원도횡성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2202	청원영암	강원도횡성	1909	일본장기현	화장인허증및변제보고서(장기)
2203	청원의수	강원도횡성	1927	조선남선제17방면군 조선육군화물창창고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조선육군화물창)
2204	청정병선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205	청한재광	강원도횡성	1924	중국자나파견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자나자나파견군직할부대-중지)
2206	청한재현	강원도횡성	1924	중국자나자나파견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유수명부(자나자나파견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2207	청한재현	강원도횡성	1924	조선제44부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2208	초계교철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209	초계호만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 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210	최 경 화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11	최 광 문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12	최 규 부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13	최 기 용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14	최 기 창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15	최 다 마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16	최 달 순	강원도횡성군	1923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217	최 대 원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18	최 덕 성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19	최 덕 준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20	최 돈 성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21	최 두 혁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22	최 만 춘	강원도횡성	192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23	최 만 화	강원도횡성	190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24	최 명 수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25	최문경남	강원도횡성	1923	중국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유수명부(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2226	최문경남	강원도횡성	1923	중국지나과건군제6방면군 제11군예하부대(중지)	유수명부(지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제11군예하부대중지)
2227	최문경남	강원도횡성	1923	보병제78연대보충대제5중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2228	최 병 옥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29	최 병 철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30	최 봉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31	최 봉 군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32	최 봉 문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33	최 봉 천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34	최 상 구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35	최 상 하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36	최 석 현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37	최 선 흥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38	최 성 갑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39	최 양 식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40	최 업 기	강원도횡성	189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41	최 영 심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42	최 용 성	강원도횡성	190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43	최 용 친	강원횡성군	1901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244	최 용 학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45	최 용 환	강원횡성군	1919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246	최 용 환	강원도횡성	1919	남양남서제도(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2247	최 용 환	강원도횡성	1919		구일본육·해군징용선사망자명부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아 원 지	명 부 명
2248	최 운 승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49	최 운 조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경기도)
2250	최 원 규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51	최 윤 현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52	최 인 덕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53	최 인 덕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54	최 장 하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55	최 재 성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56	최 재 원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57	최 재 호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직할부대	우수명부(남선제17방면군직할부대)
2258	최 정 봉	강원횡성군	1911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259	최 정 출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60	최 정 하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61	최 제 환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62	최 종 성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63	최 종 춘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64	최 중 봉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65	최 지 영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66	최 지 용	강원도횡성	189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67	최 지 화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68	최 천 식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69	최 춘 성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70	최 춘 성	강원도횡성	192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71	최 태 룡	강원도횡성	190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72	최 태 성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73	최 태 수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74	최 해 규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75	추 상 진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76	추 오 복	강원도횡성	1913	조선함북아오지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77	추전학조	강원도횡성	1916	조선남선제17방면군 조선육군화물창창고	우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조선육군화물창)
2278	춘산경성	강원횡성군	1927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2279	춘산정웅	강원도횡성	1918	일본복강현	일제하피징용자명부(2)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280	충본갑복	강원도횡성	1925	조선북선제17방면군 평양육군병기보급창	유수명부(북선제17방면군평양육군병 기보급창제12야전보충마창조선군관 구교육대)
2281	충본재두	강원횡성군	1924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2282	충본재두	강원도횡성	1922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283	탁 영 운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84	탕도이광	강원도횡성	1916	일본복강현상반탄광	일제하피징용자명부(3)
2285	태 금 만	강원도횡성	192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286	택전금택	강원도횡성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사령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사령부)
2287	파평석진	강원도횡성	1924	남양남방남방군제8방면군 제20사단	유수명부 (남방남방군제8방면군제20사단)
2288	파평석진	강원도횡성	1924	중국선박선박군(중국대만)	유수명부(선박선박군-중국대만)
2289	파평석진	강원도횡성	1924	중국자나북지방면군 직할야전근무대	유수명부(자나북지방면군직할부대)
2290	파평석진	강원도횡성	1924	치중병제20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2291	파평석진	강원도횡성	1924	중국하남성(河南省)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충청북도,강원도
2292	팔계귀시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50사단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20,150사단)
2293	팔계수광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294	팔계용봉	강원횡성군	1903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295	팔계향시	강원도횡성	1924	중국자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유수명부(자나지나과건군 제6방면군직할부대중지)
2296	팔계호술	강원도횡성	1920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2297	팔원우시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사령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사령부)
2298	평강종철	강원도횡성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2299	평강주성	강원횡성군	1920	일본부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300	평도수관	강원횡성군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301	평도수관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장정기료 (日本吳海軍工廠正氣療)	구레(오)해군공장의연행자명부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302	평림상광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2303	평림현봉	강원도횡성		일본제5방면군북방(천도)	유수명부(북방제5방면군)
2304	평림현봉	강원도횡성		소련북간도아뢰강도북방약 50천(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2305	평본건만	강원횡성군	1928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2306	평본순성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2307	평산경식	강원횡성군	1925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표
2308	평산공순	강원도횡성	1924	중국관동군제1방면군 제3군제128사단	유수명부(관동군제1방면군제3군직할 부대제122,127,128사단독혼제132여 단)
2309	평산구성	강원도횡성	1928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2310	평산기용	강원횡성군	1920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311	평산동욱	강원도횡성	1924	조선북선제3군혼성 제101연대	유수명부(북선제3군혼성 제101연대제34군예하부대)
2312	평산동춘	강원도횡성	1912	일본좌하현암곡탄광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좌하현1/2)
2313	평산동필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융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314	평산병섭	강원도횡성	1927	조선함흥제74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2315	평산병섭	강원도횡성	1927	중국지나지나파견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파견군직할부대-중지)
2316	평산봉정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2317	평산성순	강원도횡성	1924	중국대만제10방면군	유수명부(대만제10방면군)
2318	평산성순	강원도횡성	1924	중국대만제10방면군	유수명부(대만제10방면군)
2319	평산성순	강원도횡성	1924	중국대만제10방면군	유수명부(대만제10방면군)
2320	평산의순	강원도횡성	1921	조선남선제17방면군 조선육군화물창창고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조선육군화물창)
2321	평산의웅	강원도횡성	1918	보병제79연대보충대 제3기관총중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2322	평산의웅	강원도횡성	1918	중국지나지나파견군제6방면 제20군예하부대(중지)	유수명부(지나지나파견군 제6방면군제20군예하부대중지)
2323	평산의웅	강원도횡성	1918	중국상음(湘陰)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충청북도,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324	평산재수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2325	평산진선	강원도횡성	1919	일본복강현주식회사 도류철공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복강현2/2)
2326	평산창균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2327	평산현각	강원도횡성	1923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2328	평산현덕	강원도횡성	1923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2329	평소근배	강원도횡성	1917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330	평소만복	강원도횡성	1915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331	평소명구	강원도횡성	1922		군인·군속사몰자명부
2332	평소명균	강원도횡성	1922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333	평소명균	강원도횡성	1922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2334	평소삼만	강원도횡성	1905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335	평소예중	강원도횡성	1919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336	평소예중	강원도횡성	1919	남양투르크(도라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2337	평소진구	강원도횡성	1924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이력원료
2338	평소창광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339	평소태성	강원도횡성	1923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340	평소태원	강원도횡성	1929	조선선제2항공군	유수명부(선제2항공군)
2341	평소희구	강원도횡성	1919	조선제5항공군(남선)	유수명부(선제5항공군남선)
2342	평암중응	강원도횡성	1922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343	평야만호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공병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 포공통신치중병보충대병사부지기사 령부육군병원)
2344	평야선호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보병제2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 보병제1,2보충대)
2345	평야선호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제58군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제58군예하 제96,111,121사단독혼제108여단)
2346	평원금룡	강원도횡성	1919	남양루손섬중부(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347	평원금용	강원횡성군	1919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348	평원연성	강원도횡성		남양남방남방군제8방면군 제20사단	유수명부 (남방남방군제8방면군제20사단)
2349	평원연성	강원도횡성		남양인도네시아뉴기니아관 정천(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2350	평정호승	강원도횡성	1923	중국대만고웅층(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1/10 (구일본육군제적)-경기도강원도
2351	평정호승	강원도횡성	1923	조선남선제17방면군 경성사관구공병보충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경성사관구 포공통신치중병보충대병사부지구사 령부육군병원)
2352	평천선강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353	평천영석	강원횡성군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354	평천영석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정기료 (日本吳海軍工廠正氣療)	구레(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2355	평천용주	강원도횡성	1912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356	평천지사	강원횡성군	1927	조선진해경비부	구해군군인인력원표
2357	평천지사	강원도횡성	1927	남양마시해협(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2358	평천호연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359	평판복준	강원횡성군	1919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360	평해오룡	강원도횡성		남양남방남방군마래부로 수용소	유수명부 (남방남방군마래조외부로수용소)
2361	평해의한	강원도횡성	1920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362	포산규우	강원횡성군	1905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363	포산규우	강원도횡성	1905	남양투르크(도라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제적)-경기도강원도
2364	포산영국	강원도횡성	1923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365	포산정광	강원도횡성	1917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366	포산치도	강원도횡성		중국지나파견군 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파견군 직할부대-중지)
2367	포산치도	강원도횡성		보병제41연대보충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368	포산희민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369	포상제구	강원도횡성	1924	중국관동군직할근무대	유수명부 (관동군관동군직할근무대축성대)
2370	풍덕계	강원도횡성	1924	중국관동군직할근무대	유수명부 (관동군관동군직할근무대축성대)
2371	풍양상교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372	풍전귀현	강원도횡성군	1914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373	풍전오장	강원도횡성	1922	일본복강현일본통운주식회사 박다지점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복강현2/2)
2374	풍전치운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2375	풍천현규	강원도횡성	1921	일본병고현천기중공업제철소 즙합공장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1/3)
2376	풍춘만호	강원도횡성	1913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2377	필계달시	강원도횡성군	1922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378	하강구철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2379	하강규승	강원도횡성	1925	조선선제2항공군	유수명부(선제2항공군)
2380	하강규학	강원도횡성	1913	일본병고현일야제강주식회사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병고현3/3)
2381	하강수석	강원도횡성		남양선제3항공군(남서)	유수명부(선제3항공군-남서제4항공 군-비도제6비행사단-호북제31군-중 부태평양제32군-충승)
2382	하강영석	강원도횡성	1926	남양필리핀(체포장소)	부로명표N2/2책
2383	하강종현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58사단직할부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58군직할부대)
2384	하본재술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385	하이양송	강원도횡성군	1928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386	하 양 수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387	하춘동수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2388	학성봉상	강원도횡성군	1921	일본좌세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389	학성봉상	강원도횡성	1921		군인·군속사물자명부
2390	한 관 현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391	한 광 희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동 원 지	명 부 명
2392	한 만 수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393	한 만 호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394	한 병 석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395	한 병 수	강원도횡성	190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396	한 복 수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397	한 복 현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398	한본용국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 (남선제17방면군제1특설근무대(2))
2399	한본용성	강원도횡성	1922	보병제74연대보총대	유수명부(보병제74연대보총대)
2400	한본용성	강원도횡성	1922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60사단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제160사단)
2401	한 상 록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02	한 상 목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03	한 상 인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04	한 상 준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05	한 상 준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06	한 상 환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07	한 성 석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08	한 성 언	강원도횡성군	1912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409	한 성 운	강원도횡성	189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10	한 세 회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11	한송병선	강원도횡성군	1919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412	한송병선	강원도횡성	1919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재적)-경기도강원도
2413	한 양 우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14	한 연 호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15	한 영 복	강원도횡성군	1915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416	한 영 순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17	한 영 준	강원도횡성	1923	공병제30연대보총대제1중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2418	한 영 준	강원도횡성	1924	중국지나북지방면군제43군 예하부대	유수명부 (지나북지방면군제43군예하부대)
2419	한 영 준	강원도횡성	1923	중국지나과건군직할부대 (중지)	유수명부 (지나지나과건군직할부대-중지)
2420	한 영 준	강원도횡성	1923	중국(中國)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421	한 완 식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22	한 용 순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23	한 재 근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24	한 정 희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25	한 제 로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26	한 제 춘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27	한 태 년	강원도횡성	192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28	한 필 수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29	함 광 섭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30	함 광 하	강원도횡성	189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31	함 길 선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32	함 도 섭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33	함 병 국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34	함 병 대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35	함 봉 희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36	함양기봉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2437	함 완 수	강원도횡성	191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38	함 응 섭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39	함 일 석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40	함 재 근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41	함 재 길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42	함 진 섭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43	함천근섭	강원도횡성	1920	남양도서도서군	유수명부(도서도서군)
2444	함천근섭	강원도횡성	1920	보병제79연대보충대제7중대	병적전시명부강원도4/4책
2445	함천근섭	강원도횡성	1920	남양파라오(パラオ)	조선인육군군인조사(3)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2446	해도인봉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447	해본종광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448	해오찬섭	강원도횡성	1924	조선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	유수명부(남선제17방면군 제1특설근무대(2))
2449	해원양휘	강원도횡성군	1921	일본무학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동 원 지	명 부 명
2450	해천원덕	강원도횡성	1924	조선북선남사관구보병 제1보충대	유수명부(북선남사관구사령부보병 제1보충대)
2451	해천원진	강원도횡성	1924	조선북선남사관구보병 제1보충대	유수명부(북선남사관구사령부보병 제1보충대)
2452	향산응호	강원도횡성	1919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453	허 만 봉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54	허 만 수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55	허 만 중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56	허 명 선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57	허 범 구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58	허 상 기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59	허 수 창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60	허 순 구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61	허 식	강원도횡성	1917	일본회복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복현장야현)
2462	허 영 구	강원도횡성군	1912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463	허 영 구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64	허 영 구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65	허 옥	강원도횡성	189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66	허 용	강원도횡성	189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67	허 은 봉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68	허 을 선	강원도횡성	191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69	허 장 산	강원도횡성	190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70	허 천 도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71	허 춘 구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72	허 태 생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73	허 필 구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74	허 필 순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75	허 학 룡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76	허 홍 범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경기도)
2477	허 환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78	홍 대 선	강원도횡성	1919	일본복강현적지광업소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79	홍 대 연	강원도횡성	1921	일본복강현적지광업소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480	홍 덕 원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81	홍 봉 표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82	홍 선 표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83	홍 성 만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84	홍 순 극	강원도횡성	191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85	홍 순 대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86	홍 순 봉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87	홍 순 봉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88	홍 순 석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89	홍 순 성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90	홍 순 철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91	홍 승 표	강원도횡성	191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92	홍 영 출	강원도횡성	1914	일본구주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93	홍 용 표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94	홍 원 표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95	홍 인 복	강원횡성군	1919	일본이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2496	홍 인 복	강원도횡성	1919	남양페리류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6/10 (구일본해군재적)-경기도강원도
2497	홍 인 복	강원도횡성	1919		군인·군속시물자명부
2498	홍 인 화	강원도횡성	189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499	홍 재 삼	강원도횡성	188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00	홍 재 요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01	홍 재 호	강원도횡성	187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02	홍 정 호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03	홍 종 대	강원도횡성	190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04	홍 종 목	강원도횡성	1920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05	홍 종 문	강원도횡성	192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06	홍 종 태	강원도횡성	190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07	홍 종 호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08	홍 준 표	강원도횡성	1918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09	홍중순극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2510	홍촌정범	강원횡성군	1922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구분	성명	본적지 (도·군)	출생 연도	등 원 지	명 부 명
2511	홍촌치범	강원도횡성		일본오해군공창복포제2기숙 사불이료(日本吳海軍工廠福 浦第2奇宿舍不二療)	구래(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2512	홍 해 길	강원도횡성	190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13	홍 현 봉	강원도횡성	1919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14	황 금 성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15	황 금 성	강원도횡성	191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16	황 기 윤	강원도횡성	1915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17	황 동 한	강원도횡성	1926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18	황 만 기	강원도횡성	1904	일본구주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19	황 복 남	강원도횡성	1923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2520	황 봉 수	강원도횡성	1922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21	황 봉 수	강원도횡성	1904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22	황 선 남	강원도횡성	1923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23	황송강선	강원도횡성	1919		군인·군속사물자명부
2524	황 역 만	강원도횡성	1913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2525	황 옥 만	강원도횡성	191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26	황 인 진	강원도횡성	191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27	황 천 만	강원도횡성	1907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28	황 호 만	강원도횡성	1901		왜정시피징용자명부(강원도)
2529	황전윤국	강원도횡성	1924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2530	황천기봉	강원도횡성		제5농경근무대	유수명부(제5농경근무대)
2531	황천봉진	강원도횡성	1922	일본회목현고하광업주식회사 죽미광업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회목현장야현)
2532	황천홍진	강원도횡성	1927	일본장기현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장기현1/2)
2533	홍산기선	강원도횡성군	1920	일본오진수부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 부록 3 | 횡성출신 독립유공자 명부

구분	성 명	포상훈격	포상연도	공 적 정 보
1	강성순 (姜聲順)	대통령표창	1977	- 공훈록에는 강승문(姜勝文)이라 기록되어 있음. - 천도교(天道敎)인. - 1919년 4월 1일, 횡성 장날에 일어난 대규모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헌병들의 발포로 순국.
2	고광수 (高光洙)	애 족 장	2007	- 1921년 3월 1일, 3·1운동기념 선전문을 인쇄하여 배포한 사실로 인해 서울에서 3개월간 복역. - 출소 이후, 북간도 및 러시아 등지로 망명. - 1929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중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을 받음. - 고문 후유증으로 1930년 2월 5일 사망.
3	김명서 (金明瑞)	애 족 장	2015	- 1907년,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 최인순 및 정병화 의진(義陝)에 참여하여 활동. - 의진에서 군수물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하던 중 체포되어 1909년 2월 경성지방재판소에서 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름.
4	김성근 (金聲根)	독 립 장	1963	- 3·1독립운동 당시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임시의정원 함경도 대표 의원으로 활동. - 1919년 6월, 구국모험단의 단장이 되어 폭탄제조기술을 익히고 무장항일투쟁 전선에 참여. - 1920년 1월, 김원봉의 의열단 조직을 지원. - 1921년, 외교연구회원이 되어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하던 중 불미스러운 일로 1925년 상해를 떠나 귀국.
5	김성서 (金聖西)	애 족 장	2002	- 1919년 4월 1일, 횡성 장날에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음.
6	김옥봉 (金玉鳳)	대통령표창	2007	- 1919년 4월 12일, 횡성군 서원면 분일리(현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일대에서 송병기 등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선고 받음.
7	김윤배 (金允培)	대통령표창	2006	- 1919년 4월 1일, 횡성 장날에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선고 받음.
8	김인즙 (金仁澑)	애 족 장	1990	- 1905년 독립협회 간사로 활동하던 중, 을사조약 반대 투쟁을 위해 일본헌병 2개 소대와 대적·항거하다가 체포됨.
9	김인향 (金麟鄉)	대통령표창	2011	- 1919년 3월 21일, 횡성군 영영포리에서 독립선언서를 동료천도교도들에게 배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음.

구분	성명	포상훈격	포상연도	공적정보
10	김준경 (金駿卿)	애족장	1990	- 1945년 2월, 광복군 제1지대에 입대하여 항일활동 전개.
11	남상정 (南相楨)	애족장	1992	- 1920년 6월, 중국 동삼성 유하현에 본부를 둔 조선독립단(대한독립단 추정)에 입단하여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던 중 체포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음.
12	박내원 (朴來元)	애족장	1995	- 1908년 12월-1909년 8월의 기간 동안 이교영의진에 소속되어 경북 풍기·안동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던 중 체포되어 유행(流刑) 7년을 받음.
13	박민희 (朴民喜)	대통령표창	1992	- 1919년 4월 12일, 황성군 서원면 분일리에서 주민 50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선고 받음.
14	박봉수 (朴鳳洙)	애족장	1990	- 1932년 6월, 국민부 조선독립군의 일원으로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던 중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음.
15	박영묵 (朴永默)	애국장	1990	- 1896년 을미의병 당시 강원도 의병장으로 활약. - 1910년 국권피탈 이후, 남만주로 망명하여 1916년 사망 때까지 항일운동을 전개.
16	백흥기 (白興基)	애족장	1990	- 민족주의 비밀결사 상록회의 도서부장으로 독립운동 활동을 하던 중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음.
17	송병기 (宋秉箕)	애족장	1992	- 1919년 4월 12일, 황성군 서원면 분일리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미결 기간까지 합산하여 11월 간의 옥고를 치름.
18	신재근 (申在根)	애족장	2002	- 1919년 3월 10일, 황성군 영영포리 자신의 집에서 장도훈과 독립만세운동을 논의. - 같은 달 27일 황성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선고 받음.
19	심재진 (沈在震)	애족장	1990	- 1941년 3월 춘천중학교 재학 중에 여운형으로부터 독립사상에 감화, 독서회운동 및 항일 활동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을 선고 받아 옥고를 치름.
20	안승훈 (安承勳)	애족장	1990	- 1919년 3월 27일, 황성장터에서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주민 다수를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선도하다가 체포당하고,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음. (미결기간을 합산하여 총 11월 4일간 옥고를 치름)
21	엄봉진 (嚴奉眞)	애국장	2015	- (연도미상) 강원도 지역에서 서운선, 탁한중 등과 함께 의병진에 가담하여 활동 중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음.



구분	성 명	포상훈격	포상연도	공 적 정 보
22	원후정 (元厚貞)	애 족 장	1990	- 춘천고교 재학 당시 항일운동을 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3년형, '폭력행위 억제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2년형을 받고 복역.
23	유정근 (柳定根)	대통령표창	1992	- 1919년 4월 12일, 황성군 서원면 분일리에서 주민 50여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징역 7월을 선고 받음.
24	이구채 (李球采)	애 족 장	2007	- 1896년, 안승우의병진에서 활약. - 1907년 이후부터 의병장이 되어 춘천·인제·강릉 및 경기도 여주 등지의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항일활동을 전개.
25	이동구 (李東求)	애 국 장	2001	- 1922년 7월 14일,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고려혁명위원회의 국내조직위원으로 활동. - 1926년 3월, 최동희 등과 함께 중국 길림에서 고려혁명당을 결성. - 고려혁명당 활동 중에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4년 7개월간 복역.
26	이두연 (李斗淵)	대통령표창	1992	- 1919년 4월 12일, 황성군 서원면 분일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선고 받음.
27	이종우 (李鍾禹)	대통령표창	1992	- 1919년 4월 12일, 황성군 서원면 분일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선고 받음.
28	이창범 (李昌範)	대통령표창	1963	- 1945년 6월,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 - 같은 해 7월, 국내정진대 교육훈련반으로 편입되어 활동.
29	전성수 (全聖洙)	대통령표창	2013	- 1919년 4월 1일, 황성내내 시장에서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선고 받음.
30	정해경 (鄭海璟)	애 족 장	2010	- 1919년 4월, 황성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음.
31	조광보 (趙光補)	애 국 장	1990	- 1911년 11월, 경북 봉화군에서 군도를 소지하고 의병임을 알리며 군사금 모금을 하던 중에 일본 경찰에게 체포됨. - 1912년 5월,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음.
32	조상렬 (趙常烈)	대통령표창	2010	- 1919년 4월, 황성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선고 받음.

구분	성명	포상훈격	포상연도	공적정보
33	천선재 (千善在)	애족장	2002	- 1919년 4월 8일-10일, 영월군 법흥리의 최춘일 등을 만나 독립만세운동을 권유하는 활동을 벌이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음.
34	최인순 (崔仁舜)	애국장	1990	- 원주 이참령(李斬嶺)대대의 소모장(召募將)으로 활약. - 1907년, 800여명의 군사를 정비하고 의병을 모집하여 의병장으로 활약. - 진부에서 일본군과 교전한 후, 강릉 배다리 작전을 지휘하다가 전사.
35	최종하 (崔宗河)	대통령표창	1992	- 1919년 3월 13일, 천도교 횡성군 대교구장으로 있으면서 독립만세운동을 거사하기 위해 독립선언서 10매를 제작, 김인경에게 배부를 지시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음.
36	탁영의 (卓英儀)	애족장	1990	- 1943년 10월, 일제에 징집되어 중국으로 파견 - 일본군 남경지구에 배속되어 있다가 중국 중경에 광복군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광복군으로 입대하기 위해 탈출. 중국군 유격대에 가담하게 됨. - 1945년 4월, 토교대(土橋隊)에 입대하여 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에 배속. 4개월간 복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
37	탁영재 (卓英才)	건국포장	1995	- 1919년 3월 27일, 횡성 장날을 이용한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 - 칠원애국단에 가입하여 상해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다가 체포됨.
38	탁한중 (卓漢宗)	애국장	2015	- 1910년을 전후하여 강원도 지역에서 서운선 등과 함께 의병진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체포, 무기징역을 선고 받음.
39	한상열 (韓相烈)	독립장	1963	- 1907년 8월, 횡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지평·홍천·평찬 등지에서 벌인 일본군과의 교전이 500회에 이룸. - 1908년 2월, 홍천에서 일본군과 크게 교전하고, 같은 해 4월에는 일본 횡성수비대와 교전. - 1920년, 만주로 건너가 대한의용부 참모로 활동. - 1926년 2월, 대한독립단 참모로 임명되어 활동한 지 7개월 만에 주중청총(駐中靑總, 공산당)에게 피살됨.



김 동 정

〈약력〉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전임연구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겸임교수  
 강릉원주대·강원도립대·중앙대 등 외래교수  
 강원도인재개발원·강원여성대학·한국분권아카데미 강사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디지털강릉문화대전 집행위원  
 강원경찰전사 감수위원  
 강릉경찰70년사 집필 및 감수위원  
 2014 강원민속문화의 해 사업추진실무위원  
 강릉소방50년사 감수위원  
 강원도청 강원도사면찬위원회 상임위원  
 강원도의회60년사 자문위원  
 강릉학도의용군사 집필위원(현)  
 원주문화원 이사(현)  
 의암학회 이사(현)

〈저서〉

『역사와 문화』(공저)  
 『정선군지』(공저)  
 『국역 봉서유고』(공역)  
 『역주 자치통감』(32책, 공역)  
 『강원의 역사와 문화』(전차책, 공저)  
 『국역 의암집』(공역)  
 『국역 습재선생문집』(공역)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황성전투』  
 『황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  
 『강릉경찰70년사』(공저)  
 『양구군지』(공저)  
 『인제군지』(공저)  
 『강원도사』(1~21, 공저)  
 『황성인 최양욱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  
 『황성지역전투에 참여한 의병장과 봉복사』  
 『황성3·1운동 주도인물 재조명』  
 그 외 논문 다수

향토사료 제34집

황성지역에서의 의병전투와 독립운동

인쇄일 | 2018년 12월 28일

발행일 | 2018년 12월 28일

발 행 | 황성문화원 박 순 업

강원도 황성군 황성읍 앞들서3로 6 (033)343-2271

편저자 | 김 동 정

기 획 | 민 준 식

인쇄처 | 강원도민일보 출판국 (033)260-9400

ISBN 978-89-6602-127-7

〈비매품〉

